

멕시코

정보수정일자: 2014. 9.

작성처: 멕시코시티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The logo for KOTRA (Korea Trade Promotion & Agency) is displayed in a blue, lowercase, sans-serif font.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정치사회동향 / 3
- 한국과의 주요이슈 / 12

II. 경제

- 경제지표 DB / 18
- 경제동향 및 전망 / 19
- 주요 산업 동향 / 22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34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 38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43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 45
 - 대한수입규제동향 / 55
 - 관세제도 / 59
 - 주요인증제도 / 61
 - 지식재산권 / 72
 - 통관절차 및 운송 / 81
- 3. 무역환경**
 - 수출유망품목 / 87
 - 시장특성 / 91
 - 바이어 발굴 / 95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98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103
 - 수출 성공실패 사례 / 105
 - 수출 시 애로사항 / 108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110
- 투자 인센티브 제도 / 112
- 외국인 투자동향 / 117
- 한국기업 투자동향 / 122
- 한국기업 진출현황 / 124
- 투자 진출 성공실패사례 / 125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 127
- 투자방식 / 130
- 투자진출 형태 / 132
- 진출형태별 절차 / 136
-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 141
- 투자입지여건 / 145
-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150

3. 사업관리

- 노무관리제도 / 153
- 조세제도 / 162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172

V. Business 참고정보

- 물가정보 / 176
-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 178
- 비즈니스 에티켓 / 187
- 이주정착 가이드 / 190
- 생활여건 / 195
- 취향정보 / 203
- 출입국 및 비자제도 / 205
- 관광, 호텔, 식당, 통역 / 214
-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 228
- 유관기관 웹사이트 / 234
- KOTRA 무역관 안내 / 241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멕시코 / 메히꼬(MÉXICO) 멕시코는 영어식 발음이며 원어로는 메히꼬임
위 치	북으로는 미국과 접경(3,326km), 남으로는 과테말라 및 벨리즈 등과 접경
면 적	1,964,375 km ² (세계 15위 규모로 한반도의 약 9배, 남한의 약 20배 크기)
기 후	멕시코는 고지대와 저지대로 나뉨. 저지대는 고온 다습, 고지대는 온난 건조
수 도	멕시코시티(CIUDAD DE MÉXICO / D.F), 면적 1,547km ² , 해발 2,308m
인 구	총 1억 1,563만 9,915명 ('12년 기준)
주요도시	과달라하라 (제2도시/ 4.3백만 명), 몬테레이 (제3도시/ 3.8백만 명)
민족(인종)	혼혈(MESTIZO) 60%, 원주민(INDIJENA) 30%, 백인 9%, 기타 1%
언 어	스페인어
종 교	가톨릭 83.9%, 신교 7.6%, 무신론자 4.6%, 기타 2.5%, 무응답 1.4%
건국(독립)일	1821년 9월 16일(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실권자)	Enrique Peña Nieto 대통령('12. 12. 1일 취임)
입법부	양원제(상원 128석, 하원 500석)
정 당	여당: 제도혁명당(PRI) / 야당: 국민행동당(PAN), 민주혁명당(PRD) 정부성향: 친미 온건 우경

자료: 멕시코 통계청, IMF, EIU, CIA

나. 경제 지표

GDP	1조 247억 달러('12), 1조 1,224억 달러('13)
실질경제성장률	3.8%('12), 0.6%('13.1Q), 1.6%('13.2Q), 1.4%('13.3Q), 0.7%('13.4Q)
1인당GDP(명목)	15,312달러('12), 15,607달러('13)
실업률	5.0%('12), 4.9%('13)
물가상승률	4.1%('12), 3.8%('13)
화폐단위	페소(\$)/peso
환 율	1달러= 13.29 페소('14.08.08)
외 채	2,760억 달러('12)
외환보유고	1,424억 달러('12), 1,765억 달러('13)
산업구조	1차 산업 3.66%, 2차 산업 33.50%, 3차 산업 62.84%
교역규모	수출 3,709억 1,500만 달러, 수입 3,707억 5,200만 달러, 무역흑자 1억 6,000만 달러('12), 수출 3,801억 달러, 수입 3,812억 달러, 무역적자 11억 달러 ('13)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종 수출품목: 자동차 및 엔진, 컴퓨터, 전자제품, 석유, 의류, 농산물 ○ 주종 수입품목: 자동차 부품, 컴퓨터 및 전자부품
------------	--

자료: KITA, 멕시코 중앙은행, IMF, EIU, 멕시코 통계청

다. 한-멕시코 관계

체결협정	문화협정('66.4), 무역협정('66.12), 일반사증면제협정('79.4), 항공협정 ('89.11),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89.11), 이중과세방지협정('94.9), 범죄인 인도 협정('96.11), 외교관용 사증 면제협정('97.6), 투자 보장협정('00)
교역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멕시코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억 2,300만 달러('11년), 90억 4,200만 달러('12년), 97억 2,700만 달러('13년), 52억 1477만 달러('14년 상반기) ○ 대 멕시코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억 1,600만 달러('11년), 25억 9,100만 달러('12년), 23억100만 달러('13년), 16억 497만 달러('14년 상반기) ○ 무역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억 1,300만 달러('11년), 64억 5,000만 달러('12년), 74억 2,600만 달러('13년), 36억 980만 달러('14년 상반기)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멕시코 주종 수출 품목: 평판디스플레이, 전자제품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승용차, 냉연강판, 선박 등 ○ 대 멕시코 주종 수입품목: 아연광, 강반제품, 무선통신기기부품, 기타 금속 광물, 자동차 부품, 승용차 등
투자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8. 1~2014.06통계(실· 투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멕시코진출224사 681건, 28억 601만 달러 ○ 2012. 1~2012. 12 통계(실· 투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멕시코 송금 46건, 진출 8개사, 5억 1,641만 달러 ○ 2013.1~2013.12 통계(실· 투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멕시코 송금 52건, 진출 14개사, 6억 9,095만 달러
교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민 수 12,000 여명, 일반 체류자 400명(유학생 포함) ○ 한인 후손 5,000세대(1905년 멕시코 이주 한인 1,033명의 후손, 멕시코 국적 소지)

자료: KITA, 수출입은행, 멕시코 경제부

최종확인일: 2014.08.12

2. 정치사회동향

가. 멕시코 역사

1) 고대 문명

- B.C 3000년 경: 정착생활 및 농경 문화 시작
- B.C 1500년 경: 올메카 Olmeca 인들이 최초로 문화권을 형성
- 1521년 스페인 정복 이전: 마야 Maya , 아즈테카 Azteca 등 원주민 문화 발달
- 1521년: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테카를 정복, 이후 스페인이 300년간 통치

2) 독립 이후

- 1810년 9월 16일: 미겔 이달고 Miguel Hidalgo 신부에 의해 독립 운동 시작
- 1821년: 멕시코 독립 달성
- 1848년: 1845년에 발발한 멕-미 전쟁에서 패배하여 아리조나 Arizona, 뉴멕시코 New Mexico, 캘리포니아 California 등 당시 국토의 절반 정도를 미국에 전쟁 보상금으로 이양
- 1858년: 원주민 출신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are) 초대 대통령에 당선, 자유주의 개혁을 단행
- 1863년 ~ 1867년: 프랑스군이 멕시코를 점령, 나폴레옹 3세가 내세운 막시밀리안 Maximilian 황제가 1867년까지 멕시코를 통치
- 1876년 ~ 1911년: 포르피리오 디아스 Porfirio Diaz 대통령이 1876년부터 멕시코 혁명으로 실각한 1911년까지 철권정치를 전개, 이 시기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도로, 항망, 철도 등 사회기간시설을 확충하였음.

3) 멕시코 혁명 이후

- 1910년: 디아스 독재체제에 대항하여 멕시코 혁명이 발발, 토지를 수탈당한 원주민 및 메스티조 농민과 노동자가 반군 진영에 합세 하였음.
- 1911년: 디아스 대통령이 실각하면서 해외로 망명, 이후 혁명 지도자였던 프란시스코 마데로 Francisco Madero 가 대통령에 취임하였음.
- 1934년 ~ 1940년: 라사로 까르데나스 Lazaro Cardenas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서 석유산업 국유화와 강력한 토지개혁을 실시, 멕시코 특유의 국가조합주의인 코포라티즘 체제를 통해 제도혁명당 PRI의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음.
-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전쟁의 영향에 따른 멕시코 상품 수출의 대폭 확대로 산업발전 및 고용증진을 가져와 멕시코 경제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음.

- 1970년 ~ 1982년: 루이스 에체베리아 Luis Echeverria 대통령과 로페스 보르띠요 Lopez Portillo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석유산업 위주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석유붐에 편승한 무분별한 해외차입 증대, 국제유가 하락과 국제금리 상승, 국내자본의 해외도피 등으로 인해 1982년 외채위기 발생.
- 1988년~1994년: 살리나스 정부 과장한 시장 개방(FTA체결 등) 및 민영화, 규제완화 정책 시행
- 1994년: 1994년 1월 차아파스 지역에서 사파티스타 민족 해방군 무장 봉기 발발, 12월 세디요 Sedillo 대통령 취임 직후에 외환위기 발생.
- 2000년: 국민행동당 PAN의 비센테 폭스 Vicente Fox 대통령 취임으로 71년만의 여-야 정권교체가 실현되었음.
- 2006년: 폭스 정권 당시 에너지 장관을 역임하였은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on)이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국민행동당의 연이은 집권이 성공하였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 2009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락과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한 경제 활동 감소 및 관광업 위축 등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 기록.
- 2012년: 7월 대선 결과 제도혁명당 후보인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어 12월 1일부터 임기 6년의 대통령직에 취임.

나. 정부형태

1) 행정부

□ 대통령

- 현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 Enrique Peña Nieto (제도혁명당 PRI, 임기 2012년 12월~ 2018년 12월)
- 대통령 선거 및 임기
 - 직접선거, 보통선거로 이루어짐
 -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금지되어 있음 (부통령 및 수상제도는 없음)
 - 대통령 유고시 의회에서 임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음

□ 주요부처

부처명	약칭	한글명	장관명
Secretaria de Gobernacion	SEGOB	내무부	Miguel Angel Osorio Chong
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	SRE	외무부	Jose Antonio Meade Kuriburena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SHCP	재무부	Luis Videgraray Caso

부처명	약칭	한글명	장관명
Secretaria de la Defensa Nacional	SEDENA	국방부	General. Salvador Cienfuegos Zepeda
Secretaria de Marina	SEMAR	해군부	Almirante Vidal Francisco Soberon Sanz
Secretaria de Economia	SE	경제부	Ildefonso Guajardo Villarreal
Secretaria de Desarrollo Social	SEDESOL	사회개발부	Rosario Robles Berlanga
Secretaria de Comunicaciones y Transportes	SCT	통신교통부	Gerardo Ruiz Esparza
Secretaria de Trabajo y Prevision Social	STPS	노동복지부	Jesus Alfonso Navarrete Prida
Secretari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SEMARNAT	환경부	Juan Jose Guerra Abud
Secretaria de Energia	SENER	에너지부	Pedro Joaquin Coldwell
Secretaria de Agricultura, Ganaderia, Desarrollo Rural, Pesca y Alimentacion	SAGARPA	농축수산부	Enrique Martinez y Martinez
Secretaria de Educacion Publica	SEP	교육행정부	Emilio Chuayffet Chemor
Secretaria de Salud	SSA	보건부	Mercedes Juan Lopez
Secretaria de Turismo	SECTUR	관광부	Cludia Ruiz Massieu Salinas
Secretaria de la Reforma Agraria	SRA	농지개혁부	Jorge Carlos Ramirez Marin
Procuraduria General de la Republica	PGR	검찰청	Jesus Murillo Karam
Comision Federal de Electricidad	CFE	연방전력공사	Francisco Rojas Gutierrez

2) 사법부

□ 대법원

-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됨. (대법관 임기 15년, 연임 불가)
-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 인준이 필요
- 대법원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 불가
- 대법원장은 임기가 개시되는 해 1월일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

□ 고등법원

- 11개 순회 재판소로 구성
- 6개는 일반, 민사,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5개는 인권보호 재판소

□ 지방법원

- 각 지방에 소재하고 있음

3) 의회

□ 상원

- 의석 수: 96석 (32개 주에서 각 3명씩 직선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32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며, 3년마다 1/2씩 교체)
- 임기: 6년, 연임불가
- 주요 권한: 외교정책 검토, 행정부 주요인사 (장관, 대사, 장성 등) 임명 인준, 대통령의 전쟁선포 사전승인 (하원의 동시 승인 필요), 군대의 해외파견 승인, 조약비준, 요청이 있을 시 행정부간의 분쟁 조정, 고위 공직자 부정 심판소 재판관 선출, 대법관 임명 인준 등

□ 하원

- 의석 수: 500석(300석은 직선, 200석은 비례대표제 선출)
- 임기: 3년, 연임불가
- 주요 권한: 일반 입법활동, 예산 심의, 상원에서 인준된 행정부 주요인사 인준, 대통령의 전쟁선포 사전 승인 등

다. 정치 동향

□ 2012년 7월, 엔리께 빼냐 니에또 대통령 당선

2012년 7월 대선에서 제도혁명당은 12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았다. 이로써 과거 71년간 장기 집권했던 제도혁명당이 다시 여당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인 엔리께 빼냐 니에또는 각종 금품 살포 및 여론조작으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받아, 로페스 오브라도르(당시 민주혁명당 대표)가 앞장서 제기하였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006년 대선에서 펠리페 깔데론에게 아쉽게 대통령 자리를 내어준바 있으며 선거 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선거 이후, 엔리께 빼냐 니에또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멕시코 헌법재판소는 선거결과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2013년 5월, 멕시코 국가발전 계획 발표

2013년 5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2013-2018 멕시코 국가발전 계획(PND; Plan nacional de Desarrollo)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현 정부의 6년간의 국정운영 목표와 전략정책, 실천행동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약 3개월 간 인터넷 설문조사(약 13만 명 참여), 5개 연방정부 순회 설명회 및 32개 자치구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동 계획은 '멕시코의 최대 잠재력 도달'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1. 생산성 민주화 2. 현대적이고 국민과 가까운 정부 3. 양성 평등이라는 3개의 교차전략을 통해 5대 국정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31개 하위목표와 118개 세부전략, 818개의 행동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 2013-2018 멕시코 교통, 통신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멕시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2013년 7월, 6년간 4조 멕시코 페소(약 3,15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포함한 2013-2018 교통, 통신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임기기간인 2018년까지 민간, 공공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그 동안 인프라 관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교통, 통신 인프라 투자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동 투자 계획이 실현될 경우,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3년 8월, 멕시코 에너지 개혁안 발표

2013년 8월 멕시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에너지 산업 민간 개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헌법 27조(민간기업의 에너지 산업 진출 금지)와 헌법 28조(에너지 산업의 국유화)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멕시코 에너지 산업 진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동 개혁안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전면 개방이 아니라, 조인트 벤처 계약 등을 통한 수익 분배 방식으로만 진출이 가능하며, 멕시코 영토 내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국가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 2013년 10월, 재정개혁안 의회 통과

2013년 10월 30일 멕시코 재정개혁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최종 확정된 부문은 부가가치세법,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연방 수수료법, 연방재정조정법, 관세법, 재정 계획 및 책임법 개정안, 2014년 연방세입법안 등이다. 기존에 연 50만 멕시코 페소 이상 개별 소득자에게는 30%의 동일 세법을 부과했던 것과는 달리 소득에 따라 31~35% 차등적용 된다. 또한 높은 비만율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량음료 리터당 1페소(약 0.08달러)의 세금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경지역에만 적용되던 11% 부가세 제도가 폐지되어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16%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며, 마킬라도라 산업의 임시수입 제도를 통한 부가세 면제제도가 폐지되고, 부가세 지불 후 공제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동 법안으로 멕시코 국경지역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추후 멕시코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2014년 2월 멕시코 재무부 조세 안정화 합의

2014년 2월 27일 멕시코 내 주요 부처(재무부, 경제부, 내무부, 외교부, 관광부) 장관들은 '멕시코 번영을 위한 특별 내각' 회의를 통해 2018.11.30(현정부 임기 종료일)까지 신규조세창설 중단, 조세율 증가 중단, 현재의 면세 및 혜택에 대한 변경 중단 등에 합의하였다. 연방정부는 확실성 증대, 투자 촉진 및 경제 성장을 위해 조세 체계를 바꾸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 멕시코 인프라 구축에 7조 7천억 페소 투자 계획 발표

2014년 4월 28일 멕시코 정부가 '2014-2018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El Programa Nacional de Infraestructura)'을 발표하였다. 동 인프라 프로그램의 총 투자 규모액은 7조 7천억 페소로, 약 5,900억 달러 규모에 달해 멕시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평가 받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전체 투자액 중 63%는 정부자금, 37%는 민간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동 프로그램은 에너지, 도시 발전 및 주거지, 교통통신, 수도시설, 관광, 보건 등 6개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총 743개 인프라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프라 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남부 및 남동부 지역, 총 9개주(캄페체, 치아파스, 게레로, 오아하사카, 푸에블라, 키타나루, 타바스코, 베라쿠르즈, 유카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시행할 방침이다. 멕시코 정부는 동 프로그램으로 인해, 2018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2% 가량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3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라. 멕-미 관계

1) 위키리크스 사건으로 미국 대사 변경

2011년 3월 카를로스 파스쿠알 주멕시코 미국대사는 위키리크스의 외교문서 유출사건으로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파스쿠알 전 대사는 외교 전문을 통해 멕시코 정부가 마약조직이 저지르고 있는 조직범죄를 척결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부패 역시 문제 삼았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집권 여당인 국민행동당은 물론 갈데론 대통령 역시 미국 방문 시 파스쿠알 전 대사와 함께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공개석상에서 불쾌한 어조를 드러내었다. 이번 위키리크스의 문서 공개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멕시코와 미국 양국 사이에 파문을 불러왔고 결국 파스쿠알 대사의 사퇴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현재 안토니아 가르자가 주멕시코 미국 대사직을 맡고 있다.

2) Fast and Furious 작전

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멕-미 관계는 “Fast and Furious” 작전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작전은 미국의 주류·담배·화기 단속국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에서 수행한 위장잡입 작전으로 멕시코의 마약조직 리더들을 소탕하기 위해 미국의 무기류를 불법으로 멕시코에 유통해 무기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2009년 10월에서 2010년 9월까지 멕시코로 넘어간 1,500~2,500개의 무기류 중 797개만이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유통경로가 추적되지 않고 있다. 이 작전은 사전에 멕시코 정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되었기에 이 작전이 알려지자 멕시코정부는 멕시코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

3) 오바마 대통령 멕시코 방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5월 멕시코를 방문하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양국 교역 증진과 경제 성장, 혁신 진흥을 위한 양국 고위급 경제 포럼을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마약상 퇴치를 위한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였다.

4) 멕시코에서 북미 정상 회담 개최

2014년 2월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스티븐 Harper 캐나다 총리,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 톨루카 지역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삼국 정상은 무역을 통한 경제 활성화, 북미 지역 경쟁력 향상 방안,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세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이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도 가졌다.

마. 사회 동향

1) 인구

멕시코는 1억 2,028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세계 11위, 중남미 2위의 인구 대국이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16%이며, 평균 수명은 75.4세 (남자 72.6세, 여자 78.3세)이고,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이 30.6%에 달하는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멕시코주가 단연코 1,563만 3,788명으로 1위를 차지하며, 멕시코 시티는 886만 5,660명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멕시코 제2의 도시로 손꼽히는 과달라하라를 주도로 삼은 할리스코 중의 경우 757만 8,608명을 기록하였으며, 멕시코 제3의 도시인 몬테레이가 있는 누에보레온 주의 인구는 484만 6,552명으로 멕시코 시티 및 멕시코 주, 할리스코주, 누에보레온 주의 인구를 모두 합치면 전체 인구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

2) 민족/언어/종교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 족인 메스티소가 60%, 원주민이 30%, 백인이 9%이다. 인구의 대부분이 혼혈이어서 멕시코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럽 문명과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 모두에서 찾고 있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지만 원주민들은 아직 나우아틀, 마야, 아즈테카, 사포테카 등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 국민의 77%가 가톨릭을 신봉하며 나머지는 개신교, 샤머니즘 등을 신봉하고 있다. 부활절 주간과 크리스마스가 가장 중요한 명절이자 휴가 기간이며, 결혼, 장례 등 의식 행사는 대부분 성당에서 거행되고 있다.

바. 멕시코 2012 대선 결과

1) 선거개요

- 일시: 2012.7.1(일) 08:00-18:00
- * 대통령, 상원의원(128명), 하원의원(500명), 멕시코시티시장 및 6개주지사 동시 선거
- 유권자수: 79,454,802명
- 성별: 남성 48.15%, 여성 51.85%
- 연령: 20대 29.98%, 30대 23.9%, 40대 18.65%, 50대 12.92%, 60대 이상 14.55%
- 후보: Enrique Peña Nieto(EPN), Josefina Vazquez Mota(JVM), Andres Manuel Lopez Obrador(AMLO), Gabriel Quadri de la Torre(GQT)

2) 선거결과

이번 선거에는 4,900만 명이 선거에 참여 62%의 선거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는 14만 여 개로 99.8%의 투표소 설치가 이루어졌다. 선거 참여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유카탄주로 74.5%에 달한 반면, 참여가 가장 낮은 지역은 치와와주로 52.2%의 선거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로 제도혁명당은 12년 만에 다시 정권을 탈환했으며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치안불안과 경제 불안정으로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있는 유권자들이 제도혁명당에 지지를 보내면서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18~29세의 젊은 층에서의 투표 독려율이 높았으며 이들은 #Yosoy 132운동을 통해 투표를 권장하고 젊은 층에서 변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정당 후보별 득표 현황 (2012. 7. 2. 발표 기준)

(단위: %)

정당	후보자	득표율
제도혁명당	Enrique Peña Nieto	38.6
민주혁명당	Andres Manuel Lopez Obrador	31.9
국민행동당	Josefina Vazquez Mota	26.0
연합정당	Gabriel Quadria de la Torre	2.57

자료: 멕시코 선거관리 위원회

정당별 의회 득표 현황 (2012. 7. 2. 현지 시각)

(단위: %)

상원		하원	
정당	득표율	정당	득표율
제도혁명당-녹색당	36.33	제도혁명당-녹색당	28.12
민주혁명당-노동당	26.33	국민행동당	28.12
국민행동당	16.33	민주혁명당-노동당	21.87

자료: 멕시코 선거관리 위원회

3) Enrique Peña Nieto의 공약

- 치안 불안 해결과 평화회복: 새로운 국가 전력을 구축, 전문 경찰 양성을 통해 각종 범죄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
-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과 함께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
- 양질의 교육확대
 -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과정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
 - 고등교육을 받는 인구를 45%까지 높일 예정
- 효율적인 정부 운영
 - 반 부패 국가위원회 창설
 - 하원의원 수를 100명 줄이고 성과를 내는 민주주의 정착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개요

1) 무역 / 통상

□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및 중남미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는 1988년 삼성전자의 티후아나 생산법인 투자가 효시이며,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함께 미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및 중남미 진출 전진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 한국의 무역흑자 6위국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는 한국의 수출 11위(97억달러), 무역흑자 6위(74억달러)의 교역대상국이다. 특히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중남미에서는 브라질(26.7%)보다 큰 수출 시장이며, 무역흑자 기준으로도 역시 중남미 최대 무역흑자 창출 국가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중남미 수출 확대를 위해 멕시코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루어내고 있다.

2) 정무 / 문화

□ 양 국민간 문화교류 증진 등 상호이해 및 협력 강화

멕시코는 중남미 대륙 최초의 한인 이주 및 정착국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K-POP, 한류 드라마에 열광하는 멕시코인들이 증가하면서, 양국간 문화 교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 경제협력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한국과 멕시코는 세계 10위 권의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서 UN< WTO, OECD, APEC, G20, FEALAC 등 국제 무대에서 인권, 안보, 개발, 환경, 노동, 금융위기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나. 최신 동향

1) 무역 / 통상

□ 한국 관세청, 선진 관세 행정기법 멕시코 등 중남미에 전수

관세청은 WCO와 공동으로 5월 27일부터 일주일간 멕시코 등 중남미 16개국을 초청하여, 「중남미 관세행정 현대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 참가자들은 AEO, RM 등을 주제로 각국 제도 비교, 분임토의 등을 통해 자국 관세행정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천공항세관, 국경관리연수원을 방문하여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운용현황과 여행자 검색기법 등 한국관세 행정을 현장에서 경험하였다.

□ 수출입은행 멕시코 인프라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 신용 지원

한국 수출입은행이 멕시코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00억 달러의 신용(Credit Line)을 개설하였다. 멕시코 농축수산부는 동 부서 홈페이지에서 “동 신용지원으로 인해, 멕시코석유공사 (PEMEX)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농업, 환경, 운송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멕시코 ‘성실 무역업체 상호 인정 협약’ 체결

2014년 3월 11일 한국과 멕시코 관세청이 성실 무역업체 상호 인정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자국에서 선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수출국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협약으로, 세관 통관 절차 시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에서 성실 무역업체로 인정받은 업체들은 멕시코 내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받아 세관 검사 시간 단축, 우선 검사 등을 통해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중남미 국가에서 성실 무역업체 상호 인정협약을 멕시코와 최초로 체결한 것이다.

□ 한국 식약처,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와 양해각서 체결

2014년 5월 27일,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멕시코 위생보호연방위원회(COFEPRIS)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관련 인허가 절차, 안전 및 품질관리분야, 사후관리 시스템, 품지관리, 정보교환과 인적 교류 확대 등이다. 특히 국내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업체들이 멕시코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식품 의약품안전처와 위생보호연방위원회 간 실무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2) 정무 / 문화

□ 한-멕시코 수교 50주년

○ 한-멕시코 수교 50주년 기념 우표 발행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와 멕시코 우정국과 함께 한국-멕시코수교 50주년 기념 우표 2종을 발행하였다. 기념 우표는 국제적 멸종위기인 ‘귀신고래(Gray Whale)’를 소재로 하였다.

○ 멕시코에서 한국 영화전 개최

한국과 멕시코 수교 50주년을 맞아 열린 한국 영화전은 멕시코 시티와,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등 멕시코의 주요 3대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 우호의 종 기증

2012년 2월 22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 도심에 위치한 어머니 기념탑 광장(Plaza de monument a la Madre)에서 멕시코 시티 시청과 ‘우호의 종’ 기념식이 열렸다. 멕시코 시에 기증한 이 종은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의 실물을 축소해 만든 것이며, 2010년 멕시코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 우정의 징표로 종을 선물한 바 있다. 멕시코는 한국으로 유일하게 두 개의 종을 기증 받은 나라이다.

○ 한국 문화원 개원

2012년 3월, 멕시코시티 중심부인 폴랑코 지역에 한국 문화원이 문을 열었다. 주 멕시코 한국 문화원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한글 교실과 더불어 음악 강습실, 시청각실, 요리강습실 및 도서관, 영상관 등을 통해 멕시코 주민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 한-멕시코 우정 병원 기자재 지원 (2013.03.22)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홍성화 대사)은 멕시코 남부 유카탄 주, 메리다시에 있는 한국-멕시코 우정병원'에 10만 달러 상당의 의료 기자재를 기증하였다.

한-멕시코 우정 병원은 한국 정부가 2005년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100만달러를 들여 건립한 것으로 현지에서 아동 전문 병원으로 알려져왔다.

유카탄 반도에는 1905년부터 한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6~7천명의 한인 후손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 방송사, 멕시코에서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와 ‘2013년 제2차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를 5월 28일 멕시코에서 개최하였다.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는 국내 방송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 지역 다변화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미래부 주관으로 개최한 행사로, 아시아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KBS미디어, MBC아메리카, SBS인터내셔널, EBS, JTBC, CJ, E&M, GTV, 플레이온캐스트, SK브로드밴드 등 9내 국내 방송사가 참여하였다. 특히 수출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인기드라마와 함께, 인기가요 등 K팝 관련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을 적극 홍보하였다.

□ 멕시코 농축수산물 장관 경기도 방문

멕시코 농축수산물부 엔리케 마르티네스 장관이 6월 11일 경기도를 방문하였다. 마르티네스 장관은 경기도,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농업분야 교류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하였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한국 농식품 홍보행사 개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8월 24일 멕시코시티 컨벤션센터에서 한류의 주역인 K-POP과 연계하여, K-FOOD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aT는 K-POP 동호회 회원들과의 결선 공연 및 한식 시식 및 홍보, 판매 행사를 하였다. aT는 라면, 제과류, 한국 식품 판매 등을 통해 약 3만 달러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3) 경제 협력

□ 한-멕시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MOU체결

2012년 2월 멕시코에서 열린 있는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장관은 호세안토니오 메아데 멕시코 재무장관과 2012년 멕시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SP) 추진을 위한 양국간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사업 추진은 지난 2010년 7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으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정상 간의 합의 이행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다. 향후, 현지 정책협의를 통해 멕시코측이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금속기계 산업 발전전략과 인적자원 개발 분야등을 중심으로 정책자문 주제를 서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 한국- 멕시코 원자력협력협정 문안 타결

2012년 2월 9일, 한국과 멕시코는 '한국-멕시코 원자력협력협정 협상'을 통해 협정 문안이 타결되었다. 원자력협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원전개발을 포함한 원자력 분야의 제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한-멕시코 원자력협력협정을 통해 향후 양국간 원자력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멕시코 SECA (전략적 경제 보완 협정) 논의(2005.9~2007.9)

2005년 9월 전 노무현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시 양국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교역, 투자를 더욱 확대, 촉진하기 위해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를 체결하기로 한 바 있다. SECA는 관세 자유화 대상 상품의 범위를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낮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 (FTA)로 양국 간 협상이 결렬된 FTA를 대신하게 되었다. 멕시코는 특수한 몇 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하는 PTA(특혜무역협정)를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한국은 그보다 자유화폭이 한 차원 넓은 SECA 체결을 요구,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다.

2006년 2월 7일~9일간 서울에서 1차 협상이 개시된 바 있으며,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경제협력 등 협상 분과 별로 주요 쟁점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일부 분과의 경우 통합 협정문안이 마련되었다.

2006년 4월 18일~20일간 멕시코시티에서 2차 협상이 개시 되어, 상품무역,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절차,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등 분과 별로 사전에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제3차 협상은 2006년 6월 14일~16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상품 양허안을 교환함으로써 양허 협상을 시작했으나, 범위와 상호관심품목의 반영 정도에 대해 상당한 시차를 보임에 따라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추진

답보상태이던 전략적 경제 보완협정(SECA)에서 완전한 의미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의 발전이 양국의 정치권에서 2007년 9월부터 논의되었고, 그 1차 협상이 2007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상의 쟁점은 상품분야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위생 및 검역(SPS) 분야의 투명성, 지역화, 위원회 부문, 무역관련 지적재산협정(TRIPS)분야의 지리적 표시(GI)의 보호범위 등이었으며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제2차 협상은 2008년 6월 9~1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별 성과 없이 끝났으며, 제3차 협상이 멕시코에서 예정되어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12년 6월 멕시코 로스 까보스에서 개최된 G20 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과 펠리페 깔데론 대통령은 양국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추후 이전 3차 회의를 재개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양국의 관련 부처는 회의 재개를 위한 활발한 의견 교류를 하고 있다.

한-멕시코 FTA의 제일 큰 장애물은 멕시코의 자동차 및 석유화학업계의 반대이다. 하지만 멕시코 집권당 및 상원 내 유관위원회 간 회의에서 멕시코 정부는 한국 등 전 세계 주요 통상국가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멕시코가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 한미 FTA에 일정 부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번 협상 재개는 양국 정상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정부에서도 멕시코 산업계 설득에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대통령 당선자인 엔리케 페냐 니에토 역시 대외통상정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여 여러모로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가 유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제7차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2012.11.12)

2002년 6차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10년만에 멕시코 외교부에서 7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양국은 시장접근 이슈를 비롯하여 개발원조 협력 방안, 과학·기술분야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기협의를 진행하는데 합의하였다.

□ 수출입 은행, 멕시코와 경제협력방안 논의

한국 수출입은행은 9월 2일 멕시코 정부청사에서 멕시코 농축수산부, 통신교통부 장관들과 연쇄회동을 갖고, 한국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용환 행장은 멕시코 통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 사업과 통신, 교통망 사업에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참여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통신교통부 장관은 “멕시코 인프라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II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분	지표	단위	2014				
국가 일반	인구	(명)	총 1억 2,028만 9,915명				
	면적	km ²	1,964,375 km ²				
	한반도 대비면적	배	9 배				
지표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내 경제	실질경제성장률	%	-6.0	5.6	3.9	3.8	1.1*
	명목 GDP	US\$억	8,829	10,355	10,184	10,247	13,270
	1인당 GDP(PPP)	US\$	13,265	13,945	14,616	15,312	15,607
	물가상승률	%	3.6	4.4	3.8	4.1	3.8
	실업률	%	5.5	5.4	5.2	5.0	4.9
	금리*	%	5.9	4.9	4.8	4.7	4.6
대외 경제	수출실적	US\$ 백만	229,704	298,473	349,375	370,915	380,096
	수입실적		234,385	301,482	350,843	370,752	381,210
	무역수지		-4,681	-3,009	-1,468	163	-1,114
	경상수지*		-5,767	-1,949	-9,671	-9,249	-16,100
	외국인직접투자		16,561	21,372	21,503	18,352	35,200
	외환보유고		99,858	120,543	149,344	142,400	176,500
	외채*		199,944	243,824	287,037	276,027	282,200
	기말환율(US\$1)		페소	13.06	12.36	13.99	13.01

자료: EIU,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 통계청 주: *는 추정치

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2014년 멕시코 경제 전망

2014년 5월 중순까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CEPAL), 세계 은행을 비롯한 국제 기구를 비롯하여, 멕시코 재무부(SHCP),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등이 모두 금년 멕시코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2014년 1분기 경제 지표 성적이 저조하다는 점, 미국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2014년 8월 멕시코 중앙은행은 5월에 이어 2014년 멕시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3.3%에서 2.0~2.8%로 또 다시 하향 조정했다. 중앙은행은 이미 5월에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2.3~3.3%으로 낮춘 바 있다. 한편 2015년 경제 성장률은 3.2~4.2%로 유지했다.

주요 기관 경제 성장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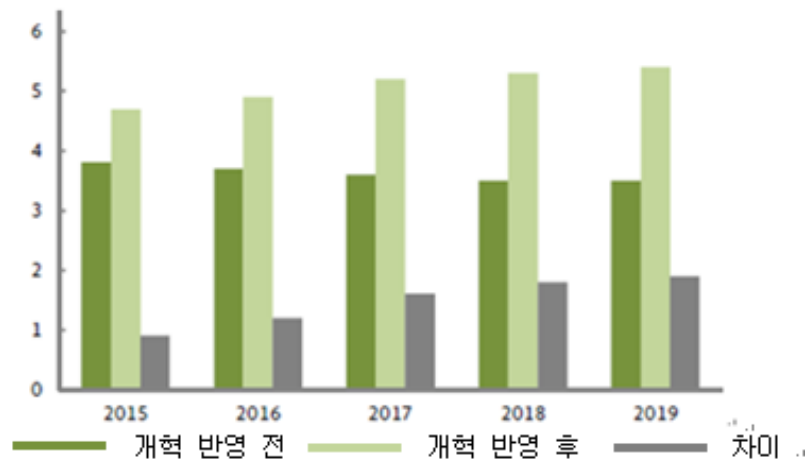
기관명	조정 전	조정 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CEPAL)	3.5%	3.0%
국제통화기금(IMF)	3.0%	3.0%
세계은행(World Bank)	3.4%	2.3%
멕시코 중앙 은행(Banxico)	3~4%	2.0~2.8%
멕시코 재무부(SHCP)	3.9%	2.7%
BBVA Bancomer 은행	3.4%	2.5%
Santander 은행	3.0%	2.5%

□ 개혁안 성공여부에 따른 경제성장률 전망

멕시코 재무부는 현재 멕시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세제, 통신, 개혁 성공 여부에 따라,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1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하여 실효를 거둔다면, 2015년 경제 성장률은 4.7%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3.8%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재무부는 에너지 개혁이 향후 멕시코 경제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하였다.

개혁 성공 여부에 따른 멕시코 경제성장률 예상



자료: 멕시코 재무부

□ 무디스, 멕시코 국가 신용등급 A3로 상향 조정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2014년 2월 5일 멕시코 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A3'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전망은 '안정적'을 유지하였다. A등급은 무디스 신용등급 중 7번째로 높은 등급이며,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칠레와 더불어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국가가 되었다. 무디스는 2013년 멕시코 정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개혁, 방송통신법 개혁 등의 경제개혁이 향후 멕시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추후 멕시코의 잠재적 성장 전망, 재정 기초 체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멕시코,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 불균형 심화

2013년 멕시코의 대 아시아 지역 무역수지 적자가 1,0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멕시코의 대 아시아 수입은 1,379억 4,7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대 아시아 수출은 185억 1,1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멕시코의 대아시아 수출액은 수입액 대비 5%에 불과하다.

멕시코의 대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 불균형 현상은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2013년 동 금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최고 액수를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2007년 718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964억 달러까지 증가하였고, 작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액이 가장 높는데, 동 금액은 540억 달러에 달한다.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도 170억 달러, 한국은 110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시진핑 국가 주석이 멕시코 방문 시 양국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추후 멕시코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무역수지 적자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멕시코 외국인 직접 투자(FDI) 사상 최대치 기록

2013년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액이 35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2년 127억 달러 대비 178% 증가한 액수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맥주 생산업체인 안호이저-부시(Anheuser-Busch)가 멕시코 맥주 생산업체인 그루포 모델로(Grupo Modelo) 지분을 인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산탄테르(Stander)은행 라파엘 카마레나 경제 수석은 미국의 완만한 성장, 멕시코 방송통신, 에너지 시장 개방, 멕시코 자동차 부품과 항공우주 산업 성장 등을 이유로 추후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통계청, 멕시코 금년 1분기 1.8% 성장률 발표

멕시코 통계청(INEGI)이 금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을 1.8%로 발표하였다. 이는 2013년 1분기 성장률인 0.6%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블룸버그(Bloomberg)의 전망치인 2.1%에는 못 미친다.

산업별로는 농축수산업이 4.86%를 기록하여, 금년 1분기 전체 산업 경제 성장률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2차 산업은 평균 1.6%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2차 산업의 주요 부문인 제조업이 4.3%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년 1분기 제조업 성장률은 2012년 2분기 이후 최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광업은 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건설업은 -2.8%를 기록하여, 2012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아울러 서비스업은 1.8%를 기록하였지만, 2012년 1분기 성장률인 5.3% 보다는 크게 떨어지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3. 주요산업동향

가. 산업 부문별 성장

멕시코 산업 부문별 성장률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전체		0.6	1.6	1.4	0.7	1.8
농림어업		-2.2	2.5	0.8	-0.3	4.9
산업	총계	-1.7	-0.3	-0.5	-0.4	1.6
	광업	-1.8	-2.1	-1.9	-0.9	0.0
	전력.가스.수도	-1.0	0.2	0.9	0.8	1.4
	건설	-3.0	-3.6	-6.6	-4.6	-2.8
	제조업	-1.2	1.9	2.9	1.9	4.3
서비스업	총계	2.1	2.6	2.5	1.3	1.8
	도소매업	0.5	3.7	4.4	2.4	2.1
	교통, 우편, 물류	0.6	1.8	2.2	1.2	1.6
	방송통신	11.1	6.5	5.1	0.1	3.1
	금융, 보험	3.8	7.2	3.1	1.4	1.8
	부동산중개	1.8	1.6	1.5	1.1	2.2
	전문서비스(과학,기술)	1.0	-0.7	-3.0	-1.3	-0.2
	기업경영	-1.1	-2.8	-1.9	-15.4	4.7
	폐기물처리	6.3	3.8	2.8	2.8	-0.7
	교육	-0.2	1.8	1.3	1.5	2.7
	공공보건	3.5	2.6	0.9	1.1	0.2
	문화,스포츠,레크리에이션	2.8	-1.8	-0.6	0.0	-3.8
	숙박업, 요식업	3.9	1.1	1.7	1.8	1.8
	정부활동 제외 기타서비스	2.6	2.0	1.7	0.6	-0.6
	정부활동	-0.1	-1.4	2.8	2.0	3.7

주: 2009년부터 서비스업이 더욱 세분화되었음.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통계청(INEGI)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신종 플루 사태의 영향으로 멕시코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 이후, 미국의 경기 회복과 주요 수출품인 원유의 국제 가격 반등에 힘들어 경제는 호조를 띄어 2010년에는 5.5% 성장을 보였다.

2011년의 경우, 미국의 더딘 경기 회복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로 말미암아 큰 폭의 경제 성장은 이뤄내지 못했으나, 3월의 일본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재편에 힘입어 제조업(자동차) 분야의 건실한 성장을 보이며 꾸준한 회복세를 기록했다.

2013년은 건설 경기 악화, 정부 지출의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1.1%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14년 초 멕시코 정부가 예상한 바와 달리, 2014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치는 등 경제 지표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멕시코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다. 세계은행, 멕시코 재무부, 멕시코 중앙은행 등이 일제히 2014년 멕시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나. 제조업

멕시코 제조업은 1994년 NAFTA 발효 이후 대미수출용 마킬라도라(maquiladora, 수출입 가공) 활동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해왔으며, 초기에 주로 미국과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마킬라도라 지대가 형성되었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전체 GDP의 18%, 고용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산업은 Guadalajara, 자동차 부품은 Saltillo-Monterrey, TV 생산은 Tijuana-Mexicali-Reynosa, 섬유산업은 Puebla, Tlaxcala, 가전제품은 Queretaro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멕시코의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은 한 때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가는 듯 하였으나 중국의 인건비 및 지대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중국의 생산비용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멕시코는 2011년 전 세계에서 제조업 생산비용이 제일 낮은 국가로 선정되었다.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멕시코 제조업은 2008년부터 2012년 간 약 8.4% 성장하여 연 평균 2.0%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이전 5년 간 연평균 성장률 1.68%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치이지만, 의류 화학 산업 등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여, 제조업 전체가 큰 성장을 보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동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제조업 산업은 기계, 장비 제조업(28.6%), 운송 장비 제조업(34.1%), 목재산업(22.2%),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13.5%) 등이 있으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산업은 의류 제조업(-12.8%), 의류제의 섬유업(-6.5%), 화학산업(-4.6%) 등이 있다.

자동차 산업은 멕시코의 산업 중 제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역시 멕시코 경제에 있어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여러 자리에서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은 전체 GDP의 3%, 제조업 생산의 20%, 외국인 투자(FDI)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멕시코시티 중심 및 미국과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멕시코는 2011년 268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 세계 제8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발돋움 하였다. 한편 2013년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량은 약 293만 대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수출 역시 240만 대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다. 2014년 8월 현재 BMW, 기아자동차, Mercedes 등의 멕시코 생산기지 투자가 검토되고 있어 향후 멕시코 자동차 산업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건설업

건설업은 전체 GDP의 6.3%, 고용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35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2007년부터 성장세가 낮아지기 시작해 '09년에는 -7.5%라는 최악의 성장률을 보였다. 전 멕시코 대통령 Felipe Calderon이 이끌었던 지난 6년간 건설업 분야는 연평균 1.42% 성장하였다. 지난 6년간 건축은 연 평균 0.7% 감소하였으나, 토·목업 분야에서는 연평균 5.5% 성장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경제회복이 미미할 경우, 건설업에 대한 투자는 다시 감소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투자 분야별로는 주거용 주택 및 인프라 분야가 성장세에 있으며 석유화학, 석유정제 분야에 대한 투자는 2010년 이래 감소세이다.

건설 부문은 다른 분야로의 파급효과도 커 멕시코 실업문제 해소에도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분야이다. 2007년 칼데론 정부 출범과 함께 교통통신부(SCT)의 연방 고속도로 보수공사 등 신규 사회 인프라 공사가 발표되었으나 계획보다 실제 공사는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의 인프라 공사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분야는 총 250억 달러의 예산(민자포함)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총 1만 7598km도로를 신설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연방 고속도로 구비율을 72%에서 90%까지 확장하며, 고속도로·국도·지방도로 개보수 공사 약 2,500건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3년 1분기 멕시코 공공 지출 예산이 10.4%감소함에 따라, 공공 시설 및 인프라 건설이 줄어들고, 주정부의 대금 지급 지연되면서 멕시코 건설업계가 타격을 받았다. 실제로 동 기간 동안 건설 관련 업체들은 약 4,0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해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멕시코 건설업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하였다. 2013년 2분기 역시 1분기의 공공지출 감소로 인한 영향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 -4.0%를 기록하였다.

2013년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건설 관련 업체들에게 있어서 암울한 한 해가 되었다. 이는 정부의 입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4월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2014-2018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으로, 멕시코 인프라 투자에 총 7조 7,000억 페소(약 5,900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 예상되는 등, 멕시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다수의 입찰이 나오므로써 향후 건설업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 광업

멕시코는 세계적인 원유 및 은, 철 등 각종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광업은 멕시코 GDP의 5%를 차지하며 전 세계 9위 광물생산국의 지위를 가진다. 1990년대 초부터 민영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을 통해 다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캐나다의 참여가 주목할 만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국제광물가격이 낮아 멕시코 광산업 또한 주춤하였으나 2002년 말부터 구리, 은, 아연, 철 등 주요 광물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멕시코 광업 또 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요 자원으로는 은(전 세계 1위 생산국), 금(9위), 납(1위), 카드뮴(6위), 몰리브덴(6위), 아연(6위), 소금(7위), 그래파이트(7위) 등이 있으며 주요 기업으로는 Grupo Mexico(멕시코), Grupo Penoles(멕시코), Grupo Frisco(멕시코), GoldCorp(캐나다) 등이 있다.

2012년 광업 분야 정부 투자액은 200억 달러에 달하였고 2011년의 경우 167억 1,7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309,70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멕시코광업협회(CAMIMEX)는 멕시코가 전 세계 금 생산국 순위에서 2012년보다 3단계 높은 7위를 캐나다와 공동으로 차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12년 멕시코가 채굴한 금의 양은 102.8톤으로 2011년보다 16% 증가하였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대부분의 광물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금은 작년 1,656달러에서 1,689달러로 오르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시키면서 금을 포함한 광물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광물 판매 또는 수출에 의한 매출액의 세후 이익 7.5%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였다. 거두어들인 세수금액의 20%는 연방정부, 50%는 광산이 소재한 시정부의 지속가능개발기금에, 30%는 광산이 소재한 주정부의 지속가능 개발 기금에 분배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정부는 매 분기마다 기금 수입 및 지출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마. 기타

1) 농업

2012년 멕시코의 농업 GDP성장률이 6.7%로 나타나 총 GDP성장률인 3.9%를 뛰어넘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농업, 목축업, 임업, 수산업, 수렵을 포함하는 농업GDP는 총GDP 중 3.4%를 차지했고 이 중 농업과 목축업은 각각 12.6%, 0.2% 성장한 반면 임업, 수산업, 수렵 분야는 3.3%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멕시코의 농업GDP는 냉해와 가뭄으로 인해 2.6%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2012년은 기후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안정적인 해를 기록해 2010년 비교 3.9%가량 회복세를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수확량을 보인 옥수수는 약 2,120만 톤이 생산되었고, 사탕수수는 51.3메트릭톤, 수수는 7.1메트릭톤이 생산되어 각각 15.8%, 3.1%, 5.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총GDP는 지난 10년 간 2.5%성장한 반면, 농업GDP는 평균 1.6%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여 아직 많은 도전과제가 남은 상태이다.

2013년 1/4분기에는 기록적인 가뭄과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성장률이 2.8%에 그쳐 전년 동기간 6.7%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토마토, 레몬, 옥수수, 쌀 등의 농수산물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다.

2013년에는 1분기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큰 폭으로 하락되었다. 이후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지만 4분기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멕시코인들이 즐겨먹는 레몬, 아보카도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2) 유통업

멕시코는 NAFTA 출범 이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 유통마트 위주로 판매시장이 변화해 왔으며, 멕시코 유통시장은 Walmart(Bodega Aurrera, Superama 등) 대 기타기업(Comercial Mexicana, Gigante, Soriana, Chedraui 등)의 양대 구조로 편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편의점인 OXXO가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며 대형 유통마트의 판매를 위협하고 있다.

3) 관광업

세계관광기구(UNWTO)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멕시코의 관광객 수가 약 2,310만 명으로 집계되어 세계 13위를 기록, 2011년보다 세 단계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광업으로 인한 수입액 측면에서는 지난 해 127억 달러를 벌어들여 전년 대비 한 단계 낮은 세계 24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세계 경기의 위축, 멕시코 내부의 치안 문제 등으로 분석되는데 멕시코 관광연맹에서는 2018년까지 5,000만 명의 관광객, 400억 달러 이상의 관광수입을 낼 수 있도록 홍보 및 투자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4) 바이오 산업

2012년 4월 17일자로 멕시코 내에서 바이오 의약품 및 바이오 제네릭 의약품 유통에 대한 법령이 발효되어 150개 의약품들이 2년의 기다림 끝에 발매되게 되었다. 바이오 의약품의 판매를 위해 멕시코 정부는 2009년 6월 멕시코 보건법을 수정하였으며 2011년 10월 바이오 의약품의 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을 발표, 2012년 4월 17일부터 의약품 제조사가 바이오 의약품을 멕시코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멕시코 제약사들은 바이오 제네릭 의약품 생산 역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Shire, Amegen, Probiomed, Silanes, Pfizer사 등은 바이오 의약품 유통을 위해 멕시코 위생보호위원회(Cofepris)의 승인을 기다려 왔었다.

5) 섬유 산업

2012년 상반기중 의류 분야는 약 10% 성장세를 보였지만, 196개의 관련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된 이유는 중국 및 말레이시아에서 멕시코로 수입되는 여성용 속옷, 스포츠의류, 양말, T셔츠 등의 제품들 때문인데, 이들은 평균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 국세청은 2011년 12월부터 중국산, 말레이시아 제품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언더밸류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2분기 의류 산업의 생산량 증가율은 9.3%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하였다. 2012년 4분기 0.3%, 2013년 1분기 -3.7% 대비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의류 산업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의류 산업이 호황을 누리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6) 방송통신산업

2013년 3월 멕시코 정부는 아메리카 모빌, 텔레비사 등 주요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연방경쟁력위원회(Comisión Federal de Competencia Económica)와 연방방송통신청(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등 두 개의 감독기구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방송통신청(IFT)는 통신과 TV부문의 감독을 맡게 되고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기업을 독점으로 규정하여 제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대 대상 기업은 현재 방영하는 TV 네트워크를 케이블 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해야 하고 강제적인 자산매각이 포함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유선통신 자산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사라지며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방송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도 최대 49%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카를로스 슬림의 아메리카 모빌은 현재 멕시코 통신시장의 70%를 점령하고 있으며, 텔레비사는 TV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어 이들 두 대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멕시코 방송통신법 하위 법안 대통령 승인 완료

멕시코 방송통신 개혁의 세부 법안이 2014년 7월 최종 통과되었다. 방송통신 개혁안은 작년 3월 통과되었지만, 세부 법안과 관련하여서는 멕시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지다가, 2014년 7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여,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승인까지 확보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세부 법안의 주요 골자는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독점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이로 인해 동 분야에서 시장지배자로 규정된 아메리카 모빌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송통신 세부 법안 통과로 인해 독점 기업을 규제하는 연방방송통신청(IFT)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방송통신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 증대가 예상된다.

7) 스마트 기기

멕시코 내에서 태블릿 PC의 점유율은 확대 추세에 있다. 경제 분석가들은 3년 이내에 컴퓨터시장에서 태블릿PC 및 스마트폰이 전통적인 개인PC나 노트북, 넷북 등의 기기들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컴퓨터 관계자들은 2009년 멕시코 컴퓨터 시장에서 50%는 데스크탑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노트북, 넷북 등의 휴대용PC가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데스크탑, 노트북, 넷북이 시장의 39%를 분할하여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1%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기기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블릿 PC판매 급증의 대표적인 예는 Apple사의 판매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iPad 시리즈를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한 2010년 당시 멕시코 내 판매량이 740만 대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3,230만 대로 급증하였다.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시장 내 시장점유율은 2009년 불과 6%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20%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전년 13%에서 53.8% 성장한 것으로,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2014년 멕시코 내 사용되고 있는 4,520만 대의 휴대 전화 중 68%가 스마트폰 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1분기 스마트폰 시장 판매 성장률은 6.7%를 기록했다. 이러한 스마트폰 사용 증가 추세는 지속되어서 2017년에는 약 4,970만 대의 휴대전화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중 3,940만 대가 스마트폰으로 10대 당 8대가 스마트폰일 것으로 전망된다.

8) 에너지 산업

2013년 12월 민간 사업자에 멕시코 에너지 사업 참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개혁이 통과된 이후, 8개월만에 이와 관련된 부속 법안이 멕시코 상하원을 통과하여, 2014년 8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에너지 개혁 부속법안에는 탄소법, 멕시코 석유공사법, 연방전력청법, 석유수입법, 부채총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 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탄소법에는 멕시코 석유공사(PEMEX) 및 자회사가 석유의 탐사 및 채굴을 위해 공공입찰을 통해 민간 및 외국회사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관련 업체들도 멕시코 에너지 부문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탄소법에는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정유, 생산, 운송, 저장, 수출, 수입 부문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며, 2016년부터는 가스 수입이 전면 허용된다.

바. 신 재생에너지 분야

1) 태양에너지

□ 현황

- 태양열 활용
 - 태양복사량이 많은 지대에 있어 국토면적의 70% 이상이 일조량 일일 평균 18MJ/m² 이상이며, Baja California, Baja California Sur, Sonora, Chihuahua주 등은 일조량이 일일 19MJ/m² 이상이다.
 - 주로 수영장, 호텔, 스포츠센터, 병원, 가정 및 산업시설 등의 온수가열에 태양열을 이용하고 있다.
- 태양광발전
 - 멕시코의 평균일사량은 5.2시간/일(시설효율은 25%), 5kWm²로 국제수준의 태양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20개 주에 127,600m²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에 901kW 규모의 추가설치로 총 18,534kW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 생산된 전기는 공공 에너지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원격지역에 가정용, 가로등, 통신시설, 수도 펌프, 하이브리드 발전(태양광, 풍력, 디젤발전시스템) 등에 주로 활용된다.

□ 전망

2012년 말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부 발주 프로젝트가 전무한 상태였으나, 2013년 말부터 정부 입찰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2014년에는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더 발표될 것으로 보고있다.

멕시코 에너지부와 전력청은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비율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태양열 69MW 생산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멕시코정부는 에너지절약위원회(CONAE)를 통한 태양열 온수축진 프로그램(PROCASOL)과 농림부를 통한 농업 재생에너지 개발축진 프로그램을 활용, 태양열 에너지 사용설비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멕시코시티는 건축규정을 개정하여 신축 또는 개축 건물에 온수가열을 위한 솔라모듈을 의무적으로 설치케 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2025년까지 태양에너지 보급 용량이 896M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방전력청(CFE)등 정부차원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소노라주 등 일부 지방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태양광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최신 시장 동향

멕시코 내에서는 태양광 모듈의 셀(cell)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멕시코 태양광 모듈 제작업체는 해외로부터 셀(Cell)을 수입하여 태양광 모듈을 제작하고 있다. 이 경우 멕시코 태양광 모듈 업체는 중간 수입, 유통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셀제조업체(주로 중국 업체)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는다.

최근 외국 기업의 경우 현지 기업과 합작 투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사례도 많다. 이는 멕시코 정부 입찰을 위함인데, 현지 기업의 인맥을 비롯하여 현지 기업 우대 정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령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국계(주로 유럽 업체) 태양광 업체는 현지 파이낸싱, 정부 입찰 시 필요한 서류 작업을 전문으로 해주는 멕시코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정부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 풍력에너지

□ 현황

멕시코의 풍력발전용량은 2007년 85.5MW에서 2012년 1,300MW까지 크게 증가하여, 멕시코 전체 전력발전 용량 중 2.12%를 차지한다. 전체 발전용량에서 신 재생에너지 비중은 25.7%이나 전체 발전용량의 21.9%를 차지하고 있는 수력발전을 제외하면 풍력발전 비중이 가장 크다.

멕시코의 풍력시설은 멕시코 만에서 태평양쪽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바람이 불어오는 OAXACA주의 La Ventosa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풍력시장은 ACCIONA, IBEDROLA를 중심으로 스페인계 회사들이 지배하면서 풍력터빈은 주로 스페인 GAMESA 및 ACCIONA, 덴마크 VESTAS사의 제품을 사용한다.

풍력 발전소 발전용량

풍력단지명	운영방식	운영자	터빈	운영연도	발전용량(MW)
LA VENTA	OPF	CFE	VESTAS	1994	1.4
LA VENTA II	OPF	CFE	GAMESA	2006	83.3
LA VENTA III	IPP	CFE/IBERDROLA	GAMESA	2012	102.85
Parque Ecologicos de Mexico	AS	IBERDROLA	GAMESA	2009	79.9
Eurus Fase I	AS	CEMEX/ACCIONA	ACCIONA	2009	37.5
Eurus Fase II	AS	CEMEX/ACCIONA	ACCIONA	2010	212.5
Bii Nee Stipa	AS	IBERDROLA	GAMESA	2010	26.35
Electrica de valle de Mexico	AS	EDF	CLIPPER	2010	67.5

풍력단지명	운영방식	운영자	터빈	운영연도	발전용량(MW)
IIF	PP	IIF		2010	0.3
Fuerza Eolica del Itsmo	AS	PENOLES	CLIPPER	2011	80
Oaxaca I	IPP	CFE/DRAGADOS	VESTAS	2012	102
Oaxaca II	IPP	CFE/ACCIONA	ACCIONA	2012	102
Oaxaca III	IPP	CFE/ACCIONA	ACCIONA	2012	102
Oaxaca IV	IPP	CFE/ACCIONA	ACCIONA	2012	102
Guerrero Negro	OPF	CFE		1982	0.6
총 발전 용량					1,100.2

자료: 주멕시코한국대사관

□ 전망

우리나라의 플랜트 제조업체인 Speco사(충북음성 소재)는 Coahuila주 Monclova에 풍력타워 및 풍력발전기 부품 생산공장을 2009년 9월 초에 완공하고 생산 가동에 들어갔다. 총 투자액은 3,000만 달러 수준이다.

Walmart는 2010년 5월 Oaxaca주의 La Ventosa시에 Oaxaca I Lamatalaventosa라는 풍력발전소를 완공하고 CFE 송배전망을 통해 멕시코시티, 멕시코 주, 모렐로스 주의 348개 점포에 전력공급을 개시했다. 동 풍력발전소는 2.5MW급 터빈 27개를 사용해 67.5MW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13만 7천 톤의 CO2 감소 효과 (자동차 2만 1천 대 감소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사는 2025년까지 100% 친환경에너지 자가공급 계획을 하고 있다.

미쯔비시(33.75%), PGGM(33.75%, Dutch pension fund service provider), 맥쿼리 멕시코(32.5%) 컨소시엄은 멕시코의 오아하카 지방에 8억 4,100만 달러를 투자, 396MW 발전규모의 Mareña Renovables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멕시코뿐 아니라 중남미에서 제일 큰 규모의 발전소가 될 예정이다.

덴마크의 Vesta사는 2012년 2분기에 동 프로젝트에 V90-3.0MW 터빈 132개를 납품하였으며 윈드터빈의 설치뿐 아니라 운영 및 유지보수를 향후 10년간 맡게되며, 동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FEMSA와 Heineken(Cuauhtemoc Moctezuma)에서 향후 20년간 구입하게 된다.

Desarrollos Eolicos B&E사는 자사가 계획 중인 멕시코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소 Parque Eolico Saltillo B&E 프로젝트가 멕시코 환경청의 평가를 위해 접수되었다. 코아우일라주에 건설될 이번 풍력발전소는 총 714MW급의 발전소로 11억 달러의 투자가 예상되며, 직접고용인원 2,400명으로 동 지역의 전력 수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환경영향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소는 오하카주에 위치한 풍력발전소로써 250MW급이며 멕시코에 설치된 전체 풍력발전소의 규모는 1,300MW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Desarrollos Eolicos B&E사가 계획 중인 이번 프로젝트는 멕시코 전체 풍력 발전용량의 절반을 상회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보인다.

3) '2014-2018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 주요 발전소 프로젝트

멕시코 정부가 2014년 4월에 발표한 '2014-2018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비롯한 복합 발전소 주요 발전소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향후 다음과 같은 발전소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발전소 프로젝트 계획

(단위: MW, 백만페소)

	프로젝트 명	분류	발전용량	예상투자액	프로젝트 기간
1	Ciclo combinado Noreste(Escobedo)	복합	1,006	18,629	2015-2017
2	CC Norte IV (Lerdo)	복합	957	11,000	2015-2018
3	Nuevo Guerrero	수력	455	14,227	미정
4	Aprovechamiento Hidraulico de Usos Multiples Paso de la Reina, Oaxaca	수력	543	15,408	미정
5	CC Noroeste (Topolobampo II)	복합	820	13,655	2015-2018
6	CC Norte III	복합	928	12,895	2016
7	CC Topolobampo III	복합	680	11,968	2015-2018
8	CC Guaymas II	복합	714	10,699	2014-2017
9	CC Guaymas III	복합	714	9,148	2014-2017
10	Valle de Mexico II	복합	543	9,688	2014-2017
11	Centrales Eolicas Sureste II, III, IV, V	풍력	1,169	25,955	미정
12	Pequeño Productor Solar Fotovoltaico	태양력	420	12,378	미정
13	Las Cruces	수력	240	10,250	미정
14	Mexicali, planta geotermoelectrica	지력	27	567	미정
15	Azufres (Fase I y Fase II) y Cerritos Colorados (Fase I)	지력	107	1,943	미정

주요 발전소 프로젝트 위치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멕시코 FTA 체결 현황

멕시코는 1994년 NAFTA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방정책에 돌입, 2014년 8월 기준, 14개 FTA 협정을 통해 45개국과 조약을 맺고 있다.

2012년 6월, 멕시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 동맹을 체결한 바 있다. 4개국의 총 인구는 2억 1,500만 명이며, 총 GDP는 2조 달러가 넘는 중남미 대표 경제 블록이 될 전망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과의 단일 FTA를 체결, 2013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번 FTA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테말라에서 4년 이내에 경차, 기계류, 5톤 이하의 버스 등의 관세 철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10년 이내 상기 제품들의 관세 철폐가 포함된다. 동 FTA 회원국은 과거 별도 FTA를 통해 모두 시장이 개방된 상태였지만 앞으로는 모든 회원국을 통합 시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사실 2003년 말 NA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주요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체결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경제부는 당분간 더 이상의 추가 FTA 협상은 없고, 기존 FTA 내실화에 집중하겠다는 공식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2006년 12월 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멕시코의 수출구조 다변화를 위해(현재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함) 추가 FTA 체결에 힘써왔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페루, 파나마, 브라질 등과 FTA 체결 협상을 진행했으나 멕시코 산업계와 야당의 반대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하지만 2012년 들어서며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며 그 동안 미루어졌던 페루와의 FTA 체결을 이루어내고 태평양 동맹 및 중미 5개국과의 단일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2012년 6월, 멕시코 로스 까보스에서 개최된 G20 회의 기간 동안 한-멕시코 양국 정상은 기존 FTA 3차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멕시코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 참가를 공식 제안하는 등 향후 멕시코의 FTA체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멕시코 국가별 FTA 체결 현황

협정명	대상국가	발효일
NAFTA	미국, 캐나다	1994.1.1
G3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06.11 탈퇴)	1995.1.1
멕시코-코스타리카 FTA	코스타리카	1995.1.1
멕시코-볼리비아 FTA	볼리비아	1995.1.1(2010.7 탈퇴)
멕시코-니카라과 FTA	니카라과	1998.7.1

협정명	대상국가	발효일
멕시코-칠레 FTA	칠레	1999.8.1
멕시코-유럽연합 FTA (27개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덴마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레토니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영국, 스웨덴, 루마니아, 불가리아	2000.7.1(15개국) 2004.5.1(10개국 추가) 2007.1.1(2개국 추가)
멕시코-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2000.7.1
TN FTA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2001.3.15(엘살바도르) 2001.6.1(온두라스) 2013.9.1(과테말라)
AELC FT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2001.7.1
멕시코-우루과이 FTA	우루과이	2004.7.15
멕시코-일본 FTA	일본	2005.4.1
멕시코-콜롬비아 FTA	콜롬비아	2011.1.1
멕시코-페루 FTA	페루	2012.2.1
멕시코-중미 5개국 FTA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 라, 코스타리카	2013.1.1(온두라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일본	협상중

자료: 멕시코 경제부

나. 경제보완협정 체결

멕시코는 총 6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바, 페루, MERCOSUR-우루과이, 파라과이와 경제보완협정(ACE: Acuerdos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을 체결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국가 간 특정상품에 대한 저율 관세 부과, 원산지 규정, 세이프가드 등을 운영 중이다.

브라질은 2012년 3월, 멕시코와 Mercosur 국가 간 체결한 경제보완협정(ACE 55)로 인해 브라질의 자동차산업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자 브라질은 동 협정의 개정을 요구, 3년 기한으로 수출 쿼터를 지정하고 원산지비율도 높이기로 하였다. 이에 아르헨티나는 Mercosur 회원국과 멕시코 사이에 맺은 협정을 브라질과 멕시코 단독으로 개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동 협정의 일방적인 파기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역시 대멕시코 자동차 무역적자가 지속되자 재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동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 최근 동향

□ 멕시코-파나마 TLC(북미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 진보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멕시코-파나마의 TLC을 위한 첫 번째 회담이 성사되었다. 양측 대표자들은 17개 조항을 공동 검토하였으며, 오는 9월 17일에서 20일 두 번째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였다. 다음 회담에서 다룰 내용은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원산지 및 절차 규칙, 보호 무역, 기술 장벽 등이며, 멕시코와 파나마는 서로 대치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협상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것이라 예측된다. 이로써 중미지역은 여러 다른 중남미 나라와 무역 협정을 맺으며 중남미 공동체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에콰도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 추진

에콰도르 정부는 2013년 8월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적인 분야 및 모든 상품의 개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에콰도르 장관 리차드 에스피노사(Richard Espinosa)는 수출 지향적 구조 형성과 동시에 멕시코 회사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산업경제의 공공 부문의 역할과 외국인 투자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멕시코와의 통상 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태평양 동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멕시코 - 터키 FTA 체결 가능성 제기

2013년 7월 말 터키 경제부 장관이 멕시코와 터키 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터키 경제부 장관은 올해 9월 중 예정된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터키 방문 시 FTA관련 논의를 했으면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2년 4월 멕시코 경제부 장관의 양국 간 FTA체결 가능성 언급에 이어 두 번째로, 양국 간 FTA체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멕시코-요르단 자유무역협정 논의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이 2014년 2월 6일 멕시코에 방문하여,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양국 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자유무역협정 관련 의견도 나누었다. 멕시코는 요르단에 맥주, 이집트 콩, 껌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합성섬유, 면, 양털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한편 양국 정상은 양국간 투자 증진 방안을 모색하며, 건설, 인프라, 농업, 자동차 부품, 통신 기술, 관광, 건강,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관계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멕시코- 파나마 FTA 협상 종료

2014년 3월 24일, 멕시코와 파나마 정부가 FTA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FTA협상이 8개월만에 종료된 것이다. 이로 인해 양국 FTA체결은 양국의회비준만을 남겨둔 상태지만, 전문가들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과 비공개 회의를 가진 후 언론에 FTA협상이 성공적으로 종료됨을 발표하였다. 파나마 대통령은 FTA가 양국 경제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 밝혔다.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수출입동향

□ 부문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멕시코의 수출입 현황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1Q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수출	370,706	380,189	90,750	2.8	100.0
1. 원유부문	52,892	49,574	11,492	-10.5	12.6
2. 비원유부문	317,814	330,615	79,258	5.0	87.3
- 농축산물	10,914	11,327	3,378	5.7	3.7
- 광업	4,906	4,715	1,265	20.0	1.4
- 제조업 (자동차)	301,993 (88,377)	314,574 (97,781)	74,615 (24,168)	4.8 (9.7)	82.2 (26.6)
전체수입	370,752	381,210	92,064	3.0	100.0
- 소비재	54,272	57,329	13,265	-2.8	14.4
- 중간재	277,911	284,823	69,590	4.5	75.6
- 자본재	38,568	39,057	9,209	1.4	10
무역수지	46	-1,021	-1,314	-	-
원유제외 무역수지	-52,846	-50,595	-1,213	-	-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앙은행 (Banco de México), 멕시코 통계청(INEGI)

2012년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다가, 2013년 들어 다시 무역수지는 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원유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무역수지에서 원유 부문 제외식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유 제외 무역수지는 2013년 505억 달러 적자로, 적자폭은 전년 대비 8.5% 감소했다.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멕시코는 2013년 대한민국 수출 15억 달러, 수입 135억 달러를 기록(한국으로 수출은 1.1% 증가, 수입은 11.6% 감소)하였고, 한국은 멕시코의 16위 수출 대상국이자, 4위의 수입 대상국이다.

□ 국가별 수출 (상위 10개국)

멕시코의 주요 수출국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2		2013		2014. 1Q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370,705	100.0	380,188	100.0	90,872	100.0
1 미국	287,844	77.6	299,528	78.7	72,322	79.6
2 캐나다	10,937	2.9	10,451	2.7	2,489	2.7
3 스페인	7,023	1.9	7,200	1.8	1,760	1.9
4 중국	5,720	1.5	6,467	1.7	1,527	1.7
5 브라질	5,657	1.5	5,386	1.4	1,143	1.2
6 콜롬비아	5,592	1.5	4,735	1.2	991	1.1
7 독일	4,494	1.2	3,797	1.0	836	0.9
8 일본	2,610	0.7	2,242	0.5	788	0.7
9 인도	3,340	0.9	3,524	0.9	609	0.5
10 대한민국	1,726	0.5	1,525	0.4	499	0.5

자료: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의 수출에서 대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9% 수준으로, 높은 대미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멕시코가 미국시장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멕시코의 대중국 수출은 꾸준히 유지되다가 2013년에 6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2년 대비 13% 증가하였다.

멕시코의 대 한국 수출은 수입액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2013년 대한민국 수출액은 15억 달러에 그쳐서 전체 수출의 0.4%를 차지하는 미미한 정도에 그쳤다.

□ 품목별 수출 (상위 10개 품목)

멕시코의 1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2		2013		2014. 1Q	
	HS 2단위	설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370,890	100.0	380,096	100.0	18,932	100.0
1	87	자동차 및 부품	70,272	18.9	77,193	20.3	16,841	20.8
2	85	전자기기	74,874	20.1	77,837	20.5	13,482	18.5
3	84	기계류	53,774	14.9	53,953	14.2	11,318	14.8
4	27	광물성 연료	52,271	14.0	48,791	12.8	3,224	12.5
5	90	광학기기	11,731	3.1	12,808	3.4	2,104	3.6
6	94	가구류	7,339	1.9	8,193	2.2	2,056	2.3
7	71	귀금속	13,217	3.5	9,817	2.6	2,026	2.3
8	07	채소류	5,012	1.3	5,449	1.4	2,016	2.2
9	39	플라스틱	7,521	2.0	8,077	2.1	1,309	2.2
10	73	철강제품	5,352	1.4	5,731	1.5	988	1.4

자료: 멕시코 경제부, World Trade Atlas

2013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한 가운데, 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기기는 주로 미국 인접 지역에서 임가공 및 조립 생산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 주를 이루며 자동차의 경우, 닛산, 폭크스바겐, 도요타,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등의 자동차 및 관련 부품들이 수출되고 있다.

멕시코는 인건비 등 제조비용 측면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대안 생산기지로서 부상하고 있다. 삼성, LG,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필립스 등 다수의 대형 브랜드 기업들이 멕시코 내에 관련 제품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별 수입 (상위 10개국)

멕시코의 주요 수입국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308,827	100.0	381,210	100.0	92,064	100.0	
1	미국	185,105	49.9	187,262	49.1	46,519	50.5
2	중국	56,936	15.4	61,321	16.1	14,162	15.4
3	일본	17,655	4.8	17,076	4.5	4,000	4.4
4	독일	13,507	3.6	13,461	3.5	3,262	3.5

국가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5	한국	13,340	3.6	13,493	3.5	3,048	3.3
6	캐나다	9,889	2.7	9,847	2.6	2,272	2.5
7	대만	6,183	1.7	6,689	1.8	1,421	1.5
8	이태리	5,462	1.5	5,621	1.5	1,339	1.5
9	말레이시아	4,735	1.3	5,379	1.4	1,338	1.5
10	스페인	4,081	1.1	4,311	1.1	1,082	1.2

자료: 멕시코 경제부, World Trade Atlas

멕시코는 수입에서도 미국 의존도가 높은 시장이다. 연중 평균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된 수입품목은 석유, 기계류(엔진부품, 펌프, 가스터빈 등), 전기부품(절연케이블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과 함께 멕시코의 5대 수입 대상국에 속한다. 멕시코의 대한국 수입은 주로 멕시코 지역에 투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부품소재 조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TV 관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 품목별 수입 (상위 10개 품목)

멕시코의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2		2013		2014. 1Q	
	HS 2단위	설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370,746	100.0	381,210	100.0	92,064	100.0
1	85	전자기기	77,607	20.9	83,697	22.0	18,644	20.3
2	84	기계류	60,758	16.4	62,450	16.4	15,612	17.0
3	27	광물성 연료	33,342	9.0	33,394	8.8	8,338	9.1
4	87	운송기기	32,427	8.8	33,394	8.8	7,981	8.7
5	39	플라스틱	19,835	5.4	32,909	8.6	5,129	5.6
6	90	광학기기	11,744	3.2	20,810	5.5	2,831	3.1
7	29	유기화학품	9,727	2.6	12,407	3.3	2,570	2.8
8	72	철강	10,151	2.8	8,674	2.3	2,237	2.4
9	73	철강제품	8,578	2.3	8,858	2.3	2,150	2.3
10	40	고무	6,320	1.5	6,284	1.7	1,618	1.8
10	48	종이	5,168	1.4	5,338	1.4	1,333	1.5

자료: 멕시코 경제부, World Trade Atlas

멕시코의 주요 수입 품목은 현지에서 임가공 및 조립 생산에 필요한 위한 전자기기 부품, 기계류, 자동차 및 부품 등 이다. 멕시코는 원유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유기술 부족으로 인해 정제석유(광물성 연료)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국과의 무역통계 총괄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는 한국의 수출 11위(97억 달러), 무역흑자6위(74억 달러)의 교역상대국이다. 특히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중남미에서는 브라질(26.7%) 보다 큰 가장 큰 수출시장이며 무역흑자 기준으로도 역시 중남미 최대의 무역흑자 창출 국가이다.

대 멕시코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인하는데 1990년대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면서 제품 생산을 위한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이 급증했고, 한국은 재화의 수입보다는 멕시코 현지에서의 생산활동을 통해 멕시코 수출 및 고용 창출로 멕시코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연도별 대 멕시코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1	2,149	10.1	267	-29.4	1,882
2002	2,231	3.8	295	10.8	1,935
2003	2,455	10.09	334	13.0	2,121
2004	2,994	22.0	411	23.2	2,583
2005	3,789	26.6	460	11.8	3,329
2006	6,285	65.9	798	73.5	5,486
2007	7,482	19.1	1,013	26.9	6,469
2008	9,090	21.5	1,049	3.6	8,041
2009	7,132	-21.5	971	-7.4	6,160
2010	8,846	24.0	1,521	56.5	7,325
2011	9,729	10.0	2,316	52.3	7,413
2012	9,042	-7.1	2,592	11.9	6,451
2013	9,727	7.6	2,301	-11.2	7,426
2014.2Q	5,216	13.5	1,605	51.5	3,611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KITA

나. 한국과의 품목별 수출입 동향

2013년 기준, 대 멕시코 수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7.6% 증가한, 약 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평판디스플레이, 승용차 수출이 전년대비 각각 14%, 26% 감소한 반면 칼라TV 및 자동차 부품은 각각 84.5%, 8.3% 증가했다.

특히, 멕시코 내 건축구조용 및 라인파이프 수요 증가, 국내 철강업체의 멕시코 내 자동차용 아연강판 공장의 본격적 가동에 따른 원자재 수입수요 증가로 중후판 제품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아울러 2013년에는 한국 선박의 대 멕시코 수출이 대규모로 이루어져, 6억 2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對멕시코 주요 수출품목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3		2014. 2Q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MTI	총계	9,727	7.6	5,216	13.6
1	8361	평판디스플레이	1,959	-14.1	1,011	-2.5
2	8211	칼라TV	623	1,658.0	515	388.7
3	7420	자동차부품	1,166	84.5	510	36.1
4	7461	선박	863	8.3	465	4.3
5	7411	승용차	496	-25.9	265	14.2

주: 증감률은 전년 대비

자료: KITA

수입에서는 전반적으로 기타금속광물, 아연광, 고철 등 1차 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3년 기준, 자동차 부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입은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34.3%, 51.3%, 51.5% 증가한 반면, 기타금속광물, 아연광은 감소하였다.

對 멕시코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3		2014. 2Q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MTI	총계	2,301	-11.2	1,605	51.5
1	1190	기타금속광물	460	-27.1	383	129.4
2	1160	아연광	216	-30.0	204	71.7
3	7411	승용차	117	51.3	94	89.0
4	1334	나프타	0	-	89	-
5	7420	자동차부품	174	34.3	81	-6.8

주: 증감률은 전년 대비

자료: KITA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 제도 개요

멕시코 경제부에서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은 포식어류, 마약, 유해 물질, 반사회 활동을 야기할 수 있는 전사지 등이다. 이들 품목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모두 수입이 가능하다.

한편 이외에 석유 함유 제품, 무기류, 폭발물, 군사 차량, 중고 타이어, 해외공간 직원 차량, 중고 컴퓨터, 방탄차량, 견인차 등은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나. 수입 금지 품목

수입 금지 품목

0301.99.01	0301 - 활어 0301.99 - 기타 0301.99.01 - 포식 어류
1208.90.03	1208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 1208.90 - 기타 1208.90.03 - 양귀비
1209.99.07	1209 - 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 1209.99 - 기타 1209.99.07 마리화나(카나비스 인디카), 기타 종자용과 혼합 불문
1211.90.02	1211 -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와 유사한 용도에 준하는 식물 및 그 부분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 여부를 불문 1211.90 - 기타 1211.90.02 - 마리화나(카나비스 인디카)
1302.11.02	1302 -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픽텐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302.11 - 아편 1302.11.02 - 피울 수 있게 준비된 아편
1302.19.02	1302 -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픽텐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302.19 - 기타 1302.19.02 - 마리화나(카나비스 인디카)

1302.39.04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픽텐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302.39 기타 1302.39.04 - 마리화나(카나비스 인디카)의 부산물
2833.29.03	2833 - 황산염, 명반과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29 - 기타 2833.29.03 - 황산 탈륨
2903.59.03	2903 -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3.59 - 기타 2903.59.03 1,2,3,4,10,10-헥사클로로-1,4,4,a,5,8,8a, 헥사하이드로-엔도, 1,4:5,8-dimethanonaphtalene(이소드린)
2903.52.02	2903 -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3.52 - 엘더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2903.52.02 - 1,2,4,5,6,7,8,8-Octachloro-3-alpha,4,7,7-알파 tetrahydro-4,7 -methanoindene(클로르덴)
2910.90.01	2910 - 원고리의 에폭시드, 에폭시알콜,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술폰화 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90 - 기타 2910.90.01 - 1,2,3,4,10,10-헥사클로로,6,7-에폭시-1,4,4a,5,6,7,8,8a 옥타하이드로-endo, endo - 1,4:5,8 디메타노나프탈린(엔드린)
2931.00.05	2931. 기타 유기, 무기화합물 2931.00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2931.00.05 - O-(2,5 디클로로 4-브로모페닐) O-methyl phenylthiophosphonate(렙토포스)
2939.11.01	2939 -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2939.11 -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에틸모르핀, 에토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폰, 모르핀, 니코모르핀, 옥시코돈, 옥시모르폰, 풀코딘, 데바콘과 테바인 및 그들의 염 2939.11.01 -Diacetylmorphin(헤로인), 베이스 또는 히드로클로라이드
3003.40.01	3003 - 의약품 3003.40 - 알카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제 2937호의 기타 물품 또는 향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3003.40.01 카나비스 인디카로 만들어진 조제품
3003.40.02	3003 - 의약품 3003.40 - 알카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제 2937호의 기타 물품 또는 향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3003.40.02 아세틸 모르핀 또는 그 염 또는 유도체로 만들어진 조제품

3003.90.05	3003 - 의약품 3003.90 - 기타 3003.90.05 - 카나비스 인디카로 만들어진 조제품
3004.40.01	3004.40 -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호르몬, 제 2937호의 기타 물품 또는 향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3004.40.01 - 아세틸 모르핀 또는 그 염 또는 유도체로 만들어진 조제품
3004.40.02	3004.40 -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호르몬, 제 2937호의 기타 물품 또는 향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3004.40.02 - 카니비스 인디카로 만들어진 조제품
3004.90.33	3004.90 - 기타 3004.90.33 - 카나비스 인디카로 만들어진 조제품
4103.20.02	4103 - 기타의 원피 4103.20 - 파충류의 것 4103.20.02 거북이 또는 Caguama 거북이의 것
4908.90.05	4908 - 전사지 (디칼커매니어) 4908.90 - 기타 4908.90.05 - 반사회적, 폭력적인 전사지
4911.91.05	4911 -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91 - 서화, 디자인 및 사진 4911.91.05 - 반사회적, 폭력적인 내용이 프린트 된 인쇄물

자료: 코트라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 작성

다. 수입 규제 품목

수입허가제도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석유 함유 제품	국영석유공사(PEMEX)의 공식의견서 필요 LP가스의 경우 에너지부 의견서도 필요
무기류, 폭발물, 군사 차량	국방부(SEDNA) 공식의견서 필요
중고 의류	내무부(Secretaria de Gobernación) 공식의견서 필요
재생용 중고 타이어	재생 담당 업체에 대한 상세 내역서 필요
자동차 반제품 일시 수입 시	자동차 반제품을 수입, 멕시코에서 완성 후 다시 수출할 경우, 동반 제품 수입을 위한 수입허가 필요
해외공관 직원 차량	외무부의 증빙서류 및 재무부에서 발행한 임시수입허가증 사본제출
장애자용 차량	최근 6개월 이내 공식의료기관에서 발행된 건강증명서(장애 상세 내용 포함)
방탄 차량	방탄관련 멕시코 품질협회(NORMEX) 증명서 필요

품목(분야)	내 용
견인차	제조업회의소(Cá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Transformación)에서 발행된 등 제품의 국내생산이 없다는 증명서 필요
치즈 및 유제품	유제품산업협회나 제조업협회의 의견서 제출 필요
중고컴퓨터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용으로 수입할 경우, 교육부의 허가서 필요
시가, 캐러멜, 껌	수입 첫 해는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수입 두 번째 해부터 수입내역에 대한 세관서류를 사전 제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 멕시코경제부(SE)

라. 기타 수입제한 법규

멕시코는 원칙적으로 중고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산, 캐나다산 중고차의 경우 일부 규정을 충족시킬 경우,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산업 진흥 및 현대화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멕시코 정부는 1990년 1월 1일부터 멕시코 현지에 자동차조립생산시설을 보유한 자동차생산기업에만 수출실적에 비례해 생산지역에 상관없이 무관세로 완성차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현지에 생산설비가 없거나 FTA 미체결국 업체가 완성차를 수입하는 경우 보통 20~30%의 관세가 부과된다.

마. 수입쿼터

2014년 8월 기준, 수입 쿼터 제한을 받은 일부 품목이 있으며, 한국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한국산 냉연 강판이다. 2012년 7월 현지 철강 업체인 테르니움의 반덤핑 청원을 접수, 2012년 10월부터 한국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3년 6월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의 철강 제품에 대하여 60.4%, 6.45%의 반덤핑 세율 부과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는 멕시코에 2014년부터 각각 연간 40만톤, 1만톤을 수출하고 2018년에는 각각 50만 톤, 2만 톤까지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하고, 동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포스코 등의 약속으로 자국 산업에 대한 덤핑 피해 영향이 제거되었다고 판단, 예비 판정에 따른 잠정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비관세 장벽

1) 표준규격제도(Norma Oficial Mexicana: NOM)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는 6,600개 이상으로 변경이 잦으며 공표기간도 충분하지 않는 등 사전 대비가 어려워 이는 실질적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전 품목
- 종류: 제도장벽

□ 현황

- 관련 규정: 계측표준법 (Ley de Metodología y Normatización)
- 멕시코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공식표준규격(Norma Oficial Mexicana, NOM)을 시행하고 있다.
 - 1994년 3월부터 대상품목을 81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확대, 2007년 12월 기준 총 6,600여 개의 표준규격 제도가 운영 중이다.
- 2008년 하반기부터 경제부에서는 NOM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국제규정과 다른 것은 개정하고 현 상황에 맞지 않는 NOM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바 기존의 7,200여 개 표준 규격 제도가 6,600여 개로 줄어 들었다.
- 멕시코 정부는 2010년에 5천 개의 표준규격인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800개는 멕시코 공식표준규격인 NOM이며, 4천여 개는 멕시코표준규격(NM, Normas Mexicanas)이다. 참고로, NOM(총 977개)는 보다 중요한 국제적 규정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NM은 국제적 수준의 기술 기준에 따르는 멕시코 내 자발적 규정이다.
- 멕시코 경제부 Ingrid Maciel 국제표준과장이 발표한 바로는 현재 섬유, 전자제품 규정 및 식품분야 상표부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제품 관련 규정은 다소 진전이 있으나, 식품 상표부착 관련 규정의 검토는 더 늦어지고 있다. NOM 제도는 특히 한국산 타이어와 전자제품의 대멕시코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영향 및 문제점

- 빈번한 개정 및 충분하지 못한 준비기간
 - 관련 규정 개정이 빈번할 뿐 아니라, NOM 관련 규정 개정의 경우 공고 후 다음 날부터 시행하여 수출기업에서는 준비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2) 현지 조립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의 완성차 수입 제한

멕시코 현지 조립생산시설을 보유한 자동차 생산 기업만 수출실적에 비례하여 생산지역에 상관없이 무관세로 완성차 수입을 허가함으로써 현지 공장이 없는 업체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직접 수입하려 할 때 20~30%의 관세가 부과된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기계(자동차)
- 종류: 수입허가

□ 현황

- 규정
 - 자동차산업 진흥 및 현대화법
- 1990년 1월1일부터 멕시코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만 수출실적의 일정 범위 내에서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 완성차 업체 수출실적의 일정비율(2009년 5월 기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대수의 10%)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 멕시코 현지 생산설비가 없거나 FTA 미 체결국에 대해서는 30%의 고관세를 부과하여 현실적으로 수출이 쉽지 않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2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무관세 수입률은 멕시코 내 연구센터 건립 등 인프라 추가건설에 따라 증가 가능하다.

□ 최근 동향

- 2014년 5월, 현대자동차 판매 법인이 멕시코에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브랜드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 현대차는 다임러 크라이슬러를 통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판매한 바 있으나, 이번 판매 법인 설립으로 인해, 미국 및 유럽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직접 수입하기는 어렵지만 멕시코는 미국 및 유럽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동 지역에서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최근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에 공장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추후 멕시코 내에서 한국 브랜드의 차량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 중고차 수입금지

중고차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중고차만 허용하여 특혜부여 성격이 짙다. 현재 NAFTA체결국인 미국과 캐나다산 중고차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기계(중고자동차)
- 종류: 수입허가

□ 현황

○ 관련 규정: 세관 개혁 및 보완 법령 137조(El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y adicionan diversas disposiciones de la Ley Aduanera, artículo 137)

○ 중고자동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미국과 캐나다산 중고차 중 미국 연비 및 공해가스 배출 관리 규정을 충족한 10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 영향 및 문제점

국내산 중고차 수출이 불가능하다.

4) 통관서류에 불필요한 정보 요구

통관 시 필요한 각종 서류에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게 해 누락 및 기재 오류 등 사소한 실수에도 통관을 보류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전 품목
- 종류: 통관절차

□ 현황

- 관련 규정: 없음
- 각종 서류에 불필요한 기재사항들이 너무 많다.
 - 모든 서류, 라벨링에 납세번호(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강제하고 있다.
 - 사소한 사항이라도 누락 시 통관이 보류된다.

□ 영향 및 문제점

- 기재사항이 미비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어 제품 납기 지연 가능성이 농후하다.

5) 자국어 사용 강제 규정

서류작성 시 스페인어나 현지 통용영어 사용만 강요해 수출업자에게 추가 번역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전 품목
- 종류: 통관절차

□ 현황

- 관련규정 명기: 없음
- 서류작성 시 스페인어 사용을 요구한다.
- 원칙적으로 스페인어 외에 영어도 사용 가능하나 실제 세관에서는 스페인어만 요구 하는 경우가 많다.
- 영어로 작성이 허용되더라도 반드시 현지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 영향 및 문제점

스페인어 및 현지 통용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자의 경우 통관서류 작성 시 추가 번역 비용이 발생한다.

6) 의료기기 수입 허가에 과도한 시간 소모

의료기기 수출허가를 위한 심사에 긴 시간이 소요됨으로 적기에 시장 진출이 어렵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전기·전자(의료기기)
- 종류: 수입허가

□ 현황

- 관련 규정: 멕시코 보건법 제376조
- 모든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용품(소모품 포함)이 멕시코에서 수입, 유통, 판매되기 위해서는 멕시코보건부(Secretaría de Salud)가 발급하는 위생등록증(Registro Sanitario)을 취득해야 한다.
- 관련규정에 의해 품목허가에 장기간(10개월~1년)이 소요된다.

□ 영향 및 문제점

품목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시장진출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사. 참고사항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에서 비교적 자유 무역을 지향하는 국가 중 하나로, 수입 규제 제도 철폐 및 관세율 인하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 또한 44개 국가와의 FTA체결로 세계 경제 영토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도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 시도 중에 있어서 향후, 멕시코의 교역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자유 무역 지향 추세로 인해 각종 무역 규제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 최신 정보

2014년 3월 현재 멕시코 수입 규제 건수는 총 47건이다. 이 중 44건이 반덤핑 규제이며, 3건은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제이다. 수입 규제 품목은 38개이며, 규제국은 14개국이다. 이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8%로 가장 높다. 현재 멕시코에서 반덤핑 및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제 제품 및 국가는 다음과 같다.

멕시코 반덤핑 및 보조금 지급 규제 현황

분야	규제 건수	품목	국가
1차 금속 및 제조업	24	철심	우크라이나
		스틸 체인	중국
		철못	중국
		철골 접합부	중국
		COLLAPSIBLE CONTAINER	베네수엘라
		망간철(페로망간)	중국
		페로실리콘망간	우크라이나
		열간압연시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냉간압연시트	러시아, 카자흐스탄
		육각 아연 도금	중국
		강판시트	중국(예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압연판	러시아
		용접강관	미국, 영국
		심레스 파이프(2~4인치)	중국
심레스 파이프(5~16인치)	중국		

분야	규제 건수	품목	국가
		심레스 파이프	일본
		스틸너트	중국
		철근	브라질
석유 화학 제품, 플라스틱, 고무	10	스테아르 산	미국
		지방산	미국
		아목시실린 삼수화물	인도
		디클록사실린나트륨	인도
		모노부틸에테르	미국
		나트륨헥사메타	중국
		폴리 부타디엔 합성 고무	브라질
		메토프롤롤 주석산	인도(예비)
		소르비톨	프랑스
		가성 소다	미국
금속, 기계, 장비 제품	3	동축케이블	중국
		전극	중국
		유압 잭	중국
기타 제조업	3	분무기	중국
		연필	중국(예비)
		식기	중국
섬유부속품	2	본드 지	브라질
		다중 포대	브라질
음식, 음료, 담배	2	버섯	중국, 칠레
원단, 의류, 가죽	2	커버	중국(예비)
		폴리에스테르	한국
농수산물	1	콩기름	미국
합계		47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멕시코의 대 한국 수입규제 동향: 1건의 반덤핑 규제 중.

1) 개요

멕시코 경제부(무역위원회: 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는 1993년 8월 19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관세 부과 후, 1998년 8월 20일 및 2003년 8월 20일에 추가로 5년씩 동 조치를 연장하였다. 멕시코 경제부 무역위원회(UPCI)는 멕시코 이해관계사 (Akra Polyester, 마길라도라 지역 생산업체와 계약에 의해 동 품목을 멕시코 국내에 공급함)의 요청에 따라 2008년 8월 19일 동 조치 연장 여부를 재조사키로 하고 2008년 8월 23일 한국의 생산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생산기업(웅진(구 제일), 휴비스(구 삼양))은 2008년 9월 및 2008년 11월에 생산 가격, 수출 가격, 생산시설 규모 등 멕시코 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2009년 5월 25일 사전설명회에 이어 2009년 6월 2일 제1차 공청회(원고 측: Akra Polyester. 피고 측: 대사관 및 KOTRA)가 열렸다. 한국 생산기업 및 수출기업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대리인도 지명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 측에서 참석하였다. 공청회에서 Akra Polyester측은 과거 동 품목에 의한 멕시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주장하고 한국의 동 품목 생산 능력과 재고는 많은 데 비해 수출 할 곳이 많지 않아 반덤핑 규제가 풀릴 때 멕시코 산업이 손해를 입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15년이라는 기간은 멕시코 국내산업이 입었던 산업피해를 회복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며, 추가적인 반덤핑 조치의 연장은 피해를 가져오는 덤핑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수준에 따라 효력이 지속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WTO 반덤핑 협정 제 11.1조)

또한, 1993년 이후 한국 화학섬유업체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해당 품목의 급격한 대 멕시코 수출 증가 현상은 없을 것이며, 이로 말미암은 산업피해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2005년 7월의 한국산 저용점사(Low melted)에 대한 반덤핑조치 철회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또한, 고품질의 한국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입 제한은 관련산업에 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멕시코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인도나 중국산 동일제품의 정상 수입을 더 많은 양 (2008년 4개 HS Code 합산액 기준, 중국산은 한국산의 3배, 인도산은 1.2배)를 허용하는 것에 비해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단 1회의 공청회로 심리절차가 끝났고, 2009년 11월 최종 판결결과 5년간 반 덤핑 관세 부과 연장이 결정되었다.

한편, 2013년 8월 20일, 5년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으로 한국산 폴리에스터단 섬유사는 2018년 8월 20일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로우멜티드 제외)	5503.2001 5503.2002 5503.2003 5503.2099	반덤핑	'92.3.19	'93.8.19 '98.8.20 '03.8.20 '08.8.20	○ 일반 관세에 하단 관세율 추가 삼양사 제조, 수출 시 3.74% 삼양사 제조, 대우 수출 시 14.81% 제일합섬 제조, 삼성 수출 시 4.49% 기타 32% ○ 참고: 일반관세 5%

나. 멕시코, 한국산 냉연 강판 반덤핑 조사 종료

1) 개요

2013년 12월 26일 멕시코 정부가 포스코 등을 비롯한 한국 철강 기업의 냉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료하였다. 멕시코 경제부는 한국의 수출업체인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 등이 제출한 제품의 공급 및 가격 제안을 수용하고 조사를 종료한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본부는 2012년 7월 멕시코 철강회사인 테르니움의 반덤핑 청원을 수용하여 2012년 10월 1일부터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3년 6월 3일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의 철강 제품에 대해 각각 60.4%, 6.45%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는 멕시코에 2014년부터 각각 40만톤, 1만톤을 수출하고 2018년에는 50만 톤, 2만 톤까지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동 문제를 해결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한국 기업과의 약속으로 자국 산업에 대한 덤핑 피해 영향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하고 예비 판정에 따른 잠정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2) 참고사항

□ 멕시코에 대한 수입 규제는 아니지만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은 사례

P사는 2009년부터 멕시코 에서 자동차 및 가전용 강판을 생산 판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브라질의 멕시코산 도금강판에 대한 AD제소(2010년 말)로 인해 대브라질 수출에 위협을 받고 있다. P사는 급증하는 멕시코 내 자동차용 강판 수요와 브라질 시장 확대를 위해 알타미라에 도금강판 2라인 공장을 증설했으며, 현재 브라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재용 철강이나, P사는 자동차용 강판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11년 3월 30일, 월풀 사의 삼성, 엘지, 대우,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한 제소 요청과 관련, 대우를 제외한 삼성과 엘지에 2011년 10월 27일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 2012년 3월 멕시코산 LG 냉장고에 30.34%, 삼성 냉장고에 15.95%의 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미상무부의 이러한 결정을 뒤엎음으로써 정상적인 대미 수출이 가능해졌다.

다. 2014년도 수입 규제 전망

□ 멕시코의 통상정책 방향

멕시코 현 정부의 주요통상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대외무역 시장 개방으로 요약된다.

현 정부는 파나마 등과 새로운 FTA 체결을 논의하는 등 개방적 통상정책 기조는 계속되고 있으나, 철강 및 화학 업계를 주축으로 한 멕시코 산업계의 반발이 심해 정부 측의 FTA 체결 움직임이 순탄치만은 않다

라. 수입규제 예상품목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이 멕시코에서 임가공을 통한 미국 재수출 목적이고, 멕시코 시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품목 중에서 수출량이 급증하는 품목은 노트북을 비롯한 전자제품 위주이며, 이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없다.

3% 관세가 재적용된 철강제품의 경우, 멕시코 각주 및 유관기관간 이견이 존재하여 연방정부(경제부)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 있으나, 멕시코 내 철강산업 투자로 인한 생산량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관세를 통한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마. 참고사항

□ 멕시코, 대중국 반덤핑관세 유효기간 종료

멕시코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반덤핑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폐를 유예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중국의 요청으로 양국은 2008년 ‘보복관세에 관한 과도 통상협정 (Acuerdo Comercial de Transición en material de Cuotas Compenstorias)’에 서명하였으며 섬유, 의류, 장난감, 자전거, 유모차, 공구, 가전, 기계 및 전기기구, 화학제품, 점화기, 연필, 안정기, 자물쇠 및 양초의 16개의 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일부를 즉각 폐지, 나머지 품목들은 2011년 12월 11일까지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953개의 품목 중 민감 품목으로 인정된 204개의 품목을 제외한 749개 품목에 대해서는 멕시코 상원의 비준 후 즉시 반덤핑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나머지 204개 품목은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 2011년 12월 11일자로 그 동안 부과됐던 반덤핑관세가 철폐되었다. 즉, 중국산 제품 역시 우리나라 제품과 같이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다.

□ 미국, 한국 및 멕시코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 일렉트로닉스 등 한국산 세탁기 제조업체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하여 미국에 판매하는 가정용 세탁기에 정부 보조금과 덤핑 등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 이들 업체에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는 82.41%,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를 반덤핑 관세로 부과하였고, 상계관세는 대우일렉트로닉스 72.30%, LG전자 0.01%, 삼성전자 1.85%를 각각 부과하였다.

5. 관세제도

가. 관세율 체계

멕시코 상품분류는 1988년부터 HS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상품 분류는 22개의 SECCION과 98개의 CAPITULO로 구성되며, CAPI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12,116개의 FRACCION으로 세분된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 10단계로 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0%: 서적과 같이 교육적 목적에 사용되는 품목, 마길라도라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및 반제품
- 3~5%: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 부품
- 10~13%: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
- 15~20%: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 23~35%: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

참고로 멕시코는 HS CODE 8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를 위해서는 멕시코 관세 책자를 참고해야 한다.

나. 멕시코 관세율 사이트

멕시코 경제부 사이트(SIAVI)에서 HS CODE별로 FTA 체결국 및 미체결국의 관세 확인이 가능하나 동 사이트는 업데이트가 늦은 편이므로 DIA 사이트에서 비FTA 국가(한국)에 대한 최근 관세를 재확인해볼 수 있다.

DIA 사이트는 스페인어판은 유료이다. 영어판은 관세검색 내용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무료정보인 관세로 FTA 체결국 관세율, 반덤핑 관세 등 상세내역이 제공되지 않는다.

- 경제부: <http://www.economia-snci.gob.mx:8080/siaviWeb/siaviMain.jsp>
- DIA: <http://www.diaenlinea.com.mx/>, <https://www.datacomex.com.mx/>
- 스페인어를 선택한 후에, 왼쪽 메뉴 중에 TAFITA ARANCELARIA MEXICANA ENLINEA를 선택하고, HS CODE를 넣고 검색하면 수입 관세가 나오는 부분이 FTA 비체결국, 즉 한국에 해당하는 관세이다.

경제부 사이트 관세 설명(예)

Aranceles a la importación aplicados por México a: 멕시코 수입 관세율			
Socios comerciales (tarifa mexicana): FTA 체결국가			
TLCAN (NAFTA)	EE.UU.	Canadá	
	Ex.	Ex.	
Triángulo del Norte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Ex.	Ex.	Ex.
Centroamérica (중미)	Costa Rica	Nicaragua	
	Ex.	Ex.	
G-3	Colombia	Venezuela	
	Ex.	Ex.	
América del Sur (남미)	Chile	Uruguay	Bolivia
	Ex.	Ex.	Ex.
Unión Europea (EU)	Unión Europea		
	Ex.		
AELC (ECLA)	Noruega	Suiza	Islandia
	EXCL	EXCL	Ex.
Israel (이스라엘)	Israel		
	EXCL		
Japón (일본)	Japon		
	Ex.		
Países no socios: FTA 미체결 국가			
Arancel Nación Más Favorecida (최혜국NMF): 10 % : MFN 적용 국가 세율 10%			

주: EX- 0%, EXCL- 협정에서 제외

자료: 경제부 사이트

다. 멕시코 정부의 최근 관세인하 방침

멕시코 경제부는 2011년 11월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화학 및 농수산물 관련 480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을 공포하였다. 이번 관세 인하방안은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관세인하 정책의 연장선으로 165개 석유화학 제품과 315개 농수산물이 이에 해당된다. 석유화학 제품은 (4.2%→)4%, 농수산물이 (21.7%→)14.2%로 관세 인하가 추진될 계획으로, 특히 농수산물 관련 제품에 대한 인하 폭이 크다.

6. 주요인증제도

가. 멕시코 공식표준(NOM) 마크 제도

1) 제도의 성격

멕시코 공식표준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고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써 동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공식 강제검사 제도이다.

2) 운영배경

□ 대내적 요인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른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고품질문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사용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대외적 요인

경제개방 조치 이후 과열되는 국제경쟁과 기술혁신에 맞서 자국 상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수입품의 무분별한 자국시장 진입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품질규제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3) 운영목적

□ 소비자 보호 차원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 검사와 제품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추구한다.

□ 산업 정책적 차원

NOM 획득 품목과 비 획득 품목을 차별화함으로써 멕시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유도한다.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신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4) 규제지역 (제도 적용지역)

NOM 마크 제도는 멕시코 전역에 걸쳐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수입품은 NOM 마크 획득 여부 심사는 관세국(DGA) 또는 일선 세관에서 담당하며 내국 생산품은 소비자 보호청(PROFECO)에서 NOM 마크 획득 여부를 심사한다.

5) 제도 주요 내용

□ 안전검사대상 제품 및 라벨링 대상 제품 이원화 운영

멕시코는 한국처럼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 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즉 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은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멕시코는 이 제도를 안전검사대상 제품과 라벨링 대상 제품으로 다음과 같이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안전검사대상 제품: 안전요건 품목 (NORMA DE SEGURIDAD)
 -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제품
- 라벨링 대상 제품: 라벨링 요건 품목(NORMA DE ETIQUETADO)
 - 제조 및 상업적 유통정보 등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품목
 - 안전요건 품목과 라벨링 요건 품목이 중복되는 예도 있음.

6) NOM마크

멕시코 NOM 인증마크는 인증 발급기관(ANCE, NYCE)등의 기관 마크와 함께 표시된다.



나. NOM마크 제도 운영기관 및 방법

1) 주관기관 및 연락처

- 경제부 표준국(DGN / DIRECCIÓN GENERAL DE NORMAS)
- 주소: AV. FUENTE DE TECAMACHALCO NO. 6, COL. LOMAS DE TECAMACHALCO, CP. 53950, NAUCALPAN DE JUAREZ, ESTADO DE MEXICO, MEXICO
- TEL: (52-55) 5729-9300 (Ext. 43241), FAX : 5520-9715
- WEB: <http://www.economia.gob.mx/?P=85>
- E-MAIL: lurquiza@economia.gob.mx
- 담당: C. CIRO LOPEZ URQUIZA(JEFE DE DEPARTAMENTO DE CONTROL DE DOCUMENTOS Y DATOS)

2) 검사 및 시험기관

□ 개요

검사·시험 기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NOM마크 신청 시 안전검사 또는 라벨링 검사 등과 함께 NOM발급을 담당하는 인증기관(INSTITUTO DE CERTIFICACIÓN)과 NOM신청 예비 단계로 이용하게 되는 실험소(LABORATORIO)로 구별된다. 인증 기관과 실험소는 모두 경제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았다.

NOM발급을 담당하는 인증기관은 전자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NYCE), 전기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ANCE), 건축자재 표준화 인증기구(ONNCCE), 테킬라 규제원(CRT) 등이 있으나 ONNCCE는 비 강제검사제도인 NMX(NORMA MEXICANA) 마크제도 위주로 운영되며, CRT는 테킬라 단일품목에 한정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관련 주요 NOM 인증 기관은 NYCE와 ANCE 2대 기관을 꼽을 수 있다.

강제검사제도 예비단계로서의 실험소는 다시 시험소(LABORATORIO DE PRUEBAS)와 계측소(LABORATORIO DE CALIBRACIÓN)로 대별되며, 관련 업체나 협회 등이 실험소로 지정된다.

□ 주요 검사, 시험 기관명

- 전자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니씨)
-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ELECTRÓNICA, A.C.(NYCE)
- 전자제품, 전산정보 및 통신 관련제품, 타이어 등 고무제품 등 검사 시행 및 NOM 발급을 담당한다.

- 전기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안쎬)
- 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DEL SECTOR ELÉCTICO, A.C(ANCE)
- 전기제품, 가스 관련제품, 가정용 기기 등 분야 검사 시행 및 NOM 발급을 담당한다.

□ 연락처

- NYCE(니쎬 / 전자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
- 주소: AV. LOMAS DE SOTELO NO. 1097, COL. LOMAS DE SOTELCO, 11200, MEXICO D.F.
- TEL: 52(55) 5395-0777
- FAX: 52(55) 5395-0777(전화 팩스 동일)
- E-MAIL: nyce@nyce.org.mx
- WEB: <http://www.nyce.com.mx/>
- 담당: ING. GERMAN FLORES Y GOMEZ

- ANCE(안쎬 / 전기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
- 주소: AV. LAZARO CARDENAS 869, COL.NUEVA INDUSTRIAL VALLEJO, 07700, MEXICO. D.F.
- TEL: 52(55) 5747-4550
- FAX: 52(55) 5747-4560
- WEB: <http://www.ance.org.mx>
- 담당: Ricardo A. Hernández Márquez

3) 검사 및 시험기관 이용방법

□ 국외에서 이용하는 방법

NOM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 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APODERADO LEGAL)을 세워야 한다. 법정대리인으로는 동분야 전문 법률사무소(BUFETE)를 주로 이용한다.

□ 검사·시험 소요 기간

- 안전검사 대상품목(NORMA DE SEGURIDAD)
- 검사 대상품목이 신제품인 경우
 - DGN이나 NYCE, ANCE는 공히 인증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검사 완료, 인증서가 발급된다. 단, 제출 서류에 하자(DEFICIENCIA)가 없어야 하는데, 하자 발견 시 미비점을 적시하여 발송된다.

- 검사대상품목이 중고품, 재생품(RECONSTRUIDO), 단종품(DISCONTINUADO), 스펙품(FUERA DE ESPECIFICACIONES)등인 경우
- 공히 인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에 검사완료, 인증서가 발급된다.
- 제출서류상 하자 발견 시 미비점 적시, 반송된다.
- 라벨링(상업정보) 검사품목(NORMA DE ETIQUETADO)
 - ANCE: 검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완료된다.
 - NYCE: 검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근무일 이내 완료된다.
 - DGN: 표준국에서는 라벨링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ANCE와 NYC에서 대행 처리한다.

□ 검사·시험 비용

- 안전검사(CERTIFICACION)의 경우
 - 검사비용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NYCE의 경우 최저 1,835페소(141달러)에서 최고 3,560페소(273달러)가 소요된다.
 - ANCE의 경우 품목별로 최저 \$1,948페소(149달러)에서 최고 3,898페소(299달러) 소요된다.
 - DGN은 평균 1,917페소(147달러)소요되나, 제품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라벨링(상업정보) 검사(VERIFICACION)의 경우
 - NYCE는 398페소(약 30달러), ANCE는 615페소(약 47달러)
 - \$는 멕시코 페소화 단위 표기이다. 미 달러화는 U\$로 구분 표시한다.
- 시험소 검사(PRUEBA DE LABORATORIO) 비용
 - 품목별로 비용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1,000-20,000페소 범위 내에서 결정되나 1,600~5,500페소가 일반적이다.

다. NOM 마크 신청절차

1) 승인신청 시 구비서류

□ 대표준국 (DGN) 신청 시 서류

- 안전검사 신청서(SOLICITUD DE CERTIFICACION NOM)
- 검사 서비스료(인지대) 납부 영수증 (COMPROBANTE DE PAGO DE DERECHOS) 원본
- 연방 납세자 등록증(CEDULA DE RFC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인시험소(LABORATORIO ACREDITADO) 검사보고서(INFORME DE PRUEBA) 또는 의견서 (DICTAMEN)

- 각 NOM 에서 규정한 품목별 기술 명세서 (DOCUMENTACIÓN TÉCNICA)
 - 작동·서비스 지침서(INSTRUCTIVO) 및 편람(MANUAL)
 - 팜플릿 또는 제품사진, 기술사양서(HOJA DE ESPECIFICACIONES TECNICAS), 설치 명세서, 품질 보증서
 - 제품 전기 도해표 (DIAGRAMA ELÉCTRICO) 등
- 진실서약하의 품종 선언서 (DECLARACIÓN)
 - 신청 품목이 신제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 또는 단종품인지 여부 명기 및 동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한 서류

□ 대 NYCE 및 ANCE 신청 시 서류

- 안전검사(CERTIFICACIÓN) 신청 시: 안전요건 품목 (NORMA DE SEGURIDAD)의 경우
 - 안전검사 신청서(SOLICITUD DE SERVICIOS DE CERTIFICACIÓN)
 - 안전검사 신청 계약서(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DE CERTIFICACIÓN)
 - 연방 납세자 등록증(CEDULA DEL RFC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인시험소(LABORATORIO ACREDITADO) 검사보고서(INFORME DE PRUEBA) 또는 소견서(DICTAMEN)
 - NOM신청 전에 견본품(3개)을 공인시험소에 제출하여 긍정소견서나 적격판정 검사 보고서를 사전에 득한 후 NOM신청서 등 여타서류와 함께 NOM 발급기관(ANCE, NYCE)에 제출한다.
 - 각 NOM에서 규정한 품목별 기술 명세서(DOCUMENTACIÓN TÉCNICA)
 - 작동·서비스 지침서(INSTRUCTIVO) 및 편람(MANUAL)
 - 팜플릿 또는 제품사진, 기술사양서(HOJA DE ESPECIFICACIONES TECNICAS), 설치 명세서, 품질 보증서
 - 제품 전기 도해표(DIAGRAMA ELÉCTRICO) 등
 - 진실서약하의 품종 선언서(DECLARACIÓN)
 - 신청품목이 신제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 또는 단종품인지 여부 명기 및 동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한 서류
- 라벨링 검증(VERIFICACIÓN) 신청 시: 라벨링 요건 품목 (NORMA DE ETIQUETADO)의 경우
 - 라벨링(상업정보)검증 신청서(SOLICITUD DE SERVICIOS DE VERIFICACIÓN DE INFORMACIÓN COMERCIAL)
 - 라벨링 검증 신청 계약서 (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DE VERIFICACIÓN DE ETIQUETADO)
 - 회사 정관(ACTA CONSTITUTIVA) 사본
 - 연방 납세자 등록증 (CEDULA DE RFC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안전검사나 라벨링 검사 신청 모두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CARTA PODER) 추가 필요

2) 신청에서 승인획득까지의 과정

□ 평가방법 (평가유형)

비평가는 시료채취검사 형태로 이루어지며, 본 평가 시에는 서류심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일단 NOM을 획득한 뒤에는 사후평가를 시행하는데, 동 평가는 기존 NOM 획득제품이 NOM을 계속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된다. 공장 방문(국내산의 경우) 내지 창고방문, 판매현장방문(수입품의 경우)의 형태로 이루어지되 사전통지 후 또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검사가 이루어진다.

□ 승인절차(NOM 획득절차)

○ 예비신청

NOM을 획득하고자 할 때 내국산의 경우에는 통산부 지정 품목별 공인시험소에 바로 시험 의뢰를 하면 되지만 수입품의 경우에는 먼저 DGN 등 NOM발급기관에 견본 수입 허가 신청을 내야 한다.

견본 수입수량은 품목별 해당 NOM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3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목적이 NOM 인증신청을 위한 시험소 검사 의뢰용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견본수입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어떤 시험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각 기관별 견본수입 허가신청은 아래와 같이 시행된다. 시험소는 해당 공인시험소 중 1개 처를 신청자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 및 처리기간

기 관	제출 서류	신청수수료(품목당)	처리기간
DGN	신청회사 레터헤드지상신청서	261페소	7 근무일
NYCE	견본수입신청서, "	220페소	24 시간 이내
ANCE	견본수입신청서, "	289페소	24 시간 이내

자료: 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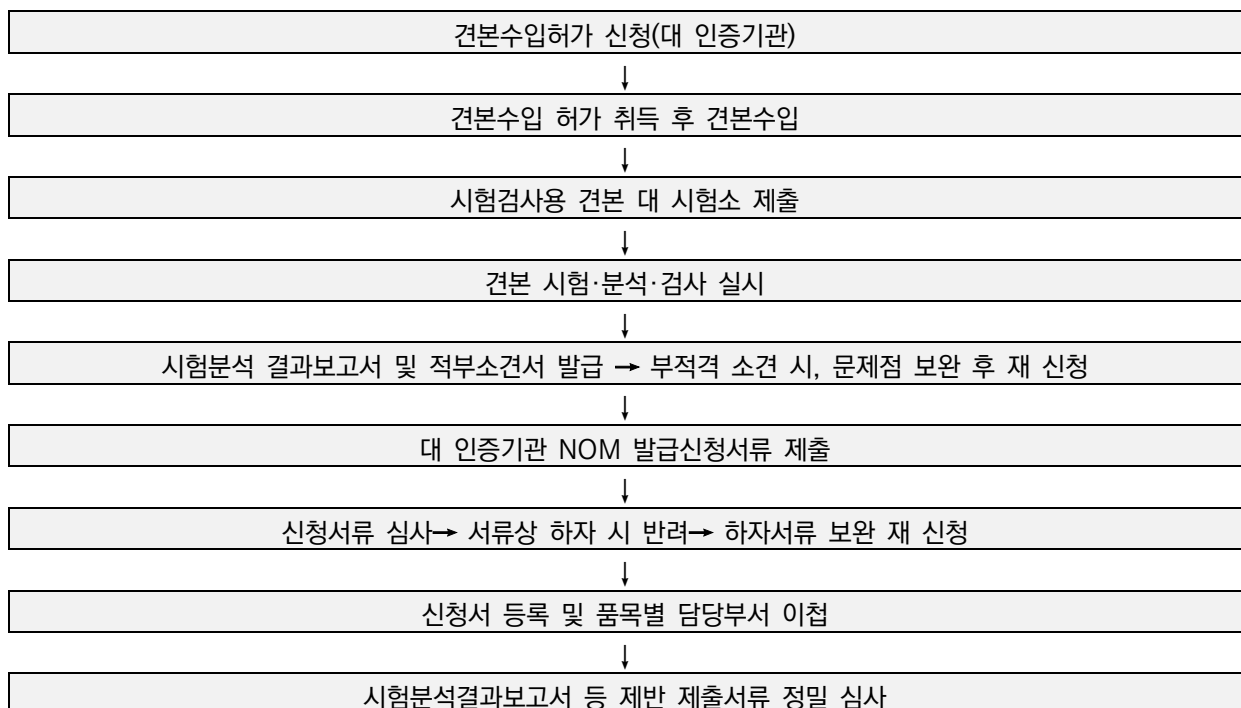
해당 신청서 상에는 제품형태, 브랜드명, 모델명, 시리즈번호, 원산국명, 발송국명, 통관세관명, 견본 개수, 선택 공인시험소명 등 명기할 필요가 있다. 승인을 득하면 견본을 들여와 기신고한 공인시험소에 시험검사를 의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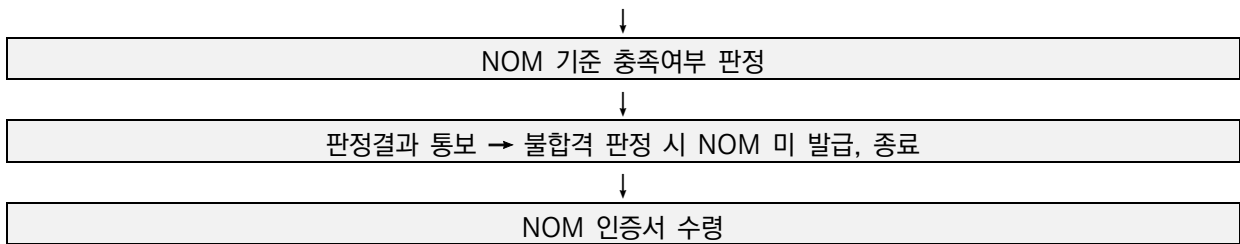
○ 예비평가

- 표본검사를 의뢰 받은 공인시험소에서는 제품의 특성을 면밀분석 및 적부 소견서를 작성한다.
- 기준미달 불합격 시에는 의뢰자가 미비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미달내용을 적시(摘示)한다.
- 의뢰자에게 시험분석 결과보고서 및 적부소견서를 발급한다.

- 본 신청
 - 의뢰자는 DGN 또는 ANCE, NYCE 등 NOM 발급 인증기관에 출두하여 각종 NOM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 본 평가
 - 인증기관은 제출된 제반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 하자가 없을 경우 소관 부서로 이첩된다.
 - 그리고 소관부서에서는 시험분석 결과 보고서 등 모든 서류 면밀 검토 및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 제품의 품질 및 특성뿐 아니라 생산과정, 유통 및 A/S, 창고 보관상태 등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 평가회의
 - 평가종료 후 최종판정에 앞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의뢰자 또는 대표자를 참석시켜 질의응답을 시행하여 의문점을 해소한다.
- 승인서 교부
 - 기준 충족 판정 시 NOM 인증서를 발급 및 교부한다. 미 충족 시 사유를 명시한 불합격 통지서 발부, 미비점 보완 후 재 신청을 유도한다.
- 정부 관련 사이트
 - <http://www.economia.gob.mx>

□ 절차도





□ 참고사항

NOM 발급기관인 ANCE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일부 품목의 경우 KTL의 제품 시험 성적으로 ANCE에 인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멕시코 NOM신청은 멕시코 현지 대리인만 가능하나 KTL을 통해 진행할 경우 대리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다. 위생등록증 (Registro Sanitario)

1) 개요

멕시코 보건법 제 376 조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용품(소모품 포함)은 멕시코에서 수입, 유통, 판매되기 위해서는 멕시코 보건부(Secretaria de Salud)가 발행하는 위생등록증(Registro Sanitario)을 취득해야 한다.

위생등록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부가 규정하는 서류 제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멕시코에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만 한다. 즉, 현지 수입업체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업체는 현지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직접 신청할 수 없다. 위생등록증은 수입(수입품일 경우) 또는 판매(국내생산품일 경우)하기 전 발급받게 되어 있으며, 등록 후 5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 가능하다.

특정 의료기기 위생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기 위생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도 요청되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 등록증 발행 기관인 COFEPRIS(위생보호연방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위생 등록증 발급을 위한 소요기간 및 비용은 의료기기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 Class I : 인체 접촉이 없는 의료기기
- Class II : 인체 접촉이 있고, 그 인체 접촉 기간 30 일 미만인 의료기기
- Class III : 인체 접촉이 있고, 그 인체 접촉 기간 30 일 이상인 의료기기

2) 위생등록증 신청 서류

- ① 신청자(현지 에이전트)의 사업자 등록증
-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수입, 유통, 판매 동의서: 신청자는 멕시코 업체에게 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자사 제품을 현지에서 수입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권한을 위임하는동의서.
- ③ 제품의 원자재 및 부품 구성 분석표
- ④ 제품 사용설명서 (서어 작성)
- ⑤ 제품의 제조공정 설명서
- ⑥ 제품 부분별 기능, 구조에 대한 설명서
- ⑦ 제조국이 발행한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증명서
- ⑧ 제품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원자재별 Certificate of Analysis
- ⑨ NOM(멕시코 공식표준 규격제도)검사 획득 증명서

전자 의료기기 중 멕시코 공식표준 규격제도(NOM)에 의한 안정성 증명서를 획득해야 하는 제품들이 있다. 동 제도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검사제도로서, 제품으로 인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공식 강제검사제도이다.

주요NOM 적용 의료기기

HS Code	Product Description	NOMs	Pertaining
9012	Non-optical microscopes and diffraction apparatus	NOM-024-SCFI-1998 (Applicable in some cases)	1.- Labeling, warnings, instructions, and guarantees
9018	Electro-diagnostic equipment: EKGs, Ultrasounds, MRI, Tonometers, and other Measuring & Monitoring Medical Equipment	NOM-137-SSA1-1995 & in some cases NOM-150-SSA1-1996, NOM-001SCFI-1993, &/or NOM-024-SCFI-1998	1.-Labeling: Health information 2.-Packaging, testing, and labeling of hemodialysis products 3.-Electrical safety requirements and testing 4.-Labeling, warnings, instructions, and guarantees
9019	Mechanotherapy, massage, oxygen or breathing therapy equipment	NOM-137-SSA1-1995	1.-Labeling: Health information

HS Code	Product Description	NOMs	Pertaining
9022	X-Ray or radiography equipment and radiation therapy equipment	NOM-137-SSA1-1995 & in some cases NOM-025/1-NUCL-2000	1.-Labeling: Health information 2.-Labeling, Documentation, and spec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graphy equipment.

자료: 관세정보사이트 Diaenlinea

의료기기 등록은 법적으로 기간을 명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는 현지 디스트리뷰터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7. 지식재산권

가. 개요

1994년 지식재산권법이 새로 개정됨으로써 과거의 관련법에 비해 특허권 부여대상 확대 및 여타 보호조치의 강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이 한층 개선되었다. 멕시코는 세계 저작권협회 회원국으로 불법 복제, 해적판 제작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멕시코는 불법 복제품이 일반화되어 있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게임 부문은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80%가 불법복제품으로 조사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나. 특허

일반적으로 특허는 법적으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연장불가 조건으로 20년간 유효하게 되어 있다. 멕시코 특허청(IMPI)에서 특허관련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 이후 18개월 이내에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다.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식물 및 동물의 생식을 위한 생물학적 주요 과정, 생물학 및 유전자적 물질, 동물 종족, 인간 몸체 및 생명이 있는 신체 부위, 식물 등을 제외하고 특허 신청이 가능하다.

다. 상표

상표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은 10년인데, 만료기간 이후 6개월 내에 재등록 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되므로 반드시 재등록을 해야 한다. 상표등록에 필요한 기본서류 양식은 멕시코 특허청 사이트(www.impi.gob.mx)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회사명 등록도 상표 등록과 같은 절차를 거치며, 상표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상표 등록 절차

- 상표 기 등록 여부 확인
- 우선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명이 기존에 이미 등록돼 있는지 발음 및 문자가 매우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등록여부 확인은 특허청 사무실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 수수료는 약 100페소 (10달러)이며, 5~10분 정도 소요된다.
- 문의(이메일) : dm@impi.gob.mx

○ 상표권 등록 신청

- 상표가 기 등록되어 있지 않고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서를 특허 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은 최고 6개월 내에 상표를 등록한 후 수락내용의 광고를 게재 한다.
- 상표 등록 신청 후에 진행 현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marcanet.impi.gob.mx/marcanet/controler/TramiteExpedienteBusca>

2) 상표등록 유효 기간: 10년

상표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후로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자동 취소된다.

3) 상표등록 신청비(1건당): 2,493페소

종 류	수수료(페소)
상표(marca) 등록	\$2,303.33
상표(marca) 등록 갱신	\$2,433.41
광고문구(avisos comercial) 등록 예) Nike의 Just do it	\$614.77
광고문구(avisos comercial) 갱신	\$730.24
회사명(nombre comercial) 등록	\$528.37
회사명(nombre comercial) 등록 갱신.	\$645.81

주: 멕시코 특허청

4) 상표 등록 시 필요서류

- IMPI-00-006서류를 4부 작성 제출
- 이 서류는 특허청에서 직접 입수하거나 인터넷 사이트(www.impi.gob.mx)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아래 제출과는 별도로 각 신청서마다 상표를 붙여야 한다.
- 로고 등록 시 6개의 로고를 제출해야 하며 크기는 4x4cm 이상 10x10cm 이하여야 한다.
- 3차원 상표 등록 시에는 크기 4x4cm 이상 10x10cm 이하의 사진 6장을 제출해야 한다.
-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할 경우, 위임장을 준비하고 위임장에 본인 및 대리인 서명, 2명의 증인 이름 및 주소 등을 적어 제출한다.

5) 형태

- 상표는 상표명, 로고, 혹은 상표명 로고 결합 등 어떤 형태로든 등록 가능하다.
- 상표명(Nominativa): 상표 이름만 등록(예: Nike)
- 로고(Innominada): 로고만 등록(예: Nike의 로고 그림)
- 상표, 로고 결합(Mixta): 상표 이름 및 로고 둘 다 등록

6) 상표권 관련기관

- 멕시코 특허청(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상표권 담당국(Dirección Divisinal de Marcas)
- 주소: Arenal 550, 3er Piso, Colonia Tepepan Xochimilco, Delegación Xochimilco, C.P. 16030, Mexico, D.F.
- 전화: (52-55) 5334 - 0700(EXT. 5180, 5181)
- E-메일: buzon@impi.gob.mx, 웹사이트: www.impi.gob.mx

라. 참고: 지식재산권의 종류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형재산 또는 지적재산 이라 한다. 멕시코의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사상의 창작으로 얻어지는 예술/문학/음악 등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저작권과 특허권, 의장/다지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원산지표시, 영업비밀 등의 산업재산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그리고 특허와는 다른 지식재산권의 또 다른 형태로 신제품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식물 신제품 보호권이 있다.

1) 저작권 (Derecho de Autor / Copyright)

저작권이란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의 성과인 문학/예술작품 등의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Autor de Obra) 혹은 그 권리 승계인이 주장 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이다. 산업재산권이 표현형식과 특정 기술적 사상에 대한 발명을 보호한다면 저작권은 사상 및 감정이 외부로 표현된 것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창작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

저작권 제도는 저작자의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저작권은 심사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그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저작권관리청에 일정 등록이 없이도 보호를 받으나 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저작물 (Obra)

멕시코 저작권법 제 13조 에서는 문학/예술작품, 음악, 드라마, 무용, 회화 /미술작품, 조각/모형작품, 만화, 건축, 연극, 영화 및 영상 창작,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진작품, 의류/그래픽디자인 및 백과사전, 문집과 같은 각종 작품 모음집 등 그 외 창작물들을 저작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 저작자의 권리

멕시코에서 저작권은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저작권 중 인격권 (Derecho Moral)으로 이는 저작자만이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일신전속적인 영구적인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불가능하고 만료기간/시효가 없으며 취소불능하고 압류가 불가능한 성격을 취한다. 저작자 는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둘째로, 저작권 중 다른 하나인 재산권은 (Derecho Patrimonial) 저작자가 저작물에 갖는 경제적인 권리이며 소유권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에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 할 수 없다. 저작권 및 저작권을 양도하는 각종 계약서를 저작권관리청의 저작권등기소 (Registro Publico del Derecho de Autor)에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일생 동안, 그리고 사후 100년간 존속하며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또한 사후 출판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첫 출판일로부터 100년간 지속된다.

□ 저작권관리청

멕시코에서 저작권은 교육부(SEP)산하의 저작권관리청(Instituto Nacional del Derecho de Autor)에서 담당하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증진, 창작물의 증진, 저작권등기소 (Registro Publico de Derecho de Autor)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저작자는 문학/예술작품, 음악, 드라마, 무용, 회화 /미술작품, 조각/모형작품, 만화, 건축, 연극, 영화 및 영상 창작,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진작품, 의류/그래픽디자인 및 백과사전, 문집과 같은 각종 작품 모음집 등 그 외 창작물을 저작권관리청에 등록하여 더 안전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ISBN (Número Internacional Normalizado del Libro) 국제표준도서번호는 Agencia Nacional ISBN México 에서 받을 수 있으며, ISSN (Número Internacional Normalizado para Publicaciones Periódicas)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는 Centro Nacional ISSN México 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두 기관은 저작권관리청 산하에 있어 주소는 동일하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이메일: isbn_issn@sep.gob.mx, lnava@sep.gob.mx, jsanchezs@sep.gob.mx
- 전화: 3601 82 06, 3601 10 00 ext. 28052, 28053, 28054, 28055

□ 저작인접권 (Derechos Conexos)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공중에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 제조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저작인접권이다. 실연자는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 독자적 캐릭터 (Reservas de Derechos al Uso Exclusivo)

연방저작권법 173조에 의거하여 소설이나 만화, 영화 등에 등장하는 가공적 인물뿐만 아니라 실제인물인 스포츠선수나 연예인 및 예술인들의 캐릭터를 보호한다. 캐릭터를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 위탁관리업 (Sociedades de Gestion Colectiva)

저작권자는 개인이 직접, 혹은 대리인에게 위임 혹은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저작권 위탁 관리업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권리행사의 대리 혹은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저작권 위탁 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저작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분쟁의 조정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이란 소송 외의 분쟁해결 방식의 하나로서, 저작권법에 의거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위원회(Junta de Avenencia)나 중재위원회(Arbitraje)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그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권고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화해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우선 저작권관리청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권고하며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 중재는 중재 위원회 가 중재과정 중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산업재산권 (Propiedad Industrial)

산업재산권은 보호대상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의장)권, 상표권으로 크게 분류 된다. 산업재산권의 기본적인 등록요건은 권리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선원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요건이 있다. 이러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특허청의 심사과정을 거친 다음 등록여부가 결정이 된다.

□ 특허 (Patentes)

특허권의 부여는 신기술의 발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발명 내용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특허권의 제품 및 제조과정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이용/사용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타인에게 처분/양도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인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은 특허권 관련 국가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이 국내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허출원일부 1년(12개월) 이내에 특허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해당국(제 3국)에 다시 등록을 해야함을 의미한다. 동 시간이 경과하면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해당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기업이 멕시코에 수출이나 투자 시에는 진출하려는 국가에 반드시 출원/등록을 받아야만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참고로 해외출원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PCT)에 따른 출원절차를 활용하면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중복출원 및 중복심사로 인한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멕시코 특허청(IMPI) 역시 특허출원 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출원인의 의사와 심사 절차의 진행현황과는 관계없이 일반 공중에게 그 특허출원의 내용을 알리는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출원공개기간 (18개월) 이전이라 할지라도 출원인이 신청이 있을 경우 일반 공중에게 특허청관보 (Gaceta del IMPDI)에 공보하여 특허출원을 알릴 수 있다. 그러나 멕시코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고 특허증을 획득하기까지는 통상 특허출원일부 2-3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이 인정되면 출원일부 20년간 독점권의 보호를 받으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공익으로 환원된다. 멕시코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 식물 및 동물의 생식을 위한 생물학적 주요 과정, 생물학 및 유전자적 물질, 동물 종족, 인체 및 생명이 있는 신체 부위, 식물 등을 제외하고 특허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 출원료는 15% IVA 불포함 \$7,577.39페소, 특허권 관보 공고료는 \$1,182.61페소, 그리고 특허증 발급료는 \$2,767.83페소이다.

□ 실용신안 (Modelos de Utilidad)

실용신안권은 실용상의 편리를 위하여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보호/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만든 권리로서 특허의 발명처럼 기술적 창작의 진보성/고도성은 요구하지 않으며 신규성과 산업적 응용성이 있는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일정기간 독점적 사용권리를 인정받는다. 멕시코에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써 연장은 불가하다. 실용신안등록 출원료는 15% IVA 불포함 \$1,899.13페소이고 실용신안증 발급료는 \$591.30페소이다.

□ 산업디자인/의장 (Diseños Industriales)

디자인은 제품의 내부구성이나 작동원리 등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단지 물품의 외관상 나타나는 미감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제품의 형상, 도안과 색채 형상, 도안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제공하며 산업적으로 응용이 가능 할 때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 멕시코 에서 산업 디자인은 제품의 형상, 도안과 색채의 결합을 통해 고유하게 제작된 새로운 디자인 을 보호하는 산업 도면(Dibujo Industrial)과 제품의 입체형상 디자인을 보호하는 산업 모델 (Diseño Industrial)로 분류된다.

멕시코 특허청(IMPI)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등록을 마치면 출원일로부터 15년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갱신은 불가능하다. 디자인등록 출원료는 실용신안등록 출원료와 동일하여 IVA 불포함 \$1,899.130페소이고 사용허가 인증서 발급료는 \$591.30페소이다.

□ 상표권 (Marcas)

상표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마크 또는 심벌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상표권은 자사의 상품을 타사의 상품과 식별하는 기본적 기능과 품질보증기능, 출처표시기능, 광고선전 기능, 신용보증기능 및 소비자 보호기능, 재산적 기능 등 파생적 기능을 갖고 있다.

멕시코에서 상표등록 형태는 상표명(Nominativa), 로고(Innominada), 상표명과 로고 결합 (Mixta) 혹은 입체상표(Tridimensional) 등 4가지 형태로 등록이 가능하다. 멕시코에서 상표 등록 출원후 상표등록증을 취득하기까지는 대략 5-6개월 정도 소요된다. 상표등록 진행상황은 인터넷 관련사이트로 확인할 수 있다.

상표권에 대한 법적보호는 상표등록출원 신청일부턴 법적보호를 받으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후로 이 기간으로 연속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 권리를 자동 상실하기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표 등록 출원료는 16% IVA 불포함 \$2,167.83페소이며 갱신료는 \$2,526.09 페소이다.

○ 단체표장 (Marcas Colectivas)

단체표장이란 각종 조합, 협회 등 일정한 목적 하에 구성된 생산/제조업체 혹은 서비스 업체들의 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 상업광고상표 (Avisos Comerciales)

상업광고상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사업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기 위하여 알리는 상업적 광고 목적의 구 혹은 문장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Nike의 Just do it!이 있다. 동 상업광고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료는 IVA 불포함 \$358.26페소이고 갱신료는 \$179.13페소이다. 법적 보호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 상호명 (Nombres Comerciales)

회사나 사업/영업장에 대하여 도안이 포함된 상호명을 타 업소와 식별하기 위하여 상호명을 사용할 수 있다. 멕시코 내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할 의무는 없다. 동 상호명의 보호범위는 실제적인 고객이 분포되어있는 지역을 포함하며, 특별한 경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동 서비스 사용자는 신의성실한 상호명 사용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 대신 특허청관보에 공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독점적 인 상호명을 사용하는데 있어 좀 더 안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보에 공보한 효력은 10년간 유효하며 갱신도 가능하다. 특허청관보 공보료는 \$358.26페소이며 갱신료는 \$179.13페소이다.

□ 영업 비밀/노하우 (Secretos Industriales)

영업 비밀 (Secretos Industriales)은 경제 활동에 있어 경쟁적/경제적 우익을 유지 및 획득하기위한 모든 기밀 정보를 말하며 이는 기술의 정보와 영업상의 정보로 나누고 생산방법과 판매방법을 각각 그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상의 정보는 성분, 처방, 제조방법, 제조공정, 설계도, 청사진, 도면, 실험 및 검사방법, 편집기술, 신제품의 정보, 조리법등을 들 수 있으며, 영업상의 정보는 고객명부, 유통 및 마케팅의 방법 및 형식, 사무실관리방법, 대리점 명부, 재료의 구입처, 가격표, 입찰계획, 판매통계, 재산명목, 합병계획, 광고계획 등을 들 수 있다.

멕시코 산업재산권법에선 영업 비밀을 규정하고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소유주는 기밀정보를 일반인이 쉽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기밀', '비밀'이라는 라벨을 붙여 문서, 전자 혹은 마그네틱 매체, 시각적 디스크, 마이크로필름 혹은 기타 유사한 수단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 내 영업 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과는 기밀 협약을 체결 후 공개해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줄 수 있으나,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영업 비밀은 멕시코 특허청에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호기간도 영업 비밀이 누설되기 전까지 무제한이다.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는 침해자에 대해 민사상 구제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 연방 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 지리적표시제 (Denominación de Origen)

지리적표시제란 지리적으로 그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품질 혹은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임으로 '보르도', '스카치', '떼킬라'처럼 지역명이 제품의 명성·품질 등과 직결될 경우 이를 표시권으로 인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WTO 협정에 의해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다. 멕시코는 리스본 협정의 당사국이며, 지리적표시제 등록권한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특허청(IMPI)을 통해 지리적표시제 신청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지리적표시제가 등록 되면 특허청은 그의 사용권을 일정요건을 충족한 일반 개인 혹은 법인에게 10년간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리적표시제 등록 신청료는 15% IVA 불포함 \$1,468.70페소이고 사용허가인증서 및 연장료는 \$645.22 페소이다.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Esquemas de Trazado de Circuitos Integrados)

특허권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회로배치 설계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이 탄생한 권리가 배치설계권이다. 배치설계권의 일차적 보호대상은 회로소자와 연결도선의 배치 설계도면이나, 실질적인 보호대상은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칩, 반도체칩이 내장된 최종제품 (컴퓨터, 통신기기 등)까지 보호대상이 된다.

보호제도는 집적회로 배치도 또는 배치설계가 원본이어야 하고 세계 어디에서도 상업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처음 사용 날로부터 2년간의 출원유예제도가 있으며, 알려진 원본의 설계는 모두 보호된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연장은 불가능하며 배치설계권자는 회로배치의 전체 혹은 부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으며, 수입, 판매 혹은 승인 없이 배포하는 것을 정지 시킬 권리가 있다. 신청등록 수수료는 16% IVA 불포함 \$2,489.57페소이다.

3) 연방식물품종보호법 (Ley Federal de Variedades Vegetales)

식물의 신품종 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 (Obtentor)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상표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을 촉진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농림수산부 (Secretaria de Agricultura, Ganaderia, Desarrollo Rural, Pesca y Alimentacion-SAGARPA) 산하의 국립 종자 검열 및 확인 서비스국 (Servicio Nacional de Inspeccion y Certificacion de Semillas-SNICS) 에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있다. 품종보호 출원일이 아닌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교부 받은 날 부처 일반적으로 15년 동안 권리를 보호한다.

8.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가. 통관

멕시코로 수입된 물품은 세관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창고료는 항공 및 육상 운송 제품은 2일 간은 부과되지 않으며, 해상 운송은 닻새 동안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 수수료(servicios de manejo)는 지급하게 된다. 세관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이 재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으면 관세 부과 없이 재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통관절차가 끝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하여 멕시코 법령에 따른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화물 검사는 통관 대에 신호등이 부착되어 있어 통관 시 통관사 또는 화주가 신호등의 버튼을 눌러 적색 불이 들어왔을 때만 실시한다. 적색 불의 확률은 보통 10% 수준이나 한국 등 아시아산 수입물품은 품목에 따라 거의 100%에 가까워서 화물검사가 불가피하다고 간주해야 한다. 통관 자체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4~5시간 정도이나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는 1일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통관 시 구비서류로는 수입면장(PEDIMENTO DE IMPORTACIÓN), 상업송장(factura comm. Ercial), 배짐증권, 수입허가서(수입허가품목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타 제증명서(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의약품은 보건부의 허가서 필요) 등이 있다.

1) 통관 절차도

통관사 선정 → 수입면장 작성 → 제세금 납부 → 세관의 서류검토 → 화물검사 여부 결정 → 화물 검사 → 화물 인수

통관은 직접 개인이 해도 무방하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통관 비용 및 소요시간

멕시코 통관사를 통해 화물을 찾을 때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크기에 상관없이 인보이스 금액의 0.45%에 해당하는 통관비와 서비스료 1,500~3,000페소가 소요된다. 부산항에서 선적, 태평양의 만사니요(Manzanillo) 항에 도착하는 경우 직항은 최단 14일이 소요되며 일본, 미국 등을 거쳐서 오는 경우는 최장 30일까지 소요된다.

3) “아시아산 제품 대상 자동수입신고제도 (API)” 폐지(1998.8.27일부터 발효)

2008년 6월 이전에는 섬유, 의류, 장난감, 공구류 등 74개 품목에 대한 아시아 상품 수입 상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멕시코 영토 내에 상륙하기 전에 경제부에 수입 신고를 끝내야 하며, 경제부가 발행해 주는 수입신고필 확인서(ACUSE DE RECIBO) 사본을 수입면장(PEDIMENTO DE IMPORTACIÓN)과 함께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할 수 있었다.

해당 제도는 중국,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특별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는데 2008년 6월에 통관 간소화 조치의 목적으로 아시아산 섬유, 의류, 장난감, 공구류에 대한 특별 원산지 규정이 폐지되고, 일반 원산지 규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산 섬유나 의류에 적용되었던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 철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운송

1) 멕시코 공항 개황

멕시코에는 56개의 국제공항과 29개의 국내공항이 운영되고 있으며,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공항이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공항이다.

멕시코 지역별 공항 분포

주명	공항	국제공항	국내공항
아구아스칼리엔테스	1	1	0
바하칼리포니아	4	4	0
바하칼리포니아 수르	4	4	0
깜페체	2	2	0
코아울리아	5	5	0
플리마	2	1	1
치아파스	3	3	0
치와와	2	2	0
멕시코 시티	1	1	0
두랑고	1	1	0
과나후아토	2	1	1
게레로	2	2	0
이달고	1	0	1
할리스코	2	2	0
멕시코 주	2	1	1
미초아칸	4	1	3
모렐로스	1	1	0
나야리트	1	1	0
누에보레온	2	2	0
오하사카	3	3	0
부에블라	2	1	1
께레따로	1	1	0
킨따 루	4	3	1

주명	공항	국제공항	국내공항
산 루이스 포토시	2	1	1
시나올라	3	3	0
소노라	5	5	0
타바스코	1	1	0
따마울리파스	5	5	0
틀락스칼라	0	0	0
베라쿠르즈	5	3	2
유카탄	2	2	0
사카테카	1	1	0
합계	76	64	12

주: 국제공항은 국내선도 이용 가능

자료: 교통통신부, 멕시코투자진흥청(PROMEXICO) '12년 기준

2) 멕시코 무역항 개황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은 만사니요(Manzanillo) 항을 통해서 멕시코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멕시코 무역항

카리브, 대서양 방면	태평양 방면
알타미라, 타마울리파스 주	과이마스, 소노라 주
까요 아르카스, 캄페체 주	이슬라 데 세르도스, 바하칼리포니아 주
도시 까보스, 타바스코 주	라사로 카르데나스, 미초아칸 주
파하리토스, 베라크루즈 주	만사니요, 콜리마 주
푼타 베나도, 키타나 주	마사틀란, 시날로아 주
탐피코, 타마울리파스 주	살리나 크루즈, 오하야까 주
투스판, 베라크루즈 주	토포로밤포, 시날로아 주
베라크루즈, 베라크루즈 주	엔세나다, 바하칼리포니아 주
코아트자코알코스, 베라크루즈 주	산 카를로스, 남바하 칼리포니아 주
프론테라, 타바스코 주	라 파스, 남바하 칼리포니아 주
시우닷 델 카르멘, 캄페체 주	아카풀코, 게레로 주
프로그레소, 유카탄 주	푸에르토 마데로, 치아파스 주
푸에르토 마엘로스, 키타나루 주	

자료: 교통통신부

주요 무역항별 물류 비중

순위	항구명	주	물동량(톤)	비중(%)
1	카요 데 아르카스	캄페체	48,765,161	17.3
2	코아트자코알코스	베라크루즈	32,331,832	11.5
3	라사로 카르데나스	미초아칸	30,671,996	10.9
4	만사니요	콜리마	27,169,927	9.6
5	베라크루즈	베라크루즈	21,714,553	7.7
6	이슬라 데 세드로스	바하 칼리포니아	13,748,994	4.9
7	알타미라	타마울리파스	16,027,004	5.7
8	살리나 크르주	오하야까	11,240,109	4.0
9	도스 보카스	타바스코	8,208,579	2.9
10	투스판	베라크루즈	12,828,886	4.5
	기타		56,653,595	25.6
	총계		282,125,604	100.0

자료: 교통통신부 2012년 기준

3) 운송회사

□ BANCOMEXT 사이트 소개, 회사 중심

- Sistemas kinedyne S.A de C.V.
 - 주소: Calzada de las Armas No. 130-A, Col. Industrial las Armas, Tlalnepantla, Edo. de México, C.P. 54080
 - Tel.(52 55)5318-4844 / Fax:(52 55)5318-4215,
 - E-mail: sistemas@kinedyne.com.mx
 - <http://www.kinedyne.com.mx>
- Grupo TMM, S.A de C.V.
 - 주소: Av. de la Cúspide # 4755, Col. Parque del Pedregal, C.P. 14010 México D.F.
 - Tel: (5255) 5629 8866 / Fax: (5255) 5629 8899
 - E-mail: webstaff@tmm.com.mx
 - <http://www.tmm.com.mx>
- Tum transportistas unidos mexicanos S.A de C.V.
 - 주소: Eucalipto 2, Fraccionamiento Industrial Tabla Honda, C.P. 54126 Tlalnepantla, Edo. de México
 - Tel: (5255) 50390600, 50390690, 50390692, 50390694, 50390696
 - E-mail: ventas@tum.com.mx
 - <http://www.tum.com.mx>

- Agencia naviera de México, S.A de C.V.
 - 주소: Periferico Sur, 3449 2do piso. San Jerónimo Lidice. México, D.F. 10200
 - Tel: (5255) 5595 00 / Fax. (5255) 5957 3450, 5957 7456
 - E-mail: acon@agnamex.com.mx
 - <http://www.agnamex.com.mx>

- Transportadora Nacional S.A. de C.V.
 - 주소: Av. D No.2000, Col. Central de carga, C.P. 67110, San Nicolas de los Garza, Nuevo León.
 - Tel: (5281) 8394 5585, / Fax: (5281) 8394 5585
 - E-mail: comercial@tn.com.mx
 - <http://www.tn.com.mx>

- Savino del Bene Mexico S.A. de C.V.
 - 주소: Insurgentes Sur No. 800 Piso 15 local 1 & 11, Col. Del Valle C.P. 03100, D.F. México
 - Tel: (52 55)52.86.30.18 / Fax :(5255) 52.12.03.89
 - E-mail: tscarinzi.mex@sdb.net
 - <http://www.savinodelbene.com>

□ 한국계 운송회사

- Pan Trans
 - 주소: Londres 149, Col. Juarez, D.F.
 - Tel: (5255) 55666456
 - E-mail: kphong@pantrans.com.mx
 - <http://www.pantrans.com.mx>

- 대성로지텍스 DSL
 - Tel: (52 55) 44.27.08.13 / 55.33.92.49
 - Fax: (52 55) 44.27.08.14
 - E-mail: rlee@dslmex.com / poh@dslmx.com

- CJ 대한 통운 (CJ GLS Central America, S.A. de C.V)
 - Tel: (52 442) 240 9301
 - E-mail: a007jm@cj.net/ andrescho@cj.net
 - <http://www.cjkoreaexpress24.co.kr/agent/agent06.php>

4) 통관서비스 회사

- Agencia Aduanal de América
 - 주소: Poniente 150-688, Industrial Vallejo, C.P.02300, México, D.F.
 - Tel: (52 55) 8503 32 00 / Fax: (52 55) 85 03 32 01
 - E-mail: rnavarro@aaamerica.com
 - <http://www.aaamerica.com.mx>
 - 담당자: Ricardo Navarro(CEO)

- Revisa
 - 주소: Varsovia No.22, piso 2, Col. Juárez, C.P. 06600, México, D.F.
 - Tel: (52 55) 52 07 76 20
 - Fax: (52 55) 52 07 21 05
 - E-mail: jnavarrete@ravisacom.com
 - <http://www.ravisacom.com>
 - 담당자: Juana Navarrete (CEO)

- Roberto Ugarte
 - 주소: Sacramento 305-A, Insurgentes, C.P. 03220, México, D.F.
 - Tel: (52 55) 56 87 34 44
 - Fax: (52 55) 55 36 49 82
 - E-mail: rugarte@robertougarte.com
 - <http://www.robertougarte.com>
 - 담당자: Roberto Ugarte Romano (CEO)

9. 수출유망품목

가. 수출 유망 산업

1) 헬스케어 IT

멕시코 헬스케어 IT시장은 신흥시장으로 병원, 클리닉 등의 의료기관에서 최신 기술을 도입,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시장의 가장 큰 고객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들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클리닉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병원은 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위치해있다. 컨설팅 조사기관인 Select의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의 헬스케어부문에 대한 투자액은 4억 8,000만 달러에 달하며, 대부분이 IT를 기반으로 한 전자장비 업그레이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병원의 크기에 따라 IT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드는 평균 금액은 약 1,000만 달러 정도 들며, 생산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의 업그레이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포장 산업

멕시코 포장산업은 GDP의 1.5%를 차지하고, 전체 산업의 5.2%, 제조업의 8.5%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한해 평균 전체 생산량은 900만 톤에 달한다. 멕시코는 포장산업 관련 장비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북미포장기계류제조협회(PMMI)에 따르면, 멕시코는 동 산업 관련 미국 제품의 두 번째로 큰 구매국이라고 한다. 멕시코 포장산업은 미국과 독일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며, 이외에도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장비를 수입해오고 있다. 포장산업은 종이, 목재, 플라스틱 등의 재료에 따라 구분되며, 이용되는 분야도 의약품, 식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종이, 플라스틱을 재료로 하는 포장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유리포장은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리포장은 음료와 맥주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3)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장비 및 서비스는 2013년까지 약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신 재생에너지 중 풍력에너지 부문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까지 35%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에너지 성장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멕시코 남부지방, 해안가 지방, 일부 미국 국경지역에서 발전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2015년까지 풍력발전 에너지 공급을 4GW, 2020년까지 12GW로 늘려 멕시코 전력 수요의 15%를 풍력에너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풍력에너지 시장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시장규모	824	848	1,147	1,551
국내생산	110	112	116	119
수출액	120	123	128	133
수입액	834	859	1,159	1,565

자료: 미 상무부

4) 보안장비

멕시코의 치안 문제는 마약상간의 전쟁, 절도, 총기사건 등으로 인해 이미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1년 멕시코 보안장비시장은 평균 18%의 높은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장비 시장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개인보호장비, 감시보호장비의 수요가 가장 크다. CCTV, 알람 및 경보기, GPS의 수요가 2011년 가장 높았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교도소시스템 강화를 시작하면서 이 분야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장비시장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시장규모	2,210	2,746	3,319
국내생산	1,892	2,232	2,567
수출액	1,462	1,554	1,647
수입액	1,780	2,068	2,399

자료: 미상무부

5) 의료기기

멕시코 2010년 의료기기 및 장비, 치과용 장비의 수입규모는 약 35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수입 중 장비 수입이 90%에 달한다. 주 수입국가로는 미국,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영국, 한국 등이 있다.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가격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장점, 애프터 서비스를 이유로 미국산 장비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병원 및 일반 클리닉에서 의료기기 수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은 의료장비의 70~80%의 국내산을 사용하는 반면, 민간, 개인 의료기관에서는 수입장비 사용률이 70~80%에 달한다. 수요가 기대되는 장비로는 마취장비, 세동제거기, 심전계, 감마선장비, 인큐베이터, 외과수술용레이저, MRI장비, 환자용모니터, 호흡계 장비, 초음파, 엑스레이 등이 있다.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에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격, 보증기간, 애프터 서비스 등이 있다.

의료기기 판매와 수입에 있어 멕시코에 설립된 법인만이 등록절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등록증 취득은 필수이지만, 발급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수입경험이 있는 유통업체를 통해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 진출에 가장 필요한 사항임을 인지해야 한다.

나. 주요 수출 유망 품목

멕시코는 수입시장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시장동향을 반영하여 무역관에서 선정한 유망상품은 아래와 같다.

멕시코시티 무역관 선정 유망상품

품목명	선정사유
디지털 도어락	도난사태가 증가하면서 점차 디지털 도어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기업고객 및 고급주택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함.
자동차 부품	2014년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부품의 동반 성장이 예측됨. 실제로 2014년 상반기 멕시코 자동차 생산량은 159만대를 기록하여 동기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멕시코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금년 자동차 생산량은 310만대로 예상되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BMW, 다임러 등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의 멕시코 신규 투자와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설비 증대로 인해 자동차 부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BS수지	주요 수요처인 자동차 및 전자제품 산업의 생산 증가와 더불어 수요 동반 성장이 예측됨.
풍력 발전기	2009년 멕시코의 신재생에너지 진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건설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풍력발전기의 수입이 급증하였음. 우리기업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멕시코에 진출한 스페코의 풍력발전타워 생산라인이 준공되어 가동된 것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풍력 발전기 이외에도 소형풍력발전기 수요도 해변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 하고 있음. 현재 멕시코 바이어들의 공급선 문의도 종종 들어오고 있어 한국업체들의 멕시코 소형풍력발전기 시장진출에 관심이 필요함.
태양광 모듈	태양광모듈은 정부의 격오지 태양광 발전기 설치 프로그램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도 태양광발전을 통해 자가발전하려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태양광발전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임. 저유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유인은 줄어들었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하여 관심가지고 진출을 꾀해야 할 것임.
LED 조명	그동안 전광판 등에 집중되어 있던 LED가 조명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GE등의 대기업들도 멕시코에 LED램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현재 에너지절약기금(FIDE)에서는 LED사용 촉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LED조명 시장은 향후 몇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품목명	선정사유
에너지 절약형 전구	2009년 11월부터 에너지부에서 에너지절약형전구교체 프로그램을 CDM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 우선 시범적으로 50만개의 에너지절약형 전구 교체에 보조금 지급예정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모든 백열 전구 판매를 금지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도 이 의견에 대해 동조하고 있어, 조만간 백열전구의 유통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전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가능성섬유	멕시코의 기존 섬유시장은 내수생산이 특특하고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증가하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기능성 섬유들의 경우 부가가치제품들의 수요증가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임. 특히 아직까지는 중국산제품들의 품질이 국산제품을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함.
혈당 측정기	멕시코의 당뇨병 환자는 약 1000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세계 9위에 달하는 수치임. 이에 당뇨병 관련 시장은 2007년 이래 해마다 8%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이에 가정에서 자가진단을 위한 혈당측정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치과용 X-Ray	멕시코는 인구 1억 1200만명의 내수시장을 보유, 시장 잠재력이 상당하며 소비수준의 증가와 함께 임플란트, 미용, 교정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임. 특히 기존의 아날로그 제품을 디지털 장비로 교환하는 추세에 있어 한국기업의 시장 진입이 아날로그 시장(멕시코산 우세)보다 유리할 전망.
타포린	멕시코 내에서 폴리에틸렌 타포린 제품은 천막, 화물차량의 덮개, 방수 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멕시코 내 타포린 생산 업체는 전무한 상태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요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에게는 기회가 충분한 시장임.

자료: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10. 시장 특성

가. 소비자 특성

1) 소비자 성향 및 관습

□ 빈부격차로 인한 소비 시장 양극화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큰 국가로 부유층들은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고가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값싼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은 전반적으로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하는 “가격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멕시코는 수입품도 고급품과 저급품으로 크게 크게 나뉘는데, 고급품들은 주로 일류 백화점들이나 부유층 거주지역의 전문점 등에서 판매되는데 브랜드가 가장 큰 구매 요인이 되고 있다.

고급품은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유명상표가 거의 다 진출해 있으나 이 같은 상품의 소비는 일부 부유층에 한정된 것이며 대부분 서민은 일반 슈퍼 및 재래시장에서 값싼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 연말, 연초가 대규모 구매 시즌

일반 소비재는 가장 큰 구매시즌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인데, 이 시기에는 친구나 가족, 친척 등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거래처에 선물을 하는 관행이 있어 일반 소비재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그 외에 동방박사의 날(1월 6일)이 가장 어린이용 선물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기이며, 기타 주요한 날들을 살펴보면 발렌타인데이 또는 연인의 날(DIA DE VALENTIN 또는 DIA DE AMOR Y DE AMISTAD, 2월 14일), 어머니 날(5월 10일), 아버지 날(6월 16일), 어린이날(6월 30일) 및 3월 말 내지 4월 초순경의 부활절(SEMANA SANTA) 등이 구매가 높아지는 날이다.

멕시코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Black Friday를 벤치마킹하여 2011년부터 “El Buen Fin”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11월 16일~19일 시기에 실시되며 매년 참가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멕시코의 휴가철은 7~8월 및 12~1월인데 여름보다는 겨울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휴가 용품의 구매시즌은 통상 12월경이다. 또한, 학교는 9월 학기제로 8월 말에 새 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각종 문구류 등은 8월부터 9월까지가 통상 구매시즌이다.

□ 상권 유태인, 레바논계가 지배

멕시코 경제는 전체 인구의 약 9% 정도인 백인들이 지배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상권 진출이 상당히 활발한 편인데 특히 섬유류 수입은 이들이 거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경쟁이 심한 한국업체들을 상대로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등 피해를 주는 일이 많다. 멕시코 대기업 및 유통시장은 주로 레바논계 이민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통신기업 TELMEX, TELCEL, 유통기업 CHEDRAUI 등이 대표적이다.

2) 소비자 성향 및 관습

□ 제품

멕시코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고품질 제품과, 저품질 제품으로 양분화 된다. 멕시코의 경우 부의 양분화가 특히 심화되어 있는데, 고소득층은 가격보다는 제품의 질을 가장 우선시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은 브랜드, 디자인, 제품 인지도, 제품의 질, 기능 등 이다. 특히 상류층은 전자 및 가전 제품, 자동차를 구매 할 경우 가격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다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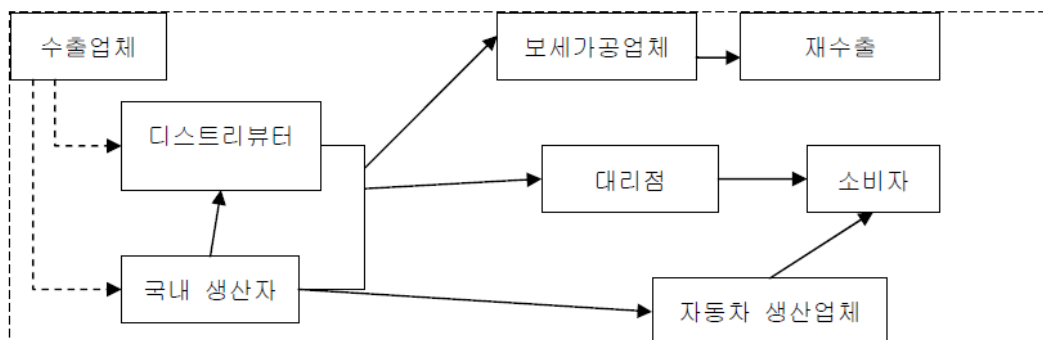
반면 중·저소득층의 경우 꼭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전자 및 가전제품, 자동차 구매 시 심플한 디자인, 추가 기능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 정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제품 성능이 양호한 제품을 선호한다.

□ 가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크다. 고소득층의 경우 백화점 등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며, 가격에 구애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고소득층의 인구 비율은 매우 낮으며, 멕시코 인구의 대부분 중·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멕시코 시장은 통상 가격 시장이라 볼 수 있다.

□ 유통

멕시코 내에서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입 제품을 유통 하는 유통 채널은 다음과 같다.



□ 판촉

멕시코 신문,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는 규모의 대기업이 아니라면,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 홍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일부 전시회의 경우, 중남미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는 대형 전시회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바이어들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나. 한국 상품 인지도

최근 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 중심의 활발한 진출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브랜드 한국상품에 대한 멕시코 수입상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또한 멕시코는 수출입의 7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미국 일변도의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중요한 것은 한국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멕시코 업체들에 대한 자사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다. 한류 동향

멕시코에서도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산업이 형성되지는 않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팬클럽 멤버들은 구매력이 적은 학생들이 많고, 영화, 음악 등도 정품이 아닌 해적판을 통해 접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즈니스로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류 스타들의 잇단 멕시코 콘서트에 표가 매진되며, 한류 스타들의 사진이 박힌 가방이나, 일부 제품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는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과 구매력이 낮아 현재 한류를 통한 비즈니스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들어 엠블랙(2013. 8. WTC), 슈퍼주니어(2013. 7. Arena Ciudad de Mexico), 씨엔블루(2014. 1. WTC), 샤이니(2014. 4. Arena Ciudad de Mexico) 등의 한류 가수들이 멕시코 내에서 콘서트를 개최해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11.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전시회 활용

멕시코는 산업 별 전시회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작은 편이나,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포장 전시회 등 주요 전시회의 경우 행사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이 가능하다. 멕시코 주요 전시회 내역은 멕시코시티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mexico) 전시정보를 참조하면 된다.

2) 주요 디렉토리 활용

주요 디렉토리

디렉토리명	출판사	주소	Tel	Fax
Directorio de Fabricante de autopartes (자동차부품)	INA (자동차 부품협회)	Av. Col. Del Valle No. 607, Col. Del Valle, México, D.F. C.P. 03100	(5255) 5682-5862	(5255) 5669-3842
Directorio de exportadores (수출기업)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 Importadores (수입기업)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 grandes Compradores (대형구매업체)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 empresas mexicanas (멕시코 기업)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s de consultorios (컨설팅회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l gobierno (정부)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디렉토리명	출판사	주소	Tel	Fax
Directorios de proveedores (공급업체)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 asociaciones (협회)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 tiendas De autoservicio y departamentales (대형 유통업체 및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백화점협회 (ANTAD)	Horacio 1855, Piso 6, Col. Chapultepec Morales, Mexico D.F.	(5255) 5580-9900	(5255) 5395-2611
Directorio de asociados (회원사)	향수, 화장품, 위생제품협회 (CANIPEC)	Gabriel Mancera No. 1134, Col. Del Valle México, DF 03100	(5255) 5575-2121	(5255) 5575-2111
Trade Directory of Mexico (멕시코 무역)	Bancomext	Periferico Sur 4333, Col. Jardines de la Montana, Mexico D.F.	(5255) 5449-9000	(5255) 5449-9048
Directorio de plástico (플라스틱 산업)	CamSolution	Periferico Sur 3453, Col. San Jeronimo, México D.F.	(52477) 152-9000	(52477) 152-9005
Directorio Nacional de Calzado (신발 산업)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Calzado / Editorial Lair	Blvd. Adolfo Lopez Mateos 3401 Ote, Fraccionamiento Julich de Obregon, Leon, Guanajuato	(52477) 711-5210	(52477) 711-4120
DIRECTORIO DE EMPRESAS (유류, 비누, 세제 협회 회사)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ACEITES, GRASAS, JABONESY DETERGENTES	CORDOBA No. 10 COL. ROMA DELEGACION CUAUHEMOC C.P.06700 MEXICO, D.F.	(5255) 5511-5263	(5255) 5511-9218
Directorio nacional de la industria papeleray de computación (문구류및 컴퓨터산업)	PUBLITEC	Arquímedes # 199 piso 4 despacho 400 Col. Chapultepec Morales, C.P. 11570	(5255) 5250-4125 5250-4135	(5255) 5250-4125
Directorio de Socios (의류협회회원사)	CNIV (의류협회)	Manuel Tolsá 54, Col. Centro, CP 06040 México, D.F.	(5255) 5588-7822	(5255) 5578-6210

디렉토리명	출판사	주소	Tel	Fax
Directorio Latinoamericano de Seguridad (중남미 보안기기 산업)	Seguridad en America	Fundadores 14, ciudad Satelite, 53100 naucalpan de Juarez, Estado de Mexico	(5255)5572- 6005	(5255)5360- 1609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번호	자료원명	홈페이지	참고사항
1	Cosmos	www.cosmos.com.mx	산업전반
2	Thomas Global	www.thomasglobal.com	산업전반
3	Quiminet	www.quiminet.com	화학산업
4	ANIPAC	www.anipac.com	포장산업
5	Seccion amarilla(전화번호부)	www.seccionamarilla.com.mx	산업전반
6	건설 디렉토리	www.construportal.com	건설
7	Reportero Industrial	www.reporteroindustrial.com	산업전반
8	신발산업 디렉토리	www.directorionacionaldelcalzado.com.mx	신발 및 원자재
9	Guia NEI en México	www.guanei.com.mx	산업전반
10	Conexión Industrial	www.conexionindustrial.com	산업전반
11	Todo en plastico	www.todoenplastico.com	플라스틱산업
12	Sistema de Información Empresarial(기업정보시스템)	www.siem.gob.mx	산업전반
13	Concamín(멕시코산업협회연합)	www.concamin.mx/	산업전반
14	AMTI(멕시코IT산업협회)	www.amiti.org.mx	정보통신

주: 대부분의 사이트가 스페인어로만 정보가 제공됨

1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상담 시 유의사항

1) 악수가 첫인상을 결정한다

바이어를 처음 만나 악수를 할 때 손을 힘있게 꼭 쥐지 않고 살며시 잡았다가 놓아버리면 멕시코 바이어는 틀림없이 "아,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구나" 하고 상대 측 세일즈맨에 대해 처음부터 불신감을 가진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상당한 불쾌감까지 가질 수 있으므로 이렇게 시작된 상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악수는 너무 세게 손이 아플 정도로 꼭 쥐면 실례가 되지만 전혀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악수하면 신뢰감을 주지 못하므로 반드시 적당한 힘을 실어 악수를 해야 한다.

2) 유머 상술

비즈니스를 시작함에서 유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놀고 마 시며 즐거기를 좋아하는 멕시코인의 특성상 첫 대면에서 상담을 부드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두 마디의 유머가 꼭 필요하다. 유머는 곧 상술이다.

멕시코 바이어들이 한국의 세일즈맨과 미국의 세일즈맨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지적하는 요소가 한국인들은 매너도 없고 너무 딱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상담 분위기를 연출해 내기 위해서는 상담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멕시코의 훌륭한 기후조건이라든지 문화 유적, 카리브의 아름다운 해변, 멕시코인의 친절성, 테킬라와 코로나 맥주의 한국 내에서의 인기, 멕시코 여성의 아름다움, 마리아치스의 낭만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꾼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할인 상술

본론으로 들어간 뒤에 처음부터 가격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멕시코 인들은 값을 깎으려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다음부터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 값을 깎는 데서 희열을 맛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깎을 것을 고려해 가격을 제시한 후 가격 인하를 요구 받으면 못 이기는 척 할인해 주는 상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야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매겨놓으면 아예 깎으려 들지도 않고 상담을 포기할 수 있다.

4) 신뢰도

멕시코 인들은 약속이행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없어 약속장소에 늦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기분이 상해 대화가 거칠어지는 때도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보편화한 일이므로 화를 내서는 안 되며 침착한 태도로 대화 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인들의 신뢰도는 물론 사람 나름이지만 보편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약속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상담 시에는 곧 거래 할 것 같이 말하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다.

또한, 멕시코 인들은 NO라는 대답을 별로 안 하는 편이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기보다 대답을 안 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능률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화로 대답해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하지 않고, 이쪽에서 전화하면 항상 자리에 없으며, 메시지를 남겨 놓아도 연락이 없는 경우는 대답이 NO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다. 아울러 거래 시작을 위한 교신에서도 당장 본인이 급하지 않으면 회신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급한 성격을 보유한 한국인으로서는 다소 답답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해야 한다.

5) 거래조건 협상

멕시코는 신용장 개설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바이어들은 외상거래를 우선 내세우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많은 경우 T/T 방식의 선금거래에도 익숙하기 때문에 선금거래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상 거래 시에는 대금회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차기 오더에 대응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크레딧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멕시코 비즈니스 문화

1) 멕시코시티 인은 타산적

멕시코인들의 전반적인 기질은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상당히 타산적이며 이는 미국의 영향이 크다. 모습을 보인다. 중소도시나 시골에 거주하는 멕시코 인들은 아직도 순수하고 정이 많은 전통적인 원주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나 멕시코시티 사람들은 지나치게 셈이 밝고, 평소에 친분관계를 잘 유지하다가도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하면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참고로 지방사람들은 멕시코시티 사람들을 칠랑고 (CHILANGO)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다소 경멸하는 뜻이 있다.

2) LADY FIRST 일반화

멕시코는 남성우월주의인 마치스모(Machismo)가 지배적인 사회이나, 매너에 있어서는 서양식의 여성 존중 예절이 발달하여 LADY FIRST의 관습이 보편화되어 있다.

3) 선물 주고받는 문화 일상화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초대를 받으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크리스마스 및 연말에는 친구, 친지, 거래처들에 선물을 돌리는 관행이 있으나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에 돈으로 부조하는 관습은 없다. 현지인들이 대개 인삼차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인삼차도 선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품위가 있는 조그만 자개함, 전통인형, 토속적인 장식품도 선물할 수 있다. 또한, 각 기업에서 통상 사용하는 기업의 로고가 인쇄된 만년필, 골프공 등의 선물도 좋다. 기타 일을 하다 보면 상대 측 인사의 비서나 안내원 등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를 위해 조그만 지갑이나, 열쇠 고리 등 작은 선물을 준비해 두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 확보 중요

멕시코 진출 시 전국적인 배급망을 지닌 안정적인 대형 에이전트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멕시코의 에이전트들은 선진국 에이전트처럼 몇 년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시장을 관리해 가는 능력이 부족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라는 식의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수출업체의 지원만 요구하는 수가 많아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5) 시장관리와 제품관리 필요

멕시코는 저소득층이 많아 일반적으로 가격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가품 선호도가 높다. 따라서 저가품 시장과 고가품시장을 분리하고 제품도 고가품과 저가품을 차별화해야 한다. 한국산은 무조건 싸다는 식이 아니고 이 모델은 무엇 때문에 싸고 저 모델은 무엇 때문에 비싼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판매활동을 해야 한다.

6) 출장 시기 조절 필요

7~8월 및 12월은 휴가시즌이며, 부활절 기간도 대표적인 휴가기간이므로 현지 출장 시에 는 이 시기를 피해야 한다.

7) 스페인어 습득 필수

멕시코는 미국과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예상 외로 영어 소통이 원활치 못하다. 물론 중상류층은 하류층 보다 영어에 능통한 편이나 중상류층이라 하더라도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 상호 간 의사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이어가 외국 수출상과 상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페인어 통역을 대동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와 거래 시 간단한 회화라도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누면 한결 상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므로 스페인어를 습득하는 것이 도움된다.

8)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멕시코 인들은 여간 해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기며,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 신상에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식민지 시절부터의 뿌리 깊은 문화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 바이어와의 거래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도록 심히 추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9) 불분명한 시간 개념

멕시코 바이어와 접촉하다 보면 "아오리따(AHORITA)"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되는데, 이는 "지금 즉시", "지금 바로"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말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쪽 수출상의 오퍼에 대해 회신을 달라고 하면 '아오리따' 주겠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회신이 오지 않아 다시 연락하면 또 '아오리따'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아오리따'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다간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5분 내인지, 1시간 내인지, 오늘 중인지, 또는 몇 월 며칠까지인지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시점을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10) 인맥형성 우선

멕시코인들은 낙천적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지 않는다. 이는 성격이 급한 한국인이 적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한번 방문 상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매우 어려우므로 시간을 갖고 거래선의 문을 여러 번 두드려, 우선 친구처럼 가까워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인맥을 먼저 쌓기 전에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면 되며, 거래선 방문은 사전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하며, 약속 시간에 도착해서도 짧게는 10~20분, 길게는 30분~1시간 정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예사이므로, 이에 조급한 성격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거래선과 약속을 했을 때도 약속한 상담 장소에 제시간에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또한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바이어가 늦게 나타났다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짜증스러운 표정은 금물이며, 속으로는 화가 나더라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맞이하도록 한다.

11) 바이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바이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행동은 금물이다. 멕시코인들은 유럽계 피를 이어 받아 나름대로 우수한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고, 석유를 비롯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큰 나라에서 사는 대국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바이어가 백인이면 거부감을 별로 느끼지 않으나, 메스티소(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인 경우, 은근히 얽잡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록 직접적인 언어로는 표현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표정, 말투 등에서 무시하는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바이어에게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진지한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 계약체결 시 유의할 점

1) 소량 주문 위주

멕시코 시장이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수입시장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 시장보다 소량주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거래까지 성사되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 많으므로 끈기를 가지고 거래에 임하여야 한다.

2) T/T 송금 방식으로 유도함이 바람직함.

멕시코는 높은 금융비용으로 L/C 방식보다 D/A, D/P거래 방식을 선호하며, 통상 60~90일의 D/A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계약 시 50%, 선적 시 50% 등 T/T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주요 전시회 개최 일정

가. 전시회 일정

2014년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주요 전시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개최시기	행사명	분야	규모	홈페이지
1.22~1.25	Magnaexpomueblera	가구	참관객 규모 25 천명	www.magnaexpomueblera.mx
2.24~2.27	EXPO de Maquinaria Industrial	산업 기계	참관객 16 천명	www.expomaq.com.mx
2.26~2.28	Expo Lighting America	조명	참관객 25 천명	www.e-la.mx/
3.4~3.6	EXPO MANUFACTURA 2014	산업	참관객 규모 8 천여명 전시업체 300 여개사 참가	www.expomanufactura.com.mx
3.12~3.14	EXPO ANTAD	유통 체인	참관객 35 천명	http://www.expoantad.net/expo2014/
3.26~3.28	Exposicion de los fabricantes de Autopartes 2014	자동차 부품	참관객 1 만명명	www.expoina.mx/
4.8~4.10	EXPO JOYA	보석 및 시계	참관객 12 천명	http://www.expojoya.com.mx/
4.8~4.10	Expo Seguridad	보안장비	참관객 34 천명	http://www.exposeguridadmexico.com/
4.8~4.10	2014 Expo Oficinas	사무	참관객 규모 7 천여명 전시업체 100 여개사 참가	www.expo-oficinas.com
6.3~6.5	Alimentaria México	식제품	참관객 규모 1 만여명 5 천여 품목 전시	www.alimentaria-mexico.com
6.3~6.5	Expo Carga 2014	운송수단	참관객 규모 15 천여명 전시업체	www.expo-carga.com

개최시기	행사명	분야	규모	홈페이지
			350 개사 참가	
6.25~6.27	Exporestaurantes 2014	요식업	참관객 규모 15 천여명	www.exporestaurantes.com.mx
7.16~7.18	PaaceAutomechanica	자동차부품	참관객 규모 2 만여명 전시업체 500 개사 참가	www.paaceautomechanica.mx
8.20~8.22	EXPO PUBLISHOP	상품 광고	참관객 규모 1 만명	http://www.publishop.com.mx/
9.4~9.6	Expo Café 2014	커피	참관객 규모 2 만여명 전시부스 200 개	www.tradex.mx
9.24~9.26	The Green Expo 2014	친환경 제품	23 개국, 235 개국 업체 참가, 참관객 8500 명	www.thegreenexpo.com.mx
11.18~11.21	Plastimagen 2014	플라스틱	3 만명 이상의 관람객, 21 개국 8 백개 이상의 전시업체 참가, 13 개의 국제관 설치 예정	www.plastimagen.com.mx

자세한 정보는 www.gep.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4. 수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 사례

1) 전문전 참가를 활용한 효율적인 바이어 관리

□ 회사 개요

P사는 폴리에틸렌 타포린제조 전문기업 한국과 중국에서 원단 및 완제품을 생산, 전 세계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폴리에틸렌 타포린응용분야의 하이테크 기업이다. 폴리에틸렌 타포린은 주로 천막, 화물차량의 덮개, 차양막등 건물외부에 쌓아놓은 물건의 보호를 위한 방수시트등으로 사용된다. 동사에서는 미국의 홈데포, 월마트 등과도 거래를 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멕시코 시장 진출도 시도하게 되었다.

□ 성약 과정

일단 멕시코 시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자 주요 바이어들을 접촉하며 타포린 수입 상위 바이어, 각 바이어 별 취급 품목과 사양, 바이어로부터 입수한 시장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 조사활동을 통해 멕시코 타포린 시장이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고 주로 중량이 낮은 저가의 타포린이나 재활용 타포린을 취급한다는 것이 포착되었다. 사실 고품질 타포린을 생산하는 P사로서는 가격이 경쟁사 대비 5%-10% 높고, 재활용 타포린은 생산하지 않아 멕시코 시장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유망 바이어들이 멕시코 전역에 분산되어 있어 업체 방문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게 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에 부딪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전시회인 하드웨어 엑스포에 참석, 전국에 퍼져있는 타겟바이어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P사의 샘플을 제공,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시회 참가업체들 중에서 P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업체들의 부스를 일일이 방문하여 상담 및 샘플을 제공하였다.

약 2주가 지난 시점(샘플 테스트 등에 소요되는 기간)부터 전시회에서 만났던 바이어들과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몇몇 멕시코 업체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견적을 요청 및 나아가 독점권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멕시코 유력 바이어인 B사와는 40피트 21개 컨테이너 오더라는 성과를 창출하게 되었다.

□ 성공요인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바이어들이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국토가 상당히 큰 관계로 지방 바이어들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고, 대부분이 가격 위주 시장이기 때문에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는 한 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기 어렵다. P사의 경우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전이라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했고, 이에 성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2) 현지 직원 및 문화 존중을 통한 성공적인 진출

□ 회사 개요

C사 멕시코 유명 자동차 공장에 연료 펌프 모듈을 납품하는 2차 벤더로서, JIT 납품을 위해 거래선 공장에서 1시간 거리에 공장을 설립함. C사의 멕시코 생산법인은 설립 4년만에 매출액 4,770만 달러, 종업원 381명으로 성장하였으며,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연료펌프 모듈은 멕시코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브라질로까지 수출되고 있다.

□ 진출 과정

C사가 동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멕시코 공장설립을 준비할 당시만 하더라도, 멕시코 북부지역의 투자환경이나 사업환경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LG전자나 삼성전자, 대우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진출한 사례는 있었어도 한국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공장을 설립하여 투자 진출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벤치마킹할 대상이 적은 상황에서, C사는 당시 KOTRA 몬테레이무역관의 지사화사업에 가입하여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공장부지 물색에서부터 보세창고 운영, 멕시코 현지 설비 및 부품 조달, 현지 협력업체 물색, 법인 설립, 직원 채용, 본사 파견 직원 주거 등 초기 정착을 위한 업무들을 함께 해나갔다.

현재 멕시코에 투자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높은 이직률과 낮은 생산성, 문화적 차이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반면, C사의 멕시코 생산법인은 이직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현지인 직원들의 생산성도 한국 본사와 비교하여 뒤지지 않을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 성공요인

일반 제품 수출이 아닌 현지 공장 운영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차이 및 비즈니스 환경의 차이로 단기간 내에 정상화 되기 어려운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C사의 멕시코 법인은 단 기간 내에 운영을 정상화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제일 중요한 사유로는 C사의 본사에 정착된 직원들의 복리후생 중요하게 여기는 사품을 멕시코 생산법인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의 경우 공장을 운영하면서 멕시코인들을 자국인과 차별하고 현지 노동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C사의 경우, 현지 문화와 현지인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존중, 현지인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회사를 경영함으로써 조기에 낮은 이직률과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

나. 실패 사례

1) 현지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부재

□ 회사 개요

W사는 냉동공조기 생산 업체로 많은 기관에서 기술 인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수출을 진행하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회사였다. 동사에서는 멕시코의 이동식 에어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통계자료를 확인하고 멕시코 시장에 진출코자 하였다.

□ 영업활동 전개

일단 멕시코 시장에 이동식 에어컨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다는 점이 제일 처음 부딪힌 난관이었다. 멕시코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싸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들이 에어컨 보다는 환풍기, 선풍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멕시코의 에어컨 시장은 브랜드에 상당히 민감한 시장이었다. W사의 경우, 제품도 생소하지만 회사 자체의 인지도도 낮아 바이어들에게 어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게다가 시장 초기 진출 시에는 바이어들이 제품을 멕시코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표준인증(NOM)을 취득해야하는데 바이어들이 구지 인지도가 낮은 제품을 들여오면서 인증 취득이라는 행정절차를 밟고 싶어하지는 않았다.

특히 유럽 혹은 미국 제품은 이미 인지도가 높을 뿐 아니라 짧은 운송시간, 무관세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멕시코 내에 법인이 있어 제품 불량시 워런티를 적용, 즉시 기술자를 파견 수리 및 보상이 가능했다. 또한 결정적으로 멕시코에서는 110V 전압을 사용하지만 동사의 제품은 220V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멕시코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했다.

□ 제품 수출 실패 요인

자사의 제품 경쟁력이 높다해도 멕시코 현지 시장과의 호환성이 제일 중요하나 동사의 경우, 현지 시장 특성 조사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통계만을 맹신하고 시장 진출을 서두른 것이 주요한 실패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15. 수출 시 애로사항

가. 멕시코 강제 인증(NOM)

1992년부터 멕시코 계측과 표준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멕시코의 적합성 체계를 강제인증인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과 자율 인증인 NMX(Normas Mexicanas)로 구분하여 해당 제품의 수출, 통관에 적용하고 있다. NOM규격은 약 800여가지가 있으며, NOM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제품 안전 규격뿐만 아니라 제품 Labelling에 관련한 NOM규격 역시 만족해야 하며, 냉장고, 세탁기, 램프 등 일부 전기기기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 규격에도 만족해야 한다. 규격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 제품의 안전성 (Safety for Product)
- 에너지 및 열효율 (Energy and Thermal Efficiency)
- 전기적 설치 (For electrical installation)
- 상업적 정보 (Commercial information)
- 라벨링

NOM인증 신청 방법은 인증기관에 따라 다른데, 반드시 해당 지정 인증기관에서 NOM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은 NOM규격의 경우 정부기관인 DGN을 통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절차와 요구사항은 인증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상제품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NOM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현지인(수입업자, 제조자, 판매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단 멕시코와 FTA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 외국인 제조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인증서 역시 대리인의 이름으로 발행된다. 이 경우 수입자에게 발매된 인증서에 대한 소유권 확장(Extension of Ownership)을 통해 제조자는 사본 인증서를 발행 받을 수 있다.

2) 시험

시험은 각 제품군의 대표 모델의 시험 샘플을 가지고 수행된다. 이는 EMA (Entidad Mexicana de Accreditation)에서 인가한 시험소에서만 시험이 가능하다. 멕시코 내 인가 받은 시험소와 외국의 시험소 간에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가 체결되어 있다면 외국 시험소에도 시험이 가능하다.

3) 인증발급

시험의 결과가 적합한 경우, 적합의 인증서 (Certificate of Compliance)가 현지 대리인의 이름으로 발행됨. 멕시코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의 사본이 제품과 함께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제품은 NOM마크를 부착해야 하고, 관련 요구사항들(제품 마킹, 보증, 상업적 정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단 시험에 통과한 경우라도 제품의 샘플에 대한 사후 검사가 완료되어야 NOM인증이 발행된다.

나. 언어의 장벽

멕시코는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데,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영어로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따라 중요 사업 및 수출 관련건은 영어로 상담할 경우, 세부사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양자간 정확한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이 추후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다. 불분명한 시간 개념

멕시코인들은 일반적으로 메일 확인 및 답변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일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인들과 대비된다. 또한 바이어 미팅을 비롯한 시간 약속에 있어서 지키지 못해도 일단 받아들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여, 멕시코 인들과 시간 약속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약속을 할 경우에는 확실한 다짐을 받아야 하며, 예상보다 더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안전하다.

IV. 투자

1. 투자 환경

가. 투자 매력

1) 미국 및 중남미 시장을 위한 수출기지

멕시코는 미국 및 중남미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을 위한 수출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멕시코 내에서 제품을 조립,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전 세계 45개국과 FTA 체결

멕시코는 NAFTA(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중남미 G3 국가, 일본 등 전 세계 45개국과 14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3) 전 세계 27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멕시코는 한국, 중국을 비롯한 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 등 27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외국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4) 성장하는 내수시장

인구 약 1억 2,028만 명인 멕시코는 국민 다수가 빈곤층이나, 중산층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남미 국가 중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

5) 정부의 진흥정책 (IMMEX)

IMMEX(Fomento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on)는 제조, 보세임가공, 수출서비스 산업 진흥 프로그램의 약자로 멕시코의 노동력 이용 수출용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다. IMMEX 프로그램 등록 기업들은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임시 수입할 수 있으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나. 투자 단점

1) 높은 공공요금

멕시코는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요금이 한국보다 2~2.5배 높은 수준이다.

2) 부품, 소재 현지 조달의 어려움

멕시코는 자체 제조업이 취약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지에서 부품 및 소재를 조달 하기가 쉽지 않다. 현지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제조업체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3) 기대보다 높은 인건비와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미국보다는 인건비가 낮지만,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위해서 멕시코 투자를 고려할 정도는 아니다. 인프라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경지역의 인건비는 멕시코 평균임금보다 높고, 업체 간에 노동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숙련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한국보다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4) 불투명한 행정과 관료주의, 복잡한 법규

불투명한 행정과 관료주의,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법규 등이 기업운영의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5) 노무 관리의 어려움

현지진출기업 50개사를 통해 현지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업이 노무관리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는데, 이는 멕시코의 노동법이 전통적으로 노동자중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무관리에 있어 현행 노동법 및 관련 법규와 관행을 잘 숙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가. 기본 방향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연방 정부에서 세 가지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멕시코의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없다. 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훈련비 지원, 2% 대의 PAYROLL TAX(지급 고용주세) 감면, 부동산 등록세/취득세/ 재산세/자산등록 비용/토지 이용세/건축인허비용/각종 인지대 감면 등을 들 수 있다.

각 지방정부의 인센티브는 최대 제공 가능범위에 대한 지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투자건별로 해당 지방정부와 건건이 인센티브를 협상해야 한다. 지방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교섭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신규 고용 창출 규모이며, 투자규모, 업종, 투자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건별로 제공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에보레온 주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문의할 때에 A사가 물어볼 때의 답변이 다르고, B사가 물어볼 때의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소기업의 소규모 투자진출 시 지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의 혜택이 크지 않고 인센티브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으므로 투자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좋다.

나. 연방정부 제공 인센티브와 지방정부 제공 인센티브

멕시코 북동부 5개 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기본 프레임

주(STATE)명	주요산업도시	교육훈련비 지원*	지급 급여세(2%)감면	기타
NUEVO LEON (누에보레온)	MONTERREY (몬테레이)	기간: 최장 3개월 지원: 최저임금의 1.5배 조건: 훈련 인원 70%이상 의무고용	기간: 1년, 연장 가능 지원: 몬테레이 광역 지구 50% 감면 기타 지역 95% 감면	공급업체물색 지원 연방 정부 및 시 정부 교섭 지원
TAMAULIPAS (따마울리바스)	REYNOSA (레이노사) NUEVO	기간: 최장 3개월 지원: 직위에 따라 최저 임금의 1-	(신규 투자 시) 마따모로스, 알따미라 누에보라레도, 레이노사,	법인설립 및 자산등록 관련

주(STATE)명	주요산업도시	교육훈련비 지원*	지급 급여세(2%)감면	기타
	LAREDO (누에보라레도) MATAMOROS (마따모로스)	3배까지 지원 조건: 훈련인원의 70% 이상 의무 고용	기간 및 지원: 최초 2년간 최대 100%, 이후 2년 간 50%까지 감면 조건: 자동차 부품, 전 기전자, 제조, 의료, 석유 화학, 플라스틱, 폴리머 업종에 한함. 1차 년도 250 명, 2차 년도 150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 의무 기타지역 기간 및 지원: 최장 4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 조건: 1차 년도 150명, 2차년도 100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 의무 정규직 20명 이상 상 시 고용 시 최대 100 %까지 감면 레이노사, 알따미라, 마데로, 팜삐꼬: 최장 2년 간 누에보라레도, 마따모로스, 빅도리아 시: 최장3년간	각종 인 지대 최대 75% 까지 감면 공장부지 취득 시 최대 50% 까지 토지 인수지원 가능
COAHUILA (꼬아우일라)	SALTILLO (살띠요) TORREON (또레온)	기간: 1-3개월 지원: 최저 임금 지원.지원액 총액이 회사 지급 임금의 80%를 초과 할 수 없음.	기간: 1년, 연장 가능 지원: 최대 100%까지 감면	건축인허가비용 전액 감면 각종인허가 업무 지원 시정부 교섭지원
CHIHUAHUA (치와와)	CHIHUAHUA (치와와) CD. JUAREZ (씨우다드 후아레스)	기간: 최장 2개월 지원: 최저 임금 지원.	치와와, 후아레스 시: 최대 50%까지 감면 기타지역: 최대 100% 까지 감면, 감면 기간은 건별협상	재산세,부동산 양도세, 토지 용도변경 비용 등의 일부 지방세 감면. 감면률은 건별협상 공급업체물색 지원

주(STATE)명	주요산업도시	교육훈련비 지원*	지급 급여세(2%)감면	기타
SONORA (소노라)	NOGALES (노갈레스) HERMOSILLO (에르모시오)	초기 교육훈련비 지원 지원 범위 및 기간은 건 별로 협상 필요.	감면기간 및 %는고용 창출 규모에 따라 달라짐. 기본 조건: 정규직 최소 50명 이상 고용 하고 다음 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하여야 함. 투자 지역 산업 다양화 기여. 소노라 주 생산 부품 및 소재를 40% 이상 사용할 것. 소노라 주 소재 업체에 생산품의 50% 이상을 납품할 것 가공된 원자재의 50% 이상을 수출할 것 종업원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 비 중이 30% 이 상 일 것 기계 및 장비에 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인프라 에 500만 달러이상 투 자 할 것.	주정부 사무실 무상 사용 가능 자산등록 인지대감면 기타 투자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인프라 지원 협상가능

주: 법정 최저임금은 비현실적인 금액이므로 교육 훈련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최저 임금만 받고 일할 근로자는 없어서 실제로는 현실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실제 임금과 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최저 임금 간의 차액을 부담하게 된다.

□ 연방정부 제공 인센티브

- 특정 자산에 한해 자산 취득연도 또는 다음 년도에 해당 자산가치의 96%까지 공제 해주고 있다. 마길라도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기간은 협상결과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컴퓨터 제조용 부품: 최대 96%까지 공제 가능
- 컴퓨터: 최대 94%까지 공제 가능
- R&D용 기계류: 최대 95%까지 공제 가능
- 기계 부품: 최대 85%까지 공제 가능
- 건설투자비: 최대 74%까지 공제가능
- R&D비용의 세액공제 혜택: 신제품 개발, 신제품 생산라인, R&D 훈련 프로그램 등의 R&D 프로젝트에 대해 총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다.

□ 지방정부 제공 인센티브

위의 표는 멕시코 북동부 5개 주별로 최대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이며, 실제 투자케이스에 대한 인센티브는 건별로 달라지므로 각 지방정부의 담당 부서를 접촉, 문의해야 한다.

다. 투자 인센티브 상담기관

- PROMEXICO
- 웹사이트: www.promexico.gob.mx
- 주소: Camino a Santa Teresa No.1679, Col. Jardines del Pedregal, Del Álvaro Obregón, CP 01900, México D.F
- 전화: (52-55)54477070
- 이메일: Promexico@promexico.gob.mx

투자관련 연방기관

기관명	투자관련 주요업무	전화	홈페이지
경제부 (Secretaría de Economía)	외국인투자제도 전반의 운영을 관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현황 파악과 투자자문 역할도 수행. 또한, 수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으며, 수출과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를 총괄.	(52 55) 5729-9100	www.economia.gob.mx
외교부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외국기업의 상호 사용허가, 설립 변경허가, 부동산 취득 허가 등을 담당.	(52 55) 3686-5100	www.sre.gob.mx
국가외국인투자위원회 (CNIE: Comisión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	경제부산하기관으로서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담당하며, 외국인 소유지분이 전체 49%를 초과하는 신규투자를 심사 승인하는 권한을 가짐.	(52 55) 5229-6100 Ext.33404	www.economia.gob.mx
국영대외무역은행 (Bancomext)	멕시코 중소 수출기업 활동의 진흥을 위해 1937년에 설립된 국영 은행이자 수출신용기관으로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훈련, 정보, 재정지원, 프로젝트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52 55) 5449-9008	www.bancomext.gob.mx

기관명	투자관련 주요업무	전화	홈페이지
멕시코개발은행 (Nafinsa)	국가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훈련,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1934년에 설립된 재무부 산하 국영은행임.	01-800-623-4672	www.nafin.com

3. 외국인 투자 동향

가. 최신동향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제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간 180억~200억 달러 수준의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297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하였던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8년 10월 이후의 세계경기침체와 신종플루(2009년 4월 이후)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1년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유럽의 신용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1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는 2012년 총 126.6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였고, 투자 유형별로는 신규투자 23.1%, 재투자 35.2%인데, 신규투자 비중이 2011년 대비 41% 감소하였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55.7%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6.6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투자국에 위치하였으며, 한국은 약 1억달러 투자로 13위에 위치하였다. 전통적 투자국인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투자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제1의 투자국인 미국의 투자규모 역시 전년 대비 30.8%가 줄어들었으며 멕시코의 전반적 투자유치액 감소를 초래하였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2011년 중국의 멕시코 투자는 560만 달러에 그쳤다는 것이다. 중남미, 카리브해 경제 위원회(CEPAL)에 따르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투자국인 중국이 2011년 멕시코에 대한 직접 투자액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이 중남미에 투자한 약 227억 달러의 97%가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를 대상으로 천연자원 채굴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멕시코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352억 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2년 73% 가량 증가한 액수다. 이는 글로벌 맥주 생산업체인 안호이저-부시(Anheuser-Busch)가 멕시코 맥주 생산업체인 그루포 모델로(Grupo Moedelo) 지분을 인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미국의 완만한 성장, 멕시코 방송통신, 에너지 시장 개방, 멕시코 자동차 부품과 항공우주 산업 성장 등으로 추후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유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합계		21,603	20,357	35,188	5,821	100.0
1	미국	11,752	8,656	12,841	2,754	47.3
2	스페인	3,658	-917	-747	1,977	34.0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3	네덜란드	2,802	1,449	3,035	405	7.0
4	독일	413	965	1,759	258	4.4
5	일본	916	1,816	1,618	248	4.3
6	룩셈부르크	146	780	1,879	224	3.9
7	브라질	224	64	433	167	2.9
9	프랑스	247	399	161	94	1.6
10	영국	-1,041	442	1,236	72	1.2
*	중국	22	83	19	15	0.3
*	한국	100	129	386	-48	-0.8
*	벨기에	164	0	13,269	11	0.2

주1: 2014년은 1분기 누적액

자료: 멕시코 경제부(도착액기준), 2014.06

나. NAFTA 발효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폭발적 증가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멕시코는 다른 국가들처럼 법인 소득세 감면이나 캐시그랜트(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현금 지원제도, 투자금액 중 일부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원)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조성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실제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조성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국경을 접하고 있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강점을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밖에 도 45개국과 14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미뿐만 아니라 중남미시장에 진출하고 자 하는 외국기업에게 매력적인 사업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멕시코가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멕시코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시장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미국의 경제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멕시코는 수출의 80%, 수입의 50%를 미국에 의존하는 등 대미의존도가 심각한 무역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부문이 미국의 경제동향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다.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기지

2013년 대멕시코 외국인 직접투자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73%로 제조업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외국기업들이 미국시장 수출을 위한 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지로 멕시코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에 무관세 혜택을 받고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NAFTA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선택하고 있다.

여기에 멕시코 정부가 제조수출업체에 대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별도의 유인책은 없지만, IMMEX 제도를 통해 수출업체가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하는 부품, 소재, 기계류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혜택을 주고 있으며, 22개 산업군에 속한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부품, 소재, 기계류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라. 서비스업 진출 활발

2000년부터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방송통신, 숙박/요식업 등의 서비스에 대한 투자 비중은 29.8%로 투자가로부터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전 세계적인 관광국으로 이에 따른 숙박/요식업의 투자가 2009년~2013년간 423% 급성장한 바 있다.

멕시코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2008~2014)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00~2014
농림어업	90	40	108	167	46	955
광업	1,384	832	2,908	3,045	440	18,010
전력, 가스, 수도	118	222	640	29	156	3,887
건설	388	1,717	1,389	696	666	11,938
제조업	13,768	9,804	7,591	28,134	2,467	160,771
도매업	624	1,472	607	1,145	133	12,556
소매업	2,165	1,443	2,305	461	36	16,883
교통, 우편, 물류	536	85	625	990	-584	4,784
방송통신	146	1,393	630	1,722	587	17,506
금융, 보험	2,372	2,510	-2,700	-910	1,427	60,391
부동산/임대	641	820	698	444	38	13,558
전문서비스	24	1,132	1,228	774	14	6,918
기업경영	181	745	344	315	25	5,573

	2010	2011	2012	2013	2014	2000~2014
교육	9	12	9	15	2	330
보건/위생	6	24	43	50	3	204
문화/스포츠/레크레이션	39	109	5	26	3	659
숙박업, 요식업	831	933	1,152	1,106	301	12,368
기타 서비스	32	62	39	76	40	870
Total	23,353	23,354	17,628	38,286	5,821	348,161

주1: 2014년은 1분기 누적액

자료: 멕시코 경제부(도착액기준), 2014년 6월

마. 외국인 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멕시코의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수도권 멕시코 시티에 전체 투자의 56.3%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북동부 산업의 중심지인 누에보레온 주(州)(주요 투자지: 몬테레이)에 대한 투자가 9.1%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도인 톨루카 시를 비롯해 많은 공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멕시코 주(州), 치와와 주(州)(주요 투자지: 씨우다드 후아레스), 마길라도라 형태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바하 칼리포니아 주(州)(주요 투자지: 띠후아나, 멕시코칼리), IT산업이 발달한 할리스코 주(州)가 뒤를 따르고 있다.

멕시코 주(州)별 투자유치 현황(2009-2013)

(단위: 백만 달러)

주명	2011	2012	2013	2014	1999-2014	
					TOTAL	비중(%)
TOTAL	23,354	17,628	38,286	5,821	348,161	100.0
멕시코시티	15,061	6,812	23,919	3,984	195,889	56.3
누에보레온	1,413	1,003	461	177	31,759	9.1
멕시코주	726	1,596	1,229	-174	17,482	5.0
치와와	974	745	1,901	-25.4	16,850	4.8
바하 칼리포니아	703	545	783	168	12,885	3.7
할리스코	710	867	965	150	11,252	3.2
푸에블라	444	422	1,320	252	6,940	2.0
타마울리파스	411	383	735	94	5,763	1.7
바하 칼리포니아 수르	429	630	345	64	4,906	1.4
코아우일라	134	240	1,294	61	4,837	1.4
케레타로	503	673	552	106	4,650	1.3
소노라	161	38	134	241	4,568	1.3

주명	2011	2012	2013	2014	1999-2014	
					TOTAL	비중(%)
과나후아토	287	751	857	128	3,893	1.1
자카테카스	37	473	659	6.2	3,753	1.1
킨타나루	252	446	476	9.0	3,650	1.0
아구스칼리엔테스	161	449	692	83	3,470	1.0
두랑고	201	381	197	50	2,840	0.8
산 루이스 포토시	167	106	503	34	2,319	0.7
미초아칸	39	42	138	40	1,899	0.5
베라쿠르즈	-145	37	450	56	1,475	0.4
모렐로스	106	5.2	26	19	1,444	0.4
나야리트	112	96	118	13	1,260	0.4
시날로아	80	349	256	-28	1,105	0.3
타바스코	7	148	77	4	736	0.2
틀락스칼라	84	34	28	129	615	0.2
게레로	89	109	125	95	552	0.2
유카탄	68	35	40	2	549	0.2
오아하카	43	69	100	71	380	0.1
콜리마	26	46	26	11	243	0.1
치아파스	0	42	50	-35	158	0.0
이달고	4	-55	-33	33	99	0.0
캄페체	69	111	-136	3	40	0.0

주1: 2014년은 1분기 누적액

자료: 멕시코경제부(도착 기준)

4. 한국기업 투자동향

가. 일반 현황 및 특징

한국의 대(對)멕시코 투자는 1991년부터 본격화되어 1994년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체결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4년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북미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미국 진출을 꾀하고 있는 한국 가전기업과 협력업체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는 1억 1,000만 명의 소비시장을 가진 멕시코 내수 시장 진출, 미국, 캐나다 등 NAFTA 권역 시장 진출, 동일문화권 중남미 시장 진출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1968년~2014년 2분기 우리나라의 대(對) 멕시코 투자액은 28억 6,018만 달러(1,051건)를 기록하였다. 분야별 투자규모를 보면 제조업 9억 2,552만 달러(781), 광업 13억 6,231만 달러(50건), 도소매업 3억 8,588만 달러(113)건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대 멕시코 업종별 투자 현황(1968~2013)

(단위: 건, 천 달러)

업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회수	투자금액
Total	681	224	3,801,796	1,051	2,860,184
농업, 임업 및 어업	15	8	2,123	8	561
광업	19	3	1,584,636	50	1,362,316
제조업	492	137	1,509,958	781	925,52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	2	113,753	5	58,806
건설업	37	23	42,782	39	32,175
도매 및 소매업	72	28	452,119	113	385,881
운수업	7	5	3,562	7	2,31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4	50,013	17	49,953
금융 및 보험업	5	1	35,673	5	35,673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1	484	4	48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	4	275	5	24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4	2,897	9	2,8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263	3	9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1	9	1	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4.08.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라 한국 관련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GM 등 다국적기업이 생산설비를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멕시코로 옮기고 있어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가전분야의 투자 동향으로는 삼성전자 멕시코 생산법인(SEM)이 2008년 5월 양문형 냉장고, 프렌치 도어 냉장고 등 고급냉장고 생산라인 신설 및 협력사 지원을 위해 2013년까지 1억 2,000만 달러를 쾀레타로(QUERETARO)시에 투자하고 있으며, 드림 세탁기 라인 신설을 위한 투자 역시 진행 중이다. 또한, LG전자 몬테레이 생산법인은 2008년 12월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기오븐 생산설비를 몬테레이(MONTERREY) 생산법인에 신설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가스 오븐도 생산 중이다.

건설 플랜트 분야는 KMS(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컨소시엄)가 2008년 5월 CFE(연방전력공사)로부터 Manzanillo항에 15만kl 용량의 LNG 저장탱크 2개와 선박 접안 시설, LNG를 기화해서 송출하는 시설 공사를 수주하여 2011년 9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012년 3월 준공식을 가졌다. KMS에서는 완공 이후 20년간 이 시설들의 운영을 맡아 연간 LNG 380만 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총 운영 매출은 1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철강 업계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OSCO는 푸에블라(Puebla)와 산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에 각 17만 톤, 15만 톤 규모의 자동차 강판 복합가공 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며 2009년 7월에는 알타미라(Altamira)시에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 공장을 완공하여 연간 40만 톤을 처리하고 있다. 북미 자동차 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코자 2011년 동 공장의 설비를 연간 90만 톤으로 증설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1989년 멕시코에 진출한 현대트랜스리드에서는 약 1억 달러를 투자, 엔진블록과 실린더 헤드, 트랜스미션 커버 등 자동차 엔진용 주요 부품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동 프로젝트는 2012년 7월 착공, 201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며 초기 생산목표는 90만개로 잡고 있으며 향후에는 150만개로 늘려갈 예정이다.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에서 설립되는 부품들은 미국 현대차 및 기아차에 납품된다고 한다.

한편 그동안 크라이슬러를 통해 판매되던 현대자동차가 2013년 4월부터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판매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에 신설 공장을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혀져, 현지 관련 업체들도 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5. 한국기업 진출현황

가. 개요

2014년 8월 기준으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1,568개로 추정된다. 주요 진출 지역은 티후아나, 레이노사 등의 국경지역과, 멕시코 시티, 멕시코 주 등 중부 지역, 몬테레이, 과나후아또 지역 등이 있다.

멕시코에 진출한 주요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다.

멕시코 진출 주요 한국 기업

회사명	진출연도	취급분야	지역
삼성전자멕시코생산법인	1988	LCD, PDP, LED 생산	TIJUANA
LG전자멕시코판매법인	1988	가전	ESTADO MEXICO
현대트랜스리드	1989	트레일러, 컨테이너	TIJUANA
대우일렉트로닉스멕시코 판매법인 (DECOMEX)	1993	가전 판매	ESTADO MEXICO
대우일렉트로닉스멕시코 생산법인 (DEHAMEX)	1995	가전(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생산	QUERETARO
삼성SDI	1995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생산	TIJUANA
삼성전자멕시코법인	1995	가전통신 판매 및 제조	D.F.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 법인	1998	EPC	D.F.
LG전자 몬테레이생산법인	2000	냉장고, 전기 오븐 생산	MONTERREY
LG전자 레이노사생산법인	2000	LCD, PDP, LED 생산	REYNOSA
삼성전자 멕시코 생산법인(SEM)	2003	가전(냉장고, 세탁기) 생산	QUERETARO
포스코-엠피피시(POSCO-MPPC)	2006	철강코일가공	PUEBLA, S. L.POTOSI
포스코 멕시코(POSCO-MEXICO)	2007	철강재(자동차용아연도금강판)생산	ALTAMIRA
KOMEX-GAS(한국가스공사 자회사)	2008	천연가스 터미널 공사	D.F.
KMS(한국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2008	천연가스 터미널 공사	MANZANILLO
대우인터내셔널 판매법인	2009	철강, 자동차부품, 섬유 (지사설립 1979, 법인전환 2009)	D.F.
KST(한전, 삼성물산, 테킨트)	2010	열병합 발전소	Chihuahua
포스코 멕시코(POSCO-MEXICO)	2011	공장설비 증설	ALTAMIRA
LG 이노텍	2013	공장 신설	QUERETARO
현대자동차 판매법인	2014	자동차	D.F.

자료: 멕시코시티 무역관 조사

6. 투자진출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 사례

□ 라면 업체, A사 성공 사례

진입 초기 A사는 일본의 마루찬(Maruchan)이 용기라면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똑같이 용기 제품으로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봉투라면을 들여와 시장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A사가 진출할 당시 크노르(Knor), 캠벨(Campbell), 유니레버(Unilever)등 인지가 높은 다국적 기업이 용기라면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현재는 모두 마루찬의 벽을 뚫지 못하고 철수한 상태이다. A사는 봉지라면과 용기라면을 동시에 출시하면서 라면 전문메이커로서의 인지도를 다져가고 있다.

A사는 용기면과 봉투라면의 마케팅 전략을 차별화 시켜 멕시코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멕시코 소비자들에게 컵라면은 수프개념으로서 식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먹는 점을 최대한 수용하여 현지 시판중인 일본제품인 마루찬(Maruchan), 니신(Nissin)등 타사 용기면과 똑같은 용량으로 제품으로 출시하였고 새우, 해물, 쇠고기, 닭고기 등 멕시코인들에게 친숙한 맛을 내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반면 봉지라면은 닭고기, 해물, 새우 등 멕시코인들이 선호하는 양념을 첨가했으나 한국라면과 거의 비슷한 매운 맛을 고시하면서 출시하고 있다. ‘끓여먹는 라면’의 개념이 없어 수요 또한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멕시코 소비자들에게 마케팅을 지속한 결과 A사는 봉투라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사는 현지기업 P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생산설비를 공유, 생산설비 건설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절약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P사는 A사의 즉석라면의 경우 두 회사제품의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높은 생산효율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현지 생산은 물류비 절약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직접 수입할 때 어려움을 가져왔던 까다로운 통관절차, 복잡한 수입절차로 인한 비용을 줄였다. 이러한 생산비 절감은 결국 제품가격을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다.

A사의 경우 한국에서 직접 수출한 제품으로 현지시장진출을 시작한 후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생산업체와 제휴를 단행하는 등 단계적인 시장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진출의 경우 일부 서비스업종을 제외하고는 현지공장, 사무소 설립등으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시장에 무턱대고 진출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은 뻔한 일이다. 하지만 A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시장진출, 현지 업체 제휴 등 현지 진출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진출을 피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나. 실패 사례

□ 프랜차이즈업체 B사 실패 사례

B사는 세계적으로 진출을 성공한 요식 프랜차이즈 업체로 멕시코에는 2007년 투자를 계획하였다. B사는 멕시코 업체인 C사와 사업 계획을 구상하였는데, C사는 요식 전문 업체가 아니어서, B사의 경영 방침을 효과적으로 맞추지 못하여, 결국 B사는 멕시코 사업 계획을 철회하였다.

B사의 사례는 현지 파트너 업체를 선정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해당 산업에서 얼마나 사업경력이 있는지, 업체의 향후 전망이 어떤지 등의 조사를 면밀히 시행한 후에 파트너 업체를 선정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7. 주요 투자법 내용

가. 개요

멕시코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통신, 광업, TV, 어업,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 멕시코 정부는 1999년 12월에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을 제정하였으며, 1999년 1월 16일, 2001년 6월 4일, 2007년 7월 18일, 2008년 8월 20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한편, 1998년 9월 시행령(Reglamento de la 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을 통해 법인설립 신청요건, 투자 위원회 활동, 등록 절차 등 투자관련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이러한 투자법 개정을 통해 헌법 및 특별법에 규정된 일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 즉,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가가 멕시코 기업의 지분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고정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 시작, 신제품 생산, 시설물의 운영, 기존시설을 확장 이전 등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투자 제한 분야

□ 국가 독점 분야(외국인 투자법 5조)

- 기초 석유화학제품
- 전기
- 원자력 발전
- 방사선 광물
- 전신
- 무선 전신
- 우편 업무
- 화폐 발행 및 동전 주조
- 항구, 공항 및 헬기장의 관리 감독 감시
- 기타 관련법 조항에 의거한 특별 규정 사업

□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이 독점하는 분야(외국인 투자법 6조)

- 택배나 소포 선적서비스를 제외한 국내 승객, 관광객, 화물 지상운송
- 휘발유 소매 및 천연 가스 유통
- 개발 금융 기관
- 관련법 조항에 명시된 전문 기술 사업

□ 특별 규정에 규제되는 사업(외국인 투자법 7조)

- 최대 10% 지분의 사업: 합작 회사(협동생산회사)
- 최대 25% 지분의 사업: 국내 항공운송, 항공택시, 특수 항공 운송
- 최대 49% 지분의 사업
- 보험회사, 채권회사, 외환거래회사, 보세창고, 증권거래법 12 항에 해당되는 회사, 상호기금 고정자본 출자, 상호 기금 경영, 퇴직연금 운용회사
- 폭발 혼합물 및 산업용으로 폭발물을 구매할 경우를 제외한 폭발물 제조 및 유통, 총 기류 및 총환, 탄약 등의 제조 판매, 국내 유통 신문 인쇄 및 발행, 농지, 축산지 혹은 임업 지를 소유한 회사의 T계열 주식, 케이블 TV, 전화서비스, 경제 제한 구역 및 연안지역에서 양식업을 제외한 어업활동, 항구 통합 관리, 선박의 국내 수로이용 관리 (관광용 크루즈 제외), 선박, 비행기, 철도의 연료나 유탄유 공급, 연방통신법 11조와 12조에 의한 회사

□ 멕시코 투자위원회 승인 하에 49% 이상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외국인 투자법 8조)

- 선박 국내 운항 예항 정박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 원양어업 선박만 운영하는 해운회사
- 공용 비행장 피 면허자
- 교육부문의 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그 이상의 복합 교육기관
- 법률 서비스
- 신용정보회사
- 유가증권 평가기관
- 보험중개사
- 이동전화 서비스
- 석유 및 수송 도관 공사
- 유정 및 천연가스정 시추
- 대중 철도 교통 부설 운영 및 공공 철도 운송 서비스

한편, 49% 이상 지분을 획득하고자 하는 멕시코 기업의 고정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 (2009년의 경우 2,756,411,632.00페소를 넘을 경우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금액기준은 매년 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지한다. (외국인 투자법 9조)

다.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략지역인 미-멕시코 국경 100킬로미터 이내 지역 및 해안 50킬로미터 이내 지역 부동산 취득의 경우, 비 거주 목적일 경우에 한해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가 동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소유권 신탁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 거주 목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일부 거주용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 상업 혹은 관광 업종
- 신용기관, 금융 중개업 및 신용 보조기관이 영업활동과 관련한 담보로서 취득한 부동산
- 토지 매매, 주거지화, 건축, 지역 개발과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시적인 부동산 개발을 포함한 영업활동
- 일반적인 상업, 산업, 농업, 목축, 어업, 임업 및 서비스 활동

라. 에너지 부문에 민간 자본 투자 가능

2013년 12월 민간 사업자에 멕시코 에너지 사업 참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개혁이 통과된 이후, 8개월만에 이와 관련된 부속 법안이 멕시코 상하원을 통과하여, 2014년 8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해 70년 넘게 멕시코 정부가 독점해온 에너지 부문에 외국 자본을 비롯한 민간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에너지 개혁 부속법안에는 탄소법, 멕시코 석유공사법, 연방전력청법, 석유수입법, 부채총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 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탄소법에는 멕시코 석유공사(PEMEX) 및 자회사가 석유의 탐사 및 채굴을 위해 공공입찰을 통해 민간 및 외국회사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관련 업체들도 멕시코 에너지 부문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탄소법에는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정유, 생산, 운송, 저장, 수출, 수입 부문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며, 2016년부터는 가스 수입이 전면 허용된다.

8. 투자 방식

가. 단독투자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법 상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외국인 투자 100%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단독투자를 통한 법인설립 및 지점, 연락사무소의 설립에 대한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법상 투자제한 분야가 아닌 경우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 투자자의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다. 만약 외국인 투자법상 투자가 제한된 분야에 진출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투자위원회 (CNIE: Comisión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 위원회는

- 1) 내국인 고용 및 교육 훈련에 미치는 영향
- 2) 기술적 기여 정도
- 3) 환경규제와 일치 정도
- 4) 멕시코 국가경쟁력 및 생산력에 대한 기여 정도 등

중요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위원회에 대한 투자 신청 후 45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의 결정이 통보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위원회의 투자승인을 받은 후에는 외국인투자국(Dirección General de Inversión Extranjera)에 투자승인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나. 합작투자

합작투자는 하나의 공동기업 설립으로 그 구성요소인 인적 요소와 자본적 요소 가운데서 그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인적 공동기업·혼합적 공동기업·자본적 공동기업의 3가지로 분류된다.

멕시코에서의 합작투자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공동기업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며 가변 자본주식회사(S.A. de C.V.)형태가 일반적으로 채용된다. 그 이유는 자본의 유가증권화, 유한책임제도, 자본 통합 가능, 이사회(Board of Director)를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회사 경영의 항구성 등이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멕시코 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합작투자에 대한 제도적인 장벽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업체와의 합작투자를 실시하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 투자자가 언어, 문화, 신뢰도 등의 문제로 인해 현지 업체와의 합작투자 진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합작투자가 이루어져서 실제 경영문제로 들어갈 경우에는 경영 방침 및 중대 관심사 등의 시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현물 출자의 경우 현물 자산 또는 기술 등에 대한 감정 평가의 문제, 기술 제공 또는 이전에 대한 정도의 문제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의 문제, 그리고 투자 기업이 가지고 있던 원천기술로 인해 파생된 새로운 응용 기술에 대한 재산권 문제 등 사실상 합작투자가 진행되면서도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반드시 합작 투자 파트너 수배에서부터 합작투자 협상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합작투자 기업의 경영을 맡은 임원들은 사실상 모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합작투자의 경우 경영 절차, 분쟁해결, 계약관계 종료 등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있다.

□ 합작투자의 장·단점

- 〈장점〉
 - 합작기업과 투자자금 및 각종 위험을 분담하는 형태
 - 합작파트너로부터 현지상황에 대한 정보를 습득
 - 현지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
 - 현지의 정치적 위험 감소
- 〈단점〉
 - 합작파트너와 합작회사의 경영권 행사에 자주 문제가 발생하며 경영전략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 경우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합작파트너에게 자신의 기술이 이전되어 장차 경쟁기업을 만들게 되는 위험이 있다.

□ 합작투자 시 주의 사항

- 합작투자의 장단점 및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 합작파트너의 신용조사 및 기타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합작투자를 결정한다.
- 합작회사의 실제 경영문제에 있어 경영방침이나 시각차이가 있을 시를 대비하여 주식의 과반수 지분 확보 및 이사회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 상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합작투자 계약서 내용 중 경영절차, 분쟁해결, 계약 관계 종료 등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명시한다.
- 주주총회결의안에 서명 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결의안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서명한다.

9. 투자진출 형태

가. 투자법상 구분

1)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 S.A.)

2인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과 1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최소설립자본금은 50,000페소이며 설립 시 최소 20%가 납부되어 있어야 하며 발기인은 1년 이내에 정관상 기재된 출자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주식회사는 주로 가변자본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며, 이 경우 증자 및 감자가 회사정관에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허가 승인 절차는 필요 없으며 자본 변경사항에 대해서 해외투자 등록처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주식회사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앞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기업형태와 달리 상법에서 그 구성, 주식, 회사경영, 감사, 재무정보, 주주총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1년 1월 현재 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 50%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일반주주총회는 의결주식의 50%의 찬성으로 소집되나 회사의 중요사항을 다루는 특별주주총회는 의결주식의 75%의 찬성으로 소집된다.

2) 유한책임회사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S. de R.L.)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출자자가 필요하며, 감사위원선임에 대한 의무는 없다. 초기자본금은 3,000페소 이상으로 설립 시 출자금액의 50%가 납부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지분율에 따른 출자자의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다. 새로운 출자자의 가입은 정관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지분비율 50%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기존 출자자들은 15일 내에 출자우선권을 할 수 있다.

3) 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Simple / S. en C) 및 주식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 S. en C. Por A)

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Socio Comanditado)과 유한책임사원(Socio Comanditario)으로 구성되는 회사 형태이다. 무한책임사원은 실무를 담당하며 무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유한책임을 지며 실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못하지만 중요사안에 대한 승인 및 감사권은 보유하고 있다.

주식합자회사는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형태로서 무한책임사원과 주주로 구성된다. 두 회사 모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원은 인적(人的)으로 결합되어 있고 인원수가 적다. 대부분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4) 합명회사 (Sociedad en Nombre Colectivo / S.N.C)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모든 사원은 회사의 의무 또는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5) 협동조합 (Sociedad Cooperativa / S.C.)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활동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상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고, 협동조합 자체의 정관과 내규를 통해 규율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투자형태별

1) 협지법인: 상기 법상의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합명회사, 협동조합

멕시코 상법(LGSM)은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합명회사, 협동 조합 총 6가지 법인형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가변자본 (Capital Variable) 회사로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가 멕시코 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무부의 회사설립 허가를 받은 후, 정관작성, 재무부 납세자 등록을 거쳐 국가 외국인 투자등록 정보 시스템(SI-RNIE)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멕시코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내국법인과 동일한 대우, 즉 내국민 대우가 적용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호투자진흥 및 보장협정 (APPRI)을 맺고 있어 직접투자 관련 최혜국대우가 보장된다.

2) 지점: 지사, 연락사무소

외국인의 멕시코 진출방법 중 다른 방법은 지점 설립과 연락사무소 설치를 들 수 있다. 지점은 해외 모기업의 지점을 멕시코 내에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고 연락 사무소는 본사를 위한 연락업무 또는 시장조사 업무 등의 비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지점의 경우 멕시코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점의 법적 책임은 한국 본사에 귀속되므로 멕시코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소송의 대응책임이 한국 본사에 있다. 따라서 주재국 노동법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무소송의 경우, 한국 본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며 모든 법적 대응의 책임을 가지게 된다.

한편 멕시코 세법에 따르면, 멕시코 재무부는 지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본사 모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사 지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멕시코 정부가 한국 본사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멕시코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3)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

마킬라도라 산업이란 외국산 원부자재, 기계장비 등을 무관세로 수입하여 조립 가공한 후 완제품 또는 반제품상태로 재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집약형태의 산업을 총칭하며, 보세산업(In-bound Industry) 또는 쌍둥이공장(Twin Plants)이라고도 불린다.

국경지대 산업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65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통한 고용확대와 북부 국경지대를 발전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모색하게 됐다.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은 초기에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노동집약적 산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4) 인수합병

멕시코는 NAFTA체결 이후, 그리고 2000년 70년만의 정권교체를 통한 Fox정권 집권을 기점으로 하여 멕시코 시장에 대한 시장 개방의 폭을 넓힌 결과 인수합병을 통한 외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 졌다.

멕시코에서 인수합병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로는 빠른 속도로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멕시코에서 인수합병관련 매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관은 없으며,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업 내부에 전담팀을 꾸려 인수합병 대상기업을 장기간 연구한 후 진행하는 것으로, 법무법인 및 컨설팅 업체는 관련 행정작업 및 회계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며 M&A 대상 기업을 직접 물색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체는 없다고 한다

다. 외국인투자 진출 선호형태

1) 진출 선호 형태

멕시코의 경우 중남미 국가 중 법인설립이 가장 쉬운 국가이며, 법인 설립 시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주로 법인설립이 선호된다.

법인설립 중에서도 유한책임회사가 정관의 수정, 증자 및 감자, 등 법적 제도적 제한사항이 덜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이 방법을 선호하며, 2010년부터 출자금이 기존의 3,000,000페소에서 3,000페소로 바뀐에 따라 출자금에 대한 부담도 적어져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지점의 경우 설립절차가 법인 설립절차보다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법적 책임이나 세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 투자진출을 피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별로 선호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법인에 비해 정부기관의 인지도가 낮고 부동산 소유제한과 각종 인센티브 수혜 면에서 법인설립에 비해 불리하므로 선호되지 않는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한국제품을 수출 시 직접 멕시코에서 수입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소규모 업체에 대한 판매 시 어려움이 있다.

2) 진출 불가 형태

멕시코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한되어 있는 진출형태는 없으며, 투자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야만 존재하므로 투자 진출이 불가능한 형태는 없다.

10. 진출형태별 절차

가.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일)/비용
1	설립요건	2명 이상 주주 최소 자본금 50,000 페소	주식회사 경우		
		2명 이상 50명 이하 출자자 최소 자본금 3,000 페소	유한책임회사		
2	임대차 가계약		가계약 체결		
3	회사명 사용신청	상호등록 신청서 원본 및 사본 2부 수입인지 납부증서	최대 5개 상호 기재가능	외무부(SRE) 법제국(Direccion General de Asuntos Juridicos)	2일/640페소
4	정관 공증		공증사무소에서 법인납세자 등록까지 서비스 하는 경우도 있음.	공증사무소	2일/9,000페소
5	법인납세자 등록	- 납세자번호 신청서 양식 - 회사 정관 공증 사본 - 법인 대표 신분증 원본		국세청(SAT)	2~3주/없다.
6	부동산 및 상업등기	정관	자산 및 부동산 등기의 경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됨.	자산 및 상업등기소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y de Comercio)	17일/1,402페소
7	사회보험(IMSS)에 법인 및 피고용인 등록	- 회사 등록양식 - 사용자용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 근로자 사회 보험 가입신청 - 정관사본 - 납세자번호(RFC)	새로운 직원의 채용시 5일 이내에 사회 보험에 등록해야 함.	사회보험(IMSS)	2-5일/없다.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일)/비용
		등록증 사본 - 법인대표자 신분증 - 근로자신분증 - 출생증명서(Acta de Nacimiento) - FM3 비자(외국인)			
8	주정부 재무부에 지방세 등록 (Payroll Tax)	- 납세자번호(RFC) - 회사 우편번호(CP)	인터넷을 통해 등록 가능	지방정부 재무부	1일/없다.
9	시·군·구청에 회사 설립신고	납세자번호(RFC)		시·군·구청	1일
10	경제부 외국인 투자국에 투자기업 등록	외국인 투자 등록 신청서	법인설립 후 40일 이내에 수행해야 함.	경제부(SE) 외국인 투자국 (Dirección General de Inversión Extranjera)의 외국인 투자 국가 등록시스템 (RNIE)	1일/1,755페소
11	멕시코 기업정보시스템 (SIEM) 등록			지역관련 업종 상공회의소	1일/최대670페소
12	구좌개설	- 정관 - 납세자등록증(RFC) - 주소지증명서 - 개설의뢰자의 신분증 - 비자		은행	1일/없다.
13	임대차 본계약		본 계약 체결		

나. 지사 설립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1	설립요건	정관 및 관련 제출서류	한국본사가 적법하게 설립회사인지 여부 입증 및 멕시코 국내법 저촉여부 확인	주한 멕시코 대사관	
2	지사설립 허가 및 등록	- 지사설립신고서 - 회사(본사) 정관 - 지사설립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 회사 규정(내규)상 지사 설립 관련 조항		경제부(SE) 외국인 투자국(Dirección General de Inversión Extranjera)	15 일/ 1,755 페소
3	납세자 등록	- 납세자번호 신청서양식 - 회사 정관 공증사본 - 지사 대표자 신분증 원본		국세청(SAT)	2~3 주/ 없다.
4	부동산 및 상업등기	- 회사(지사)등록 신청서 - 회사(본사) 정관 - 지사설립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 회사 규정(내규)상 지사 설립 관련 조항		자산 및 상업등기소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y de Comercio)	17 일/ 1,402 페소
5	지사개설 신고	납세자번호(RFC)		시·군·구청	1 일
6	멕시코 기업 정보 시스템 (SIEM) 등록			지역관련 업종 상공 회의소	1 일/ 최대 670 페소
7	사회보험(IMSS)에 법인 및 피고용인 등록	- 회사 등록양식 - 사용자용 사회보험 가입 신청서 -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신청 - 정관사본 - 납세자번호 등록증 사본 - 지사대표자 신분증 - 근로자신분증 - 출생증명서 - FM3 비자(외국인)	새로운 직원의 채용 시 5 일 이내에 사회 보험에 등록해야 함	사회보험(IMSS)	2~5 일/ 없다.
멕시코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스페인어 본 만이 정보으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공증 후 주한 멕시코대사관의 영사 확인 후 제출					

다.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1	설립요건	정관 및 관련 제출서류	한국본사가 적법하게 설립한 회사인지 여부 입증 및 멕시코 국내법 저촉 여부 확인	주한 멕시코 대사관	
2	지사설립 허가 및 등록	- 연락사무소설립신고서 - 회사(본사) 정관 - 연락사무소설립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 회사 규정(내규)상 연락사무소 설립 관련 조항		경제부(SE) 외국인 투자국 (Dirección General de Inversión Extranjera)	15 일/없다
3	납세자 등록	- 납세자번호 신청서양식 - 회사 정관 공증사본 - 연락사무소 대표자 신분증 원본		국세청(SAT)	2~3 주/없다.
4	부동산 및 상업등기	- 회사(연락사무소)등록 신청서 - 회사(본사) 정관 - 연락사무소설립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 회사 규정(내규)상 연락사무소 - 설립 관련 조항		자산 및 상업 등기소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y de Comercio)	17 일/1,402 페소
5	사회보험(IMSS)에 법인 및 피고용인 등록	- 회사 등록양식 - 사용자용 사회보험 가입 신청서 - 근로자 사회 보험 가입 신청 - 정관사본 - 납세자번호 등록증 사본 - 연락사무소대표자 신분증 - 근로자신분증 - 출생증명서 - FM3 비자(외국인)	급여명부 등록의무는 없으나 직원이 20 명 이상일 경우 등록 해야 함	사회보험(IMS S)	2-5 일/없다.
멕시코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스페인어 본 만이 정본으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공증 후 주한 멕시코대사관의 영사 확인 후 제출					

라. 추천 법무법인/ 회계 법인

- MUNDUS APERTUS S. DE R.L. DE C.V 로펌
 - 주소: Hamburgo 135, Office 101, Col. Juarez, CP. 06600, Mexico D.F.
 - 전화 번호: 52-55) 4253-4863
 - 이메일: abelum@ymail.com
 -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엄기웅 변호사 근무

- OJEDA 로펌
 - 주소: Rio Guadalquivir 94, Col. Cuauhtemoc, Delg. Cuauhtemoc, CP. 06500, Mexico D.F.
 - 전화 번호: 52-55) 5207-7708, 5208-0864 Ext. 115
 - 이메일: cho@choasociados.com
 -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조우현 변호사 근무

- YG 컨설팅
 - 주소: Londres 182, Int. 301, Col Juare, Del Cuahtemoc, Zona Rosa, Mexico, D.F, C.P. 06600
 - 전화번호: 52-55) 5207-8915
 - 홈페이지: www.ygconsulting.net
 -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영곤 변호사 근무

11. 투자법인철수 및 청산

가. 청산 (Liquidacion)

청산이란 회사 등의 법인 조합이 해산에 의하여 모든 법률훈계를 종료시키고, 채권의 회수 및 채무 이행 그리고 자산의 매각을 통해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동업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적 소멸 절차를 말한다. 기업청산은 회사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에서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해산 사유 (회사법 제 229조)

-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 정관에 명시된 회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워졌거나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을 때
- 모든 동업자(투자자)또는 주주들이 해산에 동의했을 때
- 주주의 인원이 법에 규정된 최소 인원 이하가 되거나 모든 이익이 단 한 명에게 집중되었을 때
- 자본의 2/3 이상 손실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자발적 청산은 동업자 또는 공공투자자 간의 합의로 시작된다. 동 합의는 반드시 공식적인 투자자총회를 통해서 명문화되어야 한다. 총회 후 청산인을 지명하고 청산인이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이후의 회사청산을 총괄한다. 청산인은 1인 또는 그 이상 지명될 수 있으며, 회사의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동 절차를 수행할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첫 번째 청산 관련 총회 이후 한번의 총회가 더 개최되어야 하는데, 동 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또는 청산 후 잔여재산 배분의 승인 절차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주주총회 해산결의안의 공증 및 등기

- 공증사무소(Notario Publico)나 대서소(Correduria Publica)에서 해산결의안을 공증 받고 상업등기소에서 등기
- 멕시코 회사법에 따라 청산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기업 청산을 담당할 청산인을 임명
-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대서소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saf.gob.mx)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② 재무부(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에 해산 신고

- 국세청에 해산신고를 하고 나면 매월 잠정 신고하던 것을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납부

③ 청산인의 청산 작업 및 재무제표 작성

- 청산인은 기업의 동산/부동산 자산처분, 채권징수, 채무 변제, 재고물품처분, 직원 퇴직금정산, 사회보장원에 납부금 정산, 이익금이 남을 경우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이익금 배당 등 기타 청산 업무를 담당

- ④ 연방관보(DOF)에 청산기업의 대차대조표 공고
- 대차 대조표를 채권자들과 그 밖의 관련자들에게 당 회사가 청산 과정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연방관보에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공고
- ⑤ 주주총회 최종청산결의안의 공증 및 등기
- ⑥ 재무부(SHCP)에 기업 자산처분내역 신고
- 청산인은 연방세법(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에 따라, 모든 자산을 처분한 후에 처분내역을 국세청(SAT)의 납세자 등록부(RFC)에 신고해야 한다.
 - R-2서류와 함께 공증된 자산처분 내역서를 재무부에 제출
 - 재산 처분과 관련된 세금 일체를 지불해야 한다.
- ⑦ 재무부(SHCP)에 기업 최종청산결의안 통지 및 납세자등록 취소
- 기업청산 통보를 위해 납세자 등록을 했던 재무부(SHCP)에 양식(R-2)과 함께 기업 청산서류를 제출한다. 수수료는 없다.
 - R-2서류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각 지역 재무부 사무소 위치를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동 단계를 마치면, 재무부 관련 절차는 마무리되나 청산 이후라도 청산인은 기업의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⑧ 경제부(SE)에서 외국인투자 등록 취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작성했던 서류 중 첫 페이지 및 등록취소 서류부분을 경제부 외국인투자등록부서에 제출
 - 첫 페이지 및 등록취소 약식은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 ⑨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에 관해서는 외교부(SRE)의 사사국(Direccion General de Inspeccion Federal Trabajo)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월-금 9:00-13:00, 15:00 - 18:00 상담 가능하다.
- 주소: Carretera Picacho - Ajusco Km 1.5 No.714 Col. Torres de Padierna CP 14209
 - Tel: (52-55) 5644-1000 ext 2945 , 2948

2) 청산 기타 정보

□ 소요기간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데 대략 6~8개월 정도 소요 예상된다.

□ 비용

- 해산 및 청산 결의안 공증사무소 공증비 및 등기비: 대략 15,000페소
- 연방관보에 대차대조표 3회(10일 간격) 공고비: 대략 15,000페소

□ 위험 요인

- 청산 종료 전 국세청에서 세무감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 청산 신청 전에 회계사가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 장부 및 세금 신고 내용을 철저히 사전 검사한 후 청산을 해야 세무 감사를 대비할 수 있다.

나. 파산(Quiebra)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잔여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고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의 채무의무를 면제해주는 사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 요건

- 상업적 채무자의 존재
- 복수의 채권자(채무자 파산신청 시)
- 채무 이행의 총체적 불능 상황
- (만기일이 최소 30 일 이상 지체 되며 최소한 2 명 이상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
- 불능이거나 파산신청 기간 동안 전체 채무의 35%이상의 상환이 불가능 할 때)
- 채무자의 보유 부동산이 없으며, 부채가 자산의 80%이상 초과할 때

□ 일반적 절차

기업파산은 연방법원 소속의 지방법원에 상업경매/파산선고 신청서(La Solicitud de concurso mercantile)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동 신청서는 파산을 하려는 기업(채무자) 또는 1명 이상의 채권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신청일 경우 조정과정 없이 바로 파산 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임명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며, 채권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동 법원에서 실사관(Visitador)과 조정관(Concillador)를 임명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하고, 동 중재가 실패한 경우에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동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무서류를 준비하여 멕시코사회보험청(IMSS), 거래은행, 재무부(SHCP)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데, 동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그러나 동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정리할 시에는 탈세 및 사기 혐의로 기소 될 수 있다.

다. 휴면(Suspension de Actividades)

철수절차가 복잡하고 청산 등을 통해 과세부담이 있을 경우 휴면회사로 투자회사를 존속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무기한 휴면은 불가능하다. 상법(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에서는 회사의 정관 작성 시 영업지속 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영업기간의 연장은 특별주주총회를 통해서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회사는 휴면을 통한 철수 시 오래 전부터 회사의 규모를 축소해 나가며, 과실을 회수하여 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 일반적 휴면 절차

법인이 휴면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SAT)에 밀린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법적 대리인이 회사정관과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국세청에 출두하여 휴면신청서(Formato R-2)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라. 재산 처분 및 청산금 회수

재산의 처분은 청산 시에는 동산일 경우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다. 파산선고가 난 후에는 이미 재산의 처분권을 채무자가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행사하기 때문에 파산한 업체는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다.

그러나 조정기간에는 채무자가 처분권을 보유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채권자들은 파산신청이 들어가면서 바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산금의 회수는 대부분 채권회수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 업자들의 경우 투자기업의 기업 청산의도를 알게 되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신뢰관계 형성 이전에는 담보를 설정해 놓아야 한다.

12. 투자입지 여건

가. 외국인투자 집중지역

멕시코의 31개 주(州)와 1개 특별시 중 외국인투자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멕시코시티(수도)
- 2) 누에보레온주(주요 투자지: 몬테레이)
- 3) 멕시코주
- 4) 바하 캘리포니아(주요 투자지: 띠후아나, 멕시코칼리)
- 5) 치와와주(주요 투자지: 씨우다드 후아레스, 치와와)
- 6) 할리스꼬주(주요 투자지: 과달라하라)
- 7) 따마울리바스주(주요 투자지: 레이노사, 마따모로스, 누에보라레도)
- 8) 푸에블라주(주요 투자지: 푸에블라)
- 9) 소노라주(주요 투자지: 에르모시요)
- 10) 꼬아우일라주(주요 투자지: 살띠요, 또레온, 삐에드라스네그라스)

나. 산업단지 현황

멕시코 산업공단협회(AMPIP)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국경 및 내륙지역에 걸쳐 총 336개의 산업 공단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등록 산업공단이 등록 공단에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국적으로 총 산업공단 수는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멕시코 내에는 145개 산업개발 공단업체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산업공단협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공식 명칭은 AMPIP(ASOCIACION MEXICANA DE PARQUES INDUSTRIALES)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전화: (52-55) 2623-2216
- 팩스: (52-55) 2623-2218
- 주소: Monte Camerún No.54-1, Lomas Barrilaco, Mexico D.F.
- 홈페이지: www.ampip.org.mx

외국인 투자자의 70% 이상이 AMPIP 회원사 산업공단에 입주하고 있으며 인프라 설비 등의 면에서 AMPIP 회원사 산업공단이 일반 산업공단보다 입주여건이 유리하다. 참고로 현재 멕시코에 진출한 FORTUNE 500대 기업의 60% 이상이 산업공단협회 회원 공단에 진출해 있다. 산업공단협회(AMPIP)홈페이지에 주요 회원사 공단이 크게 북서부, 북동부, 중서부, 중남부 4개로 구분되어 지역별로 소개되어 있으며, 지역별 주요 공단명 및 연락처가 소개되어 있어 산업단지 검색 시 동 사이트 활용이 유리하다.

다. 산업 단지의 특징

멕시코는 산업의 지역분산, 산업공단을 통한 기초인프라 개발, 국내외 기업설립 촉진을 위해 공단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에 336개가 분포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산업공단 입주에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없으며, 산업공단 입주업체에 중앙 정부 차원의 특별 인센티브는 없고 지방정부(주 정부) 차원에서 세제 및 행정 절차 등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과나후아또 주에 있는 가죽, 신발 업종 전용 산업공단을 제외하고 멕시코 내에는 업종별 전용 산업공단은 없고 업종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업체는 대체로 식품, 섬유, 봉제, 기계, 전기, 전자, 금속, 화학, 건축, 수송장비 조립, 목재가공 등의 업종이다.

멕시코의 산업공단은 한국에서의 산업공단과는 다소 개념이 다른데, 멕시코는 대부분 이(일부는 주 정부에서 개발하는 때도 있음) 민간 건축업자가 멋대로 공단을 개발하고 여기에 전기, 상하수도 등 기초 인프라 설비를 갖추어 공장입주 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건축업체가 마음대로 개발, 매각 또는 임차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특정 지역의 산업 공단에 입주하려는 업체는 여러 산업공단을 별도로 접촉, 인프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공단마다 인프라 개발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업종에 따라 특정 인프라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마케팅 전략 차원의 지리, 수송, 물류관리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업체가 입주한 상당수의 공장이 정식 공단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라 토지주로부터 토지 매입 후 공장을 건축한 예도 빈번하다.

라. 공단 : 티후아나 공단 소개

Tijuana 시에는 53개의 민간공단이 있으며, 한국기업은 30여 개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기업의 70%는 삼성전자 협력기업이고, 20%는 현대트랜스리드 협력기업, 10%는 개별기업이다. 아래에 한국기업이 입주해 있는 주요 민간공단을 소개한다.

□ El Florido

Tijuana에서 가장 큰 공단 중 하나인 El Florido는 총면적 43.54ha (=435,400 m²)의 면적을 자랑한다. 공단 내에 수도, 전기, 전화(광통신) 시설이 갖춰져 있고,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진행 중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교회, 소방서, 주유소, 체육관, 병원, 주택 (36,877채)가 공단 안에 있으며, 도로망과 철도가 배치되어 있고 버스와 택시가 공단 내를 운행한다.

El Florido 공단 지도



1 지역과 2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공단 안에는 Multitenant Building 이라는 다목적 공장건물도 있는데 해당 건물은 255,729 ft²(=23,758m²)의 대지에 137,728 ft²(=12,795m²)의 건 면적을 가진 빌딩으로서 4개의 모듈(각 3,199m²)로 구성되어 있다.

공장은 내부 높이 28피트(=8.5m)에, 6인치(=15.24m) 두께의 바닥, 철골 천정 면적의 3%는 자연채광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공장건물 1 모듈당 32대의 주차공간이 제공된다. 임대료 수준은 월 US \$ 0.41/ft²(=US \$ 4.41/m²)이나 협상 여지가 있다고 한다. 전기, 수도 요금은 별도이다. 원하는 경우 부지만 사거나 임대해서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Mariangel Perez de Salazar Hanson 공단사무소 판매 매니저는 “우리 공단은 Tijuana의 대표적 공단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공단 내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최적의 투자조건을 제공한다. 그리고 원활한 노동인력 공급도 우리 공단만의 장점이다. 한국기업은 이미 삼성 과 현대를 비롯해 9개사가 진출해 있어 우리 공단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현재 46개 기업에 22,8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요 입주기업은 코카콜라, Smith, Tecate 등이며, 한국기업도 많아 삼성전자, 현대트랜스리드, 대동, 삼성SDI, 세신, 동철, 새한, 도루코, 대원 등 9개사가 입주해 있다.

- 담당자: Mariangel Perez de Salazar Hanson
- 직 책: Sales Manager
- 이메일: marian@florido.com
- 전 화: 52-664-634-6040

□ Los Insurgen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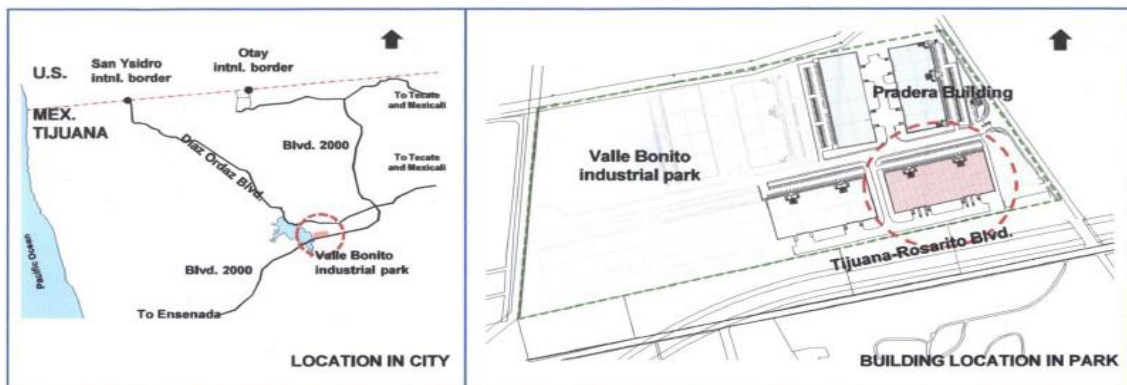
S.C. 그룹이 운영하는 Los Insurgentes 공단은 총면적 5.7ha (=57,000 m²)의 규모이다. 임대료 수준은 월 US \$ 0.37/ft² (=US \$ 3.98/m²)이라고 함.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별도이다. 공단 판매 매니저는 “우리 공단은 Tijuana의 중심가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그리고 주변에 주택가가 인접해 있어 노동 공급도 수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4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그 중 Cyandi America Inc., Camtech, 대영화학, 성주음향 등 한국기업이 4개사 입주해 있다.

- 담당자: Guadalupe Tostada
- 직 책: Sales Manager
- 이메일: oficinasc@hotmail.com
- 전 화: 52-664-608-9117

□ Valle Bonito

Valle Bonito 공단 지도



IAMSA Development Group에서 운영하는 Valle Bonito 공단은 총면적 124,001 ft² (=11,520 m²)의 작은 규모이다. 철물골조로 지어진 공장건물은, 내부 높이 22피트(=6.7m), 6인치(=15.24m) 두께 콘크리트 외벽, 5인치(=12.7cm) 두께 콘크리트 바닥, 철골 천장 면적의 3%는 자연채광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공장건물 부지 1,000 ft²(=92m²) 당 1대의 주차공간이 제공되고, 1개사당 897.5 ft²(=83m²)의 사무실 공간이 제공된다. 임대료 수준은 월 US \$ 0.41/ft² (=US\$ 4.41/m²)이나 협상 여지가 있다고 한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별도이다.

Carlos Cordova 공단사무소 매니저는 “우리 공단의 장점은 안전과 빠른 의사전달, 그리고 지리적 편리성을 들 수 있다.

공장 전체가 언덕과 외벽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24시간 수위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공단 규모가 크지 않아 입주기업과 친밀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이는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교통 또한 사통팔달 되어 있어 Tijuana 내에서도 매우 편리하다.”고 언급했다.

- 담당자: Carlos Uribe
- 직 책: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 이메일: curibe@iamsa.com.mx
- 전 화: 52-686-842-7100

□ 기타

이외에도 ICAL (85ha, 월 US\$ 0.44/ft2), La Mesa Reforma (7.4ha, 월 US\$ 0.438/ft2), La Mesa Col. La Jolla (22.6ha, 월 US\$ 0.39/ft2), Luna Park (1ha, 월 US\$ 0.32/ft2), Insurgentes(1ha, 월 US\$ 0.36/ft2), Las Brisas (1ha, 월 US\$ 0.36/ft2), Barranquita (2.2ha, 월 US\$ 0.36/ft2), Arboledas (1.8ha, 월 US\$ 0.36/ft2), Azteca (1.66ha, 월 US\$ 0.35/ft2), Fabricas y Bodegas S.C. (2.75ha, 월 US\$ 0.35/ft2), Fimsa (2.75ha, 월 US\$ 0.35/ft2), Los Pinos I y II (17ha, 월 US\$ 0.38/ft2), Los Pinos I y II (17ha, 월 US\$ 0.38/ft2), Los Pinos III (17ha, 월 US\$ 0.38/ft2), Cerro de las Abejas (19ha, 월 US\$ 0.37-42/ft2)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 집중 지역



13.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가. 노무관리의 어려움

멕시코에서는 노동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합법적인 해고가 힘들어 노동 유연성이 떨어진다. 대부분은 상호 합의로 사퇴서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고용 계약이나 사회 보험 등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여 이후에 직원의 회사 상대 소송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만연해 있어 멕시코 직원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식은 높지만 의무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아 적합한 능력을 지닌 노동자를 찾기가 어렵다. 교육수준이 높다고 해도 한국과는 달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수동적이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일 처리 및 대처가 어렵다.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주어야 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는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구체적 상황별 대처 방안을 일일이 알려주어야 한다.

공장 노동자는 무단결근 등 근무를 게을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데 비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근 및 조퇴, 결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남겨 두어 추후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다. 비숙련 단순 노동자는 1인당 임금이 미국의 1/3~1/4 수준이라고 하나 잦은 이직 및 인력의 낮은 생산성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그만큼 싸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숙련 노동자는 임금 인상률이 높은 편이어서 쓸만한 고급인력은 연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월급이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상사와 직원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퇴근 후 회식을 하는 등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지만, 멕시코에선 회사 내 상사와 직원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는 업무상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즉, 친절하게 대해주는 상사를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업무에 있어 충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멕시코 직원에 대해서는 적당한 선을 두고 업무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좋으며 인간적인 결점이나 약점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나.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관공서 및 은행 등의 업무 처리가 매우 느려 시간 낭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장 설립 시 공장용 전력을 끌어오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식이다. 일반적인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고 업무의 정확도도 떨어지므로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정확한 처리 기한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마냥 기다리면 더욱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연말(주로 12월 10일 이후)에는 많은 관공서가 이듬해 초까지 업무를 중단하기 때문에 연말 중 행정 업무는 거의 불가능하다.

업무의 전산화 미비로 말미암아 단순 행정 업무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즉, 관공서 또는 은행 등 공공 기관에서 같은 일을 다른 기관에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때가 있다. 업무 처리 시 규정에 의한 처리보다는 담당자 임의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내부 의사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가능한 한 결정권자인 사장과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교신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것이 관련 실무자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결정권자와 실무자에게 함께 필요한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교신의 문제에서도 전화 또는 메일로 자주 연락하고, 메일을 보냈어도 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까지 답변을 줄 수 있는지도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 언어 장벽

미국과 인접해 있지만, 유명 호텔이나 전문직업 종사자를 제외하곤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 통관 서류 등 주요 서류 또한 원칙적으로는 영어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잘 통용되지 않아 스페인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영어를 조금 익힌 사람들은 서투르더라도 영어를 사용하고 싶어하므로 그런 사람에겐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라. 금융 서비스

기업에서 금융 서비스는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인데 멕시코에선 한국 정도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비스의 질에 비해 수수료가 높은 편이며, 담당자와 지점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

고객이 은행의 업무 처리 미숙 및 실수로 금융 사고를 당해도 빠른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지점별로 책임을 회피하여 실질적인 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멕시코 바이어와 거래 시, 멕시코 은행의 L/C 관련 규정이 까다로운 등 한국과 달리 L/C를 여는 비율이 낮다. 멕시코 수입상들은 L/C 보다는 D/A나 D/P를 선호하며, 대개 60~90일짜리 D/A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멕시코 기업들의 신용도가 모두 좋은 것은 아니어서 처음 거래부터 D/A나 D/P로 거래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높다. 그러므로 T/T 분할 납부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마. 통관 서비스

통관에서도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통관 공무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멕시코 정부 차원에서 세관 공무원들의 부패 내지는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리어 비리 가담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가능한 한 확실한 통관사를 통해 통관업무를 진행하고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통관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 사전등록 필수제품 진출 어려움

식품, 의료 등 위생 및 건강 관련 제품은 현지 보건당국에 제품을 등록해야 정식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등록에 1년여 가까이 소요되는 등 기간이 길고 서류준비가 까다로워 현지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14. 노무관리제도

가. 기본 개념

멕시코의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종업원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회사가 사실여부를 밝힐 책임을 지게 된다. 연방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고용계약은 무효로 간주하며, 종업원 스스로 부당한 계약을 이해하고 이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판결을 받게 된다.

멕시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 보장: 법정 최저임금은 실제 임금수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저절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게 되어 있다.
- 급여삭감 금지: 고용주는 어떤 경우에도 종업원의 기본급을 삭감할 수 없다. 종업원이 기본급 삭감에 동의하더라도 후일 소송 제기 시 부당 처우로 간주되어 패소하게 되어 있다.
- 동등대우: 같은 직종, 같은 근로시간과 산출물이 같은 근로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 퇴직금 보장: 고용주가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 고용 종료의 사유에 대해 법이 규정한 확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근무 연한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나. 채용방법

해당 지역의 유력 일간지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역 TV를 통해서 구인 광고 방송을 내기도 한다. 한꺼번에 많은 수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호텔에서 독자적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대졸 이상 사무직 직원은 구인광고를 통하기도 하지만, 대학의 취업사무실에 추천을 의뢰하여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허위 또는 과장된 이력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력서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 인력수급 현황

전국적으로는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 주요 거점도시와 미국과 국경이 인접해 있어서 마킬라도라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멕시코 북부의 띠후아나, 멕시코칼리, 레이노사, 누에보라레도, 마따모로스, 씨우닷후아레스와 같은 도시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공장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

전반적으로 공장근로자 임금은 미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숙련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한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낮다. 주요 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경우, 능력 있는 관리 자급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미국 수준의 급여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라. 고용계약

고용계약은 개별계약과 단체계약으로 구분된다. 개별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본인의 계약을 말하며, 단체계약은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단기 프로젝트 수행과 같이 업무 성격상 종료시한이 분명한 경우에는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업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모든 고용계약은 불특정 기간 계약(contrato indefinido)으로 간주한다. 시간제 고용은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기존 근로자의 휴가나 질병으로 인해 임시로 대체 작업자를 구하는 경우, 예술가나 항공기 조종사와 같이 노동법상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마. 근무시간

표준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1일 최대 8시간이며, 야간의 경우 저녁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1일 최대 7시간이다. 주야간 혼합근무의 경우 야간 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으로 제한되며 1일 최대 7.5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또한, 주간근무는 주 48시간, 야간 근무는 주 42시간으로 제한되고, 근무일수는 주 6일을 넘지 못한다. 단, 작업장이 있어 해당 지역을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중식시간과 1일 30분씩 부여되는 휴식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바. 급여 체계

1) 급여의 정의

연방노동법 제84조에 따르면, 급여(salario)는 일일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료, 사례금, 수당, 주택 제공, 보너스, 수수료, 현물 지급 및 다른 형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여(salario base)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하고, 초과 근무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은 기본급여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산출한다. 고용주는 기본급여 외에 법정 복리후생비(las prestaciones por la ley)를 부담해야 하고, 법적 복리후생비는 대개 급여의 40% 정도이다. 영업직의 경우,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기본 급여 외에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comisión) 항목을 추가하여, 기본 급여보다 더 높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2) 급여 수준

- 최저임금 (2014년 멕시코시티 기준) : 67.29페소/일

□ 실제 급여 수준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임금수준은 3~4배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현장 작업자이든 사무직이든 임금수준이 한국 기업들의 기대치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현장 작업자들의 급여가 10% 이상 올랐다고 한다. 현장 작업자들의 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외국 기업들이 집중되는 지역, 즉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의 임금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보면 된다.

2013년 기준, 북부 경제중심인 누에보레온주 일당 평균 임금은 306페소 수준이며, 코아울리아는 249페소 정도이고, 타마울리파스 같은 북부 국경지대는 253페소 정도이다(복리후생비 제외). 북부 주요 지역의 관리자급 급여는 미국 수준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북부 국경 도시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현지인 관리자를 채용하더라도 인접한 미국 도시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미국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3) 법정 복리 후생비(las prestaciones por la ley)

- 휴가 보너스(prima vacacional): 해당 휴가일수에 대해 일일 급여의 25%를 지급함.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일일 급여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 연말보너스(aguinaldo): 매년 12월 20일 전까지 급여의 최저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IMSS): 1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가진 고용주는 모든 종업원을 IMSS에 가입시켜야 한다. IMSS의 분담률은 기본급여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나, 평균적으로 고용주가 70%, 종업원이 25%, 정부가 5%를 분담하고 있다.
- 근로자주택기금(INFONAVIT):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적정주택마련의 의무가 부여되므로,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주택기금(INFONAVIT)에 가입하고 근로자별 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 퇴직충당금(SAR): 근로자 별로 퇴직충당금 구좌를 만들어서 매월 급여의 2%를 적립 해야 한다.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 SAR 구좌도 같이 이관된다.
- 장기근속수당: 정규 근로자는 매년 12일치 임금을 장기 근속수당으로 지급받는다.

- 종업원 이익배당(profit sharing)
- 모든 회사는 세전 수익의 10%를 근로자에게 분배해야 하며, 분배율은 정부 이익분배 위원회가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 많은 현지기업은 종업원 이익배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익이 산출되는 모기업과는 별도의 종업원 관리회사를 설립해서 이사진을 제외한 모든 종업원을 종업원 관리회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모기업은 종업원 관리회사에 종업원 급여 외에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최소한의 이윤을 붙여서 지불함으로써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 관리 회사의 이윤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해서 이익배당을 회피하고 있다.

4) 기타 선택적 복리후생비

많은 현지기업은 법정 복리후생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 사설 의료보험: 사무직 근로자 및 관리자의 경우, 정부의 사회보장제도(IMSS) 이외에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다.
- 생명보험
- 차량보험
- 각종 상품권: 슈퍼마켓 상품권, 주유 상품권, 식당 상품권 등
- 저축 기금 가입
- 대출: 회사에서 목돈을 선지급한 후, 매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 교통비
- 교육훈련비 지원
- 주택임차 지원

5) 초과근무수당

주 9시간 범위 내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규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9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규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공휴일 및 일요일 근무 시에는 시간 외 수당 외에도 25%의 프리미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무직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가근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요구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6) 급여 지급방법

급여 지급장소는 근로자의 근무지가 되며 현지화로 지급해야 한다. 공장 작업자에 대한 급여 지급주기는 1주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 근로자들의 경우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낀세나(quincena) 로 불리우는 2주에 한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 휴가제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 기준으로 연간 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데 유급 휴가 일수는 12일이 될 때까지 매년 2일씩 늘어나다가 12일에 달하는 해부터는 5년마다 2일씩 늘어난다.

근무 연수	유급 휴가 일수
1년	6일
2년	8일
3년	10일
4년	12일
5~9년	14일
10~14년	16일
15~19년	18일
20~24년	20일
25~29년	22일

자료: 멕시코 연방노동법

- 법정 휴가 수당 (PRIMA VACACIONAL): 노동법에 따라서 휴가기간 임금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가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 현지기업들은 업무로 인해 부득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있다.

아. 해고 절차와 조건

1) 해고 절차

멕시코에서는 종업원을 해고하기도 쉽지 않으며, 해고 종업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다고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당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사건 경위 조서 (Acta Administrativa)를 작성하여 문제의 종업원 본인과 증인들이 서명해야 한다.

고용계약 종료 일자와 사유를 명시하는 서면 통지문 2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종업원에게 전달하고, 다른 한 부에는 근로자의 수령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종업원이 통지문을 받지 않을 때 사용자는 고용 종료일 이후 5일 이내에 해당 노동 분쟁 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미 등록된 종업원의 주소로 같은 통지문을 발송하며, 종업원에게 이에 대한 통고를 요청하면 된다.

또한, 앞으로 종업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때를 대비하여 근거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연방노동법이 규정하는 “동시에 종업원이 이해하고 합의하는 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고용주는 종업원 해고 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근무 개시 후 30 일 이내에 가짜 증명서나 신원 보증서로 사용자를 속인 사실이 적발된 경우
- 근로자가 사용자, 그의 가족, 사업장의 최고 경영자, 인사담당자에게 부정직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 폭력 위협 학대를 가한 경우. 단 상대가 화나게 만들었거나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는 예외
- 근로자가 상기 항에 언급된 행동을 동료 근로자에게 행하여 직장내의 규율이 영향을 받는 경우
-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일로 제 2 항의 행위를 범하여 고용 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건물, 작업 도구, 원자재, 기타 사물들에 피해를 가한 경우
- 부당한 의도는 아니지만 피해의 유일한 원인이 부주의로 5 번과 같은 중대한 피해를 가한 경우
-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로 회사 내의 안전과 직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
- 회사나 작업장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범한 경우
-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 기밀이나 극비 사항을 타인에게 알린 경우
- 사용자의 허락 또는 충분한 사유 없이 30 일의 기간 중 3 번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 업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충분한 사유 없이 사용자나 상관의 말에 불복종한 경우
- 근로자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설정해 놓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만취한 상태 또는 마약 등을 복용한 상태로 출근한 경우
-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금고형 집행 판결을 받은 경우
- 상기 항목들의 내용과 유사한 이유들로서 중차대하고 또 유사한 결론을 유발하는 경우

2) 법정 퇴직금

- 자진 사직의 경우
 - 자진사직의 경우에는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미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및 휴가 보너스, 연말 보너스(aguardia)를 산출하여 지급하면 된다.
 - 근로자가 자진사직을 하면서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진사직서와 법정 퇴직금 수령증을 작성하여 서명과 지문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 노동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노동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보상 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
- 노동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불특정기간 계약(contrato indefinido): 3개월치 급여에 근무연수 1년당 20일치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 밖에도 자진 사직의 경우와 같이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및 휴가 보너스, 연말 보너스(aguardia)를 산출하여 지급해야 한다.

- 1년 이하의 특정 기간 계약: 3개월치 급여의 법정 체불 임금에 더하여 전체 근무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1년 이상의 특정 기간 계약: 3개월치 급여의 법정 체불 임금에 더하여 근무 1년차 급여 6개월치와 근무연수별로 20일치 급여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자. 노동조합

1) 노조 결성 조건

20명 이상의 종업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고용 조건에 관한 단체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연방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 따라 노조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 회사에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고 단체 노동 협약이 시행되고 있으나, 종업원 수가 20명이 넘는데도 노조가 없는 경우도 있다.

2) 노조의 성향

멕시코 전국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노조에는 CROC, CTM 등이 있는데, 정치적 노조라고 해서 모두 강성인 것이 아니라, 같은 CROC, CTM이더라도 지역별로 성향이 다르다. 마길라도라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레이노사나 마따모로스, 누에보라레도에서는 CTM이 지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성향은 백색노조와 마찬가지로 최근 10년간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몬테레이를 포함한 멕시코 북동부 지역의 공업도시에서는 회사에서 먼저 백색노조를 선택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채용하는 종업원들이 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백색노조에 가입하도록 하기도 한다.

차. 노무관리 기본 요령

- 한국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현지 문화와 현지어를 배우고 현지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평가와 보상 제도를 명확하게 세우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말고,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최대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종업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 현지인 직원들과 한국인 직원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사내 위화감 조성을 막을 수 있다.
- 업무 지시는 명확하게 해야 하며, 의사소통에 자신이 없다면 서면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반드시 완료시한을 부여하고 중간 진도를 확인해야 한다.
- 유능한 현지인 중간관리자를 두어서 전체 현지 직원들을 통솔하게 하는 것도 직원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 직원들 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직원을 나무랄 때는 다른 직원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업무 과실만을 냉정하게 질책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
- 연봉 및 근무 조건과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카. 최근 연방노동법 개정 동향

2012년 12월 1일부터 연방노동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시간제 근무허용, 수습채용 허용, 소송패소시 사용자 지급 상한액 설정 등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임시채용, 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및 가사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통해 상대적 약자에 놓은 근로자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타. 노무소송

□ 노무 소송의 일반적 진행 절차

- ① 소송 / Demanda
- ② 통지 / Notificacion y Emplazamiento
- ③ 중재 및 변론기일 / Audiencia de Conciliacion, Demanda y Excepciones, Ofrecimiento y Admision de Pruebas
- ④ 증거자료 검증 단계 / Audiencia de Desahogo de Pruebas
- ⑤ 최종변론 / Alegatos
- ⑥ 판결 / Laudo
- ⑦ 항소 / Amparo
- ⑧ 집행 절차 / Procedimiento de Ejecucion
- 3,4,5번이 중재위원회에서 당일에 이루어진다

□ 노무관리 및 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지 자질과 능력을 심사숙고하여 고용하라.
- 가능한 근로계약서는 필수 기재사항만을 삽입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라.
- 사용자가 모든 사실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여, 노무소송에 대비, 근로자의 서류관리를 철저히 하라
- 우호적 노조를 두어 단체 협약(Contrato Colectivo)을 체결하여 파업을 방지한다.
- 퇴사시 반드시 사직서(Carta de Renuncia) 및 퇴직금 정산증명서(Finiquito/Liquidacion)에 서명을 받는다. 필요 시 근로관계 종결 합의서(Convenio de Terminacion de la Relacion de Trabajo)도 작성하여 서명 받는다.

- 정당한 해고 사유 발생시 사건 경위조서를 작성하여 본인과 증인들이 서명 날인하게 한다.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 퇴사한 근로자와 조속히 합의/중재하여 노무 소송을 방지한다.
- 회사대표자나 인사부 관리자는 노무소송 송달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한다.
- 노무소송 발생시 노동변호사를 고용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변호사의 소송진행상황을 항상 확인한다.

15. 조세제도

가. 개요

과세권이 연방 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는 지급 급여세,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등 일부에 국한되며, 대부분의 세금이 연방세이다.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1994년 10월 6일 체결되어, 1996년 1월 1일 이후 계속하여 적용되고 있다.

2013년 9월 8일 멕시코 행정부는 연방의회에 일련의 '2014년 조세 개혁법안'을 상정하였다. 연방하원에서 일부 개정돼 통과한 이 법안은 10월 31일 자로 연방상원에서 14개 조항이 수정 의결돼 연방하원으로 반송됐고, 같은 날 연방하원은 연방 상원의 수정의결안을 재수정없이 의결해 2014년 1월 1일부로 발효됐다.

나. 2014년 조세 개혁 법안

1)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 ISR, Impuesto Sobre la Renta)

멕시코의 소득세는 한국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합쳐놓은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최대 법인세율은 28%이다. 하지만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2010~2013년만 30%를 유지하고, 2014년에 29%, 2015년 28%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이에 대한 경과 규정을 다시 두어서 2014년에도 30%를 적용한다.

멕시코에서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개념은 광범위하다. 총 소득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개인 및 법인의 과세기간 중 얻은 소득 중 금전, 유가물(주식, 부동산 등), 서비스, 신용대출 등의 형태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비롯하여, 은행 이자 소득도 포함되며 해외에서 얻은 소득 또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 현금예금세(IDE, Cash Deposit Tax) 폐지

자금 세탁 방지등을 목적으로 한 계좌에 월 1만 5000페소를 초과하는 현금 입금시 초과분에 대해 3%의 세금을 매김(예를 들어 나의 계좌에 누군가가 현금으로 2만 페소를 입금하였을 때 150페소가 현금 예금세로 국고로 귀속되고 내 계좌에는 1만 9850페소만 입금됨.) 위험적 요소까지 있는 이 법에 많은 반대가 있어 왔고, 내년부터 폐지된다. 하지만 현금 예금세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해 시중은행이 국세청에 보고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법인세(ISR Empresarial)의 근로자 복리 후생비용 공제 한도 53%로 축소

소득세법 31조에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용(IMSS 납부금, 식료품비, 주택비, 교통비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100% 공제하도록 했으나, IETU(단일세율법인세) 폐지에 따른 세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53%만 공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사용자의 근로자 복후비 비용 축소에 따른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

4) 개인 소득세(ISR Personal)최고 세율 35%인상

개인 소득세의 경우 13년 까지는 최고 세율이 30%이나 2014년부터는 연 소득 300만 페소(약 3만 8,500달러) 초과인 자는 35%까지 인상된다.

5) IMMEX(수출용 부품에 대한 보세제도) 삭제

멕시코에서 임가공해서 수출하기 위한 부품 수입에 대해 평균적으로 18개월 간 관세 및 부가세 납부를 유예해주었던 IMMEX 제도가 사라질 예정이나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 제도를 폐지하는 명목상 이유는 IMMEX제도의 운용과 관련해 불법 관행(내수로 돌리면서 수출했다고 허위로 신고 등)이 다수 노정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특혜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없다. 과거 PITEX(국내산업)와 Maquiladora(임가공산업)의 이원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6) 부가가치세 세율 단일화 및 과세 범위 확대

금년까지 국경지역은 11%, 나머지는 16%를 적용하였으나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16%로 일률 적용된다. 애완동물 매매 및 사료, 껌, 시외버스 및 기차표(시내 교통비는 제외)에 부가세가 적용된다. 350만 페소를 초과하는 주택 매매에 대해 부가세가 신설된다. 논란이 되었던 식료품, 의약품, 대중교통비, 학비, 스포츠,영화,연극,서커스 관람료, 귀금속(금 함유율 80% 미만)에 대한 부가세는 예전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7) 자동차 연료비 인상 및 자동차 구매, 렌트시 공제 축소

- 자동차 휘발유가 매달 리터당 9~11센터보씩 인상된다.
- 내년부터는 자동차 구매 시 13만 페소(약 1만 달러)까지만, 렌트시 하루 200페소 (약 15.4달러)까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법인, 개인 공통)

8) 주주배당세(Dividendo) 및 주식거래 소득세 신설

- 2013년은 세후 이익(CUFIN)에 대해 다른 세금없이 주주배당을 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10%의 배당세가 신설될 예정이다.
- 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 발생시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향후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9) 탄소세 신설

자동차 연료와 살충제에 대해 탄소세를 신설한다. 구체적 내용은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10) 특별소비세(IEPS) 개정

- 튀긴 식품, 과자, 초콜릿류, 아이스크림, 곡물 식품 등 275kcal/100g 이상의 칼로리를 가진 식품에 8%의 특별소비세를 생산 회사에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가당음료, 즉 설탕이 함유된 청량음료 및 과당분말에 대해 리터 당 1페소의 특별소비세를 생산회사에 신규 부과한다.
- 항공유에 리터당 12.4페소의 특별소비세가 신설된다.
-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2013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14도 이하의 술은 26.5%, 20도 초과인 주류는 53%의 소비세가 계속 부과된다. 하지만 논란이 되었던 멕시코에서 만든 담배에 대한 특별 소비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11) 광물 판매세 신설

광물 판매 또는 수출에 의한 매출액의 세후 이익 7.5%에 대한 세금이 신설되었다. 거두어들인 세수금액의 20%는 연방정부, 50%는 광산이 소재한 시정부의 지속가능개발기금에, 30%는 광산이 소재한 주정부의 지속가능 개발 기금에 분배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정부는 매 분기마다 기금 수입 및 지출현황을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멕시코 연방경제부는 광물 판매 또는 수출에 대한 세금(연방권리법 275조)을 신설한 바 있는데 이 세금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배에 대해 재정조정법에 위임했을 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세 개정 과정 중 연방 상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12) 세법 개정 추가 참고 사항

□ 전자 영수증(CFDI/Factura Electronica) 발행 의무

전자 인증(CSD)이 필수이며 다음의 경우 국세청은 전자인증을 무효화 할 수 있다.

- 한 회기 중 연속 3번 이상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비연속적으로 6번 이상
- 세금신고를 누락할 경우
- 세무 감사나 압류기간 중 납세자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행방불명될 때
- 비정상적 영수증 발견시
- 납세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

□ 인터넷을 통한 전자창구(Buzon Tributario) 확인 의무화

- 납세자들은 국세청 사이트에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배정된 전자창구에 접속하고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 서류, 요청서들을 통지 받게 된다. 국세청으로부터 전자고지서를 받은 후 4일이 지나면 자동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
- 법인은 2014년 6월 30일부터, 개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전자고지 창구를 등록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

□ 피고용인 급여(Nomina) 및 복리 후생(Prestacion Social 관련)

- 급여는 온라인 이체, 예금, 또는 기명식 수표로 지급해야만 공제 가능
- 급여지급에 대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보관할 의무
- 종업원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 및 비과세 급여에 대해 53%까지만 공제 가능

□ 공제(Deducion) 항목 축소

- 식당/레스토랑 지출 시 인보이스에 8.5%만 공제 가능
- 기계 및 설비등 회사 고정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공제혜택 폐지
- 종업원에게 제공된 음식 및 생활용품 쿠폰(Vales de Despensa)은 전자결제/화폐(Monedero Electronico)를 통해서만 제공될 때 공제 가능
- 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는 렌터카 한대 당 하루 200페소, 구입시 13만페소까지로 축소
- 기부금 공제금액은 회사 이익금의 7%이며 만약 기부 수혜기관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일 경우 4%까지만 공제 가능
- 고용인이 부담한 피고용인의 사회보장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 주주의 연대책임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벌금 및 누락세금에 대해 주주는 해당 자본금 출자지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이상 연대 책임을 진다.

-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세무상 주소지를 변경 신고하지 않고 이전한 경우 혹은 세무감사 기간중 벌금이나
- 누락세금에 대해 세무보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무상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 회계 장부를 파기, 은닉 혹은 존재 하지 않는 경우

□ 개인 소득세 관련

- 월급자 소득세 원천징수율 35%까지로 인상
- 배당금 10% 원천징수 적용
- 개인공제 한도는 개인 1년 총 수입의 10%로 제한
- 공제항목: 치과 및 병원 진료비, 학비, 장례비, 의료보험비, 주택담도대출이자, 국세청 승인기관에 납부한 기부금 등

나. 소득세 산출 방법

법인의 경우 소득세는 회계연도의 이익금 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통상 법인의 소득세 계산은 기업 내부의 재무회계 결산서의 손익계산서 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정, 즉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항목을 더하고, 손금 산입,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한 다음, 동 금액에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세무 회계에서는 일부 재무회계의 결산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회계상의 지출과 세법상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지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전 회계연도 이윤율을 토대로 잠정 예납(Pago Provisional)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 법 14조에 의하여 전년도 이윤율을 토대로 동년 소득세를 납 부하는 선수금의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멕시코의 경우 연말 세금신고(Declaración Annual) 이전에는 회계연도 1년 전의 이윤율로 산출된 소득계수 (Coeficiente de Utilidad)를 근거로 과세한 이후, 연말에 실제 이윤에 따라 납세액을 조정한다. 그러므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매출이 감소하였는에도 불구하고 이전 회계연도의 소득계 수를 적용하여 소득세가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서 상계할 수 있다.

1) 법인의 월간 소득세 산출 예시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소득세(ISR)는 총 매출액에서 공제 가능한 지출 및 손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 (과세 표준)에 법인세율(30%)를 곱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이는 연말 정산 시 납부하는 방법이며 매월 소득세 납부 시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소득계수(Coeficiente de Utilidad) 를 적용하여 예납한다.

소득세 납부 예시

구분	내용	금액
	총 매출액	500,000
X	소득계수	이전 연도 이윤율(Ex. 0.1333)
X	법인세율	30%
=	산출세액	19,995
-	잠정 예납금	5,000
=	납부세액	14,995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소득계수는 이전 회계연도 세전 순이익 (Utilidad Fiscal)을 총 매출액(Ingreso nominal) 으로 나누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 전년도의 총 매출액이 60만 달러이고 판매원가와 관리비가 각각 40만 달러, 12만 달러였다면 세전 순이익 8만 달러를 총 매출액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 때 소득계수는 0.1333이다. 소득계수의 경우 명목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단 주의할 것은 본 소득계수는 당해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2009년도 소득계수는 2010년 동안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매월 17일까지 전월의 소득세 납부 금액을 산출하여 부가세액 등 기타 세금과 함께 납부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재무부 내규(Resolución Miscellanea Fiscal)에 의하여, 연방 세금(Impuesto Federal, 예를 들면, 소득세ISR, 부가세IVA, 단 일세율법인세 IETU 등)의 경우 납세자 번호(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의 6번째 숫자에 따라 납부 날짜 연기가 가능하다. (2002년 대통령령이 추후 폐지되지 않는한 계속하여 적용되며, 의무 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 대기업(Grandes contribuyentes), 다국적 기업(Controladora y controlado) 및 멕시코 정부 기관의 경우에는 예외) 2010년 기준, 자신의 RFC 번호가 GOKP 590810 GK4라면, 벌금 없이 5일간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10년 5월 기준, 재무부의 결정에 의하여, 숫자가 1, 2로 끝나는 경우-->1일 연장, 3, 4로 끝나는 경우-->2일 연장, 5, 6으로 끝나는 경우-->3일 연장, 7, 8로 끝나는 경우-->4일 연장, 9,0으로 끝나는 경우 -->5일 연장 가능. 다만, 이렇게 누장 신고를 했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은 룰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자신의 추가 기간을 사용하여 22일에 세금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 회계 연도가 끝날 때까지 정확히 매달 22일에만 납부를 할 수 있고, 그 전이나 후에 납부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납부일과 관련하여, 연방 조세법 12조(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는 납부일(소득세의 경우 17일)이 금~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2) 소득계수 적용 예외(소득세법ISR 14조, 15조)

직전 연도의 소득 계수를 당해 연도에 적용하기 힘든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 2010년에 히트 상품을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겼지만 2011년에는 매출이 줄어 이윤도 대폭 줄었음에도 2010년 소득계수를 2011년에 적용하게 되면 과도한 소득세 부담을 지게 되므로 7월부터는 당해년도 소득계수를 정정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직전 연도 회사 회계가 적자인 경우 당해년도 소득계수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소득 계수가 이론적으로는 음수(-)가 되므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을 뿐이며, 다음해에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의 설립 연도에는 소득 계수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잠정 예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말 회기후 결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며, 설립 연도(2009)에 적자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회기년도(2010)에도 소득 계수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잠정 예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 납부한다. 다만, 2008년부터 자산세를 대체하는 단일세율법인세(IETU)가 신설되어 소득세를 납부 후, 납부된 소득세를 단일 세율 법인세에 적용하여 차액을 납부한다.

- 주요 공제대상(소득세법LISR 29조)
 - 환불 및 할인 금액
 - 매출원가
 - 회사운영비용
 - 투자금액(감가상각 방식에 의해 매년 일정부분 공제)
 -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손실액 또는 회수불능채권
 - 퇴직연금 적립액
 - 사회보장기금 회사부담분
 - 부채 이자 지불액
 - 인플레이션 조정금액
 - 선수금 지불액
 -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이익배당금, 사회보장기금
 - 차량 구입비(175,000페소 한도)
 - 부가세 납부액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비공제 대상)
 - 회수불능채권
 - 로열티 및 기술지원 비용
 - 기부금(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7% 한도) 등
- 주요 공제불가대상(소득세법LISR 32조)
 - 벌금(자연 재해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공제 가능)
 - 손해배상금액
 - 해외기업에 대한 할당금(광고캠페인 등)
 -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자산 손실분
 - 단일세율법인세(IETU), 소득세(ISR), 부가세(IVA), 특별 소비세(IEPS)
 - 현금예금세(IDE)등(구체적인 공제 대상 및 조건은 소득세법 32조를 참조 바람)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00페소 이상의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추적이 가능한 지불 수단을 이용하고 회사명의로 발행된 세금계 산서 (Factura)를 함께 첨부하여 증빙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31조 3항) 그리고 회사 운영비용의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00페소 이상의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추적이 가능한 지불 수단을 이용하고 회사명의로 발행된 세금계 산서 (Factura)를 함께 첨부하여 증빙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31조 3항) 그리고 회사 운영비용의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출장 시 식비의 경우 국내에선 1인당 750페소 이하, 국외에선 1,500페소 이하만 인정되며 그 이상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숙박비의 경우 1박에 국외의 경우 3,850페소까지, 국내의 경우 무제한, 육상 교통수단의 경우 국내의 850페소까지 인정되며, 해당 지출에 대하여 교통 혹은 숙박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야만 한다. 이는 회사 경영자나 오너의 개인적인 지출을 회사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기준이므로 운영비 지출 시 이를 회계사와 확인하고 지출하도록 한다.

16. 금융제도

가. 개요

멕시코의 현 금융시스템은 1982년 외채위기와 1994년 폐소화 위기에 이은 금융조정 결과이다. 1977년 오일 붐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국유화되었으나 이후 관치금융으로 안정된 후 1991~1992년 사이에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규제 및 감독부실과 민간의 경영경험 부재로 인한 부실심화로 1994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금융산업이 붕괴되었다. 테킬라 금융위기 이후 멕시코는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산 및 대부법 개정, 연금펀드의 민영화, 외국 금융기업의 참여확대를 중점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2000년과 2003년에 이루어진 파산과 대부에 관한 개혁은 채권자의 채무회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연금가입자가 연금관리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은행과 지주회사가 연금펀드를 운영하도록 허가함으로써 경쟁이 확대되었고, 이는 생산성 증대로 이어졌다.

1993년 NAFTA체결 당시 약속한 금융부문의 전면자유화 조치와 1994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을 거쳐 1998년 말까지 대부분 외국계 자본에 매각되어 현재 멕시코 금융분야의 외국계 자본 비율은 80%에 이른다. 외국계 은행의 참여는 멕시코 금융분야에 변화를 가져와 거대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선진 금융권의 경영방식, 위기관리기법 도입으로 경영환경이 개선되었다.

은행대출 중 소비자대출 및 주택대출은 2005~2006년간 크게 활성화 되었는데, 이자율 인하 및 낮은 인플레이션이 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의 대출 규모는 GDP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출의 장애요소로 높은 이자율을 꼽는 반면, 은행은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아 신용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대출이 활성화 되지 않은 탓에 많은 기업은 자신이 납품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이러한 자금조달은 거대기업은 납품기업에 자금을 대부해주고 납품기업은 제품으로 되갚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은행제도

멕시코 금융시스템의 주요감독기관으로는 재무부, 증권감독원 그리고 중앙은행인 멕시코은행 등이 있다. 재무부는 금융기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며, 준 자치 정부기관인 증권감독원은 금융전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은행인 멕시코 은행(Banco de Mexico)은 통화감독기관으로서 외국환제도의 운용, 지급준비제도의 관리, 정부의 재정금융정책대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멕시코의 은행은 크게 개발은행과 상업은행으로 분류되며 멕시코 정부는 1982년 대대적인 상업은행 국유화조치를 단행하였으나, 1990년 금융자유화의 일환으로 국유화되었던 은행들은 다시 민영화시켰다. 개발 은행은 정부의 정책은행으로서 상업은행부문의 자금부족을 충당하는 기능을 하며 농업, 공공사업, 산업개발, 수출진흥 등 전략분야에 대한 대출을 주요 업무로 한다.

멕시코의 국책개발은행으로는 국립개발은행(NAFIN), 건설은행(BANOBRAS), 수출입은행(BANCOMEXT), 연방권업조합(SHF), 국립저축은행(BANSEFI), 국제은행(BANEJERCITO)의 6개가 있다.

NAFIN은 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장기산업자금 용자, 외자도입보증, 증권 시장 육성 및 정부기관의 기금수탁업무 등 개발금융업무뿐만 아니라 지분참여와 Joint Venture에 대한 지분 투자 업무도 취급하며 BAnCOMEXT는 수출입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신용기관으로 금융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업에 대한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장려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BANOBRAS는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 제공, SHF는 주택건설 및 구입에 관한 금융 제공, BANSEFI는 민간저축 및 투자를 진흥하기 위한 기관이다. 상업은행 42개로 이중 외국계 은행은 17개 수준이나, 총자산 기준 시장 점유율은 73.3%로 지배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 멕시코 금융시장 현황

멕시코 금융 시장 현황

구분	개수	총자산 비중(2011.06)	성장률(2001.06~2011.06)
상업은행	42	51.3	10.4
연금펀드(운용사)	86(14)	13.6	10
뮤추얼펀드(운용사)	572(60)	11.5	9.8
개발은행	11	9.2	7
보험회사	101	6.1	6.1
보증회사	15	0.2	2.8
증권회사	34	3.9	6
기타	N.A	4.1	N.A

자료: IMF, Mexico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2012

멕시코의 금융 산업은 중앙은행과 6가지 형태의 은행업, 비은행 금융서비스업, 증권업, 파생금융업, 보험업, 연기금 등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다. 2011년 말 기준 금융그룹 22개 상업은행 42개, 개발은행 11개, 보험회사 101개, 보증회사 15개, 연기금사 14개, 증권회사 34개와 그 외 다수의 투자회사, 기타 투자 및 저축기관 여신전문 금융기관 등이 있다.

민간기구로는 은행협회(ABM), 증권중개협회(AMIB), 연기금협회(AMAFORE), 보험협회(AMIS), 보증협회(AFIANZA), 저축대부협회(AMSAP), 특별금융기관협회(AMFE)등이 있다.

멕시코에는 7개의 대형금융그룹이 다양한 은행과 비은행 회사를 거느리며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7개 금융그룹이 전체 금융자산의 73%, 전체 은행자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5개는 미국과 유럽계 등 글로벌 은행이 소유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금융그룹 5개 중 2개(BBVA: Bancomer, Stander)가 스페인계 그룹으로서 단일 국가로는 시장점유율이 가장 두드러진다.

1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멕시코 금융부분 동향

멕시코의 금융분야는 1994년 폐소화 위기 이후 기반이 탄탄해졌다. 금융위기 이후 멕시코는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을 진행하였는데 파산 및 대부법 개정, 연금펀드의 민영화, 외국 금융기업의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2000년과 2003년에 이루어진 파산과 대부에 관한 개혁은 채권자의 채무회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연금가입자가 연금관리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은행과 지주 회사 가 연금펀드를 운영하도록 허가함으로써 경쟁이 확대되었고 이는 생산성 증대로 이어졌다.

현재 금융분야의 외국계 자본 비율은 80%에 이르는데 외국계 은행의 참여는 멕시코 금융 분야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거대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은행의 재정상태가 튼튼해졌으며 선진 금융권의 경영방식, 위기관리기법 도입으로 경영환경이 개선되었다. 은행대출 중 소비자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은 2005~2006년간 크게 활성화되었는데 이자율 인하 및 낮은 인플레이션이 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의 대출 규모는 GDP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출의 장애요소로 높은 이자율을 꼽는 반면, 은행은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아 신용 조사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탓에 많은 기업은 자신이 납품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은 거대기업은 납품기업에 자금을 빌려 주고 납품기업은 제품으로 되갚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현지 자금 조달 (은행 계좌 개설)

투자진출기업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설립이 완료되어야 한다. 일단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멕시코 시중은행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계좌개설을 위한 기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기본 요건

멕시코에 설립된 법인 및 멕시코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혹은 취업비자(FM3) 및 영주권(FM2)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대출상품 및 은행에 따라 조건이 다르지만 최소한 2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의 경영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보증인이 필요하다. 또한 거래은행, 혹은 거래처의 추천서 5매가 필요하다.

2)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법인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보증인 및 신청인 서명 필요)
 - 세무등록증(Alta de Hacienda), 납세등록증(Cédula de Identificación Fiscal) 사본
 - 사업자등록증(Acta Constitutiva), 소유권 및 영업 등록증(Registro Público de la Propiedad y del Comercio) 사본. 상기 등록증의 변경 시 변경내용 사본 포함
 - 위임자 지정서류 사본. 위임자는 대출계약서에 사인함.
 - 법인대표, 위임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해당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외국인의 경우 FM2, FM3 비자 사본 제출
 - 법인, 보증인의 주소증명서 사본.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과금(수도, 전기, 재산세, 전화료) 영수증으로 가능
 - 금융정보 제출
 - 재무재표를 포함한 법인의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제출. 대출은행에 따라 3년간의 내역 서, 혹은 최근 90일 이내의 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 가장 최근의 연간 세무신고서 사본
 - 보증인의 최근 자산신고서 사본
 - 신용평가 승인서, 필요할 경우 보증인도 제출 필요

- 개좌 개설 시 개인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보증인 및 신청인 서명 필요)
 - 신청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해당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사본 첨부, 외국인의 경우 FM2, FM3 비자 사본 제출
 - 세무등록증(Alta de Hacienda), 납세등록증(Cédula de Identificación Fiscal) 사본
 - 법인, 보증인의 주소증명서 사본.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과금(수도, 전기, 재산세, 전화료) 영수증으로 가능
 - 최근 연간 세무신고내역서 사본
 - 보증인의 최근 자산신고서 사본
 - 신용평가 승인서, 필요할 경우 보증인도 제출 필요

사본인 경우는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하는 것이 편리하다.

3) 대출 금리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멕시코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는 높은 편으로 많은 기업 이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보다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는 대출은행에 따라 다르며 대출금액 및 기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며 담보 조건에 따라 변동하기도 한다.

2012년 기준 멕시코 시중은행의 법인대상 대출상품별 금리는 아래와 같다.

BANAMEX 은행 대출 금리

상품명	대출 한도	기간	연 이율	수수료
기업 리볼빙 대출 (Crédito Revolvente Impulso Empresarial)	350만 페소 (27만 달러)	12개월	17.7~23.8%	1.5%~
일반 대출 (Crédito simple Banamex)	1천만 페소 (77만 달러)	12개월	TIE + 5%	없음
자동 대출 (Línea Automática Banamex)	350만 페소 (27만 달러)	12개월	변동: 17.7~23.8% 고정: 17.7~25.0%	1.5%~
담보 대출 (Crédito con Garantía Hipotecaria)	5천5백만 페소 (423만 달러)	5년	변동: TIE + 3~10% 고정: 14.9~17.2%	0.5%~

주1: TIE 28일- 중앙은행 지정 은행간 대출금리. 기준 4.75%

주2: 적용환율- 1달러 = 13페소

자료: BANAMEX

다. 외환 관리

멕시코에서 해외자금의 이동은 자유롭다. 1994년과 1998년 폐소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외환이동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위기 이후 폐소화가 정상화 되면서 외환규제는 도입되지 않게 되었다. 외환관리를 맡고 있는 멕시코중앙은행(Banco de México)과 재무부(SHCP)도 개방경제의 기초를 취하고 있어 향후 외환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부터 발효된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상에서 송금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마약거래 등으로 불법자금의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돈세탁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은 수상한 자금흐름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은행, 신용기관, 환전소 등)은 수상한 자금이 포착되면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정부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또한 매 분기별로 1만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의 움직임을 보고해야 하며 회사 내에 불법 자금송금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이때 조사대상 화폐는 멕시코의 폐소화 및 외화, 여행자수표 및 주조된 금, 은 등이다.

멕시코는 OECD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회원으로 자금세탁과 테러단체로의 자금흐름을 감시하고 있다. FATF의 기준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1997년 금융정보국(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설립하여 자금세탁을 감시하고 있다.

1) 과실송금

해외송금 시 법인이 멕시코상업등기소(Registro Público de Comercio)에 등록되어 있고 법인관련 세금을 문제없이 납부했을 경우 과실송금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송금은 금융당국에 자동적으로 보고된다. 한·멕시코투자보장협정은 송금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자유송금의 권리를 보장한다.

구체적인 송금 항목으로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 자본이득, 배당금, 이자, 사용료, 수수료 및 기타 경상소득, 투자의 매각 또는 투자의 전면적, 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 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 타방체약 당사국 영역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를 허가 받은 일방체약 당사국 국민의 소득,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금, 손실보상 및 수용에 대한 보상금, 분쟁의 해결에 따른 지급금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협정에 규정된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송금당일에 우세한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송금이 제한될 수 있다.

- 파산, 지급불능 및 기타 채권자 권리보전을 위한 사법절차
- 주식의 발행, 거래, 처분
- 형법 또는 행정법의 위반
- 사법절차에 따른 판결의 이행 확보

그리고, 부칙에서 멕시코에서 국제수지의 심각한 어려움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조치 또는 계획의 이행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자금의 유입과 유출 관련 규제

개인 또는 법인이 멕시코로 들어오는 해외대출자금에 대해서는 규제는 없다. 반면, 멕시코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해외통화 채무보유한도를 자산금액의 1.83배까지로 허가하고 있는데, 중앙은행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기타 로열티 송금, 수출입 대금지급 규모 등 외환거래 역시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송금 시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물가정보

가. 멕시코시티(멕시코) 기초 통계 자료

	2009	2010	2011	2012	2013
명목 1인당 GDP(USD)	7,744	9,242	9,956	10,265	11,224
명목 물가상승률(%)	3.6	4.4	3.8	3.7	4.0
최저 임금상승률(%)	4.6	4.85	4.1	4.0	3.9
미화 대비 연평균 환율	13.51	12.64	13.09	12.27	13.03

나. 멕시코(멕시코시티) 물가정보 (1 US\$ = 13.24 Pesos / 2014년 8월 11일 기준)

구분	항 목	가격(Pesos)
식품류	쌀 1kg	18
	계란 12개	28
	쇠고기 등심 1kg	130
	돼지고기 등심 1kg	120
	우유 1L	16
	식용유 1L	32
	생수 1L	7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11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45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39
	김치찌개 1인분	12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7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900
	병원진료비 (공공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Toyota Camry, 기본사양)	360,000
	무연휘발유 1L	12
	자동차 등록비(3000cc 이상)	차가격의3%(매년)
	자동차보험료의무(2000cc신차, 운전경력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의무아님13,826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24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5
	시내버스 기본요금	5

구분	항 목	가격(Pesos)
	택시 기본요금	22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2,547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34.80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3.99
	인터넷 월사용료 (5mbps 기준)	24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25,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2,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5,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8,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USD 259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570
임금/노무	대졸 초임(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16,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4,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3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8
	출산휴가일수	90
	연간 국경일수	법정공휴일 7일
	주5일 근무 여부	Yes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70

자료: 무역관 자체 조사, 제품 가격은 제품 마다 상이하나 평균 가격을 기반으로 조사

2.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가. 멕시코의 인력 수요 현황

멕시코 사회보장청(IMSS)에 따르면, 사회보장청에 등록된 총 근로자 수는 1,696만 5,972명이며, 이 중 1,458만 6,247명은 정규직이며, 237만 9,725명은 계약직 근로자이다. 한편 2014년 7월 신규 등록된 근로자 수는 3만 7,457명이며, 이는 2013년 7월, 조사된 5,311명 보다 32,146명 증가한 수치다.

2014년 1월~7월 신규 등록자 합계는 44만 911명으로, 2013년 동기간 30만 689명 보다 14만 222명 증가한 수치이다. 2014년 미국 경제 회복 기대에 따라 멕시코 제조업 수출 증가, 3.5%대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면서 추후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멕시코의 비공식 일자리에 종사하는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게는 어려우나, 멕시코 정부는 이들 인구를 경제 활동 종사자의 약 59%(약 2,8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비공식 경제 인구를 감소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0년간 충분하지 못한 못한 성장 및 인구 증가로 비공식 인구가 증가하여 저 성장 및 저 생산성을 야기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없애고 근로자들에게 법에 대한 접근 강화, 의료, 퇴직금 등 기초적인 보호를 제공할 방침이다.

연도별 비공식 경제 인구 비율 추이(매년 6월 기준)

년도	비율(%)
2005	59.6
2006	59.2
2007	58.1
2008	58.7
2009	59.5
2010	58.6
2011	60.0
2012	60.2
2013	58.3

나. 한국인 취업 수요

현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200여개로 추정되는데, 한국인의 취업은 거의 모두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멕시코시티, 케레타로, 몬테레이, 티후아나 등 북부 지역에 한국 업체들이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한국인 인력 수요가 많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한국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비자, 항공권을 제공하여, 멕시코에서 근무 시키는 경우도 다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한국에서 주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근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오랜 시간(2~6개월)이 소요되어 기업측에서 애로 사항이 많다. 때문에 한국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멕시코에서 근무시키고자 할 경우, 이러한 시일을 감안하여 채용하는 것이 좋다.

다. 취업 유망 분야

1) 자동차 산업

멕시코의 전세계 8위 자동차 제조국가로 미국과의 지역적 급접성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향후 순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기준 멕시코는 293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였다. 멕시코 자동차 산업은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 편성되어 있다. 이는 멕시코내 생산되는 자동차의 80%가 수출되고 있는데서 쉽게 볼 수 있다. 2013년 멕시코의 자동차 수출 규모는 242만 대 수준이다.

아울러 2014년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 부품의 동반 성장이 전망된다. 실제로 2014년 상반기 멕시코 자동차 생산량은 159만대를 기록하여 동기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멕시코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금년 자동차 생산량은 310만대로 예상되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로는 아래의 기업들이 있으며 각 제조업체별로 멕시코 내 추가 투자 계획을 하고 있어 앞으로 자동차 생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의 완성차 조립공장 소재지 및 생산모델

	거점 도시	설립 연도	생산 모델
Chrysler	Saltillo (Coahuila)	1981	승합차 Ram 엔진 생산
	Toluca (Mexico)	1968	Journey, PT Cruise `10년까지 생산
Ford	Cuautitlan(Mexico)	1986	`10년까지Fusion, Milan , MKZ 생산 수출용 Fusion, Milan, MKZ Hibrido 엔진 생산
	Hermosillo (Sonora)	1983	
	Chihuahua(Chihuahua)		
GM	Ramos Arizpe(Coahuila)	1979	SRX, Cap[tiva., Chevy, , Monza
	Silao(Guanajuato)	1992	Escalade EXT, GMC Sierra, Avalanche,
	Toluca (Mexico)	1935	엔진 생산
	SLP (SLP)	2007	Aveo
Honda	El Salto (Jalisco)	1995	Accord , CR-V 생산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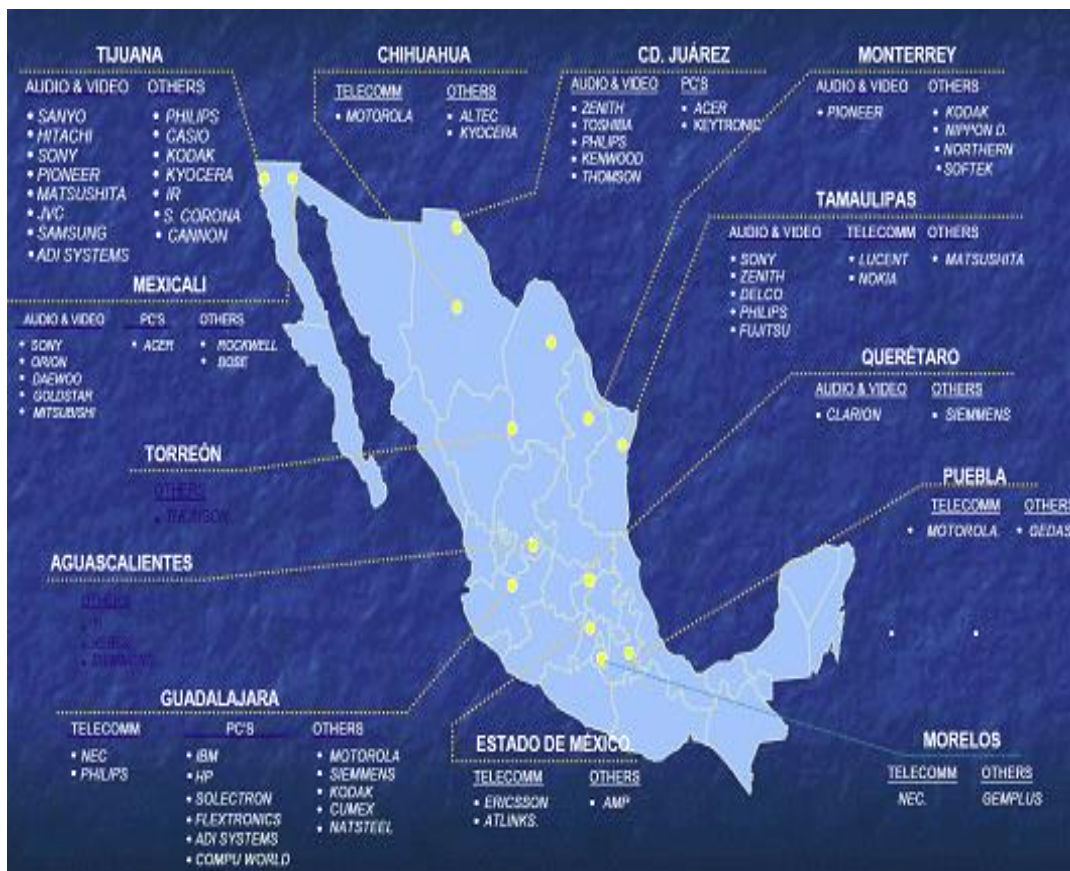
	거점 도시	설립 연도	생산 모델
Nissan	Aguscalientes(Aguascalientes)	1982	Sentra, Tiida HB, March, 4기통 엔진 생산
	Cuautla (Morelos)	1966	Pick up 차량, Tsuru, Tiida Sedan
Toyota	Tecate (BCN)	2004	Tacoma
Volkswagen	Puebla (Puebla)	1954	Beetle, Jetta/Clasico, Nuevo Jett
	Silao (Guanajuato)	2013	최첨단 엔진 생산

자료: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 (AMIA)

기존에 진출해 있는 완성차 조립업체들이 멕시코 내 생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을뿐더러 미국의 자동차 산업 재편으로 멕시코가 새로운 자동차 생산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1차 업체 345개사를 포함하여 약 1,000여 개 사에 달한다. 멕시코 자동차 부품 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 자동차부품 회사의 21%가 소재하고 있으며 멕시코 주에 20%, 북동부 누에보레온 주에 20%가 집중해 있고, 기타 완성차 조립공장 주변에 집중해 있다.

2) 전기전자산업

멕시코에 투자 진출한 주요 전기, 전자회사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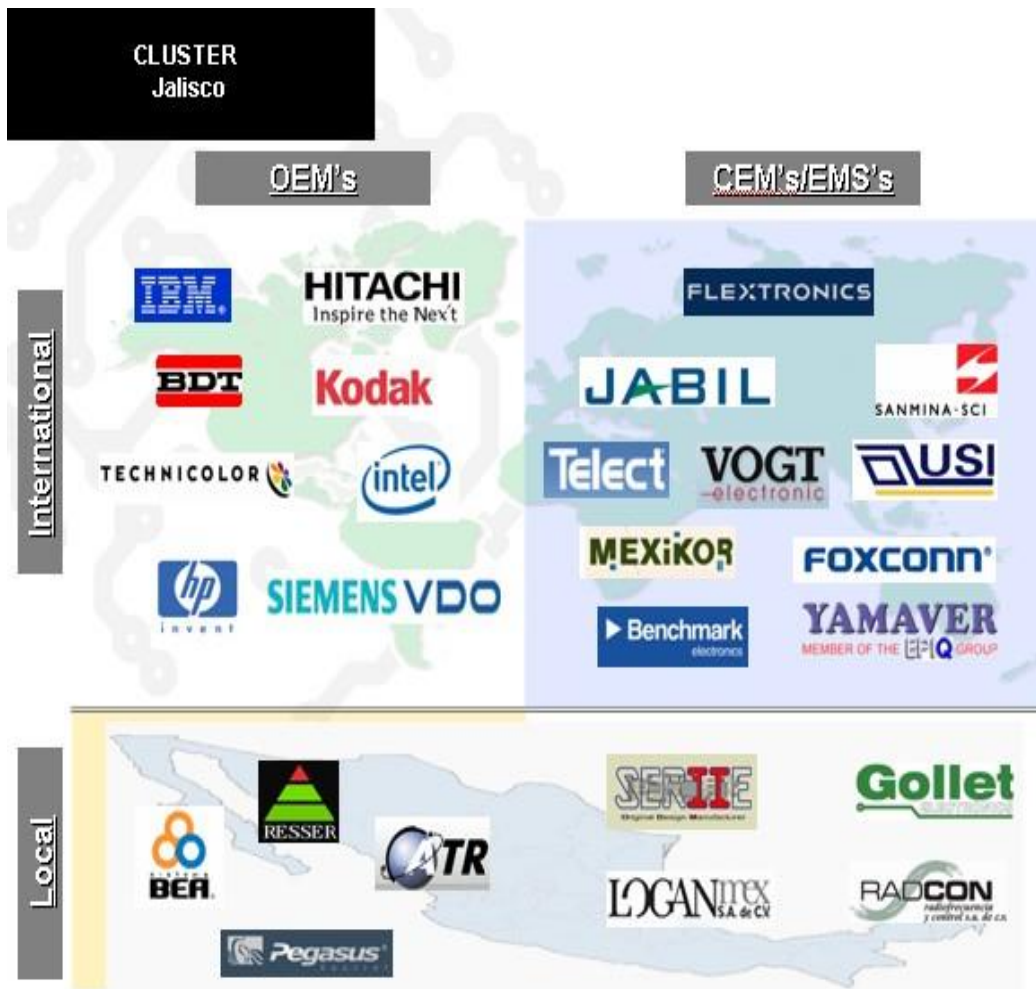
자료: BANCOMEXT

전기전자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멕시코의 제조업을 이끄는 양대 축이다.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시장과 중남미시장을 겨냥한 다국적 기업들의 미주 생산기지이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주요 전기전자 업체는 그림과 같다. 멕시코의 전기전자산업 클러스터는 다국적기업들의 공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서부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와 소노라 주의 미국접경도시, 북부 치와와 주의 씨우다드 후아레스, 북동부 누에보레온 주 몬테레이와 꼬아우일라 주 살띠요, 따마울리바스 주의 레이노사와 따삐꼬, 중부 멕시코 주와 께레따로 주, 모델로스 주, 뿌에블라 주, 베라크루스 주, 서부 할리스꼬 주의 과달라하라와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주가 주요 전기전자 산업 클러스터이다.

특히 할리스꼬 주 과달라하라는 멕시코 EMS 산업의 중심지로, 90년대 말부터 소품종 대량 생산 EMS 업체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EMS 업체들이 중국으로 이전하여 고전을 겪기는 하였지만, 실리콘밸리와 지리적 인접성과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 이웃하고 있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2005년에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멕시코의 EMS 비즈니스는 다품종 중간 볼륨 생산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할리스꼬 주에 진출한 주요 OEM/EMS 기업들



라. 취업환경

멕시코 업체에 취직하는 한국인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이 원하는 인력을 기준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 스페인어 필수, 영어 가능자 우대
- 타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자
- 여행이나 근무지 이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현지인들과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자
- 컴퓨터 Word, Excel 등 사용 가능한 자

마. 노동비자

멕시코에서 채용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멕시코로 파견 시킬 경우, 주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근무자 파견은 멕시코 내에 진출해 있는 회사(법인)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므로 노동법 및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법상 외국인의 고용비율이 전체 직원 수의 1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에선 본 규정을 약간 유연하게 적용하여 매니저급 이상의 고위직의 경우 본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비자 취득 절차를 진행 해야 한다. 그 외에는 근무자 파견에 관한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한국과 멕시코 간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한국 국적지는 단순한 관광, 여행, 휴가, 방문, 단순 비즈니스, 회의참가, 컨퍼런스 및 세미나 참석등의 목적으로 무비자(관광비자:FMM)로 멕시코에 입국하여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6개월 미만의 단기 파견의 경우 취업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무비자로 입국하거나 180일 이상 파견의 경우라도 우선 무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이 가능한 단기 거주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2년 11월 9일자로 개정, 발효된 멕시코 이민법 시행령은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체류 목적이 무비자 대상이 아닌 경우 필히 출국 전에 거주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 영사과에서 체류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광비자에서 취업이 가능한 단기거주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가 정신이상 등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 멕시코에서 일어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증인으로서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멕시코에 부모 등을 돌볼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인 자 등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멕시코의 취업관련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채용 고용 근로 비자로서, 멕시코 회사에 고용되었고 급여를 해당 멕시코 회사에서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파견 주재원 상용 기술 비자로서 멕시코 정부에 등록된 멕시코 현지 법인이나 지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는 한국의 원소속 회사에서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두 종류의 비자 모두 180일 이상 4년 이하 멕시코 체류를 위한 단기거주비자이며, 외국인 등록증 수령 후 1년, 2년, 3년, 4년 만기로 연장할 수 있다.

□ 워킹비자 (180일 이상 4년 이하) 구비 서류

- 비자신청서(영문 또는 스페인어 대문자로 작성,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뒷장에 제출서류까지 영문으로 작성, 뒷장에 서명은 여권에 서명한대로)
- 여권 원본과 사본
- 한국국적자가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
- 수수료(36달러에 해당하는 원화, 현금 지불)
- 초청하는 멕시코기관으로부터 받는 초청장 원본(주한 멕시코 대사관 샘플문서 참조) -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함.
 - 회사 공식문서
 - 비자신청인의 이름, 국적, 여권번호
 - 초청하는 기관의 사업자명 또는 회사명
 - 사업체 혹은 회사의 등록번호(R.F.C)
 - 회사 주소와 연락처
 -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 명시
 - 신청인의 멕시코 체류 기간
 - 필요한 경우, 초청하는 기관이 신청인의 멕시코 체류기간 동안 체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
 - 초청장에 초청하는 기관의 대표 혹은 법정대리인이 서명
- 초청장에 서명하신 분의 신분증의 사본
- 재직증명서, 자격증 혹은 졸업증명서 영문
- 필요한 경우(출장, 파견 등) 한국 기관으로부터 받는 출장증명서 영문
- 초청하는 기관이 초청장에 체류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 은행잔고증명서와 최근 6개월간 거래내역서(소득금액증명서, 원청징수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영문, 원본

- 자세한 사항은 주한 멕시코 대사관에 문의
- 전화번호: 02-798-1945/5 내선 303
- 메일: consularesembcor@sre.gob.mx
- 비자 발급은 근무일 기준 10일 소요 (주말, 공휴일 제외)
- 명시된 구비서류 외에 사안에 따라 다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멕시코에 일할 목적으로 가는 경우, 멕시코 업체가 직접 멕시코 이민청에 사전비자신청을 한 후 비자접수번호 (NUT:Numero Unico de Tramite)를 받고, 영사인터뷰 승인을 받은 후에 멕시코 대사관에 비자 접수를 해야 함.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멕시코 취업관련 비자 취득 절차

	단계	설명	담당기관
1	비자허가서 신청	1. 멕시코 소재 고용자/고용업체에서 멕시코 이민청과 사전 진행 2. 관련 심사 서류를 제출하면 30일 정도 소요	멕시코 이민청
2	비자허가서 NUT(처리번호) 취득	15일 이내에 외국인인 허가서 사본과 함께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주한멕시코대사관 영사과에 출두하여 비자 접수	주한멕시코대사관
3	영사과 인터뷰	1. 비자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뷰 일자 통보 2. 인터뷰 결과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 가능	주한멕시코대사관
4	비자 발급	1. 비자 발급이 결정되면 비자수수료 지불 (이때 받는 영수증에 발급일자 기재) 2. 비자발급일(2:30pm~4:00pm)에 주한멕시코대사관 영사관에 출두하여 직접 비자 발급 사항과 영수증 내용 확인	주한멕시코대사관
5	멕시코 입국	1. 비자신청일로부터 180일 동안 유효한 단수비자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내에 멕시코 입국 (동 단수비자로는 멕시코 입국이 단 1회만 가능) 2. 입국 시 FMM(관광비자) 작성 및 수령. FMM에 '교환용 비자(Visa para Canje)'라고 표시.	멕시코 이민청
6	외국인등록증 취득	1. 외국인등록증 취득을 위해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국 시 수령한 FMM, 주한멕시코대사관에서 발행한 비자수수료 영수증 및 기타 서류를 이민청에 출두하여 제출 2. 외국인등록증 취득 후에는 국외 여행 가능	멕시코 이민청

자료: 주한 멕시코 대사관

멕시코 취업관련 단기거주비자(Visa para Residentes Temporales) 신청시 구비 서류

채용·고용·근로 비자	파견·주재원·상용·기술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이민청(INM) 발행 비자허가서 원본 또는 사본 - 고용인의 이름, 여권번호, 고유처리번호(NUT), 비자승인번호 명시 ○ 멕시코업체의 스페인어로 작성된 초청장 원본 - 회사공식문서(레터헤드 사용) - RFC,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판, 법인인감 날인 - 초청장 발송인의 여권 또는 멕시코거주비자 앞뒷면 사본 - 비자신청인 여권과 동일한 성명, 여권번호, 방문목적, 방문기간 명시 - 구체적인 직위 및 업무 명시 - 급여 및 영리목적임을 명시(계약서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영문)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등록증, 사증, 유효한 비자 중 택일 ○ 항공권 예약표(편도 티켓 가능) ○ 은행잔고증명서(영문) - 본의 명의일 경우, 미화 2천 달러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영문) 및 6개월 거래내역서(국문 가능) - 본인 명의를 아닐 경우, 명의자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스페인어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확인) - 은행잔고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원천징수 제출 ○ 비자신청인의 신분증명서(영문) -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중에서 해당서류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업체의 스페인어로 작성된 초청장 원본 - 회사공식문서(레터헤드 사용) - RFC,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판, 법인인감 날인 - 초청장 발송인의 여권 또는 멕시코거주비자 앞뒷면 사본 - 비자신청인 여권과 동일한 성명, 여권번호, 방문목적, 방문기간 명시 - 구체적인 직위 및 업무 명시 - 급여 및 비영리목적임을 명시(한국 원소속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조건 무조건 명시, 멕시코 현지에서 추가급여를 받는 경우 반드시 명시) ○ 출장증명서(영문) - 회사공식문서(레터헤드 사용) -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판, 법인인감 날인 - 비자신청인 여권과 동일한 성명, 여권번호, 방문목적, 방문기간 명시 - 구체적인 직위 및 업무 명시 - 급여 및 비영리목적임을 명시(한국 원소속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조건 무조건 명시) ○ 주민등록등본(영문)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등록증, 사증, 유효한 비자 중 택일 ○ 항공권 예약표(편도 티켓 가능) ○ 은행잔고증명서(영문) - 본의 명의일 경우, 미화 2천 달러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영문) 및 6개월 거래내역서(국문 가능) - 본인 명의를 아닐 경우, 명의자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스페인어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확인) - 은행잔고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원천징수 제출 ○ 비자신청인의 신분증명서(영문) -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중에서 해당서류 택일

채용·고용·근로 비자	파견·주재원·상용·기술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원본과 사본 - 여권에 최소 3페이지 이상 빈 사증란이 남아있어야 함. - 전자여권 또는 구여권일 경우, 멕시코 입국 전 경유국가의 경유비자를 확인 - 여권유효기간은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기간보다 길게 남아 있어야 함 - 여권 서명란에 신청자 본인의 서명을 꼭 기재하여야 함 - 여권 서명은 비자신청서 서명과 동일하여야 함 ○ 사진 - 규격: 2.5cm X 2.5cm - 배경: 흰색 - 안경 착용 금지 - 최근 30일 이내 촬영 - 비자신청서에 부착하여 제출 ○ 비자신청서 - 영어나 스페인어 대문자로 작성 - 가급적 컴퓨터로 작성하되, 컴퓨터 작성이 안 될 경우 자필로도 가능 - 앞면과 뒷면 모두 작성 ○ 미성년자일 경우, 신청서 뒷면에 여권과 동일한 부모의 서명 반드시 포함 ○ 수수료: 미화 36달러 - 원화 현금으로 주한멕시코대사관 영사과에 납부 - 적용환율은 매달 변경 ○ 비자처리기간: 10일(주말 제외) ○ 멕시코 입국 3주 전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 고려 요망 	

자료: 주한멕시코 대사관

3. 비즈니스 에티켓

가. 일반적 에티켓

멕시코 인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 주는 인사치레의 말을 매우 즐겨 한다. 하찮은 도움에도 “Muchas gracias”(Thank you very much)를 연발한다. 이는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이며,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을 극히 꺼리는 문화에서 나온 산물이다. 따라서 이들의 눈 에는 여간 해선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는 동양인들이 무례한 사람들로 비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멕시코 인뿐만 아니라 서양사람들은 식사 할 때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지 않는다.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것은 교양 없는 행위로 여긴다. 그러나 한국인은 대체로 소리를 내면서 그것도 재빨리 먹어 치우는 경우가 많아 바이어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다. 멕시코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는 하나 식사 시간만큼은 매우 느긋하다. 음식을 찬찬히 맛보며 "즐거는" 멕시코 문화와 서둘러 한 끼 "때우는" 한국의 문화 차이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상담을 성사시키거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호칭 관련 에티켓

1) 학위 호칭

멕시코에 첫 출장 오는 우리 세일즈맨들이 바이어와 명함을 교환한 뒤 이름 앞에 붙은 릭 (Lic.) 또는 잉(ING.)에 대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는 호칭을 중시하는 사회로 호칭은 곧 사회적 신분이며 자존심의 표상이다. 우리는 박사가 아닌 이상 이름 앞에 또는 뒤에 석사나 학사나 하는 호칭을 붙이는 경우가 전혀 없는데 반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나 스페인 등에서는 이름 앞에 반드시 학위를 붙여서 명함을 파며, 이름을 부를 때에도 학위만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인문사회계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이름 앞에 LIC. 라는 표시를 하며, 이공계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받으면 ING. 라는 표기를 한다. LIC.이란 LICENCIADO 의 약자이며, ING.은 INGENIERO의 약자인데, 바이어와 명함을 교환할 때 명함에 LIC.가 있으면 상대방을 "리쎌씨야도"(여성인 경우에는 리쎌씨야다)라고 호칭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며 ING. 이 찍혀 있으면 "잉헤니에로"(여성인 경우에도 동일)라고 불러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물론 석사의 경우 MAESTRO라는 호칭이 있긴 하나 일반적이지 않으며 보통 LIC.나 ING.를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름 앞에 아무런 표기가 없을 경우 또는 상대방의 호칭을 잊어버렸거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담이 진행될 경우에는 SEÑOR(세뇨르/SIR 또는 MR.의 의미) 또는 CABAL-LERO(까바예로/GENTLEMAN의 의미)라고 칭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상대가 여성일 경우에는 SEÑORITA(세뇨리따)라고 칭하는 것이 좋다. 원래 세뇨리따는 영어의 MISS 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MISS보다 광범위하게 쓰이며,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경우라도 영어의 MRS.에 해당하는 SEÑORA(세뇨라)라고 칭하는 것보다는 세뇨리따라고 불러주는 것이 무난하다. 기혼자라 할지라도 세뇨라로 부르면 불쾌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과 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뇨라로 불러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 MIDDLE NAME과 LAST NAME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인들과 스페인 사람들은 이름은 하나만을 쓰거나 두 개를 쓰는 예도 있으나 성은 반드시 두 개를 쓴다.(물론 기혼여성이면 남편 성까지 세개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종종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는 미국식 관점에서 흔히들 LAST NAME이 곧 성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으나 스페인어권에서는 LAST NAME은 모계 성을 의미하며 LAST NAME 직전의 것 곧 MIDDLE NAME이 부계 성, 즉 진짜 성이다.

이들의 성명은 보통 3단어 또는 4단어로 구성되는데 이름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뒤에서 두 번째가 성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다. 물론 예외도 있다. 전 멕시코 대통령 이름인 ERNESTO ZEDILLO PONCE DE LEON에서 에르네스토는 이름, 세디요가 부계 성, 쾨세텔레온이 모계 성이다. 그런데 모계 성이 세 단어로 떨어져 있어 어느 것이 진짜 성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예도 있다. 이렇게 이름 사이에 DE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느 것이 성인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를 뒤집어보면 이해가 한결 쉬워진다. 예컨대 홍길동은 경우 영문 표기 시 '길동 홍'으로 표기하게 되는데, 이들은 MR. 동 또는 MR. 동 홍으로 부르는 경우를 왕왕 접하게 된다. 이는 결국 뒤에서 두 번째를 성으로 파악하는 이들의 관습 때문이다.(모계 성만으로 호칭하는 것은 실례가 된다.)

다. 바이어와의 미팅 시 참고 사항

1) 바이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 것

어떠한 경우라도 바이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행동은 금물이다. 멕시코인들은 유럽계 피를 이어 받아 나름대로 우수한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고, 석유를 비롯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큰 나라에 사는 대국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바이어가 백인이면 거부감을 별로 느끼지 않으나, 메스티소(백인과 인디헤나의 혼혈)인 경우 은근히 얹잡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록 직접적인 언어로는 표현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표정, 말투 등에서 무시하는 뭔가를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바이어에게 예의 바르고 진지한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샘플에 인색하지 말 것

일반적으로 멕시코인들은 뭔가를 주면 매우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백화점 선물 코너에 가보면 선물 포장에 매우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서로 주고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중요 거래선을 만날 때는 부담 없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제품 소개 후에는 샘플을 직접 사용해보게끔 놓고 오던가 아니면 아예 주고 오는 것을 권장한다. 그만큼 거래선에게 내적인 부담을 주면서 향후 한번 더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주정책 가이드

가. 한인 사회

멕시코의 한인 사회는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에네켁(HENEQUEN)은 1900년경 메리다(Merida)를 중심으로 선인장 농장에 취업한 한인들의 후손으로 현재 약 5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들은 거의 다 사망 하고 2~4세들이 살고 있다. 대부분 멕시코인화 되어 한국어도 모르나 국외 한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 다른 형태는 최근에 이주해 온 교민들로 대부분이 상업 및 무역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교민으로는 분류하지 않으나 주재 상사, 투자 업체 직원과 가족, 유학생들까지 합해 전체 한인이 약 12,000명 정도(멕시코 시티 7,000명, 기타 도시 5,000명)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로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에서 많은 교민이 멕시코로 이주해 왔다가 2003년 중반부터 아르헨티나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자 아르헨티나로 대거 재이주하였다.

나. 한국식품 조달여건

멕시코시티의 경우 한국식품점이 8개가 위치하고 있어 한국 식료품 조달에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나 한국과 비교할 때 가격이 약 2~3배 정도 비싼 편이다. 대부분의 식품은 미국에서 수입된 것이며 야채, 생선, 고기류 등은 현지에서 조달한다. 또한 일본 식품점도 멕시코시티에 3곳 있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한편, 식품류의 통관은 세관에서 문제가 되며, 검역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때도 있으나 최근에는 세관에서도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일부 반입금지품목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 없이 통과된다.

□ 멕시코 시티 내 주요 한국 식품점

- 식품점 명: 코리아 타운
 - 전화: 5514-6062
 - 주소: HAMBURGO No. 238, COL. JUAREZ, MEXICO, D.F. (ZONA ROSA)
- 식품점 명: M 마트
 - 전화: 5511-1747
 - 주소: HAMBURGO #244 COL. JUAREZ, MEXICO, D.F. (ZONA ROSA)

- 식품점 명: 좋은 사람들
 - 전화: 5525-6144
 - 주소: HAMBURGO No. 214, COL. JUAREZ, MEXICO, D.F. (ZONA ROSA)
- 식품점 명: 우리식품
 - 전화: 5207-5151
 - 주소: LONDRES No. 242, COL. JUAREZ, MEXICO, D.F. (ZONA ROSA)
- 식품점 명: 웰빙마트
 - 전화: 5535-0318
 - Londres No.188 ,COL. JUAREZ, MEXICO, D.F. (ZONA ROSA)

다. 생필품 구입 용이성

생필품 구매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물자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공산품은 한국보다 상당히 비싼 편이나 과일, 육류, 채소류 등은 한국보다 싼 편이다. 특히, 소 꼬리, 사과 등은 현지인들이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값이 싸며, 고기류가 한국보다 매우 저렴한 편이다.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시장인 CENTRAL DE ABASTO에서 대량으로 사들여 여러 가구가 나눠 사용하기로 하며, 공산품은 회원제 상점인 COSTCO나 SAM'S CLUB을 비롯하여 Walmart, Chedraui, Comercial Mexicana, Gigante, Super -ama 등 대형 할인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라. 레저 여건

멕시코시티에서 2~3시간 정도 나가면 온천 등 휴양시설이 많이 있다. 멕시코시티가 고지이고 공해가 심해 가능하면 주말마다 야외로 나가는 것이 좋고 월 1회 정도는 저지에 내려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숙면하는 것이 좋다. 1박 2일 정도면 2시간 거리에 있고 해발 1,500m 정도인 CUERNAVACA나 COCOYOC에서 휴양을 하며, 3박 4일 정도면 4~5시간 거리인 ACAPULCO로 휴가를 많이 간다. 그러나 휴가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 우리나라 장급 정도의 호텔도 1박에 80달러~100달러 정도이며, ACAPULCO 휴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왕복 100달러로 비싼 편이다. (편도 430km 거리)

골프장은 멕시코시티 주위에 10 여 개가 있으나 다수가 PRIVATE CLUB이며 1년 회비도 가장 저렴한 것이 2,500달러~3,000달러 수준이다. GREEN FEE도 비싸 보통 휴일에 150달러 수준이다.

각종 공연은 예술의 전당(Bellas Artes)나 국립극장(Auditorio Nacional)에서 수시로 열리며 세계 유명 음악인이나 오페라 공연 등도 자주 열리는 편이다. 2011년에는 Bellas Artes에서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도 개최되었다.

□ Bellas Artes



□ Auditorio Nacional



마. 치안 상태

멕시코시티의 치안상태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으나 '95년 중남미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의 증가로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연말에는 치안 불안이 더욱 심각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에 도심지를 혼자 다니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주택은 강도가 침입하는 때도 있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지방에는 치안이 허술한 곳이 많아 무장 강도가 시외버스를 타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야간에 한적한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차를 습격하는 때도 가끔 발생하고 있어 밤 중에 한적한 길을 운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일반 시내 택시에는 택시 강도가 운전사로 위장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내 택시보다는 콜택시(SITIO/씨띠오)나 호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공항에서는 공항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이발소

이발소는 시내 곳곳에 있으며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장원(ZONA ROSA에 6~7개소 정도)도 이용 가능하다. 한국 미용실 이발료는 커트 150페소, 파마 400~1,000 페소의 요금을 받고 있다. 멕시코에도 공중목욕탕이 있지만 남성용이 대부분이고 주로 시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구두담이는 시내 곳곳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15~20페소 선이다.

사. 쇼핑

1) 물가

멕시코 물가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나 품목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과일이나 육류는 서울의 60~80% 선이며, 의류 및 가전 제품은 서울의 130~300% 선, 한국 식품은 서울의 200~300% 정도로 비싼 편이다. 즉, 과일, 채소 등 1차 상품은 싸지만, 공산품이나 외식비 등은 매우 비싼 편이다.

2) 쇼핑 장소

멕시코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곳은 ①백화점 및 고급 쇼핑몰 ②전문점, ③슈퍼 체인, ④재래시장, ⑤노점상, ⑥약국 슈퍼 점, ⑦도깨비 시장(일명 TEPITO 시장으로 멕시코시티에만 존재)으로 대별 해 볼 수 있다. 백화점은 Palacio de Hierro, Liverpool, Sears, Sanborns 등이 있으며, 주로 고급품을 취급하며 상품 가격이 비교적 높다.



전문점은 명품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청담동과 같은 POLANCO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고, 고급품을 취급하며 가격이 비싸다.

멕시코에는 슈퍼 체인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 대표적인 체인으로는 Comercial Mexicana, Superama, Wal-Mart, Soriana, COSTCO 등을 들 수 있다. 재래시장은 개별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도매상과 산매상이 혼재해 있는데 멕시코시티는 구시가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시장은 직물 거리, 액세서리 거리, 문구류 거리, 의류, 신발류 거리 하는 식으로 같은 업종의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곳은 주로 저가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노점상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와 범죄를 막으려고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노점상은 주로 시장 거리를 따라 발달해 있는데 값싼 제품을 더욱 싸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국 슈퍼점은 일반적으로 FARMACIA라는 점포로 의약품과 일반 식품, 완구 등 잡화류로 품목이 한정되어 있으나 점포 수 면에서는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도깨비 시장은 멕시코 내에서도 멕시코시티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TEPITO 시장을 지칭한다. 기본적으로는 재래시장과 성격이 유사하나 판매물품이 밀수품 또는 도난물품인 경우가 많아 가격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거나 정상가의 2/3 또는 1/2수준에 불과하며 모두 100% 현금 거래이고 A/S는 보장되지 않는다. 치안이 매우 불안한 지역이다.

3) 특산품

멕시코의 특산품은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데킬라와 은 세공품 등인데 데킬라는 일반 슈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기타 특산품은 다음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 MERCADO ARTESANAL BUENAVISTA(Aldama Frente Ferrocarriles): 은, 오닉스, 가죽제품
- MERCADO INSURGENTE(Calle Londres en Zona Rosa): 화산석 조각품, 가죽제품, 토속그림

5. 생활여건

가. 주거 여건

1)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의 주거 환경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우선 해발 2,308m의 고지이며 공해가 심한 데다 지진 지대이기 때문에 주거지 선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최근 공해 사정은 호전되었지만 건기에는 여전히 좋지 않다.

멕시코의 부유층이나 외국인들은 TECAMACHALCO, POLANCO, PEDREGAL 등과 신흥 주택 지역인 BOSQUE, SANTA FE, INTERLOMAS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데 지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TECAMACHALCO & HERRADURA: LOMAS 에 인접한 신흥 주택 지역. LOMAS 와 환경이 비슷하며, 고급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단점으로는 출근 시간 일정 구역에 병목현상 탓에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POLANCO: 시내 중심에 있으면서도 1985 년 멕시코 대지진 시 피해를 보지 않아 거주 지역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유명 식당 및 가게들이 많이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CONDESA: 소나로사 등 시내 중심지와 인접해 있으며, POLANCO 와 같이 레스토랑이 많다. Liverpool 등 백화점도 위치해 있어 소가족 거주에 적합하다.

BOSQUE: 시내 중심에서 약간 외곽으로 떨어진 곳으로 언덕에 있어 시내 보다 공해가 덜하며 시내 중심지까지 약 30~40 분이면 연결된다. 지반이 암반이어서 지진 안전 지대다.

INTERLOMAS: BOSQUE 이후에 개발된 신흥 주택 지역으로 상권이 완비되어 있어 최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나, 도심으로의 도로망이 제한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교외로 나가면 좋은 거주 지역이 있으나 멕시코시티는 인구 2,000만 명의 대도시이고 시내에만 차량이 500만대 가까이 되어 교통이 혼잡하여서 출퇴근이 불편하다.

플랑코 주거지역



2) 몬테레이

몬테레이는 멕시코시티 보다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되어 있으며, 고도도 해발 600m로 높지 않으므로 생활여건이 우수하다. 흔히 몬테레이시와 아쁘다까, 산페드로 가르시아, 산니폴 라스, 과달루페, 산따까따리나, 에스꼬베도 등 7개시를 통틀어서 몬테레이라고 총칭하며, 몬테레이의 인구는 약 500만 명이다. 최근 마피아 간의 전쟁으로 몬테레이에서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은 몬테레이시의 CUMBRES, CONTRY LAS AMERICAS, LAS TORRES, LAS BRISAS 등이며, 산페드로 가르시아는 멕시코 전국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부유층 지역으로 외국기업들의 간부급 이상 직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나. 주택 임차

멕시코시티는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여, 치안이 좋은 부유층 지역의 임차료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상기 가항에서 언급된 지역의 월 임차료는 월 2,000~4,000달러 정도이다. 아파트 크기는 보통 150~300m²이며, 우리나라 평수로 약 50평 이상이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로 생각할 수 있으나 멕시코는 필수적으로 설치된 가정부 침실 및 화장실, 세탁실, 창고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침실 2~3개, 거실 겸 DINING ROOM 1개, 부엌 1개, 화장실 2~3개 규모이다.

멕시코에는 치안이 불안한 서민 거주지 지역을 빼면 대부분 주택 규모가 커서 500 m2 규모의 주택도 많다. 주택 임차 시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구하는 경우 소개비는 전액 임대주가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며 소개비로 보통 1개월분 임차료를 지급한다. 주택 임차료의 인상은 통상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갱신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따라 주로 인상되며, 미화 계약이면 보통 미국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여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 임차 시 임차 보증금은 보통 1개월 치의 임차료를 내며(2개월 치를 요구하는 때도 있음) 계약 해지 시에는 반환토록 되어 있으나 각종 수리비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거나 일 부만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가구가 없는 주택이 대부분이며 가구가 있으면 10~20% 이상 임차료가 올라간다. 계약 해지 시 가구 손상을 이유로 임차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항상 시비가 일어난다.

주택을 물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계절 평균의 기온 차 보다 일교차가 더 심하고, 별도의 난방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밤의 추위를 염두에 두고, 낮 동안 태양열을 받을 수 있도록 침실이 남이나 서로 향한 집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절벽에 접하는 면에서 느끼는 냉기를 피하고, 계곡 지역에 주로 서식한다는 전갈 때문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상층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 교육 여건

정식 한인 학교는 없으나 한국어 교육 양성차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글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9년 말 한인 사업가의 성금 쾌척으로 한글 학교 건물 매입을 위한 한인 사회의 모금 운동에 불씨가 지펴져 현재는 한글 학교 소유의 건물에서 수업 하고 있다. 수업료는 1인당 월 35 달러(400페소) 수준이며, 등록비가 300페소이다. 외국인 학교로는 미국계인 AMERICAN SCHOOL, 영국계인 GREEN GATE와 기타 WEST HILL, ETON SCHOOL 등이 있다.

AMERICAN SCHOOL FOUNDATION과 GREENGATES SCHOOL은 각각 미국계와 영국계를 대표하는 학교로 역사가 깊으며, 입학도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고 있다. 입학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발급, 영어로 번역하여 주한 멕시코 대사관이나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한 후 면접을 요청하면 된다.

또한, 과거 외국인 학교에 재학을 하면 동 학교에서의 생활 기록부 각종 포상 경력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입학에 많은 도움이 된다. GREEN GATE SCHOOL이나 AMERICAN SCHOOL은 일단 서류심사를 한 후 WAITING LIST에 올려놓고 결원이 생기면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 및 면접시험을 치며 합격자에게만 입학을 허용한다. 영어나 스페인어 중 최소한 하나를 구사할 수 있다면 학교 측에서 먼저 배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단 입학하면 교실 내에서는 영어만을 쓰도록 한다. 한편, WEST HILL, HAMILTON 및 ETON SCHOOL은 최근에 생긴 학교로 정원에 여유가 있어 입학에 큰 어려움은 없다. AMERICAN SCHOOL FOUNDATION은 12학년제 이고 GREEN GATE는 11학년제 이다. GREEN GATE 스쿨의 경우 성적 관리가 매우 엄격해 "수" 득점이 힘든 반면 AMERICAN SCHOOL의 경우 성적 관리가 관대해 비교적 "수" 득점이 용이하다.

라. 의료 여건

1) 의료보험

일반 국민은 대부분이 IMSS라는 사회보장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병원 진료비가 무료이다. 그러나 사회보장 보험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 시설 면이나 기술 수준 면에서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부유층은 별도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외국인도 현지법인 직원으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적십자 병원과 같이 외국인도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나, 시설 면에서 떨어지고 인턴, 레지던트 등의 수련의가 근무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의약품 등은 직접 사서 가져가야 한다. 일반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공제가 낮은 상품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간 약 4,600달러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2) 병원

일류 종합병원은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수준급이다. 이러한 병원으로는 HOSPITAL ABC, HOSPITAL ESPANOL, HOSPITAL DE MEXICO 등이 있다. 진료비는 매우 비싸 일반 진찰은 1회에 80달러~100달러 수준이다. 예컨대 위에 장애가 있어 병원에 가는 경우 최초 진찰에 100 달러, 위 X-RAY 촬영에 150 달러, X-RAY 결과를 가지고 의사 면담하는 데 100 달러, 총 350 달러가 소요된다.

입원은 1일 입원하면 주사액 등 포함 1일 1,000달러 정도 소요되며, 치과도 충치 1개 치료에 100달러 정도이다. 일반 병원은 사전 예약제이며 급한 경우와 야간에는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구급차는 병원 응급실에 전화하여 부를 수 있으며, 왕진을 가는 경우는 드물다.

3) 약국

약품 구매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가능하나 통상 감기와 같이 가벼운 병의 경우, 증세를 말하면 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한다. 약품에는 복용 방법 이외에는 어떠한 증상에 복용한다든지 하는 문구나 설명서가 전혀 없으므로 복용 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약국은 시내 곳곳에 있고 호텔, 백화점, 슈퍼마켓에도 있다.

마. 교통 및 통신 여건

1) 우리나라와의 교통

□ 항공편

한국-멕시코 양국간에는 시애틀을 경유하는 직항노선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아직 취항하는 항공사는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출장자들은 서울에서 주로 L.A를 경유하여 멕시코에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9월부터 테러 위험 때문에 미국 비자가 없는 사람은 미국 경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미국 비자가 없을 경우 밴쿠버, 토론토 등 캐나다를 경유해야 했지만, 한-미 무비자 체결 이후 미국 비자 없이도 경유 시에는 LA를 경유해 멕시코에 입국할 수 있다.

멕시코 취항 항공편으로는 멕시코 항공사로 AEROMEXICO(AM)와 MEXICANA DE AVIACION (MX) 2개사와 미국의 AMERICAN AIRLINE(AA), UNITED AIRLINE(UA), CONTINENTAL AIRLINE(CA), DELTA AIRLINE(DL) 등이 있고 기타 편수는 많지 않으나 브라질의 VARIG, 콜롬비아의 AVIANCA, 칠레의 LANCHILE, 아르헨티나의 LINEA AEREA ARGENTINA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의 JAL도 주2회 멕시코 시티에 취항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취소되었다.

L.A.에서의 비행기편은 일일 다수 편수가 운행되고 있다. 미국 항공사와 멕시코 항공사는 주로 낮 시간에 멕시코에 도착하는 반면 중남미 항공사 비행기는 밤 또는 새벽에 도착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결항의 경우에도 미국, 멕시코 비행기는 멕시코시티에 자주 운항하므로 바로 그 다음 비행기 연결이 가능하나 중남미 비행기는 주 1~2회가 보통이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멕시코까지의 여행 시간은 서울-L.A구간이 약 10~11시간, L.A-멕시코시티 간이 약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 선편

멕시코의 유일한 국적선사였던 TMM(TRANSPORTACION MARITIMA MEXICANA)이 해상운송 분야를 1998년 캐나다 회사에 매각함에 따라 더 이상 국적 선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Hapag Lloyd (독일), MAERSK (덴마크), MSC (스위스), APL (싱가포르), CMA (캐나다) 등 주요 선사들이 주 1~2회 간격으로 한국에 취항하고 있으며 한진 해운도 1998년부터 주 1회 정기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적 항구는 부산이며, 멕시코 항구는 태평양 연안의 엔세나다, 만사니요, 라사로 가르데나스 및 살리나 꾸르스 항구 등이다.

동아시아-멕시코간을 운항하는 주요 선사들의 취항 지역은 중국의 상하이, 홍콩, 대만, 한국의 부산, 인천, 일본의 오사카, 요코하마, 미국의 롱비치, 멕시코의 엔세나다, 만사니요, 라사로까르테나스, 살리나푸르스 등이며, 소요 기간은 부산에서 엔세나다까지 약 17 일, 만사니요까지 21일, 라사로 까르테나스까지 22 일, 살리나 푸르스까지 24일이 소요된다.

주요 협회로는 1987년에 설립된 멕시코 선사대리점 협회(AMANAC, Asociacion Mexicana de Agentes Navieros A.C.)가 있다. 이 협회는 소속 선사의 공동이익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Hapag Lloyd, MAERSK, APL 등 대형 선사를 비롯해 약 90여개의 선사 및 포워딩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www.amanac.org.mx 이고, 이메일은 amanac@amanac.org.mx 이다.

운송 요금은 한국(부산)-멕시코(Manzanillo) 간 40" 컨테이너 순 운임이 약 4,000~5,000달러, 멕시코 만사니요(Manzanillo) 항구 - 멕시코시티까지 트럭운임이 1,800달러 수준이다. (한진 해운, 2010년 5월 기준) 순 운임과 별도로 성수기별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2) 국내 교통

□ 택시

일반 택시는 두 가지 차량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본 요금(Banderazo)이 6.30페소(약 0.48달러, 적용 환율 US\$1=MX\$13)인 Volkswagen 구형(일명 딱정벌레/Two Door)이 있으며, Four Door 택시는 기본 요금이 6.80페소(약 0.52 달러)이다. 야간 할증은 20%가 더 붙는다.

일반 택시 요금은 시간, 거리 병산제(250M 또는 45초당 0.9페소)로 미터 요금대로 지불하면 되나 간혹 미터기가 고장났거나 고장인 것으로 조작해 놓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으니 택시를 타자마자 확인이 필요하다. 콜택시는 미터기 없이 택시 내에 구비된 거리 요금 환산표에 따라 요금을 받으나 승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시내 곳곳에 SITIO(시띠오)라 불리는 CALL 대기소가 있어 전화로 택시를 부르면 된다. 멕시코는 시내 택시가 위험하므로 콜택시 이용이 바람직하다.

멕시코시티 내 어디에서나 24시간 운행되는 콜택시 전화 번호는 5660-1122(스페인어만 통용)이다.

공항 택시는 노란색으로 비행기가 그려져 있는데 입국장에 있는 택시 티켓 판매소에서 택시 티켓을 구입하여 이용해야 한다. 이때 멕시코 시내를 여러 군의 구역으로 나누어놓고 구역에 따라 요금을 책정,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공항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일반 택시를 이용할 경우 터무니없는 요금을 강요받거나, 강도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된 공항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공항 택시 중에서 Suburban(짐칸이 있는 대형차종)을 이용한 대형택시는 요금이 30% 가량 더 비싸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광 택시는 주로 호텔 앞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데 행선지와 시간 별로 요금을 받고 있으며 미터기가 없으므로 사전에 요금을 정해야 한다. 시간 당으로 계약할 경우 통상 시간당 20 달러 정도 받고 있으며, 대형차가 많아 관광이나 비즈니스, 공항 왕래에 주로 이용된다. 요약하면 일반 택시 요금의 두 배가 콜택시(Sitio), 콜택시 요금의 두 배가 관광 택시라 할 수 있다.

□ 시내대중 교통

○ 버스

- 시내 버스도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시내 곳곳으로 연결된다. 시내 버스 유형은 대형 버스(RTP, Red de Transportes de Pasajeros), 소형버스(Microbus), 전기버스(Trolebus) 등이 있다. 기본 요금은 RTP버스와 전기버스의 경우 거리에 상관 없이 2페소이며, 소형 버스는 0~5km 2.5페소, 5~12km 3.5페소, 12km 이상 4페소를 징수한다.

○ 지하철

- 멕시코 내의 지하철 노선은 총 11개선으로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다. 현재 지하철 12호선 건설계획이 논의중이다. 지하철 요금은 거리 구분 없이 3페소이다. 일반적으로 시내 버스나 지하철은 관광객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 메트로 버스

- 멕시코시티 남북을 가로지르는 인수르헨테스(Insurgentes)에 운행하는 버스로 요금은 5페소이다.

□ 국내 교통

○ 항공

- 멕시코는 국토 면적이 넓고 철로, 도로 등의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아 항공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으며 몬테레이, 띠후아나 등 지방을 여행할 때는 보통 항공편을 이용한다. 그러나 비행기 요금이 상당히 비싼 편이어서 멕시코시티에서 미국접경 지대인 띠후아나까지의 국내 왕복 항공료가 멕시코시에서 LA까지의 국제선 요금보다 더 비싸다.

○ 도로

- 현재 계속 확장 중에 있으며 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대단히 비싸 멕시코시티에서 430Km 거리에 있는 휴양지 아카풀코(ACAPULCO)까지의 왕복 통행료가 100달러를 상회한다. 연방통신교통부는 2010년에 총 14억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54곳을 양허(concesion) 방식에 의해 건설하고, 65개 고속도로 현대화, 15개 지방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교통통신부 차관은 2010년 예산은 작년보다 8.7% 증액된 40억 달러가 책정되어 있다고 밝힌바 있다. 2010년 5월 현재 진행중인 도로 공사는 48개 (건설중 21개, 입찰진행중 5개, 양허 및 추가 공사 중 18개 등)로서 총 연장 2,500km의 도로 개설에 민관자금 70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다.

○ 지방 버스

- 지방 버스는 다양한 종류가 운행되고 있으며, 최고급은 우리나라 우등 버스 이상의 수준으로 편리한데다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어서 많은 사람이 지방 여행 시 이용하고 있다.

○ 철도

- 멕시코시티와 각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부설되어 있으나 기차 성능이 노후하고 서비스가 나쁜 편이어서 일반인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상 현재 치와와 주 CHEPE, 메리다 주 관광 철도, 데킬라 지역 TEQUILA EXPRESS 등 3개 선의 관광선만 운행된다고 볼 수 있다.

3) 국제 통신

장거리 통신의 경우 '90년대 중반까지 "멕시코 전화 회사(TELMEX)"의 독점 상태에 있었으나 '96년 8월부터 미국 등 외국 통신 회사의 시장 진출이 허용되었고 '97년 1월에 시장이 완전 개방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거리 전화 요금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팩시밀리는 거의 모든 회사에 보급되어 있으나 전화 1대로 전화와 팩스를 돌려가며 쓰는 업체들이 많다. 이들 업체들에게 낮에 팩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항상 전화를 건 후 팩스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구해야 하며 밤인 경우 자동으로 팩스 수신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 시차 관계로 항상 이곳 밤시간에 팩스를 보내야 하는 한국 업체들이 팩스를 보내지 못하는 일이 많다. 팩스를 전화로 받았을 때에는 TONO, POR FAVOR(또노, 포르 파보르)라고 얘기하면 팩스 신호를 넣어준다.

멕시코에서 다른 나라로 국제전화를 걸 경우는 먼저 00을 돌린 후 국가 코드, 지역 번호와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예컨대 미국 내 지역 번호 213에 전화번호 795-6789인 경우 00-1-213-795-6789를 돌리면 된다.

멕시코는 시외 및 국제전화 요금이 대단히 비싸 호텔에서 한국으로 전화 몇 통화 보내면 호텔 요금보다 전화 요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호텔에서는 서비스 요금을 가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텔에서는 COLLECT CALL 방식이 바람직하다.

6. 취항정보

가. 항공편

한국-멕시코 양국간에는 시애틀을 경유하는 직항노선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아직 취항하는 항공사는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출장자들은 서울에서 주로 L.A를 경유하여 멕시코에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9월부터 테러 위험 때문에 미국 비자가 없는 사람은 미국 경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미국 비자가 없을 경우 밴쿠버, 토론토 등 캐나다를 경유해야 했지만, 한-미 무비자 체결 이후 미국 비자 없이도 경유 시에는 LA를 경유해 멕시코에 입국할 수 있다.

멕시코 취항 항공편으로는 멕시코 항공사로 AEROMEXICO(AM)와 MEXICANA DE AVIACION (MX) 2개사와 미국의 AMERICAN AIRLINE(AA), UNITED AIRLINE(UA), CONTINENTAL AIRLINE(CA), DELTA AIRLINE(DL) 등이 있고 기타 편수는 많지 않으나 브라질의 VARIG, 콜롬비아의 AVIANCA, 칠레의 LANCHILE, 아르헨티나의 LINEA AEREA ARGENTINA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의 JAL도 주2회 멕시코 시티에 취항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취소되었다.

L.A.에서의 비행기편은 일일 다수 편수가 운행되고 있다. 미국 항공사와 멕시코 항공사는 주로 낮 시간에 멕시코에 도착하는 반면 중남미 항공사 비행기는 밤 또는 새벽에 도착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결항의 경우에도 미국, 멕시코 비행기는 멕시코시티에 자주 운항하므로 바로 그 다음 비행기 연결이 가능하나 중남미 비행기는 주 1~2회가 보통이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멕시코까지의 여행 시간은 서울-L.A구간이 약 10~11시간, L.A-멕시코시티 간이 약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나. 선편

멕시코의 유일한 국적선사였던 TMM(TRANSPORTACION MARITIMA MEXICANA)이 해상운송 분야를 1998년 캐나다 회사에 매각함에 따라 더 이상 국적 선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Hapag Lloyd (독일), MAERSK (덴마크), MSC (스위스), APL (싱가포르), CMA (캐나다) 등 주요 선사들이 주 1~2회 간격으로 한국에 취항하고 있으며 한진 해운도 1998년부터 주 1회 정기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적 항구는 부산이며, 멕시코 항구는 태평양 연안의 엔세나다, 만사니요, 라사로 까르테나스 및 살리나 꾸르스 항구 등이다.

동아시아-멕시코간을 운항하는 주요 선사들의 취항 지역은 중국의 상하이, 홍콩, 대만, 한국의 부산, 인천, 일본의 오사카, 요코하마, 미국의 롱비치, 멕시코의 엔세나다, 만사니요, 라사로까르테나스, 살리나꾸르스 등이며, 소요 기간은 부산에서 엔세나다까지 약 17일, 만사니요까지 21일, 라사로 까르테나스까지 22일, 살리나 꾸르스까지 24일이 소요된다.

주요 협회로는 1987년에 설립된 멕시코 선사대리점 협회(AMANAC, Asociacion Mexicana de Agentes Navieros A.C.)가 있다. 이 협회는 소속 선사의 공동이익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Hapag Lloyd, MAERSK, APL 등 대형 선사를 비롯해 약 90여개의 선사 및 포워딩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www.amanac.org.mx 이고, 이메일은 amanac@amanac.org.mx 이다.

운송 요금은 한국(부산)-멕시코(Manzanillo) 간 40" 컨테이너 순 운임이 약 4,000~5,000달러, 멕시코 만사니요(Manzanillo) 항구 - 멕시코시티까지 트럭운임이 1,800달러 수준이다. 순 운임과 별도로 성수기별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가. 비자

한국-멕시코 간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94년 3월 1일 부로 관광 목적이면 멕시코 입국 시 180일까지 비자가 면제된다. 따라서 공항 이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30일, 90일의 체류허가 기간을 입국 수속 시 내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지역 이민국에서 총 180일에 한해 30일씩 연장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멕시코 입국 시 아예 180일간의 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 상용 비자면 비자 신청 시 멕시코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며, 아직 거래가 없는 경우 멕시코 기업의 초청장을 요구하고 있다. 관용 여권은 '97년부터 비자가 면제되었다.

관광이 아닌 비즈니스 목적일 경우, 상용 비자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입국 카드에 방문 목적을 "관광"이라고 적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상용 비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가능하면 상용 비자를 준비해 오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최근 중국인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비자 단속이 심해지고 있어 공항에서 갑작스러운 검문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멕시코 이민국은 그 동안 번거로운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비자발급 및 연장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던 기존의 비효율적인 비자 수속절차 (신청 및 발급)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정보데이터의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고자 2010년 1월 29일 연방관보에 새로운 비자 수속절차 및 내부전해를 통일하는 설명서 (Manual de Criterios y Tramites Migratorios)를 공고하였다. 본 설명서는 동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그 동안 내부적으로 혼동이 있었던 비자발급기준 견해 및 해석의 차이를 단일화하고 구비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며 새로운 형식의 비자를 발급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민국은 SIOM (Sistema Integral de Operación Migratoria) 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비자발급에 대한 이민국의 독단적/단독 권한을 축소하고 멕시코를 방문하고 체류/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의 정보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관리하게 되어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할 것이다. 이는 불법체류자 혹은 이민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업종 및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을 뜻한다. 본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범죄자 혹은 테러위험 인물을 통제하여 국가안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그동안 사용되었던 FM3, FM2 수첩형식의 비자가 사라지고 면허증크기/플라스틱재질의 바코드가 부착된 신분증 Fotocredencial (비자신분증) 형식으로 비자가 바뀌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 용지를 출력하여 코팅해서 발급한 영주권증 (Credencial de Inmigrado) 역시 비자신분증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이민국이 앞으로 외국인 정보를 일률적으로 전산화하여 세밀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FM3, FM2는 비자 만기일까지는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비자 연장을 할 때 비자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하며 만기일 이전에도 비자신분증으로 교체할 수 있다. 모든 외국인은 기존의 비자를 상기 신분증으로 교체 할 때 이민국에 직접 출두하여 디카로 사진을 찍고 자필서명/지문등록을 해야 한다.

새 이민국 전자시스템 (SETRAM/Sistema Electrónico de Tramite Migratorios)을 통해 비자발급 및 연장과 관련하여 이민국 내부 부서 간 행정절차를 전산화/간소화할 것이다. 본 시스템으로 외국인의 출입국 날짜 및 장소, 비자 종류, 유효기간 및 이민국으로 허가받은 활동내용까지 자세히 정보화될 것이다. 앞으로 외국인이 비자신청 및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검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모든 외국인은 비자 종류 및 성격에 상관없이 비자신분증을 발급 받을 때 CURP (멕시코 주민등록번호) 및 Numero Único de Extranjero (외국인 번호)를 발급받게 된다.

기존에 멕시코 공항 이민국에 제출했던 입국비자 신청서 FMT가 FMM (Forma Migratoria Multiple)란 이름으로 바뀐다. 외국인이 영리 및 비영리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멕시코에 방문할 때 최대 180일까지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과 같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입국을 제한하는 국적자가 (예: 북한, 중국인) 아닌 외국인과 미국 비자가 있는 외국인에게만 최대 180일까지 체류 비자를 줄 것이다. 예전 FMT는 관광, 통과여객, 사업 출장자란 밖에 없었으나 새로 나온 FMM 는 거의 모든 종류의 비자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입국 시 비자성격에 맞게 비자수수료 (Pago de Derecho)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예전처럼 쉽게 관광비자나 출장자 비자로 180일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 다행히 한국인은 멕시코 이민국으로부터 제한받는 국적자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혹은 관광비자 체류기간을 단기간으로 받게 되면 기존처럼 이민국에 가서 관광비자 연장료를 내고 6개월까지 연장하면 된다.

기존에 초청장(Carta de Invitacion)을 통해 각국의 멕시코 대사관 영사과로부터 Internacion(사전허가 입국비자) 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멕시코에 입국했던 절차는 계속 존재할 것이나, 역시 수첩형태의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에 미국 관광비자처럼 Internacion (영사비자)를 부착하여 멕시코에 입국하고 입국일로부터 30일내 이민국에 직접 출두해서 새로운 비자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부양가족 (Dependiente Economico) 비자와 관련하여서는 부양가족 중 학생인 미성년자는 매년 비자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한 번 비자를 연장한다고 명시하나 어린이 유괴 및 기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그 동안 이민국이 인정하지 않았던 동거 (Union Libre)로도 부양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단 그를 증명할 공식문서를 요구할 것이며 동거 중 자녀가 갖은 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로 부양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바자를 갱신(Prorroga o Refrendo)할 때 이민법 변호사 혹은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이 직접 이민국에 출두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이 연장 비자를 받기 전에 이민국에 직접 출두 해야 한다. 이밖에 기존의 비자 연장 절차는 같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허가 받은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하거나 직장을 바꾸게 되면 (Cambio de Actividad o Empleador)라는 절차를 통해 30일 내에 이민국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 기존 비자에 기재하는데 3-4주가 소요됐으나 새로운 규정으로 단지 통지(Aviso)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되었다. 단 이때도 관련 수수료를 내야 함은 같다.

퇴사한 외국인과 외국인을 채용했던 기업은 외국인이 퇴사한 후 15일 내에 이민국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을 때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이 비자신청/발급기간 혹은 연장기간에 외국을 다녀와야 할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Permiso de Entrada y Salida 라는 출입국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9일 내에 돌아와야 했으나 새로 바뀐 규정은 외국 체류기간을 60일로 줄였다.

이민비자 (FM2)를 소지한 외국인 뿐만 아니라 이민비자/잠정체류자 (FM3) 중 과학자, 학생, 종교인, 정치적 망명자, 난민 등은 외국인 등록국(RNE)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한다.

그 동안 이민국에서 긴 줄을 서며 각종서류를 원본대조 (Cotejo) 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서류제출 시 단순히 원본만 보여 주는 것으로 대체하며 전문번역사를 통해 번역을 요구했던 스페인어 번역도 사라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보에 공고된 새 매뉴얼이 몇 가지 비자발급시스템을 변경하였으나 실제 이민법 법규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비자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을 관리/통제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이민국 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 구이민법, 신이민법에 따른 비자 종류 변경 비교

① 구이민법:

A) FM3 비이민 비자(No Inmigrante)

- 관광객, 비즈니스 방문자, 회사 고위관리자, 투자자, 금리생활자, 학생비자, 등등

B) FM2 이민 비자(Inmigrante)

- 금리생활자, 투자자, 전문인, 과학자, 기술자, 회사 고위 관리자, 부양가족, 멕시코 배우자나 멕시코에 태어난 자녀를 둔 자, 등등

C) 영주권자(Inmigrado)

- 멕시코에서 최종거주허가 /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② 신이민법:

A) 방문비자(Visitante) / 180일 미만 체류

- 관광비자, 비즈니스비자, 주변국 방문비자(3일), 국경부근 근로자 방문비자(1년), 인권관련 방문비자, 입양목적 방문비자

B) 임시체류비자(Residente Temporal) / 4년 이하 체류: 취업비자, 가족비자, 학생 비자

* 4년간 체류한 이후 5년차에서 영주권 취득, 가능

C) 영구체류비자(Residente Permanente) / 5년 이상 체류: 영주권

* 멕시코인과 결혼 후 2년 지나거나, 멕시코에 태어난 자녀를 둔 자는 영주권 획득 가능

2) 비자 발급처

○ 주한 멕시코 대사관

- 주소: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93 (한남동 33-6)
- 홈페이지: <http://portal.sre.gob.mx>
- 전화: 02-798-1694/5
- 대리인 접수 불가(우편 접수 불가)
- 발급 시간 14:00~15:00
- 접수 시간 9:00 ~12:00(월~금요일, 공휴일 제외(한국 및 공휴일))
- 처리 기간 72시간(급행 처리 되는 서류 없음)

3) 멕시코 비자 신청 준비 서류 안내

□ 관광

- 무(NO)비자(15일 에서 180 일 사이, 입국 시 입국 심사 과정에서 결정)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입국카드 (FMM)

□ 상용(FM3)

업무 차 멕시코로 180일 이상 방문 및 투자를 하고자 하는 방문객에 해당하며, 출장 중 소요되는 경비나 제반 사항이 원(한국에 있는 회사) 소속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경유에 적용되며 회의 참석이나, 계약상의 거래에 적용되는 비자이다.

- 여권 (유효기간 1년 이상)
- 사진 1매 (여권용 크기, 신청서 부착)
- 신청서 (영문으로 작성, 대사관 비치, 영사와 홈페이지 다운로드)
- 출장증명서 (영문으로 작성, 신청인 인적사항, 멕시코 방문 목적, 방문 회사명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출장기간, 출장 중 소요경비, (근로소득-월급지불-)등은 원 소속회사 책임하에 있음을 기재한 후 (회사) 법인 인감 날인)

- 재직증명서 (영문 & 스페인어로 제출)
- 갑근세 (국문 제출 가능)
- 소득금액 증명서 (국문 제출 가능)
- 회사법인 인감증명서 (국문 제출 가능)
- 사업자 등록증 (국문 제출 가능)
- 멕시코 회사로부터 받은 초청장 (영문 & 스페인어 제출, 초청장은 멕시코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문서에 작성, 방문자의 방문목적이 출장증명서와 일치 해야 하며, 멕시코 체류 시 월급 등 근로에 대한 지불은 원 소속 업체인 한국기업에 있음을 기재 0
- 투자비자 신청일 경우 : 투자 준비 서류 (투자목적, 투자비용, 투자부분, 상세히 설명)
- 주민등록증 (현 주소지)
- 명함
- 수수료 \$129.00 DLS (매달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하여 접수 시 현금으로 지불)
- 신청시간 월~금 오전 09:00~12:00
- 필요 시 인터뷰 진행

□ 기술자, 기술전수 비자 (비 이민자)

기술 이전이나 기술전수를 위해 법인으로 출장을 180일 이상 떠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비자이다.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사진 1매 (여권용 크기, 신청서 부착)
- 신청서 (영문으로 작성, 대사관 비치, 영사과 홈페이지 다운로드)
- 출장증명서 (영문으로 제출, 신청인 인적사항, 멕시코 방문 목적, 방문 회사명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출장기간, 출장 중 소요경비 (근로소득 -월급지불-)등은 원 소속회사 책임하에 있음을 기재한 후 (회사) 법인 인감 날인.
- 재직증명서 (영문 & 스페인어로 제출)
- 갑근세 (국문 제출 가능)
- 소득금액 증명서 (국문 제출 가능)
- 회사법인 인감 증명서 (국문 제출 가능)
- 사업자 등록증 (국문 서류 제출 가능)
- 멕시코 회사로부터 받은 초청장 (영문 & 스페인어로 제출 초청장은 멕시코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문서에 작성, 방문자의 방문목적이 출장증명서와 일치 해야 하며, 멕시코 체류 시 월급 등 근로에 대한 지불은 원 소속 업체인 한국기업에 있음을 기재
- 원 소속 회사와 멕시코 회사간의 맺은 계약서 사본 (근로계약, 특허 기술이전, 기계설비, 판매, 구입, 기술자 연수, 멕시코 업체의 외국인 기술자 지원요구)
- 주민등록증 (현 주소지)
- 명함
- 수수료 \$129.00 DLS (매달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하여 접수 시 현금으로 지불)
- 신청시간 월~금 오전 09:00~12:00
- 필요 시 인터뷰 진행

□ 파견근무자 (비 이민자)

파견근무나 직원 이동을 하고자 하며, 멕시코의 법인으로 180일 이상 방문하고자 하는 분에게 해당하며, 출장 중 소요되는 경비나 제반 사항이 원(한국에 있는 회사) 소속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경우에 적용되며, 회의 참석이나, 계약상의 거래에 적용되는 비자다.

- 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 사진 1매 (여권용 크기, 신청서 부착)
- 신청서 (영문으로 작성, 대사관 비치, 영사과 홈페이지 다운로드)
- 출장증명서 (영문으로 제출, 신청인 인적사항, 멕시코 방문 목적, 방문 회사명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출장기간, 출장 중 소요경비 (근로소득 -월급지불-)등은 원 소속회사 책임하에 있음을 기재한 후 (회사) 법인 인감 날인)
- 재직증명서
- 갑근세 (국문 제출 가능)
- 소득금액 증명서 (국문 제출 가능)
- 회사법인 인감증명서 (국문 제출 가능)
- 사업자 등록증 (국문 제출 가능)
- 멕시코 회사로부터 받은 초청장 (영문 & 스페인어로 제출, 초청장은 멕시코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문서에 작성, 방문자의 방문목적이 출장증명서와 일치 해야 하며, 멕시코 체류 시 월급 등 근로에 대한 지불은 원 소속 업체인 한국 기업에 있음을 기재)
- 원 소속 회사와 멕시코 회사간의 맺은 계약서 사본 (영문 & 스페인로 제출, 근로 계약, 특히 기술이전, 기계설비, 판매, 구입, 기술자 연수, 멕시코 업체의 외국인 기술자 지원요구)
- 주민등록증 (현 주소지)
- 명함
- 수수료 \$120.00 DLS (매달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하여 접수 시 현금으로 지불)
- 신청시간: 월~금 오전 9:00~12:00

□ 학생비자 (비 이민자)

교환학생, 파견학생 및 신입으로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해당된다.

- 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 사진 1매 (여권용 크기, 신청서 부착)
- 신청서 (영문으로 작성, 대사관 비치, 영사과 홈페이지 다운로드)
- 멕시코에 있는 대학교 신입 입학 허가서 원본 (대학교 발급) 본 서류에는 신청자의 인적 사항, 생년월일, 여권번호, 입학시기 및 만료일, 수수료예정인 수업 정보 및 대학교장 서명, 등록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수 (입학 허가서 샘플은 영사과로 문의 E-mail: ekoh@sre.gob.mx)

- 부모님 동의서 및 숙식정보 및 1년 이상 체류 동안에 자금확보 서류 (본 서류는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하며, 샘플을 원하실 경우 영상과로 문의 E-mail: ekoh@sre.gob.mx)
-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 부모님 여권 및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부
- 부모님 이름으로 된 통장원본 및 국제신용카드
- 신청시간 월~금 오전 09:00~12:00

□ 취재비자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사진 1매 (여권용 크기, 신청서 부착)
- 신청서 (영문으로 작성, 대사관 비치, 영사과 홈페이지 다운로드)
- 공문 (영문)
- 출장증명서 (영문 & 스페인어 제출, 신청인 인적 사항, 멕시코 방문 목적, 방문회사명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출장기간, 출장 중 소요경비 (근로소득-월급지불-)등은 원 소속회사 책임하에 있음을 기재한 후 (회사) 법인 인감 날인)
- 재직증명서 (영문 & 스페인어 제출)
- 멕시코 회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초대장
- 주민등록증 (현주소지), 명함

□ 관용

-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90일간 VISA 면제

□ 기타

- 친지 방문, 경유 시 관광과 동일

□ 서류 영사 확인

- 건당 36달러 (매달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하여 접수 시 지불)

□ 입국세 안내

멕시코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비행기표에 입국세 20달러가 포함되며, 육로나 해상으로 입국하는 경우 멕시코 입국 지점에서 입국세 20달러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며 입국세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방문 시 입국세가 항공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출국 시 항공사 데스크에서 이를 잘 모르고 현장에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항공권 영수증에 해당 내역 미포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요구하면 해결되기도 하므로 참고하도록 한다.

4) 출입국 절차

관광의 경우 입국 비행 기내에서 배부하는 입국 카드를 작성하여 공항 도착 후 입국 심사대에 제출하면 체류 기간을 물어보고 입국 카드에 기간을 적는다. (통상 30일~180일) 입국 카드는 두 장으로 구성되며 사본은 도장을 찍어 돌려주는데 해당 사본은 잘 보관했다가 출국 시 항공사에서 탑승권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멕시코는 출국 시 별도의 출국 심사를 하지 않고 입국 시 받은 입국 카드 사본을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를 대신한다. 따라서, 동 카드 분실 시 출입국 사무소에 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상용 비자나 관용 여권을 가진 경우 먹지가 있는 빨간색 종이 양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기내에서 배포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도착 후 입국 심사장에 비치된 안내 데스크에서 양식을 받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양식 사본 1부(먹지)는 입국자에게 돌려주는데 이를 받아서 여권과 함께 보관했다가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관광객은 흰 카드에 기입하며 일부분을 절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출국 시 제출하면 된다.

5) 세관 검사 방식

멕시코 공항의 통관 시에는 자발적인 신고와 무작위 검사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발적 신고의 경우 특별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품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무작위 검사는 특별히 신고할 만한 물건이 없는 경우 세관 검사대 앞에 놓인 신호등을 본인이 직접 누르는 경우(제2터미널)와 자동으로 무작위 추첨(제1터미널)에 의해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직접 신호등을 누르는 경우, 녹색 불이 켜지면 검사 없이 그대로 통과하며 적색불이 켜지면 반입물을 전부 검사하게 된다. 적색불이 들어올 확률은 20% 미만이나 검사에서 과세 물품이 나올 경우 물품 가격 4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멕시코에 도착 전 비행 기내에서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를 작성하여 세관 통과 시 제출해야 한다.

6) 출입국 유의 사항

중남미 국가(특히, 콜롬비아 등)에서 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공항 세관에서의 화물 검색이 심하므로 마약으로 오인되는 약품 반입을 절대 삼가야 하며, 음식류 반입도 금지되고 있다. 중남미인 및 중남미 거주 아시아 계인들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중남미를 경유해 오는 경우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커피를 남미에서 사올 경우 세관 통과 시 대부분 짐 검사를 하므로 당황하지 말고 세관원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7) 공항-시내 교통편

멕시코 국제공항 청사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공항 택시 쿠폰 판매소(Taquilla de Taxi: 따끼야 데 딱시)에서 쿠폰을 구입한다. 가격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공항에서 무역관 인근 호텔간은 대략 18~20달러 선이다. 하지만 공항 택시 중에서 Suburban(집안이 있는 대형차종)을 이용한 대형택시는 요금이 50% 이상 비싸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항 건물 밖 택시 스탠드에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택시(등록된 택시로 안전함)를 이용해 호텔이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멕시코시티는 택시 강도가 가끔 있는 편이므로, 길거리 택시를 타지 말고 공인된 공항 택시나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8. 관광/호텔/식당/통역

1) 관광

□ 시내 관광



- Zocalo (소칼로): 헌법광장(Plaza de La Constitucion)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광장이며, 주변에 대통령 궁, 대성당, 아스텍 유적지 Templo Mayor가 있다.
 - 대통령 궁에서 멕시코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디에고 리베라의 대표적인 벽화를 감상 할 수 있다.
 - 아스텍 문명의 Templo Mayor 유적 및 박물관을 통해 도심 한가운데에서 발굴된 고대 유적지를 살펴볼 수 있다.



- 인류학 박물관(Museo Nacional de Antropología)
 - 올멕, 아스텍, 마야 등 멕시코 문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



- 국립 예술극장(Palacio de Bellas Artes)
- 멕시코 전통 민속무용 및 음악 감상
- 시내 중심가에 위치,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일요일 오전 9시/오후 8시(2회) 공연



- 투우장(Plaza de Toros Mexico)
- 객석 5만석의 세계 최대 투우장
- 시내에 위치, 건기(11~2월경)중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경기
- 멕시코시티 남쪽에 위치(Augusto Rodin 241, Col. Ciudad de los deportes, Delg. Benito Juarez, Mexico D.F./Tel. 5611-9306)



- 가리발디 광장(Plaza de Garibaldi)
- 멕시코 특유의 악단, 마리아치의 연주 및 노래 감상 가능
- 가리발디 광장은 치안이 매우 위험한 지역이므로 개인 방문은 삼가고 단체로 행동해야 한다.



- Basilica de Guadalupe(La Villa)
- 멕시코의 가장 유명한 가톨릭 성당으로 원주민 성모인 과달루페 성모가 출현해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멕시코의 종교,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당이며, 과달루페 성모일 12월 12일에 전국 각지에서 신자들이 모이는 곳

□ 멕시코시티 주변(당일 코스)



- Teotihuacan 해와 달의 피라미드(왕복 2시간 소요)
- "떼오티와칸"은 신의 도시라는 의미로 기원전 약 2세기에 건립(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관람)



- Taxco와 Las Grutas de Cacahuamilpa(왕복 4~5시간 소요)
- 은광도시 파스꼬의 은제품이 유명
- 그루타는 높이와 폭이 30미터가 넘는 천연 동굴로 각종 기암 괴석이 장관. 매 시간마다 가이드 투어가 진행되며, 2시간 관광 코스

□ 기타 주요 관광지(2박 3일 코스)



- 칸쿤(Cancun)
 - 카리브 해안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곳
 - Xcarlet, Xel-Ha 등 각종 천연 물놀이공원은 물론 치첸이사, 톨룸 등 마야유적지 관광을 겸할 수 있는 곳
 - 멕시코시티에서 비행기로 편도 1시간 반 소요



- 산미겔 데 아엔데(San Miguel de Allende)와 과나후아토(Guanajuato) (왕복 7~8시간)
 - 식민지시대 건물이 많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도시들
 - 산 미겔 데 아엔데를 잠시 들렀다가 과나후아토로 향할 수도 있음. 산 미겔 데 아엔데는 전통 토산품으로 유명



- 아카풀코(Acapulco) (자동차로 왕복 8시간)
-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 휴양지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다이빙 관광이 유명
- 멕시코 시티와 근접해 주말 및 연휴에 인파로 가득

2) 호텔

멕시코의 호텔 요금은 상당히 비싼 편이나 패키지 상품이나 여행사를 통하면 10~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요금은 2012년 기준 호텔 정상 요금 기준 자료이다.

□ 특급 호텔: 멕시코시티

- 호텔명: HOTEL CAMINO REAL
- 주소: MARIANO ESCOBEDO NO.700, COL. ANZUREZ
- 전화: (52-55)5263-8887
- 요금: 190달러(세금, 조식 미포함)

- 호텔명: HOTEL PRESIDENTE INTERCONTINENTAL
- 주소: CAMPOS ELISEOS 218 COL. POLANCO C.P.11560
- 전화: (52-55)5327-7777 FAX:(52-55)5327-7787
- 요금: 싱글 210달러, 트윈 324달러(세금, 조식 미포함)

- 호텔명: HOTEL NIKKO
- 주소: Campos Eliseos No. 204, Col. Polanco, C.P. 11560, Mexico
- 전화: (52-55) 5280-1111, 팩스: (52-55) 5280-9191
- 요금: 210달러(세금 및 조식 미포함) (*싱글/트윈 동일)
- 특징: 동 호텔의 아침식사는 한국인 입맛에 비교적 맞는 편임

- 호텔명: HOTEL FOUR SEASONS
- 주소: PASEO DE LA REFORMA 500 COL. JUAREZ
- 전화: (52-55)230-1818 FAX:(52-55)230-1817
- 요금: 싱글 320달러, 트윈 380달러(세금 및 조식 미포함)

- 호텔명: HOTEL MARIA ISABEL SHERATON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325, COL. CUAUHTEMOC
- 전화: (52-55)5207-3933 FAX:(52-55)5207-0684
- 홈페이지: www.sheraton.com
- 요금: Standard Room 305달러+17% tax(조식별도)

Suite Room: 350달러+17% tax (조식별도)

〈KOTRA 할인가격〉

- 별관 건물 (Danubio)
 - 싱글 108달러 * 19% tax = 128.52달러(조식 포함)
 - 트윈 118달러 * 19% tax = 140.42달러(조식 포함)
 - 본관 건물 (Reforma)
 - 싱글 123달러 * 19% tax = 146.37달러(조식 포함)
 - 트윈 133달러 * 19% tax = 158.27달러(조식 포함)
- (별관과 본관 객실 차이: 본관 일부(50%)객실 천사탑 전망 가능 및 LCD TV 구비)
- * 멕시코시티 무역관을 통해서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멕시코시티 무역관 담당- 서상효 Tel: (52-55) 5514-3172 EXT.725

□ 특급 호텔: 몬테레이

- 호텔명: HOTEL SHERATON AMBASSADOR
- 주소: HIDALGO 310 OTE. CENTRO 64000 MONTERREY, N.L.(시내 중심)
- 전화: (52-81)8380-7000 FAX:(52-81)8345-1984
- 요금: 싱글 약 130달러, 트윈 약 140달러(세금, 조식 포함. 인터넷 예약 시 할인 제공)

- 호텔명: HOTEL SAFI
- 주소: DIEGO RIBERA 555, COL. VALLE ORIENTE, SAN PEDRO, N.L.
- 전화: (52-81)8100-7054
- 홈페이지: www.safihotel.com
- 요금: 싱글 약 100달러, 트윈 약 106달러(세금 포함, 조식 불 포함)

□ 1급 호텔: 멕시코시티

- 호텔명: HOTEL GRAN MELIA MEXICO REFORMA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 1, COL. TABACALERA DEL CUAUHTEMOC
- 전화: (52-55)5128-5000

요금: 130달러(싱글/트윈, 세금, 조식 미 포함)

- 호텔명: HOTEL GALERIA PLAZA HOTEL
- 주소: Hamburgo No.195 Col. Juarez Mexico D.F
- 전화: 52-55-5230-1717, 팩스: 52-55-5208-0334
- 홈페이지: www.brisas.com.mx
- 요금: Standard Room 130달러+17% tax(조식별도)

Suite Room: 230달러+17% tax(조식별도) (싱글 및 트윈요금 동일)

〈KOTRA 할인가격〉

- 싱글 94달러 * 18.5% tax = 111.39달러(조식 포함)
- 트윈 106달러 * 18.5% tax = 125.61달러(조식 포함)
- * 멕시코시티 무역관을 통해서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멕시코시티 무역관 담당- 서상효 Tel: (52-55) 5514-3172 EXT.725.

- 호텔명: Hotel Suite Amberes
- 주소: Amberes No.64 Col. Juarez Mexico D.F C.P. 06500
- 전화: 52-55-5533-1306~10, 팩스: 52-55-5533-1306 (Tone)
- 홈페이지: www.suiteamberes.com.mx
- 요금: 106달러 (싱글, 트윈 동일 /세금 포함)

〈KOTRA 할인가격〉

- MEX \$ 1,256 PESOS (조식 미 포함/ 달러 받지 않음)
- * 멕시코시티 무역관을 통해서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멕시코시티 무역관 담당- 서상효 Tel: (52-55) 5514-3172 EXT.725.

□ 중급 호텔

- 호텔명: HOTEL BRISTOL
- 주소: PLAZA NECAXA 17, ESQ. PANUCO Y SENA MEXICO
- 전화: (52-55) 5208-1717
- 팩스: (52-55) 5533-0245
- 요금: 트윈: 70달러 (세금 포함, 조식 미포함), 싱글: 60달러(세금 포함, 조식 미포함)

- 호텔명: HOTEL FONTAIN(3성)
- 주소: COLON 27, ESQ. PASEO DE LA REFORMA
- 전화:(52-55)5518-5460/9
- 팩스:(52-55)5521-9240
- 요금: 73달러

- 호텔명: HOTEL SUITES ESTOCOLMO 30
- 주소: ESTOCOLMO NO. 30, COL. JUAREZ
- 전화: (52-55) 5511-4545
- 팩스: (52-55) 5208-3609
- 요금: 방1개 135달러~150달러(세금 포함, 방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
- 특징: 간단한 취사가 가능함.

3) 식당

□ 한국식당: 멕시코 시티 소재 주요 식당

- 영빈관
 - 주소: Florencia 15, Col. Juarez(Zona Rosa)
 - 전화: (52-55) 5208-9399
 - 특징: 숯불갈비 전문 식당임. 연중 무휴로 일요일도 영업한다.
- 비원
 - 주소: Florencia 20, Col. Juarez(Zona Rosa)
 - 전화: (52-55) 5514-3994
 - 특징: 한식 및 고기류식사 전문 식당, 냉면이 맛있음.
- 청하
 - 주소: Florencia 43 Piso 2, Zona Rosa
 - 전화: (52-55) 5525-1284
 - 특징: 보쌈, 생선회, 복요리, 각종 찌개류 및 칼국수 등
- 송림
 - 주소: Liverpool 158 (Zona Rosa)
 - 전화: (52-55) 5207-4490
 - 특징: 숯불갈비, 한국식 중화요리 등, 회식장소로 적당하다.
- 민속촌
 - 주소: Florencia 45(Zona Rosa)
 - 전화: (52-55) 5525-8558
 - 특징: 순대국, 해장국, 곱창볶음 등
- 이조갈비
 - 주소: Calle Estocolmo #16(Zona Rosa)
 - 전화: (52-55) 5207-2351
 - 특징: 한식 및 고기류 식사 전문

□ 일본식당

멕시코시티에서 한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일본 식당을 기준으로 소개한다.

- 벤케이(BENKAY)
 - 주소: CAMPOS ELISEOS 204 (NIKKO HOTEL내)
 - 전화: (52-55) 5283-8700 ext. 8600
 - 특색: 멕시코 내 최고급 일식집으로 가격이 비싼 편임. Hotel Nikko 1층에 있으며, 중요한 손님 접대에 좋은 식당이다. 음식값은 약간의 주류를 포함 1인당 약 50달러~80달러 선이다.

- 순토리(SUNTORY)
 - 주소: Montes Urales 535, Col. Lomas de Chapultepec
 - 전화:(52-55) 5202-4711
 - 특색: Benkay와 함께 최고급 일식당으로 바닷가재 요리와 철판구이 요리로 유명하다. 음식 맛과 분위기가 고급스러워 중요한 손님 접대에 적당하다. 가격은 약간의 주류와 함께 1인당 약 50달러~80달러선이다.
- 후지(FUJI)
 - 주소: RIO PANUCO 128, COL. CUAHUTEMOC
 - 전화: (52-55) 5514-6814
 - 특색: 초밥이나 생선회의 경우 신선도가 떨어지지만 안주에 적합한 구이 또는 꼬치 종류는 괜찮은 편이다(3층). 음식값은 중간 수준이다.
- 나가오까(NAGAOKA)
 - 주소: ARKANSAS CO. 38, COL. NAPOLES
 - 전화: (52-55) 5548-9530
 - 특색: 가정집을 개조한 식당으로 분위기는 그다지 고급스럽지 않지만 깔끔하다. 음식 맛도 괜찮으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특히 우동이 유명하다. 위치는 WTC(WORLD TRADE CENTER) 뒷골목에 있다.
- 사무라이(Restaurante El Samurai)
 - 주 소: Nueva york No.85, Col. Napoles 03810, Mexico, D.F.
 - 전 화: (52-55)5523-1469
 - 특색: 일본식 꼬치 요리 및 대판야끼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으로 규모도 크고 깨끗하다. 음식 맛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 위치는 WTC (World Trade Center) 뒤편이다.

□ 중국 식당(멕시코시티 한국인 입맛에 맞는 중국식당 기준)

- HUNAN
 - 주소: Paseo de la Reforma 2210, Col. Lomas de Chapultepec
 - 전화:(52-55) 5596-5011
 - 특색: 멕시코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중식당 중 하나로 분위기가 매우 고급스럽고 전반적으로 음식 맛도 훌륭하다.
- BLOSSOM
 - 주소: Paseo de las Palmas 890, Col. Lomas de Chapultepec
 - 전화:(52-55) 5202-2442
 - 특색: 음식 맛이 한국인 입맛에 맞는 편으로 북경 오리 요리가 유명하다. Del Valle에도 분점이 있으며 Del Valle 분점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다.

- EXCELENCY (가빈)
- 주소: Prado Sur No.110, Col. Lomas de Chapultepec (Paseo de la Reforma 코너)
- 전화: (52-55) 5520-7446
- 특징: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편한 분위기의 중국집으로 대만인이 주인이다. 북경 요리가 맛있는 편이다.

□ 멕시코 식당: 멕시코시티

- HACIENDA DE LOS MORALES
- 주소: VAZQUEZ DE MELLA NO.525
- 전화: (52-55) 5281-4569 / 5281-4703
- 특색: 멕시코의 전통 식당이라기보다는 국제화된 서양식당으로 부유층이 이용하는 고급 식당이다. 식사비는 통상 1인당 50~80달러 정도이다. 큰 저택을 개조한 식당으로 실내와 정원 분위기가 고급스럽다.

- SAN ANGEL INN
- 주소: DIEGO RIVERA NO.50 ESQ. CON ALTAVISTA, SAN ANGEL INN
- 전화:(52-55) 5616-1402 / 5616-1527
- 특색: 멕시코시티 남쪽 지역에 있는 식당으로 고급스런 분위기에 정원이 인상적이다. 음식 맛도 괜찮은 편이며,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다. 한번 정도 가볼 만한 식당이며, 동 식당 주변에는 주말에 전통 공예품 베품 시장이 열린다.

- EL LAGO DE LOS CISNEROS
- 주소: PRADO NORTE NO. 391, COL. LOMAS DE CHAPULTEPEC
- 전화: (52-55) 5202-4244
- 특색: 멕시코 서민요리이자 가장 대표적인 요리인 따꼬(TACO) 전문 식당으로, 비교적 깔끔한 분위기이며, 다른 TACO 음식점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다. 조식으로 다른 요리 와 함께 베라크루스식으로 마시는 커피(CAFÉ CON LECHE)가 권장할 만하다.

- ANTIGUA HACIENDA DE TLALPAN
- 주소: CALZADA DE TLALPAN 4619
- 전화: (52-55) 5655-7496

- LA VALENTINA
- 주소: Masaryk 393, Col. Polanco
- 전화: (52-55) 5282-2297

- Villa Maria
- 주소: Homero No. 704, Col. Polanco
- 전화: (52-55)52.03.03.06
- <http://www.villamaria.com.mx/restaurantes.html>
- 특색: 멕시코 전통식당으로 저녁에 마리아치 공연이 있다.

□ 멕시코 식당: 몬테레이

○ LA VALENTINA

- 주소: Ave. Lazaro Cardenas 2660-B, Col. Valle Oriente, San Pedro, N.L.
- 전화: (52-81) 8363-2612
- 특징: 멕시코시티 LA VALENTINA의 자매식당으로 멕시코 전통요리 및 스테이크를 전문으로한다. 주말 밤에는 마리아치 공연이 있다. 몬테레이 NOVOTEL VALLE 호텔에서 가깝다.

○ EL GRANERO GRILL

- 주소: Calzada del Valle 333 Ote. San Pedro, N.L.
- 전화: (52-81) 1257-3950 / 8378-4408
- 특색: INTERNATIONAL MENU에 멕시코풍을 가미한 음식을 제공한다. 몬테레이 비즈니스맨들의 상담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 LUISIANA

- 주소: Miguel Hidalgo 530 Ote. Centro Monterrey, N.L.
- 전화: (52-81) 8344-4550
- 특색: INTERNATIONAL MENU에 멕시코풍을 가미한 음식을 제공한다. 몬테레이에서 가장 오래된 고급 식당 중의 하나이다. SHERATON AMBASSADOR HOTEL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다.

□ 프랑스 식당

○ AU PIED DE COCHON

- 주소: CAMPOS ELISEOS NO. 218, COL. POLANCO (* HOTEL PRESIDENTE INTERCONTINENTAL 1층에 위치함)
- 전화: (52-55) 5327-7756
- 특징: 멕시코 최고의 프랑스 식당 가운데 하나이다. 가격은 비싼 편이다.

○ MOUSTACHE

- 주소: RIO SENA NO.88, COL. CUAUHEMOC
- 전화:(52-55) 5533-3390
- 특징: 정통 프랑스 고급 식당으로 정장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며 식사 중 상의를 벗을 수 없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식당 가운데 하나이다.

○ Champs Elysees

- 주소: Paseo de la Reforma 316 (Amberes y Estocolmo), Juarez
- 전화: (52-55) 5525-7259, 5514-0450
- 특징: 멕시코 유명 프랑스 식당 중 하나이며 가격은 비싼 편이다.

□ 이탈리아 식당

- ALFREDO DI ROMA
 - 주소: CAMPOS ELISEOS NO. 218, COL. POLANCO
 - (* HOTEL PRESIDENTE INTERCONTINENTAL 2층에 위치함)
 - 전화:(52-55) 5327-7766
 - 특징: 비교적 고급스런 분위기이며, 음식맛이 깔끔한 편이며 한국사람들이 손님접대를 위해 많이 찾는 식당이다.
- L'Osteria de Becco
 - 주소: Goldsmith 103, Col. Polanco
 - 전화:(52-55) 5282-1059
 - 특징: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식당으로 와인리스트의 100%가 이탈리아산임.

□ 스페인 식당

- TORRE DE CASTILLA -
 - 주소: Escopo No. 31, Esq. Mazaryk, Col. Polanco
 - Tel: (52-55) 5282-3540
 - 특징: 비교적 정통 스페인 음식 맛에 가까운 식당으로 본점은 Hotel Camino Real에 있다. 돼지 뒷다리 오븐구이 요리가 대표적이다. 인테리어가 독특하다.
- Denominacion de Origen
 - 주소: Hegel 406, Col. Polanco
 - Tel: (52-55) 5255-0912
 - 특징: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식당으로 Jamon de Bellota가 매우 훌륭하며 고기류 역시 훌륭하다는 평이다.

□ 기타

- RESTAURANTE DE LAGO DEL CHAPULTEPEC
 - 주소: LAGO MAYOR 2DA SECCION, BOSQUE DEL CHAPULTEPEC
 - 전화: (52-55) 5515-9588
 - 특색: 멕시코 시티의 가장 큰 공원인 차뜰테펙(CHAPULTEPEC) 공원의 호수 옆에 있으며, 저녁식사 시간의 전망이 좋아 분위기가 좋은 식당으로 유명하다.
- RINCON ARGENTINO
 - 주소: MASARIK NO.177, COL. POLANCO
 - 전화: (52-55) 5254-8775
 - 특징: 아르헨티나 고기 요리 전문 식당으로 독특한 실내 인테리어 및 고기 맛과 서비스가 훌륭하다.

- CAMBALACHE
 - 주소: COL. POLANCO
 - 전화: (52-55) 5280-2080
 - 특징: 아르헨티나 고기 요리 전문 식당으로 상기 RINCON ARGENTINO와 비슷한 느낌이다.

- Fisher's
 - 주소: Av. Dovali Jaime 75-L1, Santa Fe
 - 전화: 5292-4884
 - 특징: 해산물 전문점으로 점심식사 시간에만 영업.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가격은 인당 30달러~40달러 수준이다.

4) 통역

멕시코 출장 시 통역원이 필요한 경우 멕시코시티 무역관 홈페이지 (www.kotra.or.kr/mexico)에서 통역원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무역관에 전화 (52-55) 5514 -3173 하여 문의할 수 있다. 통역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일일(8시간 기준) USD 170.00
- 초과 근무 시 USD 220.00
- 반일 (5시간 기준) USD 120.00

9. 출장 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시내교통편, 대중교통 및 택시, 렌트

1) 시내대중 교통

○ 버스

시내 버스도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시내 곳곳으로 연결된다. 시내 버스 유형은 대형 버스(RTP, Red de Transportes de Pasajeros), 소형버스(Microbus), 전기버스(Trolebus) 등이 있다. 기본 요금은 RTP버스와 전기버스의 경우 거리에 상관 없이 2페소이며, 소형 버스는 0~5km 2.5페소, 5~12km 3.5페소, 12km 이상 4페소를 징수한다.

○ 지하철

멕시코 내의 지하철 노선은 총 11개선으로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다. 현재 지하철 12호선 건설계획이 논의중이다. 지하철 요금은 거리 구분 없이 5페소이다. 일반적으로 시내 버스나 지하철은 관광객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 메트로 버스

멕시코시티 남북을 가로지르는 인수르헨테스(Insurgentes)에 운행하는 버스로 요금은 6페소이다.

2) 국내 교통

○ 항공

멕시코는 국토 면적이 넓고 철로, 도로 등의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아 항공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으며 몬테레이, 티후아나 등 지방을 여행할 때는 보통 항공편을 이용한다. 그러나 비행기 요금이 상당히 비싼 편이어서 멕시코시티에서 미국접경 지대인 티후아나까지의 국내 왕복 항공료가 멕시코시에서 LA까지의 국제선 요금보다 더 비싸다.

○ 도로

현재 계속 확장 중에 있으며 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고 속도로 통행료가 대단히 비싸 멕시코시티에서 430Km거리에 있는 휴양지 아카풀코(ACAPULCO)까지의 왕복 통행료가 100달러를 상회한다. 연방통신교통부는 2010년에 총 14억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54곳을 양허(concesion) 방식에 의해 건설하고, 65개 고속도로 현대화, 15개 지방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교통통신부 차관은 2010년 예산은 작년보다 8.7% 증액된 40억 달러가 책정되어 있다고 밝힌바 있다. 2010년 5월 현재 진행중인 도로 공사는 48개 (건설중 21개, 입찰진행중 5개, 양허 및 추가 공사 중 18개 등)로서 총 연장 2,500km의 도로 개설에 민관자금 70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다.

○ 지방 버스

지방 버스는 다양한 종류가 운행되고 있으며, 최고급은 우리나라 우등 버스 이상의 수준으로 편리한데다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어서 많은 사람이 지방 여행 시 이용하고 있다.

○ 철도

멕시코시티와 각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부설되어 있으나 기차 성능이 노후하고 서비스가 나쁜 편이어서 일반인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상 현재 치와와 주 CHEPE, 메리다 주 관광 철도, 데킬라 지역 TEQUILA EXPRESS 등 3개 선의 관광선만 운행된다고 볼 수 있다. . 현재 극심한 도로교통 체증으로 평균 3-4시간이 소요되는 멕시코시티-께레타로간 이동시간을 2시간대로 단축하고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이기 위해 멕시코시티-께레타로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4년 공사 시작, 2017년 완공 계획이다

3) 택시

일반 택시는 두 가지 차량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본 요금(Banderazo)이 6.30페소(약 0.48달러, 적용 환율 US\$1=MX\$13)인 Volkswagen 구형(일명 딱정벌레/Two Door)이 있으며, Four Door 택시는 기본 요금이 6.80페소(약 0.52 달러)이다. 야간 할증은 20%가 더 붙는다.

일반 택시 요금은 시간, 거리 병산제(250M 또는 45초당 0.9페소)로 미터 요금대로 지불하면 되나 간혹 미터기가 고장났거나 고장인 것으로 조작해 놓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으니 택시를 타자마자 확인이 필요하다. 콜택시는 미터기 없이 택시 내에 구비된 거리 요금 환산표에 따라 요금을 받으나 승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시내 곳곳에 SITIO(시띠오)라 불리는 CALL 대기소가 있어 전화로 택시를 부르면 된다. 멕시코는 시내 택시가 위험하므로 콜택시 이용이 바람직하다.

멕시코시티 내 어디에서나 24시간 운행되는 콜택시 전화 번호는 5660-1122(스페인어만 통용)이다.

공항 택시는 노란색으로 비행기가 그려져 있는데 입국장에 있는 택시 티켓 판매소에서 택시 티켓을 구입하여 이용해야 한다. 이때 멕시코 시내를 여러 군의 구역으로 나누어놓고 구역에 따라 요금을 책정,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공항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일반 택시를 이용할 경우 터무니없는 요금을 강요받거나, 강도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된 공항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공항 택시 중에서 Suburban(집안이 있는 대형차종)을 이용한 대형택시는 요금이 30% 가량 더 비싸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광 택시는 주로 호텔 앞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데 행선지와 시간 별로 요금을 받고 있으며 미터기가 없으므로 사전에 요금을 정해야 한다. 시간 당으로 계약할 경우 통상 시간당 20달러 정도 받고 있으며, 대형차가 많아 관광이나 비즈니스, 공항 왕래에 주로 이용된다.

요약하면 일반 택시 요금의 두 배가 콜택시(Sitio), 콜택시 요금의 두 배가 관광 택시라 할 수 있다.

4) 차량 렌트

차량 렌트는 업체, 희망하는 차량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다. Mazda 2010 SUV의 기준, 평균 가격은 1시간 당 220페소(약17달러)이다. 차량 렌트는 멕시코 시티 시내를 비롯하여, 공항 등 다양한 업체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어서 편리하게 렌트를 할 수 있다.

나. 여행 경보 단계 및 주의 사항

1) 1단계 - 여행유의: 신변안전유의

멕시코시티, 바하칼리포니아주, 소노라주, 코아울리아 주, 시날로아주, 미초아칸주, 두랑고 주, 게레로 주, 베라크루즈 주

2) 2단계 - 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 유의 /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치와와주, 누에보 레온 주, 타마울리파스 주

3) 출장자 안전 수칙

멕시코를 방문하는 출장객은 다음과 같은 출장자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 일반 시내택시는 될 수 있는 대로 타지 말 것
-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반드시 공항택시 티켓을 구입, 공항택시 이용
- 호텔에서는 호텔 택시를 이용하고, 다른 장소에는 콜택시(Sitio/씨띠오)를 요청
- 각 지역마다 콜택시가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나 부를 수 있는 전화 번호는 5660-1122임.

- 호텔에서 상담 또는 관광에 나설 경우 귀중품은 프런트나 금고에 보관하고 최소한의 현금만 소지하고 약간의 비상금을 별도 소지하고 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야간 중 시내 배회 절대 금지

- 안전지대 호텔 투숙
- 시내 골목길 근처 호텔 투숙 자제, 안전지대 대로변 호텔 투숙

- 거리에서는 절대로 지갑을 내보이지 말 것

다. 위험지역

외교부는 2013년 9월 21일 멕시코 여행 경보 단계를 일부 여행유의, 여행자제로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최근에는 미초아칸 주에서는 주민들이 마약상들의 횡포에 못이겨 자체적으로 무장하여 자경단을 조직하여 이들과 무력적으로 충돌하여 치안 상태가 안좋아졌다. 이 외에 미국과의 국경 지역 역시 살인, 도난, 마약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타마울리파스, 게레로, 미초아칸, 누에보 레온, 멕시코 주, 멕시코시티 중심지 등에서도 최근 범죄율이 급증하여,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출장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멕시코 시티의 소칼로(ZOCALO) 지역은 밤에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밤에는 소 칼로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게 좋다. 또한, 마리아치로 유명한 가리발디 광장도 치안 부재 지역이므로 동 지역 방문 시 반드시 그룹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 외에 멕시코시티 내 재래시장인 TEPITO 시장은 밀수품, 도난물품을 판매하는 때도 많고, 치안이 매우 불안한 지역이므로 단기 여행자들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 팁제도

식후 팁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계산서 금액의 약10% 정도면 무난하다. 그러나 일부 고급식당에서는 저녁 식사 시의 경우 금액의 15%까지 팁을 줄 때도 있다. 한편, 일부 식당에서는 팁이 포함되어 계산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액을 주의해서 볼 필요 있다. 호텔 방 청소 및 개별 심부름 등은 1달러 정도 지급하며, 포터에는 큰 짐의 경우 개당 1달러~1.5달러(고급호텔의 경우)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VALET PARKING의 경우 주차요금 외에 팁으로 10페소(약 1달러)를 잔돈으로 지급한다.

마. 기타

1) 관공서 관행

최근까지도 멕시코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관공서의 부패문제라 할 수 있다. 스페인어로 속칭 CORBATA(꼬르바따, 넥타이)라고 하여 넥타이만 매고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신문만 보고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VICENTE FOX 정권을 거쳐 FELIPE CALDERON 정권에 들어서면서 과감한 부정부패 척결 운동으로 이러한 사례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민원 관련하여 관공서에 가면 공무원들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 대비한 신고 전화번호가 벽에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관료주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일일이 정식레터를 요구한다거나 간단한 사안 처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소모적인 일 처리 관행이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멕시코 공무원들과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간단한 업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

2) 공휴일

2014년도의 법정공휴일과 선택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선택 공휴일 일정표

월	일	공휴일명	비고
1	1	신년 공휴일(Año Nuevo)	
2	3	제헌절 (Aniversario de la Constitución Mexicana)	원래 2월 5일이나 2월 첫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여 휴무
3	17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Natalicio de Benito Juarez)	원래 3월 21일이나 3월 세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여 휴무
4	17~18	부활절 휴일(Semana Santa)	매년 3~4월 중 목, 금요일이나 자세한 날짜는 변동
5	1	노동절(Día del Trabajo)	
9	16	독립기념일 (Aniversario de la Independencia 1810)	
11	17	혁명기념일 (Aniversario de la Revolución Mexicana)	원래 11월 20일이나 11월 세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여 휴무
12	25	성탄절(Navidad)	

상기 법정공휴일은 연방노동법(Ley Federal del Trabajo) 74조에 의거한 의무 공휴일이다. 제헌절, 베니토후아레스 탄생일, 혁명기념일 등 3개 공휴일은 주중에 위치할 경우 해당 주의 월요일로 앞당겨 휴무한다. 부활절 주간은 법정공휴일은 아니나 관행적으로 모든 관공서 및 기업이 휴무하고 있으므로 법정공휴일 목록에 포함시켰다.

선택 공휴일 일정표

월	일	공휴일명
1	6	동박박사의 날(Día de Reyes)
5	5	대불전승기념일(Batalla de Puebla 1862)
5	10	어머니의 날(Día de las Madres)
10	12	인종의 날(Día de la Raza)
11	1	만성절(Todos los Santos)

월	일	공휴일명
11	2	망자의 날(Día de los Fieles Difuntos)
12	12	성모출현 기념일(Día de Nuestra Señora de Guadalupe)
12	24	성탄절 이브(Noche Buena)
12	31	연말(Visperas del Año Nuevo)

상기 선택공휴일은 많은 회사가 반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은행이나 관공서는 정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은행이나 관공서는 특정한 선택공휴일에 반일 근무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연말(12월 20일경~1월 10일경)에는 대부분의 관공서와 기업들이 2~3주의 연말 휴가를 갖기 때문에 동 기간 대부분의 업무가 마비된다. 부활절 휴가시작 전날도 반일 근무가 관행이다.

3) 근무 시간

관공서의 근무 시간은 보통 09:00~14:00 시까지 오전 근무, 14:00~16:00까지 중식시간, 16:00~18:00까지 오후 근무로 되어 있는데 중식시간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우체국이나 세관, 연방전력공사 등 일부 관청은 오전 중에만 대민 업무를 보는 곳이 많고 일부 기관은 오전 8시나 8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한편,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들은 1시 또는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중식시간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은 금요일 오후는 중식시간 없이 3시까지 근무한 다음 퇴근해 주말 파티문화를 즐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일을 오후 2시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일반 직장의 근무 시간은 09:00부터 14:00시까지 오전 근무를 하고, 16:00부터 18:00까지 오후 근무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중식시간은 보통 14:00~16:00인 점에 주의해야 하며, 회사에 따라서 중식시간이 1~2시간으로 차이가 있다. 은행은 09:00에 문을 열며 중식 휴무 없이 16:00까지 업무를 보는데, HSBC 은행은 유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9:00 시까지 대민업무를 보며, 일부 특정부서만 16:00까지 근무한다. 토요일 휴무제로 토요일에는 대부분 근무를 하지 않으나, HSBC 은행만 1시까지 오전 영업을 한다.

끝으로 연말에는 12월 중순부터 1월 첫째 주까지 공무원은 물론 대부분 업체들 특히, 책임 자급은 연말휴가 기간이므로 출장 시 이점에 참고해야 한다.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정부단체 및 기관

- 기관명: Secretaria de Funcion Publica(공공 정책부/ 감사원 기능 편입)
 - 주소: Insurgentes Sur No.1735, Col. Guadalupe Inn, CP.01020, Mexico, D.F.
 - TEL : (52-55)1454-3000
 - <http://www.funcionpublica.gob.mx/index1.html>
 - * 국제 입찰정보 WEB SITE: <http://compranet.gob.mx>

- 기관명: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SHCP / 재무부)
 - 주소: Palacio Nacional, Patio Central, Piso 3, Oficina 2010, CP. 06066, Mexico, D.F.
 - TEL: (52-55)9158-1100
 - WEB SITE: <http://www.shcp.gob.mx>

- 기관명: Secretaria de Turismo(SECTUR / 관광부)
 - 주소: Presidente Mazarik 172, Col. Polanco, CP. 11587, Mexico, D.F.
 - TEL: (52-55)3003-1600
 - WEB SITE: <http://www.sectur.gob.mx/>

- 기관명: 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SRE / 외무부)
 - 주소: Av. Ricardo Flores Magon No.1, TlaTel: olco, CP.06905, Mexico, D.F.
 - TEL: (52-55)5782-4144 /255-0988
 - FAX: (52-55)5782-4109 /327-3003
 - WEB SITE: <http://www.sre.gob.mx>

- 기관명: Secretaria de Economia(SE / 경제부)
 - 주소: Alfonso Reyes No.30 Piso 17, Col. Condesa, CP.06140, Mexico, D.F.
 - TEL: (52-55)5729-9100
 - FAX: (52-55)5729-9313
 - WEB SITE: <http://www.economia.gob.mx>

- 기관명: Banco de Mexico (BANXICO/ 중앙은행)
 - 주소: 5 de Mayo No.2, Col. Centro, CP.06059, Mexico, D.F.
 - TEL: (52-55)5237-2000
 - FAX: (52-55)5237-2380 /237-2370.
 - WEB SITE: <http://banxico.org.mx>

- 기관명: ProMexico(멕시코무역투자진흥공사)
- 주소: Camino a Santa Teresa 1679, Col. Jardines del Pedregal, CP.01900, Mexico, D.F.
- TEL: (52-55)5449-9000
- FAX: (52-55)2587-7855
- WEB SITE: <http://www.promexico.gob.mx>

나. 언론 단체

- 기관명: Reforma 신문
- 주소: Av. Coyoacan 40, Col. Santa Cruz Ayoyac, Del. Benito Juarez 03310, Mexico, D.F.
- TEL: (52-55)5628-7100
- WEB SITE: <http://www.reforma.com>
- 기관명: El Economista 신문
- 주소: Av. Coyoacan 515 ,Del Valle, Benito Juarez, C.P 03100, Mexico, D.F.
- TEL: (52-55)5326-5454
- WEB SITE: <http://www.economista.com.mx>
- 기관명: El Financiero 신문
- 주소: Eugenia No. 112, Col. Del Valle, Del. Benito Juárez, C.P. 03100, México, D.F.
- TEL: (52-81)8221-6150
- WEB SITE: <http://www.elfinanciero.com.mx>

다. 한국 기관 및 한인 단체

-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LOPE DIAZ DE ARMENDARIZ 110, LOMAS DE VIRREYES C.P11000, MEXICO, D.F., MEXICO
- TEL: (52-55) 5202-9866
- 주요인사: 대사 홍성화, 상무관 장수철, 영사 이명훈
- KOTRA 중남미 총괄센터 겸 멕시코시티 무역관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 265 PISO 2 EDIF. AXTEL, COL. CUAUHTEMOC, CP 06500, MEXICO, D.F.
- TEL: (52-55) 5514-3173, FAX: (52-55) 5514-3170
- 무역관 직원 현황(총 5명)
 - 중미지역 총괄무역관장: 김건영 본부장
 - 멕시코시티 무역관 관원 - 한연희 부무역관장, 이주희 차장, 김동천 과장, 성준화 과장
- * 증권거래소(BOLSA DE VALORES 또는 CENTRO BURSATIL이라 함) 바로 옆 건물이다.

- 한국수출입은행
 - 주소: Hamburgo 213 Torre Summa piso 12 Col. Col. JUAREZ, C.P.06600, Mexico D.F.
 - TEL: (52-55) 5511-8445, FAX: (52-55) 5511-8472
 - 소장: 이기철 소장
- 멕시코 한인회
 - TEL: (52-55) 5533-0456
 - 주소: Liverpool 17, Col. Juarez
 - 회장: 손정옥
- 멕시코시티 한글학교
 - TEL: (52-155) 1333-4081
 - 주소: Liverpool 17, Col. Juarez
 - 교장 : 장혜란 선생님
- 과달라하라 한인회
 - 회장: 류호근
 - 주소: Av. Americas 889, Int. 108, Col. Ladron de Guevara, Guadalajara
 - TEL: (52-33) 3614-1027

라. 비즈니스 관련 현지 기관

- CONSEJO MEXICANO DE COMERCIO EXTERIO(COMCE / 폼세 / 대외무역협회)
 - 주소: LANCASTER NO 15, COL.JUAREZ, PISO 2. C.P.06600 MEXICO D.F.
 - TEL: (52-55) 5231-7112 / 3 / FAX: (52-55) 5514-4978
 - 사장: ARTURO ELIZAGA MARTINEZ
 - 성격: CEMAI (쎄마이/대외경제협력위원회) 후신, 한-멕 경제협력 위원회 사무국 운영. 대한상공회의소를 카운터 파트너로 하여 매년 양국경제협력 위원회 개최.
- CONFEDERACION PATRONONAL DE LA REPUBLICA MEXICANA(COPARMEX/ 꼬빠르 멕스 / 멕시코 경영자 총회)
 - 주소: INSURGENTES SUR. 950 PISO 1, COL. DEL VALLE, C.P. 03100, MEXICO,D.F.
 - TEL: (52-55) 5682-5547 / FAX: (52-55) 5687-2821 / 5536-1698
 - 사장: GERARDO GUTIERREZ CANDIANI

-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LA TRANSFORMACION (CANACINTRA / 카나쥘트라 / 공업회의소)
 - 주소: AV. SAN ANTONIO NO. 256 COL. AMPLIACION, NAPOLES, C.P.03849, MEXICO, D.F.
 - TEL: (52-55) 5563-3400 / 5482-3000 / FAX: (52-55) 5598-8044
 - 회장: SERGIO CERVANTEZ
 - 성격: 멕시코시티 공업회의소
- CAMARA NACIONAL DE COMERCIO DE LA CIUDAD DE MEXICO (CANACO / 카나코 / 상업회의소)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42 PISO 5, COL. CENTRO, C.P.06048 MEXICO D.F.
 - TEL: (52-55) 5592-2677 / FAX: (52-55) 5705-4194
 - 회장: ARTURO MENDICUTI NARRO
 - 성격: 멕시코시티 상업회의소
- CAMARA DE LA INDUSTRIA DEL CALZADO DEL ESTADO DE JALISCO(할리스코 신발공업 협회)
 - 주소: PROLONGACION AV. ALCALDENO.1918, SECTOR HIDALGO C.P. 44270, GUADALAJARA, JAL. MEXICO
 - TEL: (52-33) 3824-6040 / 6615 / 9596 / FAX: (52-33) 3853-4983
 - 회장: MR. JUAN ALONSO NINO COTA
 - 성격: 멕시코 신발업체의 80% 이상이 집중되어있는 JALISCO주 신발협회
-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HIERRO Y DEL ACERO (CANACERO / 카나세로 / 철강공업 협회)
 - 주소: AMORES NO.338 COL. DEL VALLE DE LEGS. BENITO JUAREZ C.P. 03100, MEXICO D.F.
 - TEL: (52-55) 5543-4443 / FAX: (52-55) 5687-0517
 - 회장: ING. RAUL M. GUTIERREZ
 - 성격: 멕시코 철강협회
- ASOCIACION NACIONAL DE INDUSTRIA DEL PLASTICO (ANIPAC / 플라스틱 공업협회)
 - 주소: AV. PARQUE CHAPULTEPEC 66-301, COL. EL PARQUE, C.P. 53390, NAUCALPAN EDO. DE MEXICO, MEXICO
 - TEL: (52-55) 5576-5547/ 358 1488 / FAX : (52-55) 5576 5548
 - 회장: ING. EDUARDO MARTINEZ HERNANDEZ
 - 성격: 멕시코 플라스틱 산업 협회

-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VESTIDO (CNIV / 의류공업협회)
 - 주소: TOLSA NO.54, COL. CENTRO DELEG.CUAUHTEMOC C.P.06040,MEXICO D.F.
 - TEL: (52-55) 5588-7822,588-3934 / FAX: (52-55) 5578-6346
 - 회장: MARCOS CHEREM ENTEBI
 - 성격: 멕시코 의류협회

- ASOCIACION MEXICANA DE LA INDUSTRIA DE TECNOLOGIA DE INFORMACION / AMITI (IT협회)
 - 주소: PASEO DE LA REFORMA 295, PISO 6, COL.CUAUHTEMOC, MEXICO D.F.
 - TEL: (52-55) 5207-0409 / FAX: (52-55) 5207-6016
 - 회장: MR. JAVIER ALLARD TOBOADA / GENERAL DIRECTOR (상근부회장)
 - IT협회 회장은 멕시코 HP 사장임. (MR. CARLOS GUZMAN)
 - 성격: 멕시코 최대의 IT협회로서 회원 사 160여 개 사로 구성되어 있음.

- CAMARA DE LA INDUSTRIA DE LA CONSTRUCCION (CNIC / 건설협회)
 - 주소: PERIFERICO SUR. NO.4839, COL. PARQUES DEL PEDREGAL C.P. 14010 ,MEXICO D.F.
 - TEL: (52-55) 5424-7400 / FAX: (52-55) 5424-7468
 - 회장: ING. JOSE EDUARDO CORREA ABREU
 - 성격: 멕시코 건설협회

- ASOCIACION MEXICANA DE LA INDUSTRIA AUTOMOTRIZ, A. C. (AMIA/ 아미아 /자동차 공업협회)
 - 주소: ENSENADA NO.90 COL. CONDESA, C.P.06100,MEXICO D.F.
 - TEL: (52-55) 5272-1144 / FAX: (52-55) 5272-7139
 - 회장: EDUARDO J. SOLIS SANCHEZ
 - 성격: 멕시코 자동차공업협회

- ASOCIACION NACIONAL DE IMPORTADORES Y EXPORTADORES DE LA REPUBLICA MEXICANA (ANIERM / 아니에름 / 수출입 협회)
 - 주소: MONTERREY NO.130 1ER PISO COL. ROMA, C.P.06700,MEXICO D.F.
 - TEL: (52-55) 5584-9668 / 5584-9522 / 5564-8618, FAX: (52-55) 5584-5317
 - 회장: LIC. FERNANDO TAMAZ MURGUIA
 - 성격: 멕시코 수출입 업자 협회

- ASOCIACION MEXICANA DE DISTRIBUIDORES DE MAQUINARIA, A.C. (AMDM/ 기계류 유통업체 협회)
 - 주소: FRANCISCO PETRARCA NO. 232, COL. CHAPULTEPEC MORALES (PONLANCO), C.P. 11570, MEXICO D.F.
 - TEL: (52-55) 5531-6976 / FAX: (52-55) 5531-6858
 - 회장: LIC. PEDRO FRIAS (전임, 현재 공석)
 - HOMEPAGE : www.amdm.org.mx
 - 성격: 멕시코 기계류 수입상 협회

-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TEXTIL (CANAINTEX /까나인텍스 /섬유 공업협회)
 - 주소: PLINIO 220 COL. POLANCO C.P.11510, MEXICO, D.F.
 - TEL: (52-55) 5280-8637 / FAX: (52-55) 5280-3973
 - 회장: LIC. NORA AMBIZ GARCIA
 - 성격: 멕시코 섬유산업협회

- CAMARA MINERA DE MEXICO (CAMIME / 까미메 / 광물협회)
 - 주소: SIERRA VERTIENTES 369, LOMAS DE CHAPULTEPEC, C.P.11000, MEXICO D.F.
 - TEL: (52-55) 5540-6788/9 / FAX: (52-55) 5540-6061
 - 회장: ING. MANUEL LUEVANOS SANCHEZ
 - 성격: 멕시코 광물협회

- CONFEDERACION DE CAMARAS NACIONALES DE COMERCIO(CONCANACO/공까나 꼬/상업협회 총 연합회)
 - 주소: BALDERAS 144 3er. PISO COL. CENTRO. C.P. 06079, MEXICO, D.F.
 - TEL: (52-55) 5722-9300 / FAX: (52-55) 5722-9300 (EXT. 9401)
 - 회장: ING. JORGE DAVILA FLORES
 - 성격: 멕시코 상업협회 총연합회로 상인 및 수입업자 이익 대변

- CONFEDERACION DE CAMARAS INDUSTRIALES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CONCAMIN / 공까민 / 공업협회 총연합회)
 - 주소: MANUEL MARIA CONTRERAS 133-PB COL. CUAUHTEMOC C.P. 06500 MEXICO, D.F.
 - TEL: (52-55) 5140-7800/-19 / FAX: (52-55) 5140-7831
 - 회장: ING. SALOMON PRESBURGER SLOVIK
 - 성격: 멕시코 산별 조합 총연합회로 주로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 이익 대변

○ ASOCIACION NACIONAL DE TIENDAS DE AUTOSERVICIOSY DEPARTAMENTALES
(ANTAD / 안팓 / 백화점. 슈퍼마켓 협회)

- 주소: Horacio No. 1855, piso 6, Col. Polanco 1.a Sección, C.P. 11510, MEXICO,
D.F.

- TEL: (52-55) 5580 9900 / FAX: (52-55) 5395 2610/11

- 회장: MR. VICENTE YAÑEZ

- HOMEPAGE : www.antad.org.mx

- 성격: 슈퍼마켓 및 백화점 협회

○ CONSEJO COORDINADOR EMPRESARIAL AC. (CCE / 기업조정회의소)

- 주소: LANCASTER 15 COL.JUAREZ C.P. 06600, MEXICO D.F.

- TEL : (52-55) 5229-1100 / FAX : (52-55) 5229-1143

- 회장: DON MARIO SANCHEZ RUIZ

11. 무역관 안내

가. 업무안내

1) 시장개척사업

□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직원의 해외 출장 시 호텔예약, 통역 알선, 상담장 제공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현지 유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바이어리스트 제공 및 추가적인 Follow-up등을 통해 출장이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출장 지원 서비스

□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능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로서 거래선 발굴에서부터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지사화 업체의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 해외시장 조사대행

국내업체가 필요로 하는 현지 바이어리스트 및 각종 시장동향 정보를 대신 수집하여 제공하는 유료정보조사서비스 제공

- 관심바이어 발굴조사, (원자재) 공급업체 조사
- 각종 시장동향 (수요, 수출, 수입, 생산, 경쟁, 가격 동향, 수입관리제도 유통구조, 거래 시 유의사항 등)
- 기타 조사 (해외 투자환경, 국제입찰정보, 조달제도, 프로젝트 조사 등)

□ 개별 방한 바이어 및 구매상담회 참가 바이어 유치

한국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개별바이어의 방한을 유도하거나 구매단을 구성 방한토록 하여 국내업체와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바이어와 수출사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장개척단(무역사절단) 지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본사 해외시장개척단의 수출상담 주선, 통역 지원, 현지 방문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 수행

- 2014년 주요 무역사절단 내역
 - 경기 종합 무역 사절단 (3월, 종합)
 - 강원 의료장비 무역 사절단 (4월, 의료장비)
 - 충북 종합 무역 사절단 (5월, 종합)
 - 소방장비 무역 사절단 (6~7월, 소방장비)
 - 대구 종합 무역 사절단 (9월, 종합)
 - 금형(Mold) 무역 사절단 (10월, 금형)
 -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10월, 엔터테인먼트, 예정)
 - 환경 산업 무역 사절단 (11월, 환경산업)

□ 수출인콰이어리 발굴

바이어의 한국상품 수입 인콰이어리 등을 발굴하여 KOTRA 홈페이지 및 BuyKorea 사이트(www.buykorea.or.kr)등을 통해 국내 업체에 전파하고 Follow-up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거래선 발굴 지원

□ 수출현안조사

멕시코 및 중남미지역 무역환경의 변화에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제, 무역관련 제도, 절차 등 심층 조사, 연 100여건의 멕시코 무역통상정보 게재. KOTRA멕시코시티 무역관 홈페이지 및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에서 열람 가능.

□ 수출 유망상품 및 산업별 시장동향 정보 수집

특정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추이, 경쟁동향 및 시장분석, 마케팅 확대방안을 조사 분석하고 현지 소비자, 수입상들의 기호 변화, 최근 수입흐름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국내기업에 전파.

□ 멕시코 국가정보 제공

멕시코의 경제현황 및 산업, 제도, 투자 등 비즈니스 기초정보와 지역경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업데이트 실시. 글로벌 윈도우(www.globalwindow.org)에서 확인 가능.

2) 투자진출 지원

□ OPS 사업

해외 법인설립 대행, 유망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 관련 시장 정보 조사 업무 수행

□ 투자 정보

유망산업 투자 정보 및 업계 동향 정보를 파악하여 연간 10여건 게재.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홈페이지 및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에서 열람 가능.

□ 투자진출 상담 지원

현재 투자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KOTRA멕시코시티 무역관 홈페이지에서 상담 문의 가능

3) 전시

□ 박람회 참가 지원

수입상 발굴, 자사 상품소개 등 업체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관할지역에서 개최되는 유명국제박람회를 선정, 한국관으로 적극 참가하거나 기타 박람회의 개별참가업체 지원업무 수행.

□ 국제박람회 정보수집

관내 지역에서 개최되는 유망 전시회 정보를 수집하여 해마다 발간되는 'KOTRA 국제박람회디렉토리'에 반영.

나. 직원 안내

성명	직위	전화번호	업무
김건영	지역본부장	52-55-5514-3173	중남미본부 및 멕시코무역관 업무 총괄
한연희	부장	52-55-5514-3173 (ext 707)	무역관 사업 기획, 마케팅 및 프로젝트 사업 총괄
이주희	차장	52-55-5207-0141	중남미 본부 업무
김동천	과장	52-55-5514-3173	해외시장조사, 무역사절단, 취업지원업무
성준화	과장	52-55-5514-3173(ext706)	조사, 홍보, 총무/정산
김태운	현지	52-55)5514-3173	지사화
Miriam Villegas	현지	52-55) 5514-3172	마케팅
Jorge E. Sandoval	현지	52-55) 5514-3173	지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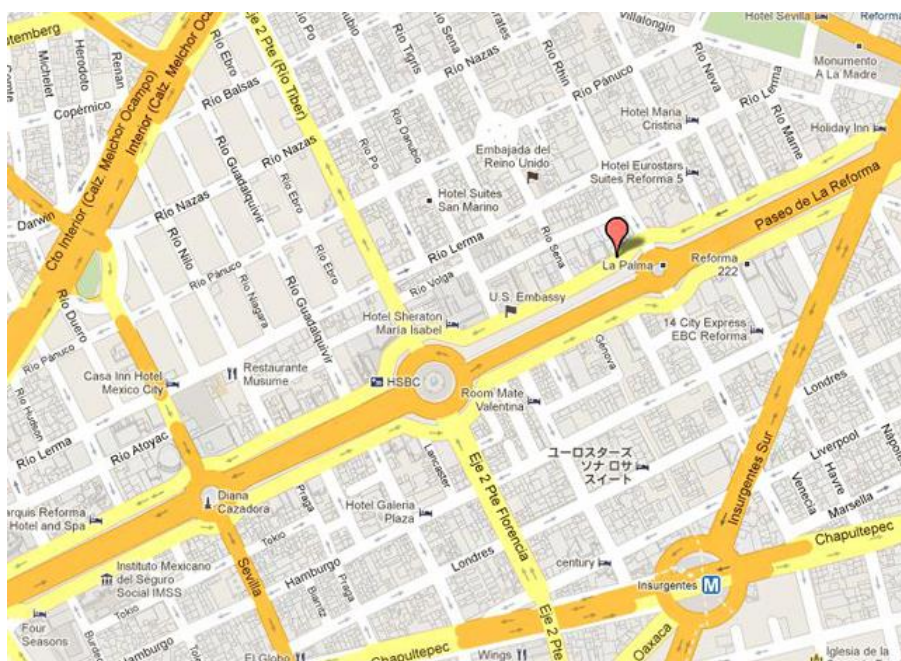
성명	직위	전화번호	업무
최성신	현지	52-55) 5514 3173	지사화
Oswaldo Quintero	현지	52-55-5514-3173	마케팅
손민지	현지	52-55-5514-3173	지사화
김웅빈	현지	52-55-5514-3173	지사화
안정진	현지	52-55-5514-3173	조사
Julian Guerrero	현지	52-55-5514-3173	조사
서상호	현지	52-55-5514-3173	마케팅
박혜미	인턴	52-55-5514-3173	마케팅업무 보조
이민진	인턴	52-55-5514-3173	조사업무 보조 및 조사대행 보조

다. 위치안내

1) 무역관 약도

우리 무역관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시내 중심을 가로지르는 Reforma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현지에서 유명한 Zona Rosa (한국의 명동과 비슷한 지역) 건너편에 위치하며, 독립기념탑인 Angel de la Independencia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다. 무역관이 소재한 건물은 멕시코 증권 거래소 (Bolsa de Valores, 대형 지구본 모양의 건물) 바로 옆의 Reforma 265라 불리는 Axtel빌딩으로, 우리 무역관은 동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다.

무역관 약도



2) 찾아오는 법

국제공항에서 무역관으로 방문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멕시코 국제공항 청사 입국장 (E홀)을 나오자마자 E홀의 왼쪽 끝에 위치해 있는 공항 택시 쿠폰 판매소 (Taquilla de Taxi: 따끼야 데 딱시)로 이동하여 쿠폰을 구입, 공항 건물 밖의 택시 스탠드에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택시를 이용하여 무역관에 도착할 수 있다. 멕시코 국제 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대략 20분선이며, 공항 택시는 등록된 택시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3) 무역관 연락처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 265 piso 2, Col. Cuauhtemoc C.P 06500 Mexico, D.F
- 전화: (52-55) 5514-3172~5
- 팩스: (52-55) 5514-3170
- 이메일: mexico@kotra.or.kr